



■ 연구보고서 2013-31-14

##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염주희·황남희·김정석·이금룡·오신희

**【책임연구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공저)

**【공동연구진】**

염주희 (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발행일 2013년  
저자 정경희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가격 9,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77-2 93330

## 발간사 <<

최근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년기 진입을 앞둔 예비노인으로서의 중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촉발되었다. 이는 그 이전까지 현 노년층을 중심으로만 정책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실천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고령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하는 현세대 노인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적절한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현재 및 미래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령화 관련 정책적 관심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점검과 현세대 노인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비노인으로서의 중년층에 대한 관심은 정책대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노인이 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정책적 관심의 전면에서 떠오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베이비 부머가 50대에 진입함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이들 중고령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맞춤형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년과 노년층의 연령대별 및 연령군내의 다양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맞춤형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해가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적 개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해보고, 제한된 제원으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을 시도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중·노년기 생활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한 맞춤형 노인복지실현과 고령화에 대응한 중장기 대응전략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염주희 부연구위원(전), 황남희 부연구위원, 오신휘 전문연구원과 원외의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토 해주신 본 원의 오영희 연구위원과 이윤경 부연구위원, 소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한경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사례 확보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연구참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론</b> .....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b>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b> .....	17
제1절 주요 개념 고찰 .....	17
제2절 중노년층의 삶의 다양성 .....	21
제3절 삶의 질의 계량화 .....	22
제4절 시사점 .....	26
<b>제3장 중노년층 삶의 질: 양적 접근</b> .....	29
제1절 중노년층 삶의 질 현황 .....	29
제2절 중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	54
제3절 중노년층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	69
<b>제4장 중노년층 삶의 질: 질적 접근</b> .....	91
제1절 사례연구 개요 .....	91
제2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노년층의 삶의 질 .....	93
제3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	118
제4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노년층의 일상생활 .....	129

---

<b>제5장 결론</b> .....	13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37
제2절 정책적 함의 .....	140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50
<b>참고문헌</b> .....	153
<b>부 록</b> .....	157
부록 1. 부표 .....	158
부록 2. 사례별 제특성 .....	195
부록 3. 사례연구 관련 자료(양식) .....	326

## 표 목차

〈표 3- 1〉 삶의 질의 제차원 설정 및 지표 선정 .....	31
〈표 3- 2〉 삶의 질의 제차원별 개별지표 .....	32
〈표 3- 3〉 개별지표의 분포 및 상대적 비중 .....	36
〈표 3- 4〉 연령군별 항목별 점수 .....	47
〈표 3- 5〉 연령별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	49
〈표 3- 6〉 영역별 점수 분포 유형 .....	56
〈표 3- 7〉 1단계 유형화 결과 .....	59
〈표 3- 8〉 연령군별 유형분포 .....	62
〈표 3- 9〉 연령군별 유형분포 .....	64
〈표 3-10〉 연령군별유형별 제특성 .....	67
〈표 3-11〉 연령대별 분포 .....	70
〈표 3-12〉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74
〈표 3-13〉 요일과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76
〈표 3-14〉 성과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78
〈표 3-15〉 거주지와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80
〈표 3-16〉 경제활동참여와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82
〈표 3-17〉 가구원수와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85
〈표 4- 1〉 사례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 .....	92
〈표 5- 1〉 중노년층의 삶의 질 점수 .....	143
〈표 5- 2〉 중노년층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	143
〈표 5- 3〉 중노년층의 유형 분포 .....	144
〈표 5- 4〉 중노년층 정책적 관심집단의 종합점수와 유형의 구성 .....	144

## 부표 목차

〈부표 1〉 영역별 삶의 질 지표체계 선정과 지수화 과정 .....	158
〈부표 2〉 50대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위별 제특성 .....	171
〈부표 3〉 60대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위별 제특성 .....	172
〈부표 4〉 70대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위별 제특성 .....	173
〈부표 5〉 80대 이상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위별 제특성 .....	174
〈부표 6〉 50대의 세부유형별 제특성 .....	175
〈부표 7〉 60대의 세부유형별 제특성 .....	176
〈부표 8〉 70대의 세부유형별 제특성 .....	177
〈부표 9〉 80대 이상의 세부유형별 제특성 .....	178
〈부표 10〉 연령군·성별·경제활동참여여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79
〈부표 11〉 50대 성별 및 지역에 따른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80
〈부표 12〉 60대 성별 및 지역에 따른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81
〈부표 13〉 70대 성별 및 지역에 따른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82
〈부표 14〉 50대 남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83
〈부표 15〉 50대 여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85
〈부표 16〉 60대 남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87
〈부표 17〉 60대 여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89
〈부표 18〉 70대 남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91
〈부표 19〉 70대 여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	193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	13
[그림 3-1] 중노년층 삶의 질 지표체계와 유형화 작업 진행도 .....	30
[그림 3-2]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도 .....	48
[그림 3-3] 연령군별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	50
[그림 3-4] 연령군별 영역별 삶의 질 구성 .....	52
[그림 3-5] 연령군별 영역별 삶의 질 점수 .....	54
[그림 3-6] 중노년층 유형화 과정 .....	60
[그림 3-7] 연령군별유형별 분포 .....	62



##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and Older Persons**

With the ageing of baby boomers, social concerns are increasing on the middle-ag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olicy concerns on older persons, these newly growing concerns call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middle-aged Koreans, who are going down the same path of ageing that older Koreans took.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empirical base for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and older Koreans and to bring out efficient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eing. To that end, this study analyzes the third wave of Korea Longitudinal Survey on Aging (KLosa) and Time-Use Survey 2009. In addition to these quantitative approaches, qualitative approaches are taken such as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provides an analysis of KLosa. Based on 16 indicators in 4 areas, quality-of-life scores are calculated for each area. Also, this study categorizes middle-aged and older persons into 5 types according to scores measured on economic condition, health status, and social activities. The second part presents the main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ime-Use Survey. The third discusses the

## 2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main themes and findings from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of a total of 20 persons. Based on the findings, the last part makes suggestions for policy directions and priority-setting for the different age groups concerned.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적 개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해보고, 제한된 제원으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을 시도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 자료(50세 이상 7,628명)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고 유형화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계청에서 4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 자료(2009년도)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질적 접근을 통하여 양적 접근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영역간의 상호관계와 주관적인 측면을 보완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II. 주요 연구결과

### 1. 중년층에 비하여 매우 낮은 노년층의 삶의 질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삶의 질이 하위 20%에 속하는 규모가 50대는 5.3%에 불과하지만 60대는 13.0%, 70대 32.0%, 80대 이상 54.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 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경제, 건강, 사회참여에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유형5) 규모도 각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각각 11.1%, 28.3%, 53.4%, 72.3%이다.

### 2. 영역별 삶의 질 저하 궤적의 차이

영역별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시점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족사회관계』는 특히 80대 이상에서 그 수준이 낮은 반면 『경제상태』 영역의 삶의 질은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약 10점 정도의 매우 큰 차이를 보인 후, 다시 60대와 70대에 9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70대 이후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사회참여』의 경우는 50대와 60대의 차이가 10점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 후 60대와 70대, 70대와 80대 이상은 모두 7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상태』는 50대와 60대에서 삶의 질의 큰 저하가 발생한 후 본격적인 노년기인 70대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참여』는 50대에서 60대 사이에 급속한 삶의 질 감소가 발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질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강상태』 영역은 연령군별로 비슷한 속도로 삶의 질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삶의 질 영역 간의 상호 역동성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었던 4개 영역은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건강상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상태가 나쁘면 경제적 자원이 많아도 그들의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전체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가족사회관계와 사회참여는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여가문화활동과 연계망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거나 집단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는 혼자만의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노년층의 경제영역의 삶의 질은 그들의 직업력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비교적 경제적 호황기에 청장년기를 보낸 이들은 이들이 그 시기에 어떠한 직업을 가졌었는가에 따라 경제적 자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 4. 누적적인 생애경험의 영향

현재 한국사회의 중노년층은 그들이 생활해온 성장기와 청장년기의 누적적인 경험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의 차이가 발견된다. 결혼관계가 와해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그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남성의 생활은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삶의 질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급격하다. 한편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시기가 우리사회에서 경제발전과 물질적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세대이다. 그 결과 모든 연령군에서 낮은 사회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 III. 정책 제언

#### 1. 정책방향성 설정

현재의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

세대 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동시에 현재의 중년층이 현세대 노인과 같은 삶의 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삶의 질 구성 요소들 중에서 건강상태가 나머지 요인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역별 정책 중 건강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더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 역동성에 기반해 볼 때,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서비스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인 영역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나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정책적 개입의 우선 집단

제한된 재정을 고려해볼 때 모든 대상자에게 공적 개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삶의 질 종합수준이 낮은 대상을 정책개입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형5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중 특히 정책적 개입이 가장 시급한 유형5-4, 즉 소득, 건강, 사회참여 모두 하 수준인 대상자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세 번째로는 문제 영역별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관련 정책적 개입 필요한 대상자, 건강관련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무위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성화가 요구되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영역별로 그 수준이 저하되는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영역별 정책 방안

#### 가. 가족사회관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사회관계는 80대 이상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적인 다양성도 크다. 따라서 70대부터 가족사회관계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가족관계에 관한 중요성 제고 및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간의 대화법,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 퇴직 후 가정 내 역할 정립, 조부모로서의 역할상 등에 대한 고민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나. 경제상태

60대에 가구소득이 매우 낮아지므로, 노후소득관련 제도적 기반마련과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행태의 변화나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시급하며, 이러한 개인적 노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노후설계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유지에서 벗어나 주거비나 교통비나 균형잡힌 식단을 위한 경비 마련 등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 다. 건강상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상태에 비하여 건강행위의 실천 정도가 낮으므로 지속적인 건강행위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건강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검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80대 이상의 노년층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낙상'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적절한 투약관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 라. 사회참여

사회참여활동의 내용별 변화추이를 반영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의 경우 60대를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로서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은 특히 60대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가활동 중 여행의 경우 특히 경험률이 낮은 80대 이상을 위해서는 건강상의 변화를 반영한 여행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80대 이상의 사회문화여가활동에서 여행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단체활동이나 공연문화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반면 단체활동은 다른 사회참여활동에 비하여 신체적 노화에 따른 참여율의 저하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기 노년기까지도 단체활동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중노년층, 삶의 질, 다양성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년기 진입을 앞둔 예비노인으로서의 중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촉발되었다. 이는 그 이전까지 현 노년층을 중심으로만 정책적 대응책이 논의되고 실천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고령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하는 현세대 노인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적절한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현재 및 미래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령화 관련 정책적 관심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점검과 현세대 노인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비노인으로서의 중년층에 대한 관심은 정책대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노인이 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석재은 외, 2005; 오영희 외, 2005), 정책적 관심의 전면에 떠오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베이비 부머가 50대에 진입함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정경희 외, 2011)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이들 중노년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맞춤형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

련의 변화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년과 노년층의 연령대별 및 연령군내의 다양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맞춤형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적 개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해 보고, 제한된 재원으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을 시도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중노년기 생활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한 맞춤형 노인복지실현과 고령화에 대응한 중장기 대응전략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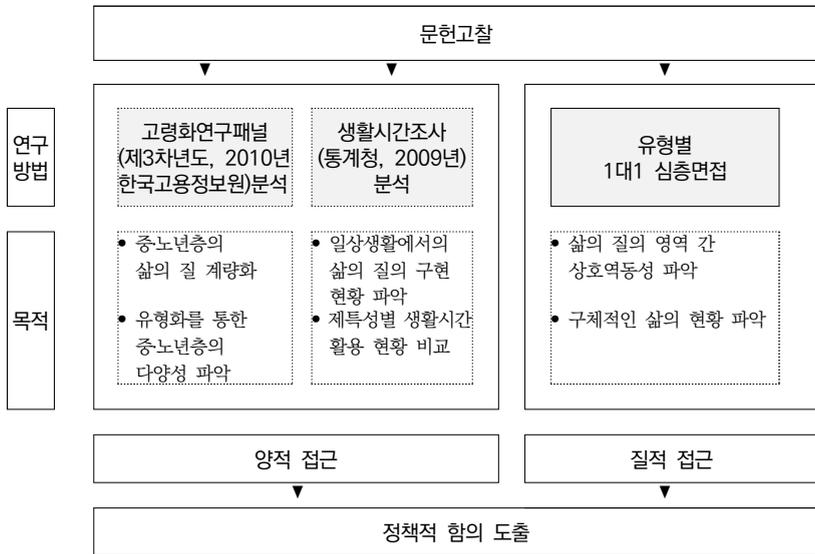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보완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중년층과 노년층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중년층과 노년층 내부의 다양성을 비교·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삶의 다각적인 측면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는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고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일 연령군내의 다양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연령군별 유형의 구성실태의 비교를 통하여 중년층과 전후기 노년층의 삶의 다양성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에 활용한 고령화연구패널은 2010년에 실시된 제3차 조사자료로 50세 이상 7,62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계청에서 4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노년층의 구체적인 행동(behavior)이라는 측면에서의 이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삶의 질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었다면 생활시간 분석은 좀 더 구체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활시간 분석에는 고령화연구패널 분석에 활용한 개념들을 적용하여 가능한 한 연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질적 접근을 통하여 양적 접근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영역간의 상호관계와 주관적인 측면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주요 개념 고찰

제2절 중노년층의 삶의 다양성

제3절 삶의 질의 계량화

제4절 시사점



# 2

## 이론적 논의와 <<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주요 개념 고찰

#### 1. 중노년층 삶의 주요 양상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가에 답하기 위해서는 중노년층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파악을 필요로 한다. 즉, 중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화에 따라 개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거나 이미 진입한 사회구성원의 주요 관심영역은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긴 여가시간과 역할상실, 수입 감소와 건강악화로 정리될 수 있다(최성재·장인협, 2010)<sup>1)</sup>.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의 어려움으로 고독, 무위, 빈곤과 질병으로 언급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에 다가가면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하겠다. 욕구는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의 괴리상태(Witkin, 1984)로, 생존, 자립, 안녕(well-being)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회, 조건과 대상의 결핍이나 부족상태이자, 인간의 만

1) 최성재·장인협(2010)은 이러한 직접적인 노인문제와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에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양상을 구분하고, 간접적인 노인문제로 노동력 인구 감소, 사회적 부담증가, 국가 재정 적자를 언급하고 있음.

2) 권중돈(2012)은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소득 및 경제적 안정의 욕구, 고용 및 경제활동 기회에 대한 욕구,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신체 및 정신건강의 유지, 자립적 일상 생활, 치료와 요양 등 건강에 대한 욕구,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지식, 교육 및 훈련 기회에 대한 욕구, 차별, 학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권보호에 대한 욕구, 우울 등 정신적 문제의 예방, 죽음에 대한 대처 등과 같은 정서안정의 욕구로 정리하고 있음.

족스러운 삶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욕구는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처해있는 상황이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서 괴리되어 있고, 그 상태의 회복과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때 사회적 욕구가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연령이나 계층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 어려워지는 긴 여가시간과 역할상실, 수입감소와 건강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중노년층의 공통된 과제인 노년기 진입에 따른 사회적 욕구 충족의 어려움을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삶의 질의 개념

Pioug(1929)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삶의 질의 개념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60년대에 미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삶의 양(Quantity of Lif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한준 외, 2012) 구체적으로는 GDP 등으로 대변되는 물질적인 삶의 조건만으로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은 개념적으로 다차원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질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삶의 질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는 못하다(윤병식 외, 1996; Diaz-Ponce and Cahill, 2013).

그 동안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논의들에서 도출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GDP 등 기존의 경제지표와는 달리 다양한 삶의 영역을 파악할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갖고 있다. 둘째, 삶의 질의 개념은 개념적인 모호성을 갖고 있다. 학자에 따라

서 나라에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상이하다. 특히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과 주관적인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셋째, 삶의 질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삶의 질의 조작적 정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넷째, 삶의 질은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질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삶의 질<sup>3)</sup>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논의에서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한준 외, 2011; Bunge, 1975; Diener and Suh, 1997; France, 2010). 첫 번째 논점은 삶의 질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삶은 개인의 삶인가 아니면 사회의 집합적 삶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삶의 질의 차이를 개개인간의 비교의 문제로 보는 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개인주의적 입장이며 서로 다른 사회의 격차로 파악하는 후자는 초월주의적 입장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논점은 삶의 질이 주체인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관찰자인 연구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외적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인가이다.

세 번째 논점은 삶의 질은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능력과 선택의 기회가 충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논점과 관련해서는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중심으로 한 접근과 주관적 안녕을 중요시 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경제학적 전통에 기초하여 있으며, 공리주의적

3) 삶의 질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접근은 종교적, 철학적 혹은 기타 가치관에 기초한 규범적 이상의 충족 여부로 보는 분별있는 행복(Prudential Happiness), 선호가 충족되고 있는가를 기반으로 한 쾌락주의적 행복(Hedonistic Happiness), 스스로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과 충족감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Happiness)이 있음.

입장에서의 자원중심의 생활수준 접근과 역량 접근(Capability)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느낌을 중요시하는 심리학적 전통에 기초하여 있다. 또한 전자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접근에, 후자는 개인적 웰빙을 강조하는 미국의 접근법으로 대변되고 있다. 사회정책을 안내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사회문제의 실태와 그 문제해결 노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네 번째 논점은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 사회, 문화마다 다른 개별화된 것인가 아니면 인간 공통의 삶의 질 판단 기준이 있는가이다. 물질적인 수준만으로는 삶의 수준을 적절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비중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대와 구분되는 노년기 삶의 양상을 고려하여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익기 외, 1997; 이가옥 외, 2000).

이러한 다양한 삶의 질의 개념을 둘러싼 논점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중노년층 개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는 초기단계의 연구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개개인이 느끼는 기쁨이나 보람과 같은 감정적인 측면이나 한국 중노년층의 주관적인 삶의 질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관심을 두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질적 접근에서 보완하려 노력할 것이다.

## 제2절 중노년층의 삶의 다양성

다양한 삶의 양상을 특정한 유형으로 구분하려는 연구는 이미 학문의 관심 영역이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인의 삶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유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유형화 작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유형화 작업이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다. 노년기에 진입한 노인을 대상으로 유형화 작업과 최근 사회적 관심이 제고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유형화 작업이 구분되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후준비라는 맥락에서 중노년층을 모두 포함하는 유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소정 외, 2011).

둘째, 유형화의 방법은 크게 연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개 기준에 기초한 유형화 작업과 통계적 분석을 통한 접근으로 구분되어 진다. 석재은 외(2005)의 연구는 200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건강과 소득이라는 기준을 활용하여 노인의 6개 집단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또한 정경희 외(2011)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성별 및 종사상 지위, 소득을 기준으로 교차빈도를 이용하여 삶을 유형화하였다.

한편, 정진경·김고은(2012)은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노년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상호지원형태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노인들의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경험적 자료로는 2008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김미혜 외(2005)는 성공적 노화라는 맥락에서 이상근접형, 배우자결핍형, 적당유지형, 성공적 노후요소결핍형의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유형화 방법으로는 군집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백학영(2010)과 최옥금(2011) 또한 소비지출이라는 맥락에서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각

각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 베이버부머가 사회적 관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예비노인으로서의 중년층을 노인복지라는 렌즈에 통합하여 논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년층과 노년층을 상이한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예비노인으로서 중년층과 노년층을 동일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유형화하고자 한다.

### 제3절 삶의 질의 계량화

#### 1. 삶의 질 측정관련 국외의 연구 동향

GNP만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60~1970년대에 걸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다각적인 사회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윤병식 외, 1996; Land, 1975).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어 구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목적은 삶의 질 수준에 대하여 점검(monitoring)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국제기구 단위, 개별국가 단위, 국가 내에서의 대상별 접근으로 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위가 다양하다. 국제기구단위에서의 접근을 대표하는 것이 OECD의 행복지표와 UNDP의 인간개발지수이다. 1970년대부터 사회지표 작업을 해온 OECD는 2011년 50주년을 맞아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환으로 How's Life Index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한 비교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sup>4)</sup>.

한편, UNDP는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을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인간 개발 지수는 최저치와 최고치가 설정되어 0~1점의 분포를 보이는 평균수명지수, 교육지수, GDP지수 3가지 지표의 평균으로 계산되고 있다.

개별국가<sup>4)</sup>의 경우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를 2002년부터 산출하고 있는데, 국민의 시점에서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생활개혁의 진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정 목적의 생활수준 측정형으로 9개의 생활영역을 설정한 후 개별지표의 가중평균을 활용한 종합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인간의 행복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로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를 산정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나 지표구성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8개 하위영역(생활수준, 건강인구,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에 제시된 개별지표 중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영역별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영역별 웰빙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Institute of Wellbeing, 2009). 한편 부탄의 경우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통하여 정신적 행복을 강조하면서 지역, 계층, 성별로 부탄 국민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있다. 9개 영역(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활용, 문화, 좋은 거버넌스, 생태계, 지역사회의 생명력, 생활수준)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기준선을 정하고 동 기준선에 미달되는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다. 즉 합산된 값을 1에서 빼주면 총

4)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에 제시되어 있음.

5) 한준 외(2011)에 정리된 내용에 기초하여 파악하였음.

행복지수가 산출된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웰빙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삶의 질 지수(Life situation Index)를 개발하였다. 8개 영역(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사회문화적 레저활동, 사회참여, 스포츠)로 구분하고 설문 조사를 통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지표화를 위하여 비선형정순상관분석을 통하여 지표 간 가중치를 설정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가 종합지수화 작업을 한 반면 호주는 지표묶음법(Suite-of-indicators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즉 지수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대신 각 통계적 자료를 개개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지수화 관련 국내의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황명진 외(2007)의 행복지수, 한준 외(2011)이 대표적이며, 중노년층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이가옥 외(2000)의 노년기의 삶의 질 지표체계, 최수정(2001), 정경희 외(2012)가 대표적인 접근이며<sup>6)</sup> 공통적으로 포괄적인 개별지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종합지수를 산출하려는 접근은 매우 드물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 개의 지수화 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석 외(2012)는 ‘출산환경 및 행태지표개발연구’를 통하여 전체 개별지표 중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제시된 출산 지표체계는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7개 지표 중 각 영역별로 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영역지수 점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반영한 종합지수를

6) 각 지표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경희 외(2012)에 정리되어 있음.

산출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영역지수 산출을 위한 방식으로 3가지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는 지표체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합계출산율과 각 지표와의 상관관계계수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도출한 후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였다. 둘째는 전문가 설문 조사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셋째는 상관관계 계수에 기초한 가중치와 전문가 설문 조사에 기초한 가중치를 5대 5의 비중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김형주(2011)의 연구는 청소년수련기관 평가를 위하여 지수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가중치 분석을 위해 비율평균방법과 AHP방법의 가중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기관 평가를 위해 4개 영역 및 33개의 평가지표를 구성하였고, 비율평균방법은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총합이 100%가 되도록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AHP 분석방법은 쌍대비교 9간 척도를 사용하였다. 경험적 자료로는 20명 전문가 집단이 비율평균방법의 조사지와 AHP방법의 쌍대비교조사지에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심준섭(2006)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한 후 그에 기초하여 지수화를 시도하고 있다. 모두 5개 영역별 가중치를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종합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변수가 존재한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본 변수와 개별 지표와의 상관계수를 활용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 제4절 시사점

본 연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경험적 기반마련에 있어 선행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이 갖는 다차원성과 상대성 때문에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하는 삶의 질은 통일된 조작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중노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삶의 질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중년층은 예비노인으로서 현재 노인과의 특성의 차이와 그들이 현재 어떠한 노후준비를 하는가가 그들의 노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또한 이는 노인복지정책의 범위와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년층과 노년층을 아우르는 개념틀에 기초한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셋째, 중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경험적 기반에 기초한 유형화 작업이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주요 분야를 반영하면서도 그러한 개입대상 규모와 특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와 그에 기초한 지수화 작업 및 그러한 기반에 기초한 유형화 작업의 순서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제3장 중·노년층의 삶의 질: 양적 접근

- 제1절 중·노년층 삶의 질 현황
- 제2절 중·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 제3절 중·노년층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 3

## 중노년층 삶의 질: << 양적 접근

### 제1절 중노년층 삶의 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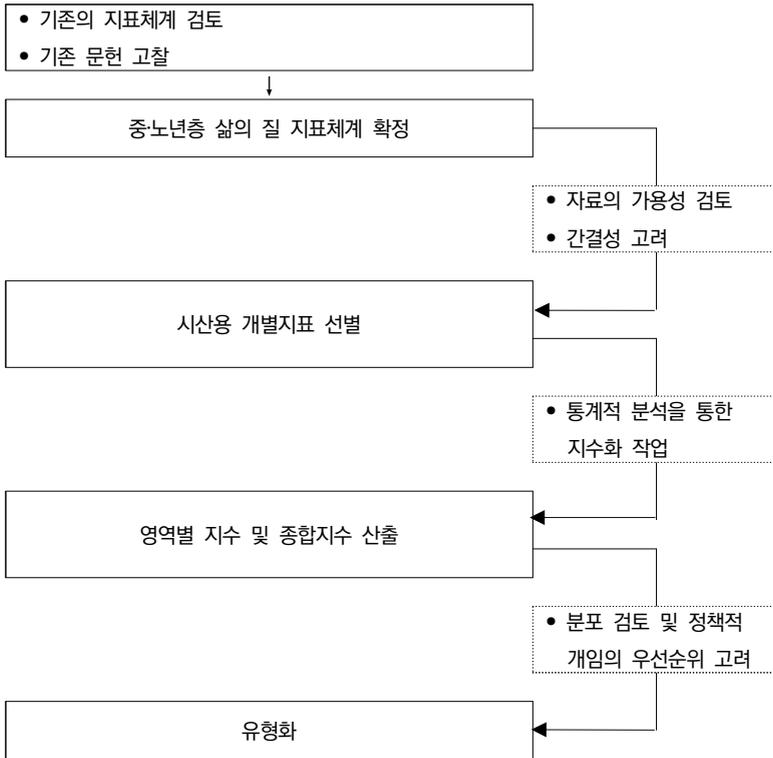
#### 1. 삶의 질 개념의 조작화

삶의 질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공감대에 기초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영역별 삶의 질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조작화 및 이에 기초한 삶의 질의 계량화 작업은 절차는 [그림 3-1]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계량화하는 것은 전문가 조사 및 선행연구 고찰에 기초하여 확정된 최근 연구 산물인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정경희 외, 2012)를 기반으로 하되 본 체계의 대상이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노년기(또는 퇴직 후)에만 해당하는 표현 등은 중노년층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차원(level)’이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level)’의 지표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각각에 대한 계량적 파악이 가능한 개별지표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인 지표만 포함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이 변화될 수 있는 지표는 제외(예: 노인의 자녀와의 자원의 교환)하였다. 더불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긍정/부정)이 명확하지 않은 지표는 제외하였다.

### 30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그림 3-1] 중노년층 삶의 질 지표체계와 유형화 작업 진행도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 하에 진행된 중노년층 삶의 질 지표체계의 확정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1 참조)<sup>7)</sup>. 첫 번째 단계로 개인 각각에 대한 계량적 파악이 가능한 개별지표만을 포함하는 중노년기 삶의 질 지표체계를 확정하였고, 이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방향을 충족시키는 개별지표를 선별하였다. 즉, 기존의 영역 중 『가족 및 사회적 관계』,

7) 구체적인 개별지표는 부표1에 제시하였음.

『경제』, 『건강』, 『사회참여』의 4개 영역을 확정하였다. 『인구사회적 배경』과 『노인의 물리적 안전』은 거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은 삶의 질을 종합하는 영역이므로 타 영역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였다. 4개 영역에는 56개의 개별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선별된 개별지표에 대한 통계의 구득가능성 검토 후 현재 통계확보가 가능한 개별지표를 확정하였다. 총 31개의 개별지표가 선정되었다. 세 번째로 현재 통계확보가 가능한 개별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영역별 지수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즉 자료이용성과 지표체계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지수화 작업에 포함될 개별지표의 수를 각 영역별로 동일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그 결과 각 영역 별로 4개 지표로 총 16개 지표가 확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 개의 지표를 통하여 간결하게(compact) 많은 현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작화를 실시하였다.

〈표 3-1〉 삶의 질의 제차원 설정 및 지표 선정

대영역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개별지표 <sup>1)</sup>	본 연구			
		지표체계 확정		가용 자료원이 있는 개별 지표	최종 지수화 작업에 포함된 개별지표
		1)개인 차원의 삶의 질 지표 선별	2)기본원칙에 기초한 개별지표 선별		
0. 인구사회적 배경	25	0	0	0	0
1.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8	6	0	0	0
2. 노인의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20	20	10	6	4
3. 노인의 물리적 안전	19	13	3	2	0
4. 노인의 경제상태	21	15	12	8	4
5. 노인의 건강	32	32	18	6	4
6. 노인의 사회참여	21	19	13	9	4
총합	146	106	56	31	16

주: 1) 정경희 외(2012), 한국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렇게 선정된 개별지표는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인 중노년층의 윤희화를 위한 기본가치(개념)인 4고(苦)를 반영하는 16개 개별지표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4고(苦)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영역은 중고령자가 고독이라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역이다. Cantor와 Little(1985)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친구이웃과의 면밀한 접촉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두 번째 영역인 『노인의 경제상태』는 노년기의 빈곤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영역으로 소득, 자산 및 노후소득준비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인 『노인의 건강』은 건강이 삶의 질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건강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 영역인 『노인의 사회참여』는 무위의 최소화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특수성을 가장 잘 반영해야 하는 영역이다.

〈표 3-2〉 삶의 질의 제차원별 개별지표

노년기의 4품	영역	개별지표	비고
고독	1. 가족사회관계	1-1.배우자 유무 1-2.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1-3.생존 형제자매수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사회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주요 tie별 지표 선정
빈곤	2. 경제상태	2-1.가구균등화소득 2-2.가구균등화자산 2-3.자산의 유동성(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2-4.연금 가입 실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 현재의 경제상태: 소득, 자산 -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준비: 유동성, 다층적 노후 소득준비
질병	3. 건강상태	3-1.만성질환수 3-2.우울증 여부 3-3.활동제한 정도 3-4.건강행위 실천 정도(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 건강상태 (신체, 정신적 측면) - 건강행위 실천
무위	4. 사회참여	4-1.적절한 경제활동참여 4-2.단체활동참여수 4-3.공연문화향유여부 4-4.여행경험여부	다양한 사회참여방법 반영

## 2. 삶의 질의 지수화

### 가. 각 영역별 지수 계산

중노년층의 삶을 질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각 지표간의 상관관계 지수를 활용(표 3-3 참조)하였다.

작업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각 개별 지표들의 단위 및 분포의 중심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을 시도(10~100점 사이의 균등 분포)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 총점이 최대 100점이 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별 지표의 표준화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변수와 각 '개별지표'와의 상관관계 지수에 기초하여 각 지표별 영역 내 비중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족사회관계』 영역의 배우자 유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3-3>에 의하면 배우자 유무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2034이며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0914, 생존 형제자매수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1296,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와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1947이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가 『가족사회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034 / (0.2034 + 0.0914 + 0.1296 + 0.1947)$ 이다.

〈산식〉

**영역1(가족사회관계)점수**

= (지표1-1의 개별값×영역1에서 차지하는 지표1-1의 비중[=0.3285]) + (지표1-2의 개별값×영역1에서 차지하는 지표1-2의 비중[=0.1476]) + (지표1-3의 개별값×영역1에서 차지하는 지표1-3의 비중[=0.2093]) + (지표1-4의 개별값×영역1에서 차지하는 지표1-4의 비중[=0.3145])

**영역2(경제상태)점수**

= (지표2-1의 개별값×영역2에서 차지하는 지표2-1의 비중[=0.3100]) + (지표2-2의 개별값×영역2에서 차지하는 지표2-2의 비중[=0.2973]) + (지표2-3의 개별값×영역2에서 차지하는 지표2-3의 비중[=0.2117]) + (지표2-4의 개별값×영역2에서 차지하는 지표2-4의 비중[=0.1811])

**영역3(건강상태)점수**

= (지표3-1의 개별값×영역3에서 차지하는 지표3-1의 비중[=0.2119]) + (지표3-2의 개별값×영역3에서 차지하는 지표3-2의 비중[=0.2048]) + (지표3-3의 개별값×영역3에서 차지하는 지표3-3의 비중[=0.3473]) + (지표3-4의 개별값×영역3에서 차지하는 지표3-4의 비중[=0.2360])

**영역4(사회참여)점수**

= (지표4-1의 개별값×영역4에서 차지하는 지표4-1의 비중[=0.2309]) + (지표4-2의 개별값×영역4에서 차지하는 지표4-2의 비중[=0.3035]) + (지표4-3의 개별값×영역4에서 차지하는 지표4-3의 비중[=0.1670]) + (지표4-4의 개별값×영역4에서 차지하는 지표4-4의 비중[=0.2897])

**※ 개별지표의 영역내 비중 산출 방법 예시**

지표1-1의 영역내 비중[=0.3285]  
 = 지표1-1의 상관계수 값[=0.2034]/(지표1-1의 상관계수 값[=0.2034]+지표1-2의 상관계수 값[=0.0914]+지표1-3의 상관계수 값[=0.1296]+지표1-4의 상관계수 값[=0.1947])

**나. 삶의 질 종합점수 산출**

각 영역별 지수는 그 자체로 영역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합산하여 종합지수로 산출한다면 각 중노년층 개개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반적

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각 '영역별점수'와의 상관관계 계수에 기초하여 각 영역별 비중을 계산하였다.

〈산식〉

**삶의 질 종합점수**

$$=(\text{영역1 점수} \times \text{영역1의 상대적 비중}[=0.1991]) + (\text{영역2 점수} \times \text{영역2의 상대적 비중}[=0.2722]) + (\text{영역3 점수} \times \text{영역3의 상대적 비중}[=0.2768]) + (\text{영역4 점수} \times \text{영역4의 상대적 비중}[=0.2519])$$

**※ 영역 비중 산출 방법 예시**

$$\text{영역1의 비중}[=0.1991]$$

$$=\text{영역 1의 상관계수 값}[=0.2970] / (\text{영역1의 상관계수 값}[=0.2970] + \text{영역2의 상관계수 값}[=0.4060] + \text{영역3의 상관계수 값}[=0.4130] + \text{영역4의 상관계수 값}[=0.3758])$$

〈표 3-3〉 개별지표의 분포 및 상대적 비중

영역	개별지표	평균 (빈도)	표준편차 (%)	상관계수			
				영역		종합	
				값	영역내 비중	값	비중
1. 가족사회 관계	1-1. 배우자 유무 0. 없음: 10 1. 있음: 100	0.76[78.7] (1.805) (5.823)	0.43[38.3] (23.7) (76.3)	0.2034	0.3285		
	1-2.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0. 아니오: 10 1. 아니오. 그러나 30분 이내의 근거리 거주: 55 2. 예: 100	0.95[52.9] (3.318) (1.347) (2.963)	0.91[40.8] (43.5) (17.7) (38.8)	0.0914	0.1476		
	1-3. 생존 형제자매수 0. 없음: 10 1. 1~3명: 55 2. 4명 이상: 100	3.99[74.9] (1.075) (2.102) (4.451)	2.87[32.7] (14.1) (27.6) (58.3)	0.1296	0.2093	0.2970	0.1991
	1-4.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0.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 10 1. 일년에 6번 이하: 32.5 2. 한달에 1~2번: 55 3. 일주일에 1~3회: 77.5 4. 거의 매일(주4회 이상): 100	2.72[71.1] (453) (716) (1,536) (2,761) (2,162)	1.15[25.8] (5.9) (9.4) (20.1) (36.2) (28.3)	0.1947	0.3145		

영역	개별지표	평균 (빈도)	표준편차 (%)	상관계수		
				영역		종합 비중
				값	영역 내비중	
2. 경제상태	2-1. 가구평등화소득 <sup>2)</sup>	1,375.4[55.6] (1,394) (1,529) (1,671) (1,558) (1,476)	1,418.2[31.1] (18.3) (20.0) (21.9) (20.4) (19.4)			
	0.1분위(~459.6만원): 10					
	1.2분위(~858.6만원): 32.5			0.3193	0.3100	
	2.3분위(~1,414.2만원): 55					
	3.4분위(~2,121.3만원): 77.5					
	4.5분위(~50.845만원): 100					
	2-2. 가구평등화자산 <sup>3)</sup>	14,083.1[56.4] (1,354) (1,557) (1,549) (1,596) (1,572)	22,601.3[31.4] (17.8) (20.4) (20.3) (20.9) (20.6)			
	0.1분위(~2,683.3만원): 10					
	1.2분위(~5,773.5만원): 32.5			0.3062	0.2973	0.4060
	2.3분위(~10,000만원): 55					
3.4분위(~18,384.8만원): 77.5						
4.5분위(~389,262.3만원): 100						
2-3. 자산의 유통성(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sup>3)</sup>	3,637.3] (3,840) (2,949) (839)	8,830.5] (50.3) (38.7) (11.0)				
0. 없음: 10			0.2181	0.2117		
1. 10% 미만: 55						
2. 10% 이상: 100						
2-4. 연금 가입 실태(공적연금,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0.24[20.9] (5,906) (1,594) (128)	0.47[21.0] (77.4) (20.9) (1.7)				
0. 아니오: 10						
1. 둘 중 하나: 55			0.1865	0.1811		
2. 모두: 100						

영역	개별지표	평균 (빈도)	표준편차 (%)	상관계수		
				영역		종합
				값	영역내 비중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sup>4)</sup> 0.3개 이상: 10 1.2개: 40 2.1개: 70 3. 없음: 100	1.01[70.71 (3,096) (2,395) (1,357) (781)]	1.08[29.91 (40.6) (31.4) (17.8) (10.2)]	0.2169	0.2119	
	3-2. 우울증 여부 0. 예: 10 1. 아니오: 100	0.93[94.11 (502) (7,126)]	0.25[22.31 (6.6) (93.4)]	0.2097	0.2048	
	3-3. 활동제한 정도 0. 매우 그렇다: 10 1. 그런 편이다: 40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70 3. 전혀 그렇지 않다: 100	1.74[62.21 (635) (1,775) (4,144) (1,074)]	0.80[24.01 (8.3) (23.3) (54.3) (14.1)]	0.3556	0.3473	0.4130
	3-4. 건강행위 실천 정도(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0. 아니오: 10 1. 둘 중 하나: 55 2. 예: 100	1.10[59.31 (1,415) (4,070) (2,143)]	0.68[30.41 (18.5) (53.4) (28.1)]	0.2416	0.2360	0.2768

영역	개별지표	평균 (빈도)	표준편차 (%)	상관계수		
				영역		종합
				값	영역 내 비중	
4. 사회참여	4-1. 직결한 경제활동참여 0. 미참여: 10 1. 참여, 소득1분위(0~50만원): 32.5 2. 참여, 소득2분위(<100만원): 55 3. 참여, 소득3분위(<200만원): 77.5 4. 참여, 소득4분위(<5,000만원): 100	0.99[32.4] (4,474) (864) (811) (819) (660)	1.38[31.0] (58.7) (11.3) (10.6) (10.7) (8.7)	0.2139	0.2309	
	4-2. 단체활동참여수 0. 없음: 10 1. 1개: 40 2. 2개: 70 3. 3개 이상: 100	0.96[38.8] (2,053) (4,084) (1,243) (248)	0.77[22.5] (26.9) (53.5) (16.3) (3.3)	0.2812	0.3035	0.3758
	4-3. 공연문화참여부 0. 아니요: 10 1. 1.2회: 55 2. 3회 이상: 100	0.19[15.0] (7,080) (256) (292)	0.75[18.8] (92.8) (3.4) (3.8)	0.1547	0.1670	
	4-4. 여행경험여부 0. 아니요: 10 1. 2회 이하: 55 2. 3회 이상: 100	1.04[33.1] (4,721) (1,897) (1,010)	2.38[32.3] (61.9) (24.9) (13.2)	0.2767	0.2987	

주: 1) 분석대상은 결측치 제외한 7,628명이며, 개별지표상의 하위항목의 숫자는 100점 환산수치를 의미함. 또한 [ ]는 100점 환산수치에 의해 산출된 것임.  
 2)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지만, 소득 및 자산은 특성상 가구단위에서 분위를 산출한 후 개인에 배분함. 소득 및 자산의 금액 통계는 4.639가구에 대한 수치이며, 그 의미는 개인단위에서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을 의미함.  
 3) 자산과 금융자산 없는 95명 0% 처리,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100%를 초과(117~1,100%)하는 13명을 제외함.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 3. 중노년층의 삶의 질 현황

#### 가. 영역별 삶의 질

##### 1) 가족사회관계: 고독으로부터의 보호

###### 가) 개별지표별 현황

본 영역에는 4개의 개별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지표인 배우자 유무의 경우 76.3%가 유배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의 경우 노년기의 변화하는 거주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거 여부 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30분 이내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가를 반영하였다. 43.5%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고, 17.7%는 30분 이내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38.8%는 모든 자녀가 30분 이상 걸리는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다. 생존 형제·자매수는 없음, 1~3명과 4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58.3%가 4명 이상의 생존 형제·자매를 갖고 있다.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의 경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5.9%, 일 년에 6번 미만 접촉을 하는 경우가 9.4%이며 한 달에 1~2번이 20.1%이다. 일주일에 1~3회 접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36.2%이며,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도 28.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4개의 지표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은 배우자 유무가 가장 높아 본 영역 내에서 3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로 31.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 지표는 20.9%의 비중을 갖고 있는 생존 형제·자매수로 배우자나 친구·이웃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은 14.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표 3-3 참조).

## 나) 연령군별 현황

각 지표별로 100점이 만점이 되도록 지표별 점수 분포를 표준화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배우자의 경우 50대의 경우 대부분이 배우자가 있어 타 연령군에 비하여 유배우율이 높다. 본 지표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8.7점이지만 50대가 90.4점, 60대가 85.6점, 70대 70.7점, 80대 이상 연령군이 43.5점으로 80대 이상에서 급격히 낮은 수준의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70대부터 표준편차가 커져 내부적인 다양성이 커짐을 볼 수 있다.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의 경우 평균 점수가 52.9점으로 본 영역의 4개 지표 중 가장 점수가 낮고 60대에 급격히 점수가 낮아진 이후 다시 70대 또한 60대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인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생존 형제·자매수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80대 이상 연령군에서 43.7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의 경우와 유사한 특징이다.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의 경우 평균 점수가 71.1점으로 80대 이상 군에서 67.9점으로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약간 낮은 점수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연령과는 무관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3개 지표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4개 개별지표에 기초한 『가족사회관계』 영역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7점으로 4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가 79.9점, 60대가 74.8점, 70대 66.5점, 80대 이상이 51.5점으로 80대 이상 연령군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준편차의 경우도 80대 이상 연령군이 제일 커 80대 이상 연령군의 내부적인 다양성이 타 연령군보다 큼을 볼 수 있다(표 3-4 참조).

## 2) 경제상태: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 가) 개별지표별 현황

경제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별 상황을 살펴보면, 가구 균등화 소득의 경우 1,375.4만원이 연평균 가구균등화 소득이며 표준편차는 1,418.2만원이다. 가구균등화 자산의 경우는 14,083.1만원이며 표준편차는 22,601.3만원으로 매우 큰 규모이다.

자산구성의 경우 유동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으로 측정되었다.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가 50.3%에 달하고 있으며 있어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가 38.7%, 10% 이상인 경우가 11.0%이다. 마지막 지표인 연금 가입여부의 경우 공적 연금이나 개인보험(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중 한 개에 가입한 경우가 20.9%이며 공적 및 개인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1.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4개 지표의 경제상태에서 갖는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균등화 소득이 가장 높아 31.0%이며 다음이 가구균등화 자산으로 29.7%이다. 다음이 자산구성으로 21.2%, 연금 가입 유무가 18.1%이다(표 3-3 참조).

### 나) 연령군별 현황

연령군별로 경제상태의 표준화한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가구 균등화 소득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55.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구 균등화 소득에 있어 점수는 연령군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50대의 경우 73.7점인 반면 60대는 54.5점, 70대는 39.9점 80대 이상 연령군에서는 43.2점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라기보다는 60대에 진입하면서 가구소득이 급감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은퇴 등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감소가 큰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가구균등화자산의 경우도 평균점수는 56.4점으로 가구균등화소득과 유사하다. 그러나 연령군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산의 유동성의 경우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후기로 갈수록 유동성이 저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금가입실태를 보면 20.9점으로 그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60대 이후 군에서는 20점 미만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 중년층과 노년층의 차이가 매우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 영역의 총점은 평균 45.7점으로 50점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가 55.6점, 60대가 45.8점, 70대가 37.0점, 80대 이상이 36.9점으로 60대와 70대가 각각 경제상태에 있어 그 전후 세대와 구분되는 전환기임을 추측케 한다.

### 3) 건강상태: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 가) 개별지표별 현황

건강상태는 만성질환수, 우울증 여부, 활동제한 정도, 운동과 최근 건강검진 수검여부를 통하여 파악된 건강행위 실천정도의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지표인 만성질환수는 없음이 10.2%, 1개가 17.8%, 2개가 31.4%, 3개 이상이 40.6%이다. 이 경우 질병이 없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점수가 부여되었다. 우울증 여부의 경우 6.6%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제한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8.3%, 그런편이다 2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3%,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1%이다. 건강행위의 경우 운동과 건강검진을 모두 행하고 있는 응답자가 28.1%, 둘 중 하나만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53.4%, 이 두 가지의 건강행위를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18.5%이다.

4개 지표의 건강영역에서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해보면 건강상태로 인해 활동에 제한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높아 34.7%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3개 지표는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어 건강행위가 23.6%, 만성질환수가 21.2%, 우울증 여부가 20.5%이다(표 3-3 참조).

## 나) 연령군별 현황

건강상태 영역의 4개 지표의 점수를 비교해본 <표 3-4>에 의하면 우울증 여부가 가장 점수가 높아 94.1점이며, 다음이 만성질환수로 70.7점, 활동제한 정도가 62.2점, 건강행위 실천이 59.3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건강상태에 비하여 건강행위의 수준이 낮은 것이다.

연령군별로는 만성질환수의 경우 60대가 69.2점으로 50대의 85.0점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70대 이상 연령군의 점수가 낮아 60점 전후를 보이고 있다. 우울증의 경우 연령군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활동제한 정도에 있어서는 연령군별 차이가 큰데, 이는 만성질환수와 함께 생각해볼 때, 신체적인 건강은 역연령적(chronical age) 노화의 진전과 정비례 관계를 갖는 반면 정신적인 건강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건강행위의 경우 50대(63.4점)와 60대(63.2점)가 유사한 점수대를 보이는 반면, 70대는 56.7점, 80대 이상군은 42.3점으로 70대 이후 연령군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건강상태』 영역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가족·사회관계』영역의 71.7점보다는 조금 낮지만 『경제상태』나 『사회참여』영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50대가 78.0점, 60대가 70.9점, 70대가 63.7점, 80대 이상이 57.7점이다. 80대 이상의 경우 『가족·사회관계』영역의 평균 점수인 51.5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 4) 사회참여: 무위로부터의 보호

##### 가) 개별지표별 현황

사회참여 실태는 적절한 경제활동참여, 단체활동참여, 공연문화향유여부, 여행경험여부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적절한 경제활동참여는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수준을 반영하여 측정되었다. 58.7%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11.3%,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0.6%,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0.7%, 그 이상인 경우가 8.7%이다. 단체활동의 경우 26.9%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전혀 없으며 1개가 53.5%, 2개가 16.3%, 3개 이상이 3.3%이다.

공연문화향유의 경우 7.2%가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의 경우는 약 40%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년1~2회인 경우가 24.9%, 년3회 이상인 경우가 13.2%이다.

이러한 개별변수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단체활동이 가장 높고(30.4%), 다음이 여행(29.9%), 적절한 경제활동(23.1%), 공연문화향유(16.7%)의 순서로 사회참여 영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3-3 참조).

## 나) 연령군별 현황

〈표 3-4〉에 의하면, 『사회참여』 영역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31.6점으로 4개 영역 중 가장 낮다. 또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중 공연문화활동이 가장 저조한 상태이다. 적절한 경제활동은 32.4점, 단체활동참여수는 38.8점, 여행경험여부는 33.1점으로 30점대임에 비하여 공연문화활동은 15.0점에 불과하다.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적절한 경제활동의 평균점수는 50대가 52.0점, 60대가 30.7점, 70대와 80대 이상 연령군이 각각 18.7점과 12.2점으로 나타났다. 60대에 저하된 경제활동 수준은 70대 이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추측케 한다. 단체활동의 경우는 70대 이후 연령군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80대 이상 연령군의 경우 평균점수가 27.5점에 불과하다. 공연문화향유여부는 50대만이 20점대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층은 모두 10점대이다. 여행의 경우는 연령이 높은 연령군에서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50대는 40.3점인 반면 80대는 18.9점에 불과하다.

(표 3-4) 연령군별 항목별 점수

영역	개별지표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1. 가족 사회관계 (고독)	1-1.배우자 유무	90.4 (27.7)	85.6 (33.0)	70.7 (42.2)	43.5 (43.5)	78.7 (38.3)
	1-2.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63.0 (43.0)	51.8 (39.7)	45.0 (37.3)	45.7 (38.9)	52.9 (40.8)
	1-3.생존 형제자매수	88.1 (23.4)	79.2 (30.1)	66.6 (33.8)	43.7 (34.8)	74.9 (32.7)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71.3 (23.4)	71.2 (24.7)	72.1 (27.2)	67.9 (31.5)	71.1 (25.8)
	영역 총점 평균(표준편차)	79.9 (15.3)	74.8 (15.9)	66.5 (17.9)	51.5 (19.3)	71.7 (18.8)
2. 경제 상태 (빈곤)	2-1.가구균등화소득	73.7 (25.7)	54.5 (28.7)	39.9 (28.0)	43.2 (31.5)	55.6 (31.1)
	2-2.가구균등화자산	58.1 (31.0)	59.4 (30.9)	52.5 (31.5)	52.3 (32.2)	56.4 (31.4)
	2-3.자산의 유동성 (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42.7 (30.7)	38.4 (31.3)	33.0 (29.4)	28.6 (26.5)	37.3 (30.5)
	2-4.연금 가입 실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35.8 (26.3)	17.4 (17.0)	11.2 (7.3)	10.4 (4.1)	20.9 (21.0)
	영역 총점(표준편차)	55.6 (19.0)	45.8 (18.0)	37.0 (17.3)	36.9 (18.9)	45.7 (19.8)
3. 건강 상태 (질병)	3-1.만성질환수	85.0 (22.4)	69.2 (29.6)	59.3 (30.9)	60.5 (30.6)	70.9 (29.9)
	3-2.우울증 여부	96.8 (16.8)	94.0 (22.4)	92.0 (25.7)	91.4 (26.5)	94.1 (22.3)
	3-3.활동제한 정도	72.5 (20.7)	63.6 (22.2)	54.5 (23.3)	46.7 (25.1)	62.2 (24.0)
	3-4.건강행위 실천 (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63.4 (29.8)	63.2 (28.9)	56.7 (30.3)	42.3 (30.3)	59.3 (30.4)
	영역 총점(표준편차)	78.0 (13.5)	70.9 (15.9)	63.7 (16.8)	57.7 (17.3)	69.9 (17.0)
4. 사회 참여 (무위)	4-1.적절한 경제활동참여	52.0 (35.4)	30.7 (28.3)	18.7 (18.2)	12.2 (9.3)	32.4 (31.0)
	4-2.단체활동참여수	44.6 (22.2)	40.4 (22.1)	34.4 (21.6)	27.5 (19.9)	38.8 (22.5)
	4-3.공연문화향유여부	21.2 (27.2)	13.3 (15.4)	11.2 (9.0)	10.3 (4.4)	15.0 (18.8)
	4-4.여행경험여부	40.3 (34.8)	34.6 (32.3)	28.4 (29.8)	18.9 (22.4)	33.1 (32.3)
	영역 총점(표준편차)	41.1 (18.4)	31.9 (16.0)	25.1 (13.9)	18.5 (10.7)	31.6 (17.6)
영역 총점 (표준편차)		63.0 (11.7)	55.0 (11.3)	47.3 (10.8)	41.0 (10.7)	54.0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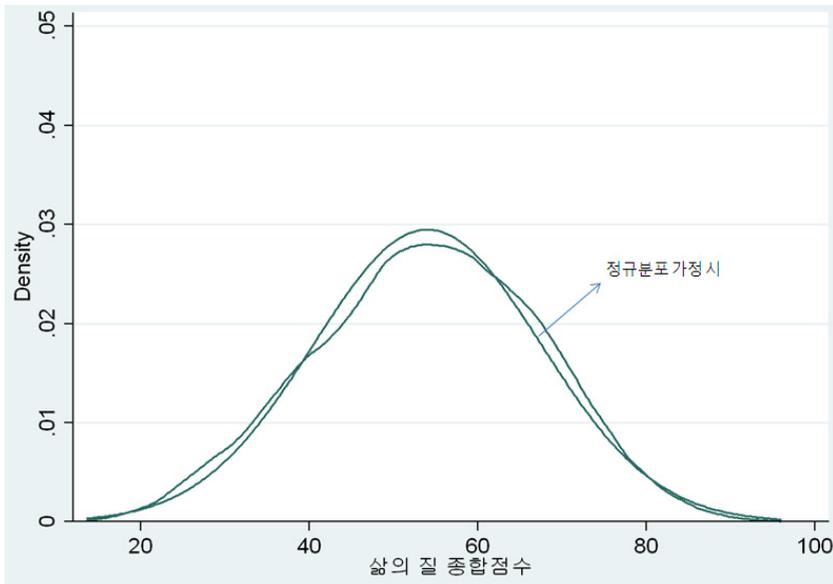
주: 영역총점만 가중치가 반영되었으며, 개별지표는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 나. 삶의 질 종합

영역별로 산출된 지수를 반영하여 종합한 점수는 13.6점에서 96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54.0점으로 60점 이하이다(그림 3-2와 표 3-5 참조). 삶의 질 종합점수의 분포는 정규분포와 유사하나 60~70점 구간에 좀 더 많은 사례가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종합점수의 분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1분위는 13.6점~42.1점의 분포를 보이고, 2분위는 42.1~50.8점, 3분위는 50.8~57.0점, 4분위는 57.9~66.0점의 분포를, 5분위는 66.0~96.0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1분위는 약 28.5점의 범위를, 2분위는 8.7점, 3분위는 6.2점, 4분위는 8.1점, 5분위는 30점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서 중간 수준에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도



〈표 3-5〉 연령별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단위: %, 명)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5분위 (65.998점~95.964점)	42.6	16.9	4.0	0.6	20.0
4분위 (57.938점~65.995점)	26.8	24.3	12.3	6.3	20.0
3분위 (50.78139점~57.024점)	16.7	24.6	22.1	11.5	20.0
2분위 (42.106점~50.78108점)	8.6	21.1	29.6	27.1	20.0
1분위 (13.635점~42.104점)	5.3	13.0	32.0	54.4	20.0
계 (명)	100.0 (2,446)	100.0 (2,351)	100.0 (2,008)	100.0 (823)	100.0 (7,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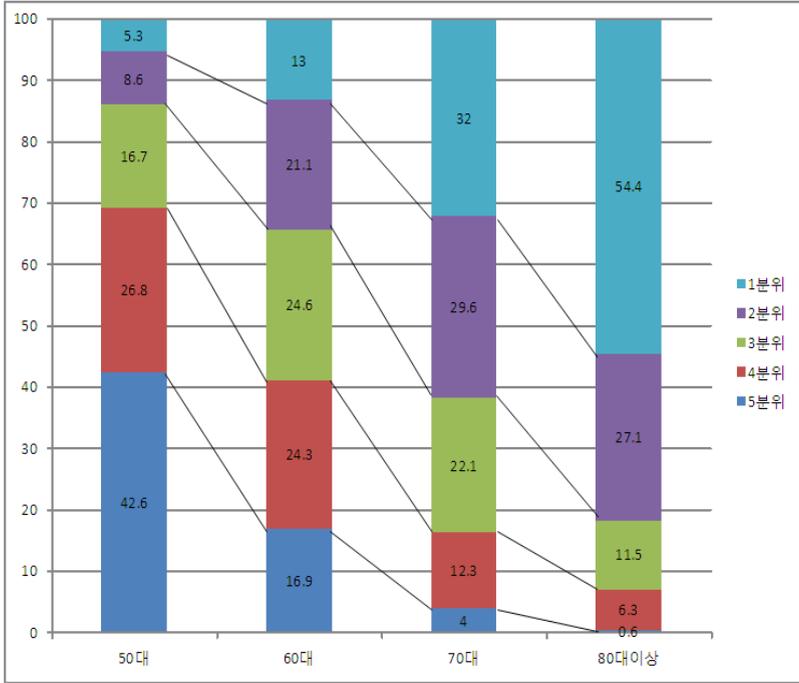
#### 다. 연령군별 삶의 질 비교

연령군별로 삶의 질의 현황을 절대적인 수준과 영역별 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삶의 질 종합점수는 연령군별 차이가 커 50대가 63.0점, 60대 55.0점, 70대 47.3점, 80대 이상이 41.0점이다. 즉,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다(표 3-4 참조).

이러한 삶의 질 종합점수의 분위별 구성을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의 경우 5분위가 4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60대는 16.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70대는 4.0%, 80대 이상은 0.6%에 불과하다. 반면 1분위의 구성비를 보면 50대는 5.3%에 불과하고 60대는 13.0%이지만 70대는 32.0%, 80대 이상은 54.4%로 70대 이상에서는 1분위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3-3 참조).

## 50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그림 3-3] 연령군별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50대의 삶의 질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월등히 높고, 50대에 비하여 60대의 삶의 질이 낮으며, 60대에 비해서는 70대가, 70대에 비해서는 80대 이상의 삶의 질 점수가 낮다. 즉 생물학적 노화는 삶의 질의 저하와 밀접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다<sup>8)</sup>.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의 경우 가족사회관계와 건강상태가 모두 거의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고 있지만, 70대의 경우

8) 각 연령군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위별 제특성은 <부표2>~<부표5>에 제시되어 있음. 유사한 분석이 제2절에서 유형별로 분석되어 제시될 것임. 본 절에서는 종합점수의 분포 실태에 초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검토하고자 함.

가장 점수가 높은 가족사회관계도 66.5점에 불과하다. 또한 80대 이상의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건강상태도 57.7점으로 모든 영역이 60점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모든 연령군에서 공통적으로 영역별 삶의 질의 불균형이 발견된다. 모든 연령군에서 『경제상태』와 『사회참여』의 삶의 질이 『가족사회관계』와 『건강상태』 영역에 비하여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대는 중노년층의 영역 간 삶의 질의 구성 형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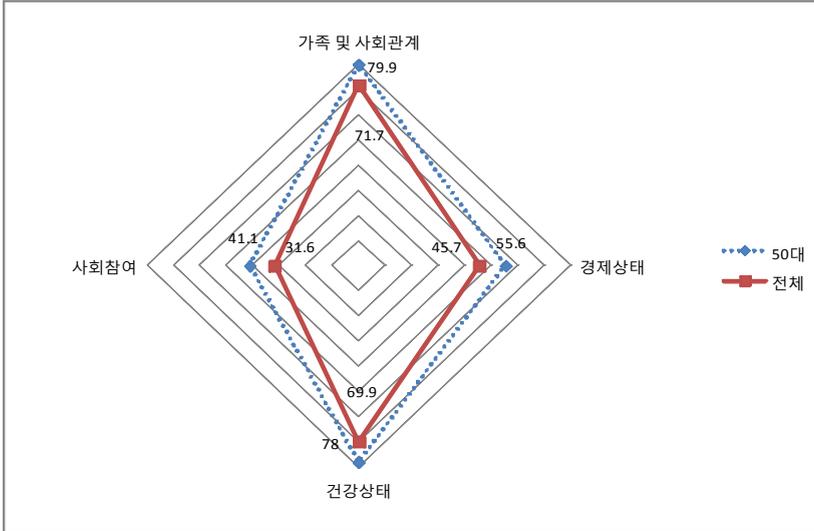
연령군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타 연령군에 비하여 삶의 질이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역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0대는 중노년층의 영역별 삶의 질 수준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70대의 경우는 모든 영역에 있어 중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에 비하여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0대 이상의 경우도 70대와 유사하지만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족사회관계』와 『사회참여』의 경우 그 차이가 커 절대적으로 낮은 삶의 질과 더불어 영역 간 불균형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영역 간 삶의 질 순위라는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8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군에서 영역별 수준이 『가족사회관계』 > 『건강상태』 > 『경제상태』 > 『사회참여』의 순이다. 80대 이상의 경우 급격히 『가족사회관계』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가장 높은 삶의 질 점수를 보이고 있다(그림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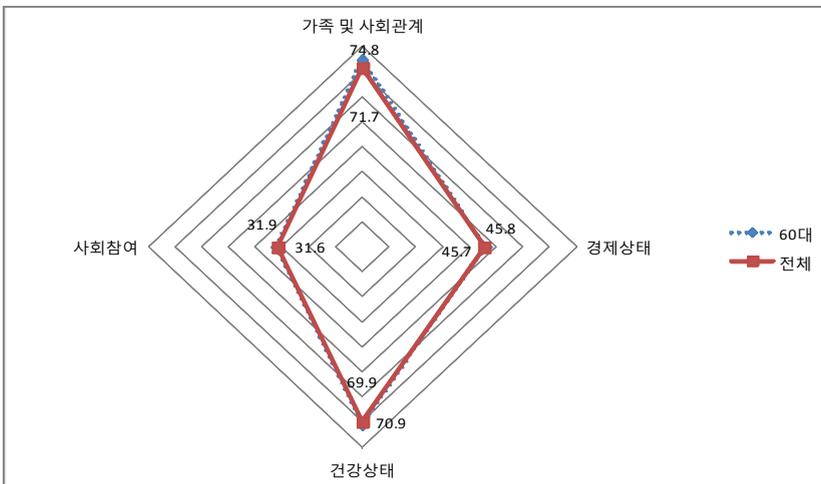
## 52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그림 3-4] 연령군별 영역별 삶의 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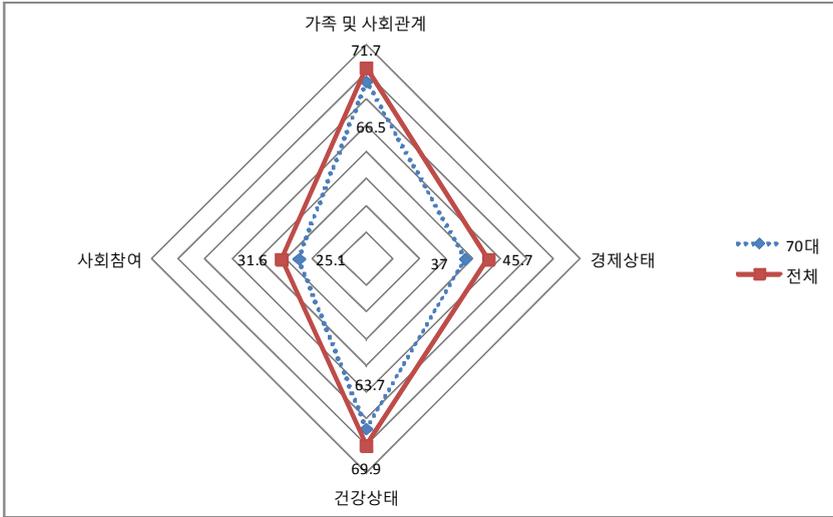
### 1.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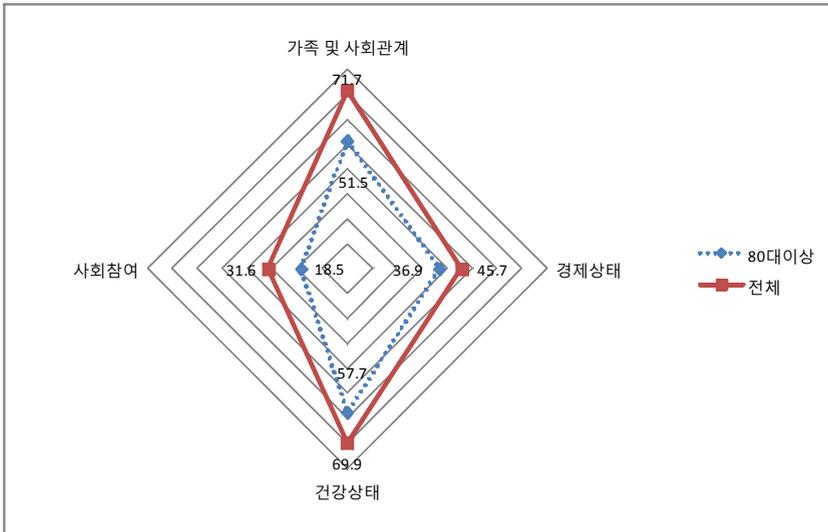
### 2. 60대



3. 7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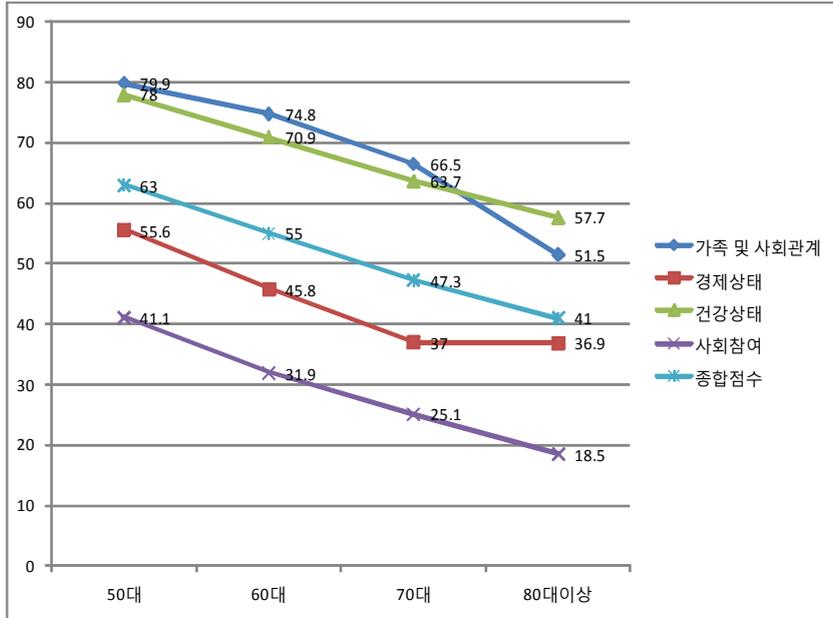


4. 80대 이상



## 5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그림 3-5] 연령군별 영역별 삶의 질 점수



## 제2절 중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 1. 유형화 작업

영역별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파악된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중노년층을 유형화함으로써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각 영역별로 도출된 삶의 질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중노년층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 작업에 있어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유형화를 실시한다. 둘째, 중노년층을 동일한 기준으로 유형화한다. 전자는 본 연구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과 관

련한 정책우선 순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설정되었으며, 후자는 중년층과 전기 노년층, 후기 노년층의 삶의 질의 양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결정이다<sup>9)</sup>. 개별지표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령 프로파일(age profile) 검토에 기초하여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sup>10)</sup>.

설정한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일차적으로 각 영역별 점수 분포를 검토하여 상/중/하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3-6>과 같이 각 영역별 상/중/하 구성실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 81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81개 유형은 그 분포가 매우 적은 경우도 있고 비교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형이므로 이를 단순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현재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범위이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의 범위를 고려해 볼 때 『가족사회관계』영역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없다는 점, 『가족사회관계』영역의 4개 지표 중 3개 즉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형제자매수의 경우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그 수준을 증대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영역은 유형화에서 상/중/하 구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결과 27개 유형으로 축소되었다(표 3-7, 그림 3-3 참조).

9) 중년층과 전기 노년층, 후기 노년층을 분리하여 각기 삶의 질 지수화 방법을 모색하는 안에 대한 검토도 있었으나, 각 연령군별로 개별지표의 비중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령군별 유형구성의 차이를 동일한 잣대에 기초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최종적으로 중노년층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유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10) 구체적인 내용은 본장의 제1절 참조.

56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표 3-6〉 영역별 점수 분포 유형

1. 가족 사회관계 (고독)	2. 경제상태 (빈곤)	3. 건강상태 (질병)	4. 사회참여 (무위)	분포 (%, 빈도수)	
상	상	상	상	4.48(342)	
		중	중	1.48(113)	
		하	하	0.41(31)	
	중	중	상	상	3.42(261)
			중	중	1.74(133)
			하	하	0.47(36)
	하	하	상	상	0.62(47)
			중	중	0.50(38)
			하	하	0.35(27)
	중	상	상	상	1.47(112)
			중	중	1.11(85)
			하	하	0.49(37)
중		중	상	상	1.76(134)
			중	중	1.69(129)
			하	하	1.05(80)
하		하	상	상	0.71(54)
			중	중	1.11(85)
			하	하	0.87(66)
하	상	상	상	0.35(27)	
		중	중	0.68(52)	
		하	하	0.38(29)	
	중	중	상	상	0.50(38)
			중	중	1.51(115)
			하	하	1.11(85)
하	하	상	상	0.29(22)	
		중	중	0.92(70)	
		하	하	1.82(139)	

1. 가족 사회관계 (고독)	2. 경제상태 (빈곤)	3. 건강상태 (질병)	4. 사회참여 (무위)	분포 (%, 빈도수)
중	상	상	상	3.50(267)
			중	1.38(105)
			하	0.47(36)
		중	상	2.98(227)
			중	1.49(114)
			하	0.50(38)
	하	상	0.75(57)	
		중	0.77(59)	
		하	0.62(47)	
	중	상	상	1.17(89)
			중	1.17(89)
			하	0.83(63)
중		상	1.72(131)	
		중	2.31(176)	
		하	1.30(99)	
하	상	0.79(60)		
	중	1.35(103)		
	하	1.61(123)		
하	상	상	0.26(20)	
		중	0.75(57)	
		하	0.45(34)	
	중	상	0.67(51)	
		중	1.39(106)	
		하	2.02(154)	
하	상	0.31(24)		
	중	1.39(106)		
	하	3.38(258)		

58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1. 가족 사회관계 (고독)	2. 경제상태 (빈곤)	3. 건강상태 (질병)	4. 사회참여 (무위)	분포 (%, 빈도수)	
하	상	상	상	1.11(85)	
			중	0.43(33)	
			하	0.31(24)	
		중	상	상	1.17(89)
				중	0.96(73)
				하	0.69(53)
		하	상	상	0.46(35)
				중	0.75(57)
				하	1.51(115)
		중	상	상	0.49(37)
				중	0.52(40)
				하	0.47(36)
		하	상	상	0.76(58)
				중	1.49(114)
				하	1.10(84)
	하	상	상	0.50(38)	
			중	1.06(81)	
			하	3.11(237)	
	상	상	상	0.16(12)	
			중	0.63(48)	
			하	0.59(45)	
	중	상	상	0.54(41)	
			중	1.17(89)	
			하	2.32(177)	
	하	상	상	0.46(35)	
			중	1.89(144)	
			하	8.76(668)	
전체				100.0 (7,628)	

주: 1) 가족·사회관계: 상(83.9205~100.00) 중(67.43475~83.49525) 하(10.00~67.0005).

2) 경제상태: 상(54.71975~100.00) 중(37.2035~54.434) 하(10.00~37.04375).

3) 건강상태: 상(79.162~100.00) 중(66.448~78.961) 하(10.00~66.247).

4) 사회참여: 상(38.6015~100.00) 중(20.3915~37.74275) 하(10.00~19.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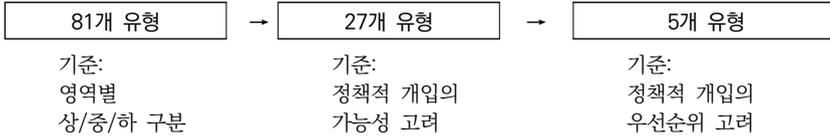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표 3-7〉 1단계 유형화 결과

경제상태 (빈곤)	건강상태 (질병)	사회참여 (무위)	분포(% , 빈도수)
상	상	상	9.10(694)
		중	3.29(251)
		하	1.19(91)
	중	상	7.56(577)
		중	4.20(320)
		하	1.66(127)
	하	상	1.82(139)
		중	2.02(154)
		하	2.48(189)
중	상	상	3.12(238)
		중	2.81(214)
		하	1.78(136)
	중	상	4.23(323)
		중	5.49(419)
		하	3.45(263)
	하	상	1.99(152)
		중	3.53(269)
		하	5.58(426)
하	상	상	0.77(59)
		중	2.06(157)
		하	1.42(108)
	중	상	1.70(130)
		중	4.06(310)
		하	5.45(416)
	하	상	1.06(81)
		중	4.20(320)
		하	13.96(1,065)
전체			100.0 (7,628)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그림 3-6] 중노년층 유형화 과정



이러한 27개 유형에 대한 분포 및 연령군별 분포를 검토하고, 정책적 개입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표 3-8>과 같은 유형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유형을 확정함에 있어 반영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 첫째, 각 영역별로 ‘상’이나 ‘중’의 수준을 보이는 경우는 공적 개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영역간의 균형과 불균형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한 영역만 ‘하’수준인 유형과 두 가지 이상의 영역의 수준이 ‘하’인 유형을 구분하도록 한다. 즉 단일한 문제만 갖고 있는 유형과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 유형 1: 경제, 건강, 사회참여가 모두 ‘중상’수준으로 공적인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집단
- 유형 2: 건강이나 사회참여가 ‘중상’ 수준이지만 경제상태가 ‘하’수준으로 빈곤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
- 유형 3: 경제상태나 사회참여의 수준이 ‘중상’이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질병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과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
- 유형 4: 경제나 건강상태가 ‘중상’수준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참여 수준이 ‘하’수준으로 사회에서의 고립과 무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집단

유형 5: 경제, 건강, 사회참여 중 두 개 이상이 '하' 수준으로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공적인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

유형 5-1: 경제와 건강상태가 '하' 수준으로 빈곤과 질병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집단

유형 5-2: 경제와 사회참여가 '하' 수준으로 빈곤과 무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집단

유형 5-3: 건강상태와 사회참여가 '하' 수준으로 질병과 무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집단

유형 5-4: 경제, 건강, 사회참여 실태가 모두 '하'로 복합적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공적인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집단

이러한 유형분포에 기초할 경우 2개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어 우선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인 유형5는 34.2%이며, 이 중 특히 정책적 개입이 가장 시급한 유형5-4는 전체적으로 1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9.8%는 모든 영역에서 '중상'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공적 개입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문제를 갖고 있어 영역별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은 26.1%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제도/현금급여 등의 정책적 개입 필요한 유형 2가 8.6%, 건강관련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유형3이 9.4%, 무위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성화가 요구되는 유형4가 8.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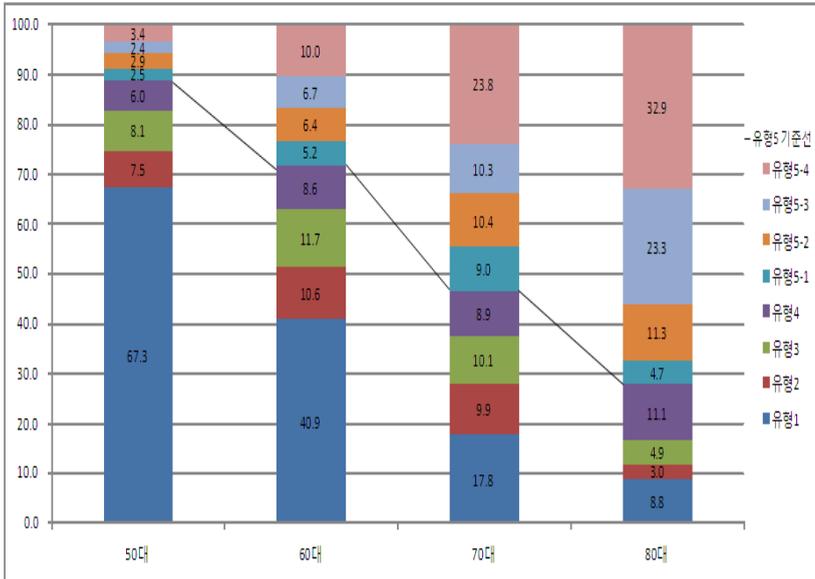
62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표 3-8〉 연령군별 유형분포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
유형 1(영역2,3,4=모두 중·상 이상)	67.3	40.9	17.8	8.8	39.8
유형 2(빈곤문제만 있는 대상)	7.5	10.6	9.9	3.0	8.6
유형 3(질병만 문제가 있는 대상)	8.1	11.7	10.1	4.9	9.4
유형 4(무위만 문제가 있는 대상)	6.0	8.6	8.9	11.1	8.1
유형 5(복합적 문제가 있는 대상)	11.1	28.3	53.4	72.3	34.2
· 5-1 (빈곤+질병 문제 대상)	2.5	5.2	9.0	4.7	5.3
· 5-2 (빈곤+무위 문제 대상)	2.9	6.4	10.4	11.3	6.9
· 5-3 (질병+무위 문제 대상)	2.4	6.7	10.3	23.3	8.1
· 5-4 (빈곤+질병+무위 문제 대상)	3.4	10.0	23.8	32.9	14.0
계 (명)	100.0 (2,446)	100.0 (2,351)	100.0 (2,008)	100.0 (823)	100.0 (7,628)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그림 3-7〕 연령군별·유형별 분포



이를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50대의 경우 유형1이 67.3%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는 가장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적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유형5는 11.1%로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단일문제를 가진 유형에 속하는 유형2는 7.5%, 유형3 8.1%, 유형4 6.0%이다(표 3-8 참조).

이러한 유형분포를 각각 갖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16.2%인데 이 중 약 절반(46.2%)에 해당하는 7.5%는 경제적 문제만 갖고 있고 다른 절반은 건강문제나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복합문제의 발생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이다. 한편, 건강문제의 경우 17.2%이며 이 중 약 절반 정도인 8.1%는 단일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의 경우도 14.7%가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아 무위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 중 41.0%가 단일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60대의 경우, 유형1이 40.9%로 평균과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유형5가 28.3%로 60대의 약 1/4은 우선적인 정책적 개입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유형2는 10.6%, 유형3이 11.7%, 유형4가 8.6%이다. 이를 문제의 성격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는 60대는 약 1/3이다. 이 중 약 1/3은 빈곤문제만을 갖고 있으나, 나머지 2/3는 빈곤이나 무위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한편 건강문제의 경우는 38.4%가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약 3/10은 건강문제만을, 나머지 7/10은 다른 문제를 함께 갖고 있다. 사회참여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70대의 경우는 유형1이 17.8%에 불과하여 50대나 60대 연령군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반면 유형5는 53.4%에 달하고 있다. 즉, 70대의 절반 정도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 중 경제, 건강, 사회참여 수준이 모두 낮은 대상도 23.8%에 달하고 있다. 반면 단일 문제를 갖고 있는 유형2가 9.9%, 유형3이 10.1%, 유형4가 8.9% 등이다. 즉, 70

6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대의 경우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80대 이상 연령군의 경우도 70대와 유사하게 복합적인 문제가 많으며, 그러한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72.3%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책적 관심의 강도가 강해져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일한 문제와 복합적인 문제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영역별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복합적 문제를 갖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80대 이상의 경우 소득,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무위의 문제도 함께 갖는 복합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 3-9〉 연령군별 유형분포

(단위: %)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	전체
빈곤 -	7.5 (46.2)	10.6 (32.9)	9.9 (18.7)	3.0 (5.8)	8.6 (24.8)
+질병	2.5	5.2	9.0	4.7	5.3
+무위	2.9	6.4	10.4	11.3	6.9
+질병, 무위	3.4	10.0	23.8	32.9	14.0
빈곤 문제가 있는 사람	16.2	32.2	53.0	52.0	34.7
질병 -	8.1 (47.0)	11.7 (30.4)	10.1 (14.8)	4.9 (5.2)	9.4 (20.6)
+빈곤	3.4	10.0	23.8	32.9	14.0
+무위	2.4	6.7	10.3	23.3	8.1
+빈곤, 무위	3.4	10.0	23.8	32.9	14.0
질병 문제가 있는 사람	17.2	38.4	67.8	94.1	45.3
무위 -	6.0 (41.0)	8.6 (27.0)	8.9 (16.6)	11.1 (14.1)	8.1 (21.9)
+빈곤	2.9	6.4	10.4	11.3	6.9
+질병	2.4	6.7	10.3	23.3	8.1
+빈곤, 질병	3.4	10.0	23.8	32.9	14.0
무위 문제가 있는 사람	14.7	31.7	53.3	78.6	37.0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 2. 연령군유형별 제특성

50대의 유형별 제 특성을 살펴본 <표 3-10>에 의하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유형3의 경우 도시거주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성별 구성의 경우 유형3, 유형4, 유형5에서의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 이상의 비중이 유형1에서만 높고 다른 유형에서는 월등히 낮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택점유 유형별로는 빈곤문제를 갖고 있는 유형2와 빈곤과 기타 다른 문제를 함께 갖고 있는 유형에게서 자가비율이 매우 낮다.

이러한 객관적인 특성 외에도 주관적인 측면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형1의 경우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1의 경우, 배우자 만족도가 72.3점, 자녀관계 만족도 75.5점, 건강상태 만족도 67.1점, 경제상태 만족도 62.2점,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68.1점이다. 반면 유형5의 경우, 각 만족도가 62.2점, 65.5점, 43.1점, 38.1점, 49.8점, 50.8점이다. 즉, 대체적으로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약 20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60대의 경우, 유형2와 유형3의 도시거주자 비중이 월등히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빈곤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60대중 농어촌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유형4와 유형5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각각 63.7%와 69.8%에 달하고 있다.

만족도의 경우, 유형1의 경우 배우자 만족도가 70.9점, 자녀관계 만족도 73.7점, 건강상태 만족도 64.5점, 경제상태 만족도 62.2점,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67.7점으로 50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형5의 경우, 각 만족도가 62.2점, 64.2점, 41.9점, 40.1점, 50.8점이다. 즉,

50대와 마찬가지로 유형1과 유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형과 무관하게 대체적인 주관적인 만족도 수준이 50대보다 약간 낮은 상황이다.

70대의 경우, 유형4에서 도시거주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70대의 사회적 고립과 무력감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형1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60.8%로 평균인 44.2%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는 50대나 60대보다도 높은 것으로 후기 노년기로 갈수록 남성의 삶의 질이 우위에 있게 됨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별로도 유형1의 경우 대졸이상이 13.2%를 차지하는 반면 유형2는 8.0% 유형3은 4.0%, 유형5는 2.6%에 불과하다. 유형4의 경우만 13.5%로 사회참여활동에 소극적인 것은 교육수준과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주관적인 만족도의 경우 또한 대체적으로 60~70점의 수준을 보이며, 유형별 차이에 있어서도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80대 이상의 경우도 유형1에서 도시거주자 비율이 높은 현상이 발견되며, 성별로는 유형3과 유형5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의 경우 유형5의 대부분이 중졸 이하라는 특징이 발견되며 주택 점유율 또한 가장 낮아 76.6%이다. 주관적인 만족도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형1은 모든 연령층에서 교육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더불어 객관적인 삶은 주관적인 만족도와 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연령층에 걸쳐 유형1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유형5의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그 차이의 정도도 유사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에 기초한 개입은 주관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표 3-10〉 연령군별·유형별 제특성

(단위:%, 명, 점)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전체
50대 전체	67.3	7.5	8.1	6.0	11.1	100.0(2,446)
지역						
도시	83.3	78.1	76.3	85.7	80.5	82.8
농어촌	16.7	21.9	23.7	14.3	19.5	17.8
성						
남성	49.0	43.2	35.4	17.7	31.6	43.7
여성	51.0	56.8	64.7	82.3	68.4	5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31.0	54.1	54.0	55.1	70.2	40.4
고졸	50.5	37.2	38.9	38.1	26.8	45.2
대졸 이상	18.5	8.7	7.1	6.8	2.9	14.4
주택점유 유형						
자가	87.7	42.1	86.4	85.0	54.4	79.8
전월세 등	13.0	57.9	13.6	15.0	45.6	20.2
종교 <sup>1)</sup>						
없음	53.5	45.1	52.6	59.7	57.2	53.6
있음	46.5	54.9	47.4	40.3	42.8	46.4
배우자 만족도 <sup>2)a)</sup>	72.3(14.3)	64.9(17.5)	68.9(15.4)	65.8(15.8)	62.2(21.1)	70.2(15.8)
자녀관계 만족도 <sup>3)a)</sup>	75.5(13.5)	73.4(16.5)	71.6(13.5)	72.0(14.6)	65.5(22.6)	73.7(15.4)
건강상태 만족도 <sup>3)</sup>	67.1(15.9)	59.7(17.3)	55.3(18.6)	63.3(17.0)	43.1(21.9)	62.7(18.7)
경제상태 만족도 <sup>4)</sup>	62.2(17.7)	42.3(20.1)	57.3(18.8)	53.9(18.0)	38.1(21.7)	57.1(20.3)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sup>5)</sup>	68.1(14.1)	58.8(17.3)	63.4(15.7)	61.3(17.0)	49.8(21.2)	64.6(16.7)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6)</sup>	48.9(20.1)	50.3(20.0)	48.7(18.6)	50.6(20.5)	50.8(22.1)	49.3(20.2)
계(명)	100.0(1,646)	100.0(183)	100.0(198)	100.0(147)	100.0(272)	100.0(2,446)
60대 전체	40.9	10.6	11.7	8.6	28.3	100.0(2,351)
지역						
도시	77.9	61.9	65.7	87.1	73.4	74.3
농어촌	22.1	38.2	34.3	12.9	26.6	25.7
성						
남성	56.6	49.0	47.1	36.3	30.2	45.5
여성	43.4	51.0	52.9	63.7	69.8	54.5
교육수준 <sup>4)</sup>						
중졸 이하	53.3	70.3	76.6	76.6	85.6	69.0
고졸	31.6	23.3	19.3	17.9	12.3	22.7
대졸 이상	15.1	6.0	4.0	5.5	2.1	8.3
주택점유 유형						
자가	93.4	75.1	90.9	90.1	72.2	84.9
전월세 등	6.6	24.9	9.1	9.9	27.8	15.1
종교						
없음	48.1	49.2	47.4	51.0	53.2	49.8
있음	51.9	50.8	52.6	49.0	46.8	50.2
배우자 만족도 <sup>2)a)</sup>	70.9(14.9)	67.6(17.2)	67.0(16.8)	67.0(16.2)	62.2(18.7)	67.5(16.9)
자녀관계 만족도 <sup>3)a)</sup>	73.7(14.2)	68.9(18.6)	68.4(15.7)	72.7(14.7)	64.2(20.6)	69.8(17.4)
건강상태 만족도 <sup>3)</sup>	64.5(16.1)	59.3(16.8)	52.3(17.5)	58.7(17.9)	41.9(20.9)	55.6(20.3)
경제상태 만족도 <sup>4)</sup>	62.2(16.8)	48.7(18.3)	56.0(16.4)	57.1(16.9)	40.1(19.7)	53.3(20.0)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sup>5)</sup>	67.7(14.0)	61.2(16.2)	61.8(15.8)	64.2(15.9)	50.8(19.1)	61.2(17.6)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6)</sup>	47.8(19.7)	51.2(19.3)	49.7(19.3)	50.4(16.6)	48.8(22.7)	48.9(20.3)
계(명)	100.0(961)	100.0(249)	100.0(274)	100.0(201)	100.0(666)	100.0(2,351)

68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전체
70대 전체	17.8	9.9	10.1	8.9	53.4	100.0(2,008)
지역						
도시	67.2	61.8	65.8	88.8	65.5	67.5
농어촌	32.8	38.2	34.2	11.2	34.5	32.5
성						
남성	60.8	59.3	38.6	46.1	36.6	44.2
여성	39.2	40.7	61.4	53.9	63.4	55.8
교육수준						
중졸 이하	66.7	78.9	77.7	67.4	88.3	80.6
고졸	20.2	13.1	18.3	19.1	9.1	13.3
대졸 이상	13.2	8.0	4.0	13.5	2.6	6.1
주택점유 유형						
자가	95.2	84.9	94.1	95.5	73.2	82.4
전월세 등	4.8	15.1	5.9	4.5	26.8	17.6
종교						
없음	45.8	53.5	41.3	51.1	50.9	49.3
있음	54.2	46.5	58.7	48.9	49.1	50.7
배우자 만족도 <sup>2)a)</sup>	70.3(14.9)	67.5(16.2)	64.2(18.5)	67.2(15.9)	60.8(19.7)	64.4(18.4)
자녀관계 만족도 <sup>3)a)</sup>	72.3(14.9)	69.6(16.7)	68.2(16.5)	69.3(14.9)	62.8(20.0)	66.3(18.5)
건강상태 만족도 <sup>a)</sup>	61.7(16.4)	57.6(17.5)	50.1(18.5)	58.0(17.1)	39.8(21.0)	48.1(21.5)
경제상태 만족도 <sup>a)</sup>	61.8(17.1)	47.0(21.0)	56.5(17.7)	55.4(16.3)	39.0(21.2)	47.1(21.9)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sup>a)</sup>	67.8(14.2)	61.1(16.4)	63.5(15.9)	62.5(14.6)	49.7(19.8)	56.6(19.3)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a)</sup>	45.2(21.1)	47.9(21.6)	47.4(18.3)	48.7(19.8)	45.4(25.2)	46.1(23.1)
계(명)	100.0(357)	100.0(199)	100.0(202)	100.0(178)	100.0(1,072)	100.0(2,008)
80대 전체	8.8	3.0	4.8	11.1	72.3	100.0(823)
지역						
도시	79.2	64.0	72.5	71.4	67.6	69.1
농어촌	20.8	36.0	27.5	28.6	32.4	30.9
성						
남성	47.2	68.0	22.5	40.7	29.6	33.2
여성	52.8	32.0	77.5	59.3	70.4	66.8
교육수준						
중졸 이하	79.2	88.0	90.0	85.7	92.3	90.2
고졸	9.7	12.0	7.5	8.8	5.9	6.8
대졸 이상	11.1	0.0	2.5	5.5	1.9	3.0
주택점유 유형						
자가	95.8	84.0	97.5	95.6	76.6	81.7
전월세 등	4.2	16.0	2.5	4.4	23.4	18.4
종교						
없음	36.1	40.0	27.5	64.8	54.3	52.1
있음	63.9	60.0	72.5	35.2	45.7	47.9
배우자 만족도 <sup>2)b)</sup>	72.4(14.4)	69.5(13.1)	57.1(19.6)	67.9(20.7)	62.2(21.3)	64.3(20.3)
자녀관계 만족도 <sup>3)b)</sup>	72.0(13.9)	66.1(15.0)	63.6(19.3)	68.4(13.5)	62.7(20.6)	64.3(19.4)
건강상태 만족도 <sup>a)</sup>	61.3(14.0)	58.8(15.4)	50.3(19.0)	55.8(20.4)	39.3(21.7)	44.2(22.2)
경제상태 만족도 <sup>a)</sup>	62.5(14.7)	44.0(18.0)	54.3(19.2)	54.1(19.9)	39.5(21.0)	44.0(21.7)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sup>a)</sup>	66.8(12.1)	61.6(13.4)	62.3(14.4)	62.8(13.2)	49.9(19.4)	53.8(19.0)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a)</sup>	47.1(19.5)	40.8(21.4)	43.5(22.7)	43.4(23.5)	43.2(25.9)	43.5(24.9)
계(명)	100.0(72)	100.0(25)	100.0(40)	100.0(91)	100.0(595)	100.0(823)

주: 1) 종교의 경우 결측치 47인을 제외한 수치임(유형1 16인, 유형2 5인, 유형3 5인, 유형4 6인, 유형5 15인)  
 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3)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4) '모르겠음' 응답자 1인을 제외한 수치임(유형2 응답자).      a) ( )은 표준편차임.

## 제3절 중노년층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 1. 개요

앞서 중·노년층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계량화 및 그에 기초한 유형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질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해 중·노년층의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중·노년층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하며,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통해 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이 전국의 1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뽑아 매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가 매10분 단위로 이틀간에 걸쳐 일지를 작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틀 치 중에서 둘째 날의 기록만을 이용하였다. 이는 우선 분석에서 기록자(즉 행위자)들의 중복투입을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틀 치의 기록 중에서 둘째 날 기록의 질(quality)이 더 좋은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월, 수, 금, 토, 일요일의 생활시간사용기록이 분석에 활용되었다<sup>11)</sup>.

분석을 위해 선택된 행위자들은 총 6,353사례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주일간 평균적인 행위와 시간사용량을 도출하기 위해 주중과 주말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월, 수, 금에 보고된 사례에 대해 주중의 행위자비율과 행위시간의 가중치로 5/7의 값을, 토, 일에 보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주말의 행위자비율과 행위시간의 가중치로 2/7의 값을 부여한 결과, 분석사례는

11) 둘째 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사례는 없었음.

## 70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3,446여 사례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분석은 집단 간의 상대적인 차이로 이해됨을 유의해야 한다<sup>12)</sup>.

다음의 <표 3-11>은 연령대와 연령대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연령대는 50대가 1,479사례로 가장 많으며, 이를 이어 60대가 1,037사례, 70대가 704사례를 차지한다. 최고연령대인 80대 이상은 226사례에 그치고 있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언급하겠지만, 80대 이상의 경우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예. 성과 경제활동여부 등)을 더 세분해서 보기는 무리가 있었다.

<표 3-11> 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50대	60대	70대	80대
행위자수	3,446	1,479	1,037	704	226
요일					
주중	78.9	78.8	79.2	78.8	77.9
주말	21.1	21.2	20.8	21.2	22.1
성별					
남자	46.2	48.4	48.0	42.3	35.4
여자	53.8	51.6	52.0	57.7	64.6
거주지역					
동부	82.0	87.2	82.3	74.1	70.8
읍면부	18.0	12.8	17.7	25.9	29.2
경제활동					
유	54.3	72.2	51.5	33.9	12.8
무	45.7	27.8	48.5	66.1	87.2
가구원수					
1인 가구	12.3	6.4	10.9	21.2	29.2
2인 가구	42.4	32.0	53.4	51.3	32.7
3인 이상 가구	45.3	61.5	35.7	27.6	38.1

주: 주중과 주말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 인해 사례수가 변동됨.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12) 생활시간조사의 사례(case)는 원래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일임. 행위로서의 행위일(시간)과 행위자(사람)가 중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돈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주중과 주말을 통합한 평균량을 추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시간으로서의 사례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사례수의 축소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둠.

조사요일은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였다. 월, 수, 금요일은 주중으로, 토, 일요일은 주말로 분류하였다. 주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주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이다. 각 요일은 대체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노년층의 성별 구성을 반영하듯이, 여성이 53.8%로 남성보다 더 많다. 여성의 비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으로 구분하였는데, 동지역 거주자들이 82.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비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일을 하였다는 비율이 54.3%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자들의 비율 또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가구원수별 구분에서는 1인 가구가 12.3%, 2인 가구가 42.4%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앞에서 언급한 성, 거주지역, 경제활동여부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고령층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신, 3인 이상 가구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중·노년층을 50대 이상으로 한정된 이상의 자료들은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이 많고, 읍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보여준다. 또한 고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자비율이 낮으며,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 분석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분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활시간조사분석결과는 대체로 주어진 행위를 해당 기록날짜에 한 사람의 비율(행위자비율), 그리고 이들이 특정행위에 사용한 평균 시간량(행위시간량)으로 제시된다. 생활시간조사에서 행위는 대분류, 중분류,

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구정보는 조사대상선정과 확인을 위한 가구조사표에 근거하고 있어 본 조사와 가구조사표 작성시점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분류로 구분되며 상위분류의 행위는 해당 분류의 하위분류행위 중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대분류의 범주를 사용하지만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하위분류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일부 행위는 매우 소수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시간량을 살펴볼 때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주어진 사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맞추어 세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은 그 사례수가 적어질 수 있다. 가령,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80대 이상 남성이나 여성 등의 사례수는 매우 적다. 따라서 분석과정에서 소수사례에 기초한 결과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일상생활의 행위와 그 행위에 쓰인 시간량이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는 데 있다. 일상행위와 시간량은 연령대 이외에 다른 요소들에 의해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성, 거주지역, 경제활동여부, 가구원수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와 이러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결과 해석은 주어진 요소들이 통제된, 혹은 동일한 상황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둘 것이다.

## 2. 분석결과

분석은 우선 행위자비율과 행위자평균시간량의 연령대간 차이만을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이어 행위자의 행위요일별 연령대간 차이를 살펴본 후, 성, 거주지역, 경제활동참여여부, 가구원수별 연령대간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분석들은 대체로 연령대와 주어진 한 개 변수에 따른 행위자비율과 시간량의 차이를 살펴보는 삼원분석에 해당한다. 연령대와 두 개 이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예, 연령대\*성\*경제활

동참여에 따른 행위자비율과 시간량 차이)는 적절한 표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문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느 정도 사례수가 확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 부록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 가. 연령군별 차이

〈표 3-12〉는 연령대별 행위자비율과 행위평균시간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개인유지행위 중에서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비율이 연령과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0대 이상 층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질병이나 건강악화의 결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일을 한다는 비율은 연령 증가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 이상의 고령 층에서 일을 한다는 비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관리에 시간을 쓴다는 비율은 50대와 60대 사이에 제법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두 연령대를 기점으로 퇴직한 남성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족보살피기 행위자 비율은 70대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령대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없을 뿐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 손자녀가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우자와의 사별로 혼자 사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한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자신들이 노쇠하기 시작해 도움을 줄 수 없을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참여 및 봉사활동은 연령증가와 함께 서서히 증가하지만 20%를 넘어 서지는 않는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디어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일반인의 학습행위가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편, 스포

7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츠와 집밖 레저활동, 그리고 취미 및 기타여가활동은 연령과 함께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은 역시 연령증가와 함께 다소 낮아지고 있다.

행위자비율과 함께 행위시간량의 차이도 관찰된다. 건강관리의 경우, 행위자비율의 증가와 함께 해당 행위에 쓰이는 시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0대와 60대의 경우 60여분의 시간을 쓰지만, 70대에서는 76.9분, 그리고 80대에서는 94.7분을 쓰고 있다.

<표 3-12>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1,480)		60대(사례=1,037)		70대(사례=704)		80대(사례=226)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개인유지	100.0	646.2	100.0	670.2	100.0	693.2	100.0	740.2
식사 및 간식	100.0	108.1	100.0	108.3	100.0	102.6	100.0	101.7
건강관리	11.0	66.2	19.8	63.6	32.9	76.9	31.3	94.7
일	66.6	387.3	50.5	334.5	38.1	259.0	28.9	148.8
고용된 일/자영업	57.4	404.3	39.6	362.1	24.3	302.9	9.0	206.5
학습	0.3	277.3	0.1	---	0.1	---	0.0	---
가정관리	73.8	155.4	81.8	153.2	82.6	150.6	80.3	136.1
가족보살피기	21.8	53.9	20.4	76.4	13.5	74.5	8.7	56.5
참여 및 봉사활동	13.9	135.0	15.6	146.7	18.7	132.8	18.4	127.9
교제 및 여가활동	99.1	268.6	99.4	323.4	99.7	387.9	99.7	440.4
교제활동	71.8	63.5	70.5	70.5	74.0	76.0	74.7	83.1
일반인의 학습	3.2	129.5	3.5	128.1	2.5	110.2	2.5	85.0
미디어 이용	92.2	153.3	94.2	186.7	96.6	228.8	97.7	266.8
스포츠와 집 밖 레저	40.3	92.4	48.5	95.6	49.7	94.9	50.0	78.6
취미 및 기타여가	61.0	58.3	63.9	67.2	70.0	82.5	72.3	101.9
이동	98.7	124.3	98.5	115.3	94.4	106.0	88.1	89.2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일의 경우, 연령과 함께 행위자비율이 감소하는 동시에 하루에 일하는 시간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가정관리의 경우는 행위자비율이 연령과 함께 증가하지만 시간량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전체적으로 연령과 더불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이용시간과 취미 및 기타여가활동시간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스포츠와 집밖 레저활동시간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동에 쓰는 시간 또한 연령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나이가 들면서 이동을 적게 할 뿐 아니라 이동하는 시간거리도 짧은 것으로 이해된다.

#### 나. 요일별·연령군별 차이

〈표 3-13〉은 연령대별 행위자비율과 행위평균시간량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연령대별 차이가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년층에서 다소 더 뚜렷한 점이 발견된다.

일의 경우, 50대에서는 71.9%가 주중에 일을 하고 46.8%가 주말에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70대에서는 주중에는 38.6%, 주말에는 36.3%가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주중과 주말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80대에서는 주중과 주말 간 일을 한 비율차이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시간량 또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후기노인의 경우 다수가 고고용에서 벗어나있기도 하고, 이들의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sup>14)</sup>.

중년층에서 주중과 주말의 또 다른 차이는 참여 및 봉사활동에서도 발

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8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3.6%이며 이중 약 69%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정경희 외, 2012).

견된다. 50대에서 해당 행위를 주중에 하는 비율은 12.5%이지만 주말에는 19.2%에 이른다. 또한 해당 행위의 시간량도 주중 127.0분, 주말 154.2분으로 제법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70대에서 참여 및 봉사활동 행위자 비율은 주중 18.3%, 주말 20.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행위평균시간량 또한 각각 131.9분과 136.0분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일의 행위량과 시간량의 주중과 주말 간 차이가 참여 및 봉사활동으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참여 및 봉사활동 또한 노년에서 주중과 주말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3-13〉 요일과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1,166)		60대(사례=821)		70대(사례=555)		80대(사례=176)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주중〉								
개인유지	100.0	638.3	100.0	666.2	100.0	692.5	100.0	739.8
식사 및 간식	100.0	107.0	100.0	107.4	100.0	102.3	100.0	101.5
건강관리	11.5	66.6	20.5	63.4	34.1	79.8	31.2	95.1
일	71.9	399.4	53.6	339.2	38.6	270.9	28.7	146.5
고용된 일/자영업	63.0	413.0	42.8	363.6	25.9	309.8	8.9	204.1
학습	0.2	312.5	0.1	---	0.1	---	0.0	---
가정관리	73.1	153.6	81.3	151.2	82.4	150.2	79.8	141.4
가족보살피기	22.6	50.6	20.8	74.9	13.1	71.7	9.3	60.9
참여 및 봉사활동	12.5	127.0	15.1	142.1	18.3	131.9	16.6	125.4
교제 및 여가활동	99.0	253.7	99.4	316.5	99.7	383.1	99.6	439.8
교제활동	71.2	58.7	68.9	68.8	73.6	72.8	74.9	80.1
일반인의 학습	3.6	127.2	3.9	134.0	2.7	114.3	3.2	85.0
미디어 이용	91.9	146.0	94.0	183.6	96.5	223.9	98.0	267.5
스포츠와 집 밖 레저	39.9	87.2	48.5	93.1	50.6	95.4	50.6	75.7
취미 및 기타여가	60.5	56.6	64.2	66.1	71.2	83.1	72.9	100.4
이동	98.9	123.0	98.5	117.2	94.7	107.2	88.7	89.0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313)		60대(사례=216)		70대(사례=149)		80대(사례=50)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주말〉								
개인유지	100.0	675.4	100.0	685.7	100.0	695.9	100.0	741.6
식사 및 간식	100.0	111.9	100.0	111.9	100.0	103.7	100.0	102.5
건강관리	9.2	64.3	17.3	64.5	28.3	63.9	31.6	93.5
일	46.8	318.2	38.8	310.0	36.3	211.9	29.3	156.9
고용된 일/자영업	36.6	348.1	27.5	353.2	18.5	266.8	9.2	215.0
학습	0.3	---	0.0	---	0.0	---	0.0	---
가정관리	76.6	161.9	83.7	160.8	83.3	152.3	82.2	117.7
가족보살피기	19.0	68.4	19.0	82.6	15.0	83.7	6.3	33.6
참여 및 봉사활동	19.2	154.2	17.9	161.4	20.2	136.0	24.7	134.0
교제 및 여가활동	99.3	323.8	99.5	349.5	99.6	405.7	100.0	442.6
교제활동	74.0	80.6	76.5	76.2	75.4	87.8	74.1	93.9
일반인의 학습	2.1	143.5	1.9	80.7	1.5	83.8	0.0	---
미디어 이용	93.4	179.8	95.1	198.4	96.7	247.1	96.6	264.2
스포츠와 집 밖 레저	42.0	111.0	48.8	105.3	46.5	93.0	47.7	89.4
취미 및 기타여가	63.1	64.5	62.7	71.4	65.6	79.8	70.1	107.3
이동	97.8	129.0	98.4	107.9	93.1	101.3	86.2	89.7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 다. 성별 연령대간 차이

남녀에 따라 연령대별 행위자비율과 그 시간량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는 <표 3-14>를 통해 알 수 있다. 건강관리행위와 시간량은 남녀 모두 대체로 연령과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이 건강관리를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고 이러한 경향의 남녀 간 차이는 연령과 함께 더욱 뚜렷해진다(다만 사례수가 적은 80대의 경우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78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표 3-14〉 성과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716)		60대(사례=498)		70대(사례=298)		80대(사례=80)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남자〉								
개인유지	100.0	645.4	100.0	670.7	100.0	692.6	100.0	756.5
식사 및 간식	100.0	110.8	100.0	111.8	100.0	107.5	100.0	105.9
건강관리	8.5	74.5	15.0	58.2	26.4	69.0	34.1	97.0
일	81.4	411.3	61.2	355.4	41.8	285.2	33.2	156.6
고용된 일/자영업	77.8	418.1	56.1	371.9	33.5	307.2	16.7	179.7
학습	0.3	283.3	0.0	---	0.0	---	0.0	---
가정관리	48.1	65.8	64.2	70.9	65.2	86.1	64.0	80.5
가족보살피기	9.4	43.3	13.4	69.2	11.3	76.6	6.8	66.6
참여 및 봉사활동	7.2	112.7	9.7	132.2	11.0	127.7	8.6	112.3
교제 및 여가활동	99.6	283.6	99.5	364.6	100.0	443.0	100.0	484.2
교제활동	69.1	62.0	68.6	69.0	69.7	71.9	72.2	76.5
일반인의 학습	2.6	143.2	2.6	128.5	2.0	112.4	2.7	93.3
미디어 이용	94.1	159.1	94.5	207.3	97.6	257.5	100.0	293.0
스포츠와 집 밖 레저	43.3	92.2	56.1	106.5	61.8	109.1	65.2	90.8
취미 및 기타여가	69.0	64.4	70.3	76.8	75.2	91.4	70.4	104.6
이동	99.0	133.4	98.3	122.5	95.3	110.2	87.1	91.0
〈여자〉								
개인유지	100.0	646.9	100.0	669.8	100.0	693.6	100.0	731.3
식사 및 간식	100.0	105.5	100.0	105.1	100.0	98.9	100.0	99.4
건강관리	13.3	61.2	24.3	66.6	37.7	81.0	29.8	93.3
일	52.7	352.5	40.6	305.5	35.4	236.2	26.5	143.5
고용된 일/자영업	38.2	377.9	24.4	341.1	17.5	296.8	4.8	257.6
학습	0.2	269.1	0.1	0.0	0.2	0.0	0.0	0.0
가정관리	98.0	196.6	98.0	203.0	95.3	183.1	89.2	157.8
가족보살피기	33.5	56.7	27.0	79.7	15.2	73.4	9.7	52.6
참여 및 봉사활동	20.2	142.4	21.1	152.8	24.3	134.6	23.7	131.0
교제 및 여가활동	98.6	254.3	99.4	285.4	99.5	347.1	99.5	416.4
교제활동	74.4	64.7	72.2	71.7	77.1	78.8	76.1	86.5
일반인의 학습	3.9	120.8	4.3	127.9	2.8	109.1	2.4	80.0
미디어 이용	90.4	147.6	94.0	167.7	95.8	207.4	96.4	252.0
스포츠와 집 밖 레저	37.6	92.7	41.6	82.1	40.9	79.1	41.7	68.1
취미 및 기타여가	53.6	50.9	58.0	56.4	66.2	75.0	73.3	100.5
이동	98.4	115.6	98.6	108.6	93.7	102.8	88.7	88.2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종교활동(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 코드 a741-a749)을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종교활동(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 코드 a741-a749)을 배제.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일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는 분명하며, 이 차이는 중년층에서 확연히 드러나지만 노년층으로 갈수록 약화된다. 50대 남성 중에서 일을 하는 비율은 81.4%이며 그들의 평균시간량은 411.3분이다. 50대 여성 중에서 해당 비율과 시간은 각각 52.7%와 352.5분이다. 이 연령대의 남성은 대체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상당수도 그러하다. 그러나 남성들은 50대 이후부터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물론 여성들의 경우도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낮아지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다. 70대 이후부터는 일을 하는 비율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든데, 이는 대체로 퇴직연령이 없는 일차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sup>15)</sup>.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남성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비율이 대체로 10% 안팎의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여성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항상 남성들보다 가족보살피기를 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 시간 또한 많은 편이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족보살피기를 하는 여성비율은 점차 감소해 남자들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 참여 및 봉사활동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대체로 여성들의 비율이 남성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해당 비율은 연령증가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성별 차이는 대체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형적인 가족 내 분업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별 분업은 경제활동이 여전한 중년층에서 뚜렷이 나타나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남성들의 경제활동이 줄어든 일면을 반영한다. 한편, 자녀의 성장과 분가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노년층 여성들의 가족보살피기 활동이 줄어든 일면도 함께 보인다고 판단된다.

15) 정경희 외(2012)에 의하면 후기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다수가 일차산업으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남녀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라. 거주지별 연령대간 차이

도시와 농촌 거주자들의 연령대별 행위자비율과 그 시간량의 차이는 다음의 <표 3-15>와 같다. 우선 일을 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지역에 관계없이 연령증가와 함께 일을 하는 비율이 낮아지지만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시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도시의 경우, 중년층에서 노년층사이에 퇴직이 많을 뿐 아니라, 퇴직 후 재취업의 기회도 적다. 그러나 농촌의 농사일은 완전한 은퇴가 이루어지지 않고 꾸준히 어느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농촌의 고령층에서 일을 하는 비율이 상당 수준에 이르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거주지와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1,290)		60대(사례=853)		70대(사례=522)		80대(사례=160)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동부〉								
개인유지	100.0	646.2	100.0	671.3	100.0	693.1	100.0	746.4
식사 및 간식	100.0	109.0	100.0	109.8	100.0	104.8	100.0	105.4
건강관리	10.8	66.7	19.2	63.4	31.5	75.2	30.8	104.4
일	64.5	395.1	45.2	332.8	29.4	256.5	20.4	138.9
고용된 일/자영업	57.5	409.9	36.2	370.2	18.2	312.4	6.5	180.7
학습	0.3	277.3	0.1	0.0	0.1	0.0	0.0	0.0
가정관리	73.1	155.9	81.6	155.6	82.7	150.4	81.3	132.9
가족보살피기	22.7	52.0	22.0	77.1	15.1	79.1	9.2	47.7
참여 및 봉사활동	14.0	135.7	16.7	149.1	19.6	132.6	19.8	137.8
교제 및 여가활동	99.2	270.2	99.6	334.3	99.9	406.9	99.6	450.6
교제활동	71.9	62.5	71.9	71.4	75.4	76.3	75.5	82.8
일반인의 학습	3.5	130.8	3.8	131.1	3.0	111.9	3.1	88.6
미디어 이용	92.2	153.8	94.5	190.7	96.9	237.4	97.1	270.3
스포츠와 집 밖 레저	41.6	92.4	52.1	96.7	52.8	99.6	52.5	83.2
취미 및 기타여가	61.6	58.5	64.2	68.1	71.7	84.6	74.2	102.8
이동	98.8	125.7	98.4	116.4	94.4	106.7	87.9	86.4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189)		60대(사례=184)		70대(사례=182)		80대(사례=66)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음면부〉								
개인유지	100.0	645.8	100.0	665.4	100.0	693.5	100.0	725.3
식사 및 간식	100.0	101.9	100.0	101.7	100.0	96.3	100.0	92.9
건강관리	12.3	63.3	22.4	64.3	36.9	81.3	32.5	72.5
일	80.9	344.6	75.2	339.2	63.3	262.3	49.	158.8
고용된 일/자영업	56.9	365.6	55.5	337.5	41.8	290.9	14.9	233.9
학습	0.0	0.0	0.0	0.0	0.0	0.0	0.0	0.0
가정관리	79.1	152.6	82.6	142.4	82.3	151.2	77.9	144.1
가족보살피기	15.8	72.1	13.2	70.8	8.9	52.0	7.4	83.2
참여 및 봉사활동	13.5	129.6	10.6	128.5	16.2	133.7	14.9	95.9
교제 및 여가활동	98.2	257.5	98.6	272.5	99.3	332.9	100.0	415.6
교제활동	71.4	70.6	64.2	65.6	69.9	75.3	72.9	83.8
일반인의 학습	1.3	104.7	1.9	99.2	0.9	95.0	1.1	0.0
미디어 이용	92.4	149.6	92.9	168.3	95.7	203.9	98.9	258.4
스포츠와 집 밖 레저	31.7	92.8	32.0	87.2	40.8	77.4	43.7	64.9
취미 및 기타여가	57.2	57.3	62.5	63.0	65.1	75.8	67.5	99.6
이동	98.0	114.2	98.9	109.8	94.3	103.9	88.7	96.0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가족보살피기는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대체로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한다. 그런데 모든 연령층에 걸쳐 가족보살피기를 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의 폭은 도시지역에서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경우, 자녀들과 따로 떨어져 홀로 살거나 부부만 사는 경우가 더 많아 손자녀 등을 돌볼 조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스포츠와 집 밖 레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 활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데, 전 연령층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일정하다. 이는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레저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며, 농촌에서는 딱히 스포츠나 레저활동으로 분류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 마. 경제활동여부별 연령대간 차이

경제활동여부는 일을 하는 비율과 직결되기도 하거니와, 해당 행위자들의 일상생활시간을 구조화한다. 다음의 <표 3-16>에서와 같이, 일을 하는 비율은 당연히 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 확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두 집단 간의 확연한 차이는 우선 건강관리를 하는 비율에서 발견된다. 물론 해당비율은 경제활동참여여부에 관계없이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고연령층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다소 완화된다. 중년층에서 보이는 뚜렷한 차이는 이 연령층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거니와 일을 하지 않는 대신 건강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도 반영한다.

<표 3-16> 경제활동참여와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1,068)		60대(사례=534)		70대(사례=239)		80대(사례=29)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경제활동참여〉								
개인유지	100.0	636.0	100.0	649.5	100.0	666.0	100.0	701.8
식사 및 간식	100.0	107.8	100.0	107.6	100.0	100.5	100.0	93.4
건강관리	7.3	46.1	12.2	59.6	24.5	69.9	17.2	88.6
일	88.2	398.0	88.2	360.0	87.3	298.6	90.6	208.4
고용된 일/자영업	78.9	404.0	76.2	363.5	70.4	304.5	63.1	214.8
학습	0.3	248.1	0.0	0.0	0.0	0.0	0.0	0.0
가정관리	66.7	117.2	72.5	117.8	78.4	133.5	74.4	105.9
가족보살피기	14.9	42.7	13.4	50.2	12.0	72.8	3.4	0.0
참여 및 봉사활동	10.5	119.6	10.3	121.0	12.2	109.2	13.3	63.3
교제 및 여가활동	98.7	228.7	98.8	246.9	99.2	277.5	100.0	359.8
교제활동	70.7	59.5	66.5	63.4	67.7	64.8	68.5	79.8
일반인의 학습	1.8	101.3	1.7	131.8	1.6	94.8	2.5	0.0
미디어 이용	90.2	131.0	90.8	151.0	94.1	174.0	96.6	238.5
스포츠와 집 밖 레저	33.7	85.7	36.1	79.0	33.7	76.7	43.3	54.5
취미 및 기타여가	61.3	54.6	61.0	53.6	66.1	59.4	57.1	73.3
이동	99.3	129.0	99.0	123.6	98.1	111.9	92.6	104.4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411)		60대(사례=503)		70대(사례=465)		80대(사례=197)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경제활동비참여〉								
개인유지	100.0	672.5	100.0	692.2	100.0	707.1	100.0	745.9
식사 및 간식	100.0	108.9	100.0	109.2	100.0	103.6	100.0	102.9
건강관리	20.5	84.8	27.8	65.4	37.2	79.3	33.3	95.2
일	10.5	153.8	10.5	106.9	12.9	121.6	19.8	108.6
고용된 일/자영업	1.6	436.7	0.8	204.8	0.7	216.4	1.0	130.7
학습	0.2	0.0	0.1	0.0	0.2	0.0	0.0	0.0
가정관리	92.5	227.0	91.6	183.0	84.7	158.7	81.2	140.2
가족보살피기	39.8	64.7	27.9	89.8	14.3	75.2	9.4	54.5
참여 및 봉사활동	22.7	153.6	21.3	159.9	22.0	139.6	19.1	134.5
교제 및 여가활동	99.9	370.9	100.0	403.7	100.0	444.0	99.6	452.3
교제활동	74.8	73.3	74.7	77.1	77.2	81.1	75.7	83.6
일반인의 학습	7.0	148.1	5.3	126.8	2.9	114.7	2.5	82.9
미디어 이용	97.3	207.0	97.9	221.9	97.8	255.9	97.8	270.9
스포츠와 집 밖 레저	57.4	102.7	61.8	105.9	57.9	100.3	50.9	81.6
취미 및 기타여가	60.5	68.1	67.0	80.3	72.0	93.3	74.5	105.1
이동	96.9	111.6	97.9	106.3	92.5	102.7	87.5	86.8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경제활동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또 다른 차이는 가족보살피기에서 발견된다. 경제활동참여자 중에서 가족보살피기를 하는 비율은 연령증가와 함께 낮아지기는 하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남자이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보살피기행위를 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족보살피기를 하는 비율은 50대에서 80대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이들 집단은 대부분이 여성들로 가족보살피기행위를 하지만 고령으로 가면서 보살필 대상이 적어지기도 하고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함을 반영한다.

경제활동참여자와 비참여가간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스포츠와 집밖

레저활동을 하는 비율에서도 발견된다. 경제활동참여자들에 비해 비참여자들의 해당 행위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해당 활동에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스포츠와 집밖 레저활동 행위자 비율은 대체로 연령증가에는 둔감하고 일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보인다.

### 바. 가구원수별 연령대간 차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이고 누구인가에 따라 일상생활시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의 <표 3-17>은 가구원수와 연령대별로 행위자비율과 평균시간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건강관리행위자 비율과 시간량은 대체적으로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혼자 살거나 부부가 살고 있는 경우에 자신들의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1인 혹은 부부가구가 대체로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면이 있다. 또한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자신들 이외의 가족보살피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가정관리를 하는 비율이나 시간은 더 높고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7〉 가구원수와 연령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95)		60대(사례=113)		70대(사례=149)		80대(사례=66)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1인 가구〉								
개인유지	100.0	652.6	100.0	668.8	100.0	681.6	100.0	712.7
식사 및 간식	100.0	91.6	100.0	96.4	100.0	87.2	100.0	89.0
건강관리	19.3	68.3	27.2	65.6	39.2	79.6	38.4	76.9
일	69.5	367.7	41.5	332.8	43.3	227.6	32.3	137.1
고용된 일/자영업	64.7	376.1	34.4	386.0	27.0	277.2	8.8	236.1
학습	0.0	0.0	0.0	0.0	0.0	0.0	0.0	0.0
가정관리	91.9	124.1	98.7	146.2	97.4	160.0	98.9	154.8
가족보살피기	4.9	73.0	5.7	117.3	6.7	117.9	3.7	104.1
참여 및 봉사활동	12.9	128.0	22.4	159.5	23.7	155.9	23.9	104.7
교제 및 여가활동	99.0	281.4	100.0	335.7	99.1	349.3	100.0	404.0
교제활동	71.0	65.3	77.3	73.5	80.1	85.9	83.6	84.1
일반인의 학습	3.0	77.5	5.6	146.6	0.9	97.8	3.2	86.7
미디어 이용	89.8	165.4	97.8	174.0	95.2	196.4	95.5	224.6
스포츠와 집 밖 레저	38.0	88.7	54.7	92.0	46.0	78.8	47.2	68.5
취미 및 기타여가	66.5	67.2	67.5	72.9	64.7	81.8	75.4	107.0
이동	97.2	120.2	99.2	108.5	98.0	113.1	98.9	96.6
〈2인 가구〉								
개인유지	100.0	648.6	100.0	665.9	100.0	689.7	100.0	751.1
식사 및 간식	100.0	106.7	100.0	107.8	100.0	104.6	100.0	103.6
건강관리	13.5	68.0	19.9	61.1	31.4	69.6	34.4	118.0
일	64.3	375.6	52.9	325.6	38.2	267.8	31.9	161.5
고용된 일/자영업	51.9	401.7	40.9	343.3	25.1	313.4	18.1	197.0
학습	0.2	0.0	0.1	0.0	0.2	0.0	0.0	0.0
가정관리	79.0	158.3	83.0	155.7	79.3	151.5	68.5	134.0
가족보살피기	19.1	58.8	19.1	68.6	12.9	70.3	8.7	42.7
참여 및 봉사활동	17.0	145.8	16.5	146.6	16.5	118.1	11.9	137.3
교제 및 여가활동	98.9	274.2	99.4	317.2	100.0	395.3	99.0	445.7
교제활동	73.1	62.8	70.1	70.8	72.9	73.8	68.3	75.0
일반인의 학습	3.6	120.5	3.1	134.8	3.1	110.1	1.9	55.0
미디어 이용	93.3	154.6	93.2	185.4	96.8	229.6	98.7	270.4
스포츠와 집 밖 레저	40.8	95.6	47.4	91.9	51.1	99.9	53.1	91.8
취미 및 기타여가	59.7	60.6	64.2	66.6	72.8	85.6	67.3	108.9
이동	98.5	117.5	98.6	119.3	95.0	107.1	86.3	94.0

86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행위 분류코드	50대(사례=910)		60대(사례=370)		70대(사례=194)		80대(사례=86)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3인 이상가구)								
개인유지	100.0	644.2	100.0	677.2	100.0	708.7	100.0	752.1
식사 및 간식	100.0	110.5	100.0	112.8	100.0	110.5	100.0	110.0
건강관리	8.8	64.3	17.4	66.9	30.8	88.3	23.0	87.4
일	67.5	395.2	49.6	349.1	34.1	271.2	23.5	146.3
고용된 일/자영업	59.5	408.7	39.4	384.8	20.8	304.8	1.2	0.0
학습	0.3	254.7	0.0	0.0	0.0	0.0	0.0	0.0
가정관리	69.3	158.1	74.8	151.9	77.3	139.8	76.1	118.8
가족보살피기	25.0	51.5	27.0	81.9	19.9	68.3	12.5	54.0
참여 및 봉사활동	12.4	128.0	12.3	139.6	19.0	134.6	19.7	144.8
교제 및 여가활동	99.2	264.3	99.3	328.9	99.6	403.4	100.0	463.9
교제활동	71.3	63.7	69.1	68.9	71.4	72.0	73.5	88.8
일반인의 학습	3.1	140.3	3.4	109.3	2.5	113.8	2.5	103.3
미디어 이용	91.9	151.3	94.6	192.7	97.2	251.8	98.5	295.3
스포츠와 집 밖 레저	40.3	91.1	48.4	102.3	50.0	96.6	49.4	73.6
취미 및 기타여가	61.2	56.2	62.4	66.2	68.9	76.8	74.1	92.4
이동	98.9	128.2	98.1	111.2	90.5	97.8	81.3	77.8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1인 가구 거주자에게서 눈에 띄는 현상은 교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50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해당 해위비율은 2인 가구나 3인 이상 가구 거주자들에게서는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1인 가구 거주자들은 연령증가와 함께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교제활동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 3. 종합

여기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해 중·노년층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평균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자료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는 중·노년기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를 일정 부분 보

여주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어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중·노년기 삶의 궤적 또한 차별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중년에서 노년으로 연령증가와 함께 건강관리를 하는 비율과 시간량이 증가한다. 반면, 일을 하는 비율과 그 시간량은 감소한다. 중년이후의 퇴직은 경제활동참가와 그에 배당된 시간을 줄이게 된다. 이와 함께 신체적, 생리적 약화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가정관리 행위비율은 연령증가와 함께 다소 증가하는 반면, 가족보살피기 행위자는 감소한다. 이는 노년으로 갈수록 부부중심 혹은 혼자만의 생활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여 및 봉사활동이나 교제활동이 노년기로 갈수록 다소 증가하나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여가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스포츠나 집밖 레저활동 그리고 취미 및 기타여가활동 등의 행위자 비율이 60대나 70대에서 다소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일별 활동의 차이는 50대에서 가장 뚜렷하다. 여기에는 50대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퇴가 이루어지고 신체적, 생리적 노화가 활발해지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중과 주말의 차이는 불분명해진다. 경제활동을 하던 시점에서 발생한 주중과 주말의 생활 시간구조가 경제활동을 그만두면서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자에게서는 일을 하는 행위와 그 시간량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와 집밖 레저활동과 같은 여가활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와 동시에 노년으로 갈수록 남자들이 가정관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밖에서의 경제활동을 그만두면서 가정관리와 여가활동으로 시간구조의 축이 옮겨가는 것으로 이

해된다. 이에 비해 여성들에게서 연령증가에 따른 생활시간구조의 변화는 훨씬 완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증가에 따라 가족보살피기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시간배분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거주지별로도 연령증가에 따른 일의 변화가 눈에 띈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낮지만, 연령증가에 따른 변동의 폭은 훨씬 뚜렷하다. 농사와는 달리, 직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이 도시에 집중된 탓으로 이해된다. 도시지역에서의 은퇴는 스포츠와 집밖 레저 혹은 취미 및 기타여가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촌지역에서의 가족보살피기 행위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노인 혼자 혹은 노인부부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구분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강관리 행위를 하는 비율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비참여자들의 해당행위비율이 높는데, 이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 두었거나 재취업을 위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또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경제활동참가자들에게서 낮으며 연령대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

가구원수에 따른 차이는 건강관리 행위자비율은 연령에 따라 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가족보살피기의 비율은 낮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나 부부가구가 대체로 노인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함께 살면서 도움을 줄 가족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1인 가구 거주자들에게서는 교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연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인 가구나 3인 이상 가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1인 가구 거주자들이 가족이외 다른 친지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려는 뜻으로 이해된다.



## 제4장 중·노년층 삶의 질: 질적 접근

제1절 사례연구 개요

제2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제3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제4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노년층의 일상생활



# 4

## 중노년층 삶의 질: << 질적 접근

### 제1절 사례연구 개요

본 장에서는 연령군별·유형별 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노년층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1명씩을 인터뷰하였다. 따라서 총 20명을 인터뷰하였으며, 각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은 <표 4-1>과 같다. 사례는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확보되었으며, 사례 확보의 구심점으로 서울 및 경기도 노인복지관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한 후 녹취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sup>16)</sup>. 질문의 주요 내용은 학력 및 직업력, 가구형태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통상적인 하루 일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사용에 관한 질문과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특이 사항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크게 과거와 현재의 경제활동 및 경제수준에 관한 질문 및 노후준비 실태, 건강상태 및 투약 및 식사 등 건강행위, 현재 하고 있는 문화여가활동과 계획 또는 준비하고 있는 문화여가활동 관련 질문과 사회적 연계망에 대한 질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

16) 연구참여자의 본 연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설명서를 제공하고, 연구참여동의서 2장(참여자용, 연구원 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음(부록 참조). 또한 통일성 있고 포괄적인 정보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 체크리스트와 개방형 질문지(면접을 위한 질문 가이드)를 공유하였고, 인터뷰 녹취록과 더불어 공통된 케이스 요약양식을 활용한 요약과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연구참여자 각자의 생활시간활용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연구에 활용하였음.

적인 평가와 미래전망 및 정책적 욕구를 들어보았다.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연령대별 특성과 유형별 특화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표 4-1> 사례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연령단	일련번호	유형	성	연령	학력	가구 형태	결혼 상태	자녀 수	거주형태	경제활동	종교
50대	연구참여자1	유형1	남	50	대졸	핵가족	유배우	2	자가	대학행정직	없음
	연구참여자2	유형2	여	51	고졸	편모가족	사별	1	임대주택	미용사	있음
	연구참여자3	유형3	여	55	중졸	편모가족	사별	2	자가	단순노무직 종사후 무직	있음
	연구참여자4	유형4	여	58	초급대 중퇴	핵가족	유배우	3	자가	신교활동	있음
	연구참여자5	유형5	남	55	고졸	독거	미혼	0	자가	근로능력 상실	없음
60대	연구참여자6	유형1	여	62	대학원졸	독거	사별	2	자가	전직교사, 개인교습중	있음
	연구참여자7	유형2	남	67	고졸 (검정고시)	독거	사별	1	지인집 무상임대	활동 안함	없음
	연구참여자8	유형3	남	69	대졸	부부	유배우	2	자가	은퇴한 전문직	있음
	연구참여자9	유형4	남	63	대졸	부부	유배우	2	자가	은퇴한 봉급생활자	있음
	연구참여자10	유형5	여	66	중졸	독거	이혼	1	보증금/ 월세	활동 안함	없음
70대	연구참여자11	유형1	남	75	대학원졸	부부	유배우	2	자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있음
	연구참여자12	유형2	여	74	- <sup>1)</sup>	독거	이혼	3	임대 아파트	활동 안함	있음
	연구참여자13	유형3	남	75	대학원	핵가족	유배우	4	자가	활동 안함	있음
	연구참여자14	유형4	여	79	초졸	독거	사별	2	자가	활동 안함	없음
	연구참여자15	유형5	여	78	초졸	독거	이혼	2	보증금/ 월세	활동 안함	있음
80대	연구참여자16	유형1	여	80	고졸	부부	유배우	3	자가	활동 안함	있음
	연구참여자17	유형2	여	81	무학	독거	이혼	4	임대 아파트	활동 안함	있음
	연구참여자18	유형3	남	83	고졸	부부	유배우	3	보증금/ 월세	활동 안함	있음
	연구참여자19	유형4	여	83	초졸	자녀동거	사별	7	자가	활동 안함	있음
	연구참여자20	유형5	여	79	무학	자녀동거	사별	2	보증금/ 월세	활동 안함	없음

주: 1) 인터뷰 대상자가 밝히기를 원하지 않음.

## 제2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노년층의 삶의 질

### 1. 50대의 유형별 삶의 질<sup>17)</sup>

#### 가. 유형 ①

연구참여자1은 14년 6개월간 군대생활 후 소령으로 예편하여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 직원으로 14년 8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만 50세 남성이다. 가족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아들 2명을 두고 있는데, 큰 아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현재 배우자와 아들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용인시의 자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은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직장생활의 경험과 관계망을 활용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향유함으로써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50대 중산층의 모범적인 사례이다. 삶의 질의 측면에서 가족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 중심에 있으며, 주중 혹은 주말의 일상생활도 배우자를 중심으로 편중되지 않게 사회적 관계와 여가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7) 사례연구 대상자중 일부는 양적 분석에 의한 특정 유형에 꼭 들어맞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그러나 연구진간의 논의를 거쳐 중심이 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유형별로 서술하되, 정형적인 유형의 특성과 상이한 점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찾아보는 것으로 진행하였음. 특히 50대의 경우 삶의 변화의 과정에 있어 정형화된 유형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음. 연구참여자2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빈곤탈피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유형②와는 차이를 보임. 또한 연구참여자3은 건강문제 외에도 객관적으로는 소극적인 사회참여를 하고 있지만 연구참여자의 본래의 성향인 측면이 있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충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유형③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음. 연구참여자4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교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봉사활동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로 이러한 활동이 거의 일에 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④로 기술하였음.

연구참여자1은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만족해하고 있었으며, 소득대체율의 약 70% 가량의 연금혜택과 자가 아파트는 제 3기 인생을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관리하는 현재 직장의 업무를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므로써 노후생활의 중요한 활동으로 해외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활기찬 제3기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55세 명예퇴직을 생각할 정도로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노후계획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의 경우에서, 안정된 가족관계와 재정적 기반이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적 관계와 여가생활의 균형적 활용은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비교적 중산층인 연구참여자1이 골프나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골프교실에서 골프를 배우고, 군대시절의 경력을 활용하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나. 유형 ②

연구참여자2는 9년 정도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사별한지 2년이 되는 여성가장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둘이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구참여자2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미용실에서 12시간가량을 근무하면서 미래를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일해야 하는 근무여건 때문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융통적인 시간대를 활용해 혼자서 영화관람을 즐기고 있다. 관계적 측면에서도 폭넓지는 않지만 미용학원 동료들과의 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여행이나 등산과 같은 여가생활로 이어가고 있

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나, 교회 봉사팀에서 하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하고, 단체 여행을 하는 정도로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다. 이제까지 잔병치레 없이 건강한 편으로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등산이나 산책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노후준비로 2년 후 쯤에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제적 안정과 시간적 여유를 통해 원했던 여가활동도 하고 재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삶의 역경을 무난히 헤쳐 나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후 미래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다. 유형 ③

연구참여자3은 8남매 중 셋째로 다른 형제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지만, 본인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찍부터 전자회사와 용접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였다. 24살에 결혼하고 가사와 육아로 5~6년을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였다. 하지만 건강악화로 인해 다시 휴직하게 되었고, 이후 6년 정도 파트타임 형태로 건물청소원으로 일해 오다가 현재는 무직상태이다.

연구참여자3은 심한 관절염과 당뇨 및 고혈압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건강상태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사별한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가주택의 지하방 월세, 그리고 몇 년 전까지 파트타임으로 건물청소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들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건강악화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도 있지만, 원래 본인의 성향으로 인해 취미여가활동이나 외부인과의 관계형성에 매우 소극적이다. 연구참

여자3에게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기도, 묵상, 성경공부, 미사 등 신앙생활로 보내고 있으며, 성당에서 다른 교인들과 활발한 친교를 나누기 보다는 자택에서 혼자서 이러한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가생활이나 사회참여 혹은 사회적 관계 형성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지만, 연구참여자3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성향과 독실한 신앙생활로 인해 낮은 수준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노후에 자가주택의 지하방 월세와 유족연금, 그리고 두 아들의 생활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노후생활을 무난히 보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 라. 유형 ④

연구참여자4는 2남 3녀의 셋째(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로 오빠는 신부님, 여동생은 수녀, 남동생은 민주투사 출신의 시인이다. 이처럼 남다른 가족배경 속에서 본인은 초급대학을 나와 법원체통의 행정직으로 직장생활을 했다. 20대 초반에 직장 동료와 만나 결혼을 했으나, 2년 정도 후에 이혼하면서 둘 사이에 출생한 딸을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셨던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두 모녀간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지들의 소개로 부인과 사별하고 딸 하나가 있었던 현재의 남편과 1986년에 재혼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 딸 하나를 출산하였다. 본인 보다 학력이 낮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비교적 평탄하였고,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함께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 재혼 당시 무교였던 남편을 가톨릭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현재는 남편이 성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본인도 봉사직으로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면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25세의 딸 역시 성당의 주일학교 교감으로 봉사하면서 초등학교 등교교사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4의 가족 구성원 전체는 직업 없이 성당에서 주어진 직책에 전념하며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4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구성되어 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상담하는 봉사직을 천직처럼 일의 개념으로 하고 있었다. 하루 일과의 많은 시간을 방문상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성당에서 무급의 봉사직책을 풀타임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한 돈과 월세, 가끔 있는 남편의 아르바이트가 가구소득의 전부이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으로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여가활동은 비교적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데, 여가에 대한 비용 부담보다는 시간이 없어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초등학교 동창회도 본인은 네 달에 한 번 정도만 참석할 정도이다. 건강은 비만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다. 관계적 특성에서는 어머니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갈등과 대립관계는 연구참여자4의 일생에 걸쳐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비교적 사교적인 성향이라 많은 교인들과 친분을 맺고 있으나, 최근 들어 정반대 성향의 교인 두 명과 의미있는 교류를 나누고 있다.

## 마. 유형 ⑤

연구참여자5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삼형제의 막내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전기기술자(제조공장이나 빌딩의 변전실)로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한때는 세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을 정도로 직장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으나, 30대 중반부터 발병한 신경불안 증세 때문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5년 전부터는 폐기종과 천식이 발병하면서 직장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었다. 미혼인 상태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3년 넘게 치매로 고생하다 사망한 어머니의 병수발을 혼자 하였다. 재산을 분배받은 후에 연락이 두절되어 어머니 생신이나 아버지 제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형들을 원망하고 있다.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칸방 빌라는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들의 동의가 없어서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재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외부사람들과의 대화를 꺼려하는 강박증이 있어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들이 없으며,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얼마냐고 묻지 않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킬 정도로 강박증세가 있었다. 최근 들어 동네 할머니들과 몇 마디 나누기 시작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를 큰 변화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5의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구성은 매우 단조롭다. 연구참여자5는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및 관계망 형성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신적·신체적 건강악화가 경제적 영역과 사회참여 및 관계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폐기종과 천식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악화는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경불안증세로 인한 정신적 건강악화는 경제활동뿐 아

나라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부추와 간장을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2. 60대의 유형별 삶의 질

### 가. 유형 ①

연구참여자6은 만 62세의 여성으로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고 있다. 4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혼자 지내며 매일같이 성실하게 지내려는 자세로 생활하고 있다. 과거 교사로 재직하다가 건강 악화로 직업을 그만 둔 후 요양을 위해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이웃 사람들의 권유로 아이들의 개인 교습을 맡고 있다. 주중에는 운동과 일 등으로 꽉 채워진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인의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고 있으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종교(천주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종교를 가진 것이 현재의 정신적 평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6은 운동을 해도 열심히, 개인교습을 해도 성실하게, 혼자 어학을 공부해도 도서관 열람실을 찾아가 복습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다. 그녀에게 제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상대로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고, 사회참여 활동이 왕성하며 주로 자신의 내실을 채우는 활동을 추구한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 과외교습과 같은 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건강, 여가, 재무, 사회참여 영역면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에 정책적 개입이나 복

지서비스의 욕구가 크지 않다. 이러한 이상적인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 데에는 경제적 안정과, 적극적인 성향,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자세, 성숙한 마음가짐을 들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사별을 일찍 경험하였기에 노후 이전부터 경제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는 혼자 지내는 생활 형태와 독립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 60대 초반인 현재 균형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 생활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성숙을 얻는다고 하였고, 오랜만에 계획한 여행도 해외성지순례를 선택하며 본인에게 큰 의미부여가 되는 종교 생활을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전적인 보상이 없지만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여 앞으로도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 활동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노후 생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유형 ②

연구참여자7은 67세의 남성으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주로 공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하며 본인의 생활수준이 최하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 자활의 노력을 해 보았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연결되는 일자리는 생기지 않아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연구참여자7은 건강 및 사회참여 면에서는 무난한 노후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독거 남성이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복지관을 중심으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제일 원하는 부분은 근로를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구직은 요원한 일이라 경제적인 욕심은 내려놓은 상태라고 하였다. 향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획득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하였다.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 바우처 등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유형에 처한 이들은 경제적 안정이 수반되었을 때 전체적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7에게 있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면이지만 그 이전에 배우자 사별을 겪었고,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형제들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왕래가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혈연관계에 놓여 있는 지지집단이 없어지고, 복지관이나 사회생활 때 만난 주변의 지인들과 주로 교류를 유지하는 형태는 향후 변동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질병, 이사 및 사고 등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재하여 지금 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제공되고 있지만, 주거가 불안정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에 필수적인 식생활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으며,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현재 삶의 질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7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 실패, 고난들이 가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제적인 욕심은 버렸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희망하는 것은 근로라고 하여 일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 다. 유형 ③

연구참여자8은 69세의 은퇴한 전문직 남성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서울과 지방에 있는 집을 오가며 전원생활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건강 악화로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로 현재도 병원의 지속적인 관리 하에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성실하게 하고 있어, 식단 조절, 운동 등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복지관, 인근 대학교 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운동에 매진하고, 그 밖에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지인들을 만나며 교제를 하고 있다. 현재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적, 심리적 정리를 조금씩 구상하고 있다.

연구참여자8은 경제상태나 사회참여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형이다. 이 때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와 본인의 신체적 역량 및 체력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8의 경우는 건강이 악화된 후에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즉 이미 질병을 얻었고, 수술 및 관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지만, 이를 알게 된 시점 이후부터는 일을 줄이고, 건강 회복을 위한 매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철저한 자기관리와 식생활 개선을 통해 체중, 혈압 등 관리가 가능한 건강 상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원래 진단받은 질병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병원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건강 유지를 위해 공적인 시설 활용, 병원 이용, 식단 조절 등에서 스스로 잘 해결하고 있으며 고지혈증에 대한 우려로 운전을 줄이라고 한 의료진의 권고를 받아들여 생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참여자8의 경우는 건강적인 욕구 외에는 다른 면에서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적인 면

의 욕구도 지역사회에 가까이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잘 관리하고 있고, 건강을 위한 음식 섭취 등에도 많은 신경을 쓰며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주요하게는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지만,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 가족·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보다 순탄하고 안정적으로 건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일을 중단하였어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이 치료 및 요양에 매진할 수 있고, 본인에게 잘 맞는 생활로 재조정하기 위해 환경이 좋은 지방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일정부분 그곳에서 기거하는 형태는 상당부분 경제적 안정이 선행되었기에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라. 유형 ④

연구참여자9는 63세 남자로 퇴직 후 주로 집에 기거하며 운동으로 소일을 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적인 면에서 안정되어 있으며 퇴직 후 생활에서는 과거 직장생활만큼 활기차고 의미있는 생활을 되찾고 있음을 애석해 한다. 경제적 보상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람을 찾아서 일을 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그걸 희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체념하고 있다. 동호회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산행을 다니며 사회복지 법인에서 이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응답자에게 있어 매일 매일의 일상이 무엇인가 의미있는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이다. 배우자와 지내는 시간이 늘었음에도 활동 반경이나 취미가 달라 함께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연구참여자9는 재정과 건강의 특면에서 탄탄한 준비를 한 고령자라고 할 수 있다. 단,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라는 전형적인 성별의 차이를 두고 살

아온 생활에 근거하여 은퇴 후 배우자와의 역할 정립 및 시간 사용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취미/종교 활동이 없고, 주로 혼자서 여행, 운동, 식사 등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역사회 내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나 현재에는 보람된 일자리를 찾아 구직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자9는 일정수준의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인의 기준에는 이러한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란 꼭 금전적인 의미의 보상을 가져오는 측면보다는 일터에서 본인을 필요로 하고, 강도 높은 참여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직장과의 유사한 형태의 것을 지칭하였다. 배우자와 함께 여가 및 취미 문화생활이나 종교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퇴직 후 시간 활용면에서나 가족관계 개선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에는 이러한 영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가장 희망하는 것은 취업이었는데,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사회적 인정과 할 일이 있음을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 마. 유형 ⑤

연구참여자10은 66세의 여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독거노인이다. 연구참여자10은 이혼 후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해 왔는데 과다하게 몸을 쓰는 일을 오래 하였더니 건강에 이상이 와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집세 납부 및 의료기기 이용료 등으로 매달 빠듯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친구 및 친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기 위해 고생을 한 바 있다.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국가에서 우선권을

주어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최근 복지관에 등록을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복지관까지 가는 대중교통 이용료 및 친목활동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대비용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참여자10은 경제, 건강, 사회참여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적 어려움이 함께 가중되어 사회참여면의 어려움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사회참여를 희망하나 교통비에 대한 부담으로 복지관 이용을 자제한다고 하였다. 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건강관리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10은 현재 경제적, 건강적, 사회적 면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중단한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완화되었지만 주거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커서 매달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 지인 등 사회적 관계망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왕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래전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과 이혼하고 당시 입양하여 키우고 있던 자녀를 두고 나와 현재는 관계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혈연관계망이 전무한 실정이다. 연구참여자10의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먼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였으나, 무리한 일로 건강악화를 경험한 이후로는 아무런 경제적 사회적 안정망이 없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최저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의료기기비용, 주거비용 마련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3. 70대의 유형별 삶의 질

#### 가. 유형 ①

연구참여자11은 만 75세의 남자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일한 후 2000년에 정년퇴직을 하였다.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성장기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여 유복하였으나 6.25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하여 사립 고등학교 영어교사라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 또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거의 술자리에 안 가고, 건강관리를 하고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엄격함에는 유년기의 경험과 더불어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1의 하루 일과는 5시 30분에 기상하여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 운동을 하고 점심 식사 후 노인복지관에서 영어강의를 하는 화목과 그렇지 않은 수요일과 금요일로 나누어진다. 월요일은 군 동기와 모여서 대공원을 돈 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는 모임사무실에서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낸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즉 매우 규칙적이며 치밀하게 짜여진 생활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년기의 삶의 양상에는 각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참여자11의 경우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운동도 본인이 설정한 목표대로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강의준비도 매우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즉 본인의 성격과 일생동안 유지해온 생활습관이 노후생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다. 종교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외에도 교회가 취미활동의 중심이기도 하며 사회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기도 한다.

한편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을 갖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선도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퇴 후 기간을 짧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노후준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 나. 유형 ②

연구참여자12는 74세의 여성으로 대구의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으나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후 데릴사위로 들어온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약 10년의 결혼생활 후 헤어졌고 그 때 3남매와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서울에서 사업 등을 하다가 사채를 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약 10년 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었다.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외견상 '우아한 중산층 할머니'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자12의 하루 일과는 4시 30분에 기상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도 후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본 후 귀가하여 식사를 하고 노인복지관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귀가하여 저녁식사 후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주말에는 성당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일정이다. 즉 종교가 일상생활과 사교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12는 건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신체적 문제(20년 전부터 시작된 다리 협착증, 3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대 수술, 장 협착증에 의한 1달간의 병원 입원 등)를 경험하였으나 일상생활에는 제한을 받고 있

지 않는 상황이다.

연구참여자12는 학교 친구, 동네 친구 등 다양한 친구를 두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학교 친구의 경우 경제적 상황의 격차가 너무 커서 자신이 거리를 두고 있다. 또한 형제자매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유복한 여동생이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갖고 있다. 즉 경제적인 형편의 차이가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사례는 ‘노인복지관’ 중심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즉 공적 인프라가 여가문화활동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여유와 기회가 없는 노인들에게 ‘무료함’을 없애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즉 경제적인 지불 능력이 없어도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많다면 공적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이다.

#### 다. 유형 ③

연구참여자13은 진주에서 교직생활 퇴직 후 서울에 올라와 대학원 진학 등으로 지속적이 자기계발에 힘썼으나 골절 및 파킨슨병 발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75세의 남자이다. 1남 3녀를 두고 있으며 3녀는 모두 결혼하였고 현재 부인과 미혼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생활은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일정과 연동되어 있다. 송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6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9시에 버스를 탑승하여 9시 30분쯤 주간보호시설에 도착하게 된다. 주간보호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식사를 마치고 19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3은 경제적 안정과 돈독한 가족관계, 풍부한 문화여가생

활을 영위한 경험과 욕구를 갖고 있으나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이다. 연구참여자13은 노년기에서의 건강의 압도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를 활기있게 보내고 싶어하고, 그러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더라도 건강이 악화되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이다. 70대는 그러한 건강악화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본인과 주변에서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건강의 '압도하는' 위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생활반경이 축소되고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활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는 가족과 신앙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족의 중요성, 특히 배우자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더불어 본격적인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서 건강의 악화 등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제적인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연구참여자11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상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특히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건강악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주중에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면서 가족의 힘을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더 연구책임자13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유형 ④

연구참여자14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아도 불안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만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79세의 여성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발랄하고 깔끔한 성격이다. 현재 자신소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결혼한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마포지역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유복한 생활을 하였으나 결혼 후 남편의 가정폭력 행사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였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2번이나 큰 부상을 경험한 바 있으며, 남편이 동사무소 근무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여 친정 재산까지 없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남편이 매우 이기적인 성격으로 빨래, 식사 등도 모두 혼자서 하여 한지붕 남남으로 생활하였다.

현재는 2년 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으나 남편과의 감정적 유대가 없어서 불만은 없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이 가져오는 쓸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불행한 결혼생활의 여파로 10년 전부터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아침 7시에 기상하여 아침식사 후 의미없이 TV를 보다가 가끔 경로당에 가는 것이 일상이다. 저녁 식사 후에도 TV를 보다가 12시경 잠자리에 드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이 때 쯤 수면제를 먹고 수면을 취하고 있다. 자녀도 행사 때만 만나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의 생활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

연구참여자13은 자기회복력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례이다. 본인이 경제적 자립심을 유지하려고 애써왔다는 점, 높은 도덕심을 갖고 있고 자신이 영특한 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폭력남편으로 인한 심신의 피폐함이 있어 적극적인 사회, 문화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성격이 명랑한 성격이어서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특별한 자체적인 소득이 없어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어려운 생애를 무사히 헤쳐 나왔다는 자부심이 있다.

한편 대인관계나 여가문화기관 이용, 종교생활 등을 통하여 삶의 활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본 사례는 이 중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

고 있다. 이는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적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유형 ⑤

연구참여자15는 78세의 여성으로 서울의 유복한 집안(양조집)의 딸로 태어났으나 결혼의 실패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였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혼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핸드폰도 없이 집전화만으로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전화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는 정확한 정보 제공 능력이 떨어지며, 이는 지적 능력보다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생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면으로는 대화가 가능하였다. 일상생활을 구분하게 하는 사건이나 활동도 없고, 연구참여자15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어 하루의 일과나 주간, 월간, 연간의 일과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단지 파편화된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엄마같이 잘한다는 봉사자, 명함을 두고 간 보건소 직원이나 독거노인돌보미 등이 있지만 이들의 관심들이 연구참여자15의 삶에 활력으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15 사례는 경제, 건강, 사회관계에서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경제적으로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며 사적인 자원이 전혀 없고 민간자원과의 연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매우 불규칙하고 부정적인 건강행위를 하고 있다. 규칙적인 식사도 하고 있지 않으며 운동도 하고 있지 않고 투약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인도 없고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 즉 그날이 그날 같은 시간 개념이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 4. 80대의 유형별 삶의 질

##### 가. 유형 ①

연구참여자16은 80세의 여성으로 자가소유의 집에서 배우자(만 83세)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출생시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지역 토박이다. 배우자는 공무원 출신으로 정년퇴직한 상태이며, 연구참여자16은 약 40년 간 교직(초등학교)생활을 하였다(학력은 고졸).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모두 동일한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아들은 각각 제약회사와 시청에 다니고 있고(공무원), 딸은 전업주부이고, 손자녀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등 전반적으로 평범하지만 어려움 없는 이 시대의 중산층 삶의 모습을 보인다.

연구참여자16은 경제, 건강, 사회참여 및 관계적인 모든 측면에서 유형1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재의 노후생활수준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은 직업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되는데, 약 40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있었고, 노후에 대한 연금(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여 세를 주어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 출신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공무원연금이라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고연령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특정병원을 택하여 다닌다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된다는 사실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연적인 노화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직업(교사)의 영향은 연구참여자16의 즐겁고 풍요

로운 문화여가생활 및 사교모임,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 등 생애 전반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게다가 향후 사망 시 재산을 분배하는 것까지 이미 준비를 해 놓는 등 동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삶을 잘 관리하고 주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 나. 유형 ②

연구참여자17은 81세의 여성으로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며,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였다.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은 17~18년 전에 사망하였다. 아들에게서 난 손자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오다가 현재는 손자가 대학교 입학 후 가끔 방문을 하고 있다. 아들 사망 후 며느리가 손자를 맡기고 떠나버린 후부터 손자와 함께 살았으며, 학력은 무학(글씨를 쓸 줄 모름)이고, 과거에는 사무실 청소 등 단순노무업종에서 주로 일하였다.

연구참여자17은 다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고, 골다공증, 고지혈증 등 각종 약을 복용하고는 있지만, 복지관에서 운동기기를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정도로 신체적으로 활동의 큰 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복지관과 교회의 지인들과 교류가 활발하고 친하게 생각하는 지인이 여러 명 있을 정도로 관계적 측면도 양호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빚이 있으며(용자, 손자 대학입학금),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생계유지 자체를 힘겨워 하는 전형적인 유형2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17은 무학이고, 과거에 일한 경험 역시 사무실 청소 등의 단순노무업종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전무할 뿐더러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가 사망하는 등 경제적으로

지원할 체계가 튼실하지 못해 삶의 경제적 측면은 매우 열악하다. 경제적 측면의 열악함은 노후준비의 미흡 및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의 남은 여생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문화여가활동의 욕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려는 욕구가 더 크게 되는 등 삶의 영역의 불균형도 발생하였다. 한편, 종교는 일상생활의 시간 활용,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의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복지관 가까이 이사를 오면서 삶의 주요 공간이 교회에서 복지관으로 크게 바뀌었다.

#### 다. 유형 ③

연구참여자18은 83세의 남성으로 이북이 고향이나 6.25전쟁 때 월남을 하였다. 현재 배우자와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과거 시멘트 업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였고, 배우자는 의류업계에서 일을 하였으며, 현재도 가끔 일손 도우러 의류 쪽 일을 하곤 한다. 슬하에 3형제가 있으며, 종종 집으로 찾아온다. 특히 과거 북한에서 살 때에는 일본에 유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이었고, 지주들만 배울 수 있는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18은 뇌졸중을 앓고 있으며, 청각장애, 백내장 수술, 손과 팔, 다리가 불편한 점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유형 3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나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있기도 하고,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은 크게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유형2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복지관에서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많은 사적인 모임과 활동 등을 볼 때 유형4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연구참여자18은 건강측면의 취약성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유형 3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체적으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행 및 이동이 가능해 실제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지속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즉 연구참여자18은 건강상의 취약함(객관적)을 잘 극복하여 본인의 삶을 잘 영위하고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노년의 삶에 있어서 '낙상'이라는 사고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16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과거의 직업, 경제적 상태가 사회참여 및 관계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 변수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18의 경우, 경제적으로 힘겹지는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을 감안할 때 그리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지만 많은 사고모임과 친구들과의 여가 및 문화활동 그리고 배움활동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연구참여자18의 삶의 시간활용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으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년기에 있어 복지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움의 대한 욕구가 크고 이것이 삶의 주된 활동과 목표가 되는 본 사례는 노년기의 삶에 있어 개인적으로 크진 작진 특정한 목표나 관심영역은 삶의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같이 살아가고 자녀들과의 빈번한 왕래는 삶의 질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라. 유형 ④

연구참여자19는 83세의 여성으로 26살에 이미 1남 3녀가 있었던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미 결혼을 한 사람과의 결혼이 싫었지만, 6.25 전쟁 시기와 맞물려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찾지 못하였고, 당시 배우자는 전력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대우도 좋았지만 식구가 많아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연구참여자19의 첫 인상 및 풍기는 이미지는 삶에 대한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으나 실제 삶에 대해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연구참여자19의 신앙적 특성의 영향이 컸다. 연구참여자19는 배우자의 여동생이 과거 결혼한 지 1년 만에 돌아와 자신의 가정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고, 이를 지켜본 바깥채에 거주하던 다른 가정 여성의 권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학력은 초졸로 전력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 후 퇴사를 하였고, 배우자는 4년 전에 사망하였다. 슬하에는 1남 2녀(기존 배우자의 자녀 포함 시 2남 5녀)를 두었으며, 전처의 자녀들은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낳은 자녀 중 막내딸은 파주에서 지내고 현재 아들네 가정과 결혼에 실패한 첫째 딸과 함께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9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빛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국가지원이 없고, 본인명의로 5층(지층포함)규모의 건물에서 지속적인 임대수입이 있다는 것은 동 연령대의 사람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포함하여 절대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건강측면에서 보더라도 돋보기를 쓰지 않거나 계단을 운동삼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점, 최근에는 당뇨와 관련된 약을 먹지 않는 점,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역시 높은 점 등은 연구참여자19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고 하겠다. 연구참여자19가 유형1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대인관계 및 사교모임을 갖거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의 몇 가지 모습을 볼 때 유형4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첫째, 최근에는 여러 사정 상 다소 뜸했으나, 동네주민들과 잘 어울려 왔다. 둘째, 교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회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왕래를 하기도 한다. 셋째, 전처의 자녀들과 화해하려는 움직임을 먼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연구참여자19가 유형4에 딱 들어맞는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마. 유형 ⑤

연구참여자20은 만 79세(1934년생)<sup>18)</sup> 여성으로 학력은 무학이며 배우자는 60세 이전에 암으로 사망하였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은 폐질환으로 인해 호흡기를 차고 힘겹게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식당 주방에서 20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으며, 환갑 넘어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가지고 집을 구할 자금을 일정부분 마련했다. 퇴사 후 장사를 했다가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경험도 있다. 현재는 보증금 있는 월세 주택에 애완견 1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20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기초노령연금 수급)과 동시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연구참여자20은 전형적인 유형5의 모습을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과 걱정을 하고 있고, 보행이 불편하고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재정적 문제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

18) 동 사례는 본 연구에서 기준이 되는 만 80세 이상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생애주기적 전환과 같은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변화들이 79세와 80세의 1세 차이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80대의 사례로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주관적으로도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는 암으로 사망하였고, 슬하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딸의 가정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족지원체계 역시 취약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친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맺고 있는 인간관계는 집 앞의 동네 주민 일부와 집으로 찾아오는 자원봉사원과 돌봄선생님이 전부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를 하게 되어 복지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복지관에 다니기 어려워진 영향도 있다. 다른 유형의 사례들처럼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다닌 기간이 오래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독실하거나 교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종교의 영향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과 관계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 등 경제, 건강, 사회참여 및 관계 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빨리 생애를 마감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다.

### 제3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 1. 50대 삶의 질의 다양성

삶의 질의 구성 요인으로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여가활동), 사회적 관계망 등 네 가지 영역들을 제시하고, 이들 영역들 중에서 모든 영역에서 중상위 수준을 보이는 사례(유형1)와 하나의 영역이 열악한 사례들(유형2, 3, 4)과 두 영역 이상이 열악한 사례들(유형5)들을 유형화 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일/근무여건)는 개인의 성향이나 주관적 의지 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외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참여(혹은 여가활동)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도 개인적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다섯 유형의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신앙생활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중심이 되는 사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삶의 질 구성 요소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분석틀에 포함하여 요인들 간의 상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50대 연령군의 다섯 가지 유형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선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여가활동), 사회적 관계망 모두가 위축되거나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달리, 개인적 성향과 의지에 따라서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여가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소극적인 사회적 관계망과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건강악화로 인한 원인보다는 개인적 성향에 의해 여가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비용적 측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용적 측면은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와 같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상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례에서는 직장동료 관계와 같은 공적 관계나 동창회나 종교기관 내 봉사팀 등 사적 관계가 여가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유형1의 경우, 직장동료들의 여가동호회에 참여하여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유형2, 3, 4의 경우에는 미용학원 동료, 교회 봉사팀, 초등학교 동창회 등 관계망에서 여행이나 나들이, 등산과 같이 정기적인 야

외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신앙생활은 삶의 질 구성요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앙심이 깊은 연구 참여자들(유형3과 4)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신앙생활과 관련 있었다. 유형3은 개별적으로 기도와 묵상, 성경공부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유형4는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 상담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이다. 이들에게는 신앙생활 이외의 다른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세속적인 사회적 관계망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유형3의 경우는 개인의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고 제한된 여가활동을 하는 반면에, 유형4는 상대적으로 교인들과의 폭 넓은 친분을 맺고 있고, 초등학교 동창회를 통해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유형5의 경우, 폐기종과 천식, 그리고 신경불안 증세로 인한 강박증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해 일 자리를 얻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여가활동은 물론 외부와는 거의 단절된 고립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노후준비 인식은 현재의 삶의 질 구성요인들이 모두 양호한 유형1의 연구 참여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수급권자이지만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형2도 향후 2년 뒤에는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하고 싶었던 여가생활을 누리면서 재혼의사도 강력하게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구성요소인 사회참여(여가활동)나 사회적 관계의 영역들은 노후준비를 하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유형3과 4의 경우는 실질적인 노후준비나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고 있었다.

## 2. 60대 삶의 질의 다양성

60대 5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끌어낸 특징과 함의는 크게 구직, 건강, 사회참여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60대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아직 건강이 좋은 편이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인 이들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7과 연구참여자9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한명은 경제적 이유로 일을 찾고 있었고, 다른 한명은 보람과 삶의 의미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희망하였다. 이들 두 명의 참여자는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립, 의미있는 일, 보람 등 쓰임새 있고 바쁘게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을 노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건강 측면에서는 다른 여건이 충족되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형과(연구참여자8) 다른 여건이 다 어려우며 동시에 건강도 좋지 않은 유형을 (연구참여자10)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둘 다 60대이고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고 요양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입장에 놓여있다는 면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연구참여자8은 사회적 관계망 및 경제적 안정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건강관리에 매진할 수 있었다. 특히 공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건강 유지 및 개입을 찾아서 실천하고 있었다. 반면 연구참여자10은 병세 회복에 필요한 영양 섭취, 간호,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건강회복이 어려움은 물론 다른 어려움에 대한 압박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경우였다. 이를 통해 다른 영역의 지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60대의 건강 유지 및 질병 관리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면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개별

적인 활동을 하는 이와 집단 활동을 하는 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1은 종교활동, 체육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로 혼자서 본인의 욕구와 취미에 맞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 때 타인과의 교류나 모임에 대한 빈도가 적다고 하여 사회참여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연구참여자2의 경우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용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속 깊은 교제 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부족함이 있다고 하였다. 두 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찾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명은 자기 주도적으로 원하는 방식을 찾고, 다른 한명은 가능한 자원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른다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자원접근성 및 선택권의 차이는 결국 경제적 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3. 70대 삶의 질의 다양성

70대는 생애에 걸친 누적된 특징에 기초하여 노년층의 다양성이 분명히 보여지는 시기이다. 60대에 비하여, 또한 하향 평준화되는 80대에 비하여 유형별 특성이 두드러지는 시기로 보인다. 예들 들어 아직 건강의 악화가 급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형1의 전형적인 특성이 들어나고 있다. 반면 유형5의 삶은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이 악화되면 사회참여활동은 의지와 상관없이 축소된다. 즉 사회참여활동은 독자적인 영역보다는 건강에 의하여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건강이 다른 영역에 지배적인 영향을 갖는 정도가 70

대에 들어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70대에 진입하면서 사회참여활동의 독자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70대 노인들의 태도이다. 신체적인 노화를 경험하면서 향후 자신의 노화속도와 정도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경제적 자원의 중요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자원, 미래의 불확실성(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득에 집착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 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장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근검절약하는 생활과 가치관이 체화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자녀에게 재산을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중산층 이상의 경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수준을 자녀세대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생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항상 자녀로부터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유형1과 유형3의 비교).

한편 사회참여활동과 관련해서는 꼭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형2, 유형4, 유형5의 경우 모두 독거여성노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이 사회관계를 맺고 문화여가활동 등을 하는 양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개인적인 특성과 성장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러한 활동을 연계해줄 수 있는 정보와 인적 자원이 있는가도 중요해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풍부한 정보에 기초하여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활동에의 경험도 없고 욕구도 없어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사례연구를 통해 두드러지게 들어난 것은 이들 연령대의 노인

중 '잘못된' 결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 여자노인의 삶에 지속적이고도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노년기 삶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성이 포착되었다. 종교는 삶에 있어 생활을 규칙화하는 기제이기도 하며, 삶의 의미부여, 문화여가활동 및 사회적 유대의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유형5(연구참여자15)는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꼭 외부사회와의 연계와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가 행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활동 또는 기관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에서 노인들에게 투약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도출되었는데,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약의 복용과 수면제 이용이 생각보다는 빈번할 수 있다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다.

#### 4. 80대 삶의 질의 다양성

사례연구를 통해 본 80대라는 연령층은 노년기의 마무리 단계 시기로서, 새로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노년생활을 준비하기 보다는 과거의 삶을 지속하거나 그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고,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의 삶의 유지의 측면이 강하다. 이들의 삶의 특성을 여러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한 소득창출이 어렵다.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의 특성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건강수준이 소득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 등 사적이전으로 인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들은 과거의 노후준비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다. 유형1과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매월 나오는 연금이나 임대수입은 주요 소득원이 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정부의 공공부조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것은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대체로 자가소유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 중 주거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활비의 부족 및 부담을 느끼는 사례도 있었다(유형2, 유형5). 또한 유형5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은 수술 등과 같은 건강을 위한 행위,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건강의 경우 대다수의 건강상태는 여러 개의 만성질환과 신체적 불편함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있어 병원에서의 진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80대라는 연령층에게 있어 노화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낙상'이라는 사고가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5명의 사례 대상자 중 낙상사고를 겪은 경우가 3명으로 유형1은 갈비뼈가 금이 갔고, 유형3은 뇌졸중이 왔으며, 유형5는 골반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했다.

이러한 80대의 건강상태의 전반적인 하향평준화는 삶의 활동과 활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사'와 같은 물리적 이동에 의한 생활터전의 변경은 이들의 사고모임이나 인간관계, 시간활용패턴 자체를 변화시킨다(유형2, 유형4, 유형5). 또한 이들이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연령대 역시 높기 때문에 생활터전이 옮겨지면 왕래나 만남의 횟수는 줄거나 없어지게 된다(유형4). 전반적으로 건강수준이 먼 거리를 빈번하게 이동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형5의 경우, 이사 전에는 복지관이 집에서 근접하여 잘 다녔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유형2의 경우는 반대로 복지관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어 활발하게 복지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의 측면만 볼 때, 사회공헌활동으로 분류되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은 80대 연령군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아무래도 건강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령대 자체가 죽음 등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다. 5가지 유형의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이들의 주된 활동은 지인을 만나거나 복지관이나 교회에서의 활동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장소 및 영역은 무료할 수 있는 노년의 삶에 활력소가 되었는데, 유형1, 유형2, 유형3 모두 상당한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교회라는 것이 신앙 내지는 신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은 그만큼 노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지관이나 교회 같이 활동하는 곳은 각 개인의 대인관계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가족관계의 측면에서는 가족체계가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는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요소가 될 수 있다. 유형1, 유형3, 유형4의 경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지속적인 연락과 왕래를 하고 있었고, 사적이전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례(유형3)도 있었다. 하지만 유형4의 경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최근에 배우자의 전처의 자녀들과 재산관련 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유형5는 자녀들과 연락을 하고 딸이 자주 찾아오기는 하지만, 아들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배우자는 사별하여 가족체계가 튼실하지 못하다. 유형2 역시 배우자와 이혼하고, 아들은 일찍이 사망하고 며느리는 종적을 감추는 등 불완전한 가족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가족요소는 경제, 건강 등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외에도 5가지 유형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소는 종교라는 것이다. 종교는 대인관계 형성에 도

움을 주기도 하고, 신앙 내지는 신념의 정도에 따라 생활패턴을 바꾸기도 하며, 삶의 가치관 및 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유형2, 유형4). 두 번째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삶의 목표나 관심사의 유무이다. 유형3에서 볼 수 있듯이 배움의 욕구는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활용을 하게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삶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이다. 유형4의 경우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재산관련 소송으로 인해 신경성 질환이 생겼고, 복지관 이용이 뜸해지는 등 삶의 질과 생활패턴에 변화가 생겼다.

## 5. 종합

연령군별·유형별 사례연구 결과 모든 연령을 관통하는 특징과 연령대가 갖는 특징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연령을 관통하는 특징으로는 첫째, 건강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언급할 수 있다. 모든 연령에서 건강이 악화되면 다양한 사회활동과 관계망이 위축 내지 단절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sup>19)</sup>. 둘째, 건강이나 경제활동에 비하여 사회관계 유지나 사회참여활동은 본인의 의지, 취향, 기회의 문제이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관계 유지나 사회참여활동은 상대적으로 본인의 취향이나 성격에 의하여 변화의 폭이 크며, 대인관계를 맺고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에의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 개인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여가문화활동을 하고 그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19) 연구참여자13의 경우 퇴직 후의 활기찬 노후를 설계하고 실천 중이었지만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한 계획을 모두 접어야 했음.

있는 것이다<sup>20)</sup>.

셋째, 종교 또는 그에 준하는 구심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나타났다. 중노년층 중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은 약 절반 정도이지만(표 3-10 참조), 사례연구 결과 종교를 갖고 있는 중노년층의 경우 종교활동을 통하여 사회관계 형성과 유대, 정례화된 주말활동이 가능하여 삶의 활기가 확보되고 있다<sup>21)</sup>. 더불어 영적인 안정도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에 준하는 이러한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편 각 연령대가 갖는 특징으로는 50대의 경우 경제적 자원은 있으나 시간은 부족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지가 크거나 경제적 부담이 없는 기회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잠재되어 있는 욕구가 실질적인 활동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노후 준비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과 계획의 구체성은 낮은 상태이다.

60대의 경우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 자원의 감소를 체감하는 연령대로 일을 통하여 소득 창출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준비된 상황에 비하여 삶의 질의 저하를 체감하게 되면서 눈앞에 다가온 노년기를 어떻게 당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큰 시기이다.

한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노년기<sup>22)</sup>에 접어든 70대의 경우 그 동안

- 
- 20) 경제상태가 좋은 연구참여자1와 경제상태가 나쁜 연구참여자12의 경우 모두 주변에 비교적 비용 부담없이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회참여』 영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 21) 연구참여자3, 연구참여자4, 연구참여자7이나 연구참여자11 등은 종교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임.
- 22) 2013년 10월에 실시된 30대~7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 70% 이상이 70대 이상을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대로 응답하고 있음(2013년 제4차 고령사회포럼 자료집(2013. 11. 12일)).

누적되어온 다양성이 구체화되어 고착화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어떤 연령군보다도 유형별 차이가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더불어 향후 남아있는 노년기에 대한 구체적인 불안감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 자원이 확보되어 있어도 경제적인 측면에 대하여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80대 이상의 연령군은 건강의 악화가 삶의 반경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상태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의 하향편중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약 절반 정도가 배우자가 없고(표 3-10 참조), 생존 형제·자매의 수도 적은 시기로 일차적 비공식 관계망이 급속히 축소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 제4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노년층의 일상생활

사례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연구참여자의 생활시간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생활시간 구조 파악을 통하여 각 사례연구자의 일상생활에 구현된 삶의 질의 현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 1. 중년층의 생활시간구조

생활시간의 구조는 경제활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중년층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과 경제활동을 그만둔 집단, 그리고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가사에 종사해온 집단 등으로 구성된다.

### 가. 주어진 생활시간, 알찬 주말 활용: 연구참여자1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연구참여자1(50대 유배우 남성, 대학졸)의 일상은 주중과 주말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남성의 작성한 생활시간표는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시(時) 뿐 아니라 분(分)단위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아침 5:40분에 기상하여 6:30분까지 출근준비를 하면서 TV를 시청하고 6:30분에는 아내가 마련해준 아침 식사(커피와 계란후라이)를 해 6:45분에는 출근길에 오른다. 이후 2시간 만에 직장에 도착한 후 오전업무, 동료와의 점심식사, 오후업무를 마치고 저녁 6시에 귀가길에 올라 8시에는 저녁식사를 한 후 9시부터는 산책이나 골프연습, 그리고 24시까지 TV시청이후 자정에 잠자리에 든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배우자와 저녁을 함께 하려 하며, 대화도 자주 나누려는 편이다. 직장생활로 인해 주중의 하루 일과가 시간대별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셈이다.

이 남성은 주말을 둘로 나누어 토요일은 야외 여가활동을 하고 일요일은 쉬는 날로 구분하고 있다. 야외 여가활동은 대체로 산행을 하지만 골프나 산악자전거를 즐기기도 한다. 장거리산행의 경우 가끔 배우자와 함께 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주중과 주말의 생활패턴이 분명히 구분되고, 주말 또한 야외활동을 하는 날과 쉬는 날로 일주일의 생활리듬을 찾고 있다.

### 나. 주어진 생활시간, 쉬는 휴무일: 연구참여자2

직장이 있는 중년여성 또한 대체로 시간분배가 뚜렷하다.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연구참여자2(50대 사별 여성, 고졸)의 하루 일과표는 7시에 기

상하여 고등학생자녀의 아침식사와 등교준비로 시작된다. 이후 자신의 아침식사와 기도 및 일과정리를 한 후 9:30분에 미용실에 출근하여 오전 업무-점심식사-오후업무로 이루어지고 저녁 9시경에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한다. 아들이 귀가하는 10시까지 대체로 혼자 지내며 이 시간에는 TV 시청등을 하고(때로는 심야영화) 1시경에 취침한다. 화요일이 휴무인 근무지의 특성상 화요일에는 등산이나 산책을 하기도 하며, 한 달에 1회 정도는 미용학원 동료들과 만나기도 한다.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본 후에 근무지에 출근한다. 이 여성의 경우도 직장을 중심으로 일상의 시간이 배분되고 있다.

#### 다. 스스로 만든 그러나 단조로운 일상시간: 연구참여자4

직장에 다니지 않는 중년여성들의 경우 대체로 가족의 일과와 자신의 일과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4(50대 유배우 여성, 초급대 중퇴)는 성당에서 방문상담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의 생활시간표는 기상이후 배우자의 등산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월요일과 목요일의 새벽미사와 그 이외 요일의 신문이나 TV 시청 이후 남편과의 아침식사를 한다. 이후 남편이 출근하고 자신은 성당으로 향한다. 8시 10분부터 교인 가족방문상담을 시작해 12시에는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성당에서 홀로 점심식사를 한다. 식사 후부터 저녁 10시까지 또 다시 교인가족방문상담을 하고 10시에야 집에서 혼자 늦은 저녁식사를 한다. 밤 11시부터는 혼자 TV시청을 하다 불면증으로 새벽 2-3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든다. 남편은 바둑을 두는 등 개별적인 취미생활을 하며 저녁 9시경에 이미 잠자리에 들어있다. 이 여성의 주말생활도 방문상담과 성당에서의 일로 이루어지며, 따로 여가생활은 하지 않는다.

이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 딸과 일상적인 대화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본인은 가족 모두가 성당의 봉사활동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루의 상당시간을 대부분 성당과 봉사활동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아침식사준비와 아침식사는 가족들의 시간대에 맞추고 있다. 아침 이외에는 모두 다 각자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 2. 노년층의 생활시간구조

노년층은 대체로 은퇴한 남성이나 여성, 그리고 전업주부인 여성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경우, 대체로 노년기 이전의 경제활동경험(특히 남성)이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체로 노년기의 일상을 풍부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과 넘치는 시간을 곤혹스럽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대별된다.

### 가. 은퇴전 활동 수준의 유지: 연구참여자11

연구참여자11은 퇴직 교사(70대 유배우 남성, 대학원졸)로 현재 퇴직전의 바쁜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아침 5:30분에 기상해 7시까지 남산에서 아침운동을 한 후 집에서 아침식사를 한다. 10시경부터는 군대의 동기들과 산책(월요일)이나 교회의 탁구동호회 회원들과 탁구(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즐기며 점심식사를 한다. 대체로 월, 화, 목요일은 외부에서 그리고 수, 금요일은 집에서 하는 편이다. 오후시간 또한 요일별로 쓰임이 다르다. 월, 수, 금요일은 바둑을 두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강의준비를 한다. 화,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영어강의를 한다. 6시에 외부일들을 마무리하고 집에서 배우자와 저녁식사를 한다. 저녁이 후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요

일과 일요일에는 아침 6시부터 교회에서 종교강론 청취를 하기 시작해 하루 종일 교회생활을 한다. 이 사례는 요일별로 누군가와 하는 일들이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스로 매우 바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인 성찰과 성숙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 나. 은퇴후의 잉여시간과 무의미한 시간보내기: 연구참여자9

앞의 사례자와는 달리 은퇴 후의 삶에 혼돈을 겪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연구참여자9(60대 유배우 남성, 대졸)는 은퇴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일을 하는 것이 의미있는 삶이라 생각하고, 현재의 삶은 할 일이 없는 상태라 주어진 시간에 곤혹스러워한다. 이 사례자는 아침 5:30분에 기상하여 한 시간 정도 혼자서 운동을 한 후 배우자와 아침식사를 한다. 9시경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신문물을 읽기도 하고 여행카페나 신상품 등을 검색하는 것으로 소일한다. 점심은 집에서 혼자서 차려먹고 또 다시 인터넷 검색을 한다. 늦은 오후에는 TV 시청, 그리고 배우자와의 저녁 식사 또 다시 TV 시청, 그리고 10시 취침으로 구성된다. 주말에도 특별한 일은 없고 다만 자녀가 손자녀를 맡기고 일하러 간 동안에 배우자와 손자녀를 돌보기도 한다. 이 사례자가 제시한 일상시간표는 기상과 식사시간이외에는 대체로 인터넷 검색과 TV 시청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행위 또한 혼자서 이루어진다.

#### 다. 홀로서기, 바쁜 일상과 편안한 마음갓기: 연구참여자6

연구참여자6(60대 사별 여성, 대학원졸)은 40대에 사별한 후 혼자 지내왔으며, 운동, 일, 자원봉사로 바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아침 5:15분에 기상하여 6시 새벽미사, 6:45분 이웃과의 아침운동, 7:10분 아침식사

등 행동이 시간단위가 역시 분(分)단위까지 세밀하다. 아침에는 인근 수영장 혼자가지만, 같이 수영수업을 듣는 사람들과도 친분이 있다. 점심에는 혼자서 집에서 식사하고 집이나 인근 도서관에 독서, 중국어공부, 컴퓨터게임 등을 하러가고 자신이 가르치는 수업의 준비도 하고 있다. 오후 6시에는 두 시간 동안 하루에 두 명씩 과외지도를 하는데, 이는 주변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다. 저녁 9시에는 간단하게 혼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한 시간 가량TV 시청을 한 후 잠자리에 든다. 이 사례자는 오랜 기간 혼자 살아오면서 자기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다니고 있다. 몸은 바쁘지만, 마음이 바쁘지 않고 편안하여 오히려 만족스런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 라. 그날이 그날 같은, 길기만 한 하루: 연구참여자14와 연구참여자15

연구참여자14(70대 사별여성, 초등학교졸업)는 아침 7시에 기상한 후 9시경에야 반공기 정도의 식사로 아침을 해결한다. 이후 2시간 동안 TV를 틀어놓는다. 점심 때가 되면 가끔은 경로당에서 해결하기도 한다. 점심이후에는 또 다시 집에서 별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가끔 동네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다. 저녁식사는 함께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혼자 하며, 식사 이후부터는 또 다시 TV를 켜 놓는다. 잠이 오지 않아 12시경에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거의 집에서 생활하며 아파트주변과 경로당로 가끔씩 다니기도 한다. 연구참여자14에게는 하루가 무료할 뿐이며 길기만 하다. 연구참여자15(70대 이혼여성, 초등학교졸업)에게도 하루는 마찬가지이다. 아침 7시에 기장하여 온 종일 집에 혼자 있다. 식사는 한 끼만 할 뿐이다. 공적 서비스 제공자의 방문이외에는 방문객도 없다. 이 사례자에게는 그날이 그날일 뿐이다.



##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중노년층의 삶의 질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 중년층에 비하여 매우 낮은 노년층의 삶의 질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삶의 질의 수준은 연령의 증대에 따라 저하되는 연령과 삶의 질의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험 분석 결과가 현재의 50대가 60대에 진입할 때 현재의 60대와 같은 삶의 질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은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사회제도적 변화나 집중적인 노후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삶의 질의 저하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삶의 질이 하위 20%에 속하는 규모가 50대는 5.3%에 불과하지만 60대는 13.0%, 70대 32.0%, 80대 이상 54.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 건강, 사회참여에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유형5) 규모도 각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각각 11.2%, 28.3%, 53.4%, 72.3%이다.

## 2. 영역별 삶의 질 저하 궤적의 차이

영역별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시점이 상이하다. 『가족·사회관계』는 특히 80대에 진입하면서 급격히 그 수준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상태』 영역의 삶의 질은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약 10점 정도의 매우 큰 차이를 보인 후, 다시 60대와 70대에 9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70대 이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회참여』의 경우는 50대와 60대의 차이가 10점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 후 60대와 70대, 70대와 80대 이상은 모두 7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상태』는 50대와 60대에서 삶의 질의 큰 저하가 발생한 후 본격적인 노년기인 70대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참여』는 50대에서 60대 사이에 급속한 삶의 질 감소가 발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질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강상태』영역은 연령군별로 비슷한 속도로 삶의 질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생물학적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연령이 높은 연령군에서 건강관리를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 3. 삶의 질 영역간의 상호 역동성

사례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었던 4개 영역은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연계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건강상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상태가 나쁘면 경제적 자원이 많아도 그들의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전체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경우 건강상태의 부정적인 영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는 경우는 공적·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가족사회관계와 사회참여는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여가문화활동과 연계망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거나 집단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는 혼자만의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노년층의 경제영역의 삶의 질은 그들의 직업력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비교적 경제적 호황기에 청장년기를 보낸 이들은 이들이 그 시기에 어떠한 직업을 가졌었는가에 따라 경제적 자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노년기에 진입한 이들의 경제적 자원에 있어 유지 또는 최소한의 감소가 최선의 방법이며, 커다란 경제수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워 보인다.

#### 4. 누적적인 생애경험의 영향

현재 한국사회의 중노년층은 그들이 생활해온 성장기와 청장년기의 누적적인 경험 및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의 차이를 언급할 수 있겠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받아들였던 세대인 이들은 결혼관계가 와해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그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남성의 생활에서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삶의 질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급격할 수밖에 없다. 생활시간 분석에서도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시간활용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시기가 우리사회에서 경제발전과

물질적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세대이다. 그 결과 모든 연령군에서 낮은 사회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 제2절 정책적 함의

### 1. 정책방향성 설정

즉각적인 중노년층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어떤 방향성과 강조점을 갖고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본 연구 결과 도출된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현세대 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동시에 현재의 중년층이 현세대 노인과 같은 삶의 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삶의 질 구성 요소들 중에서 건강상태가 나머지 요인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역별 정책 중 건강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예방적 차원이나 치료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해보면 가족사회관계의 점수가 71.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강상태로 69.9점이며, 경제상태가 45.7점, 사회참여가 31.6점으로 가장 낮다. 사회참여의 경우 중노년층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 제고 및 다양한 단체활동, 여가

문화활동의 기회가 시급히 제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 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 역동성에 기반해 볼 때,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서비스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다양한 사회활동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정책은 단순히 대상자 선정을 통한 소득보장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될 때 그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인 영역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나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경우 정형화된 정책적 개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의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또한 현재의 중년층과 노년층의 삶의 질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이들 중년층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의 노후준비 정도는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영역간의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3).

## 2.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

제한된 재정을 고려해볼 때 모든 대상자에게 공적 개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우선 개입 집단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다. 무엇보다 먼저 삶의 질 종합수준이 낮은 대상을 정책개입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삶의 질 종합점수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의 경우 정책적 개입의 시급성이 크다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유형5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데, 이는 34.2%의 규모이다. 유형5 중 특히 정책적 개입이 가장 시급한 유형5-4, 즉 소득, 건강, 사회참여 모두 하 수준인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1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9.8%는 모든 영역에서 중상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공적 개입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노인복지정책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65세 이상과 64세 이하 집단으로 나누어 이러한 삶의 질 점수와 유형별 특성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삶의 질이 1분위에 속하는 집단은 32.1%의 규모이며 유형5-4는 22.4%이다. 반면 64세 이하군의 경우는 동 비율이 6.7%와 4.6%이다.

이러한 삶의 질의 절대 수준과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전체적으로는 12.0%이며, 이를 65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65세 이상 연령군은 19.6%, 64세 이하군은 3.7%가 최우선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이다. 수준이나 문제의 복합성 문제 중 한 개라도 해당하는 집단으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면 전체적으로는 21.9%이며, 65세 이상군은 35.0%, 64세 이하군은 7.6%가 우선 관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 중노년층의 삶의 질 점수

영역	연령군별				중년층/노년층		전체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가족·사회관계 (고독)	79.9 (15.3)	74.8 (15.9)	66.5 (17.9)	51.5 (19.3)	79.0 (15.4)	65.1 (19.1)	71.7 (18.8)
경제 상태(빈곤)	55.6 (19.0)	45.8 (18.0)	37.0 (17.3)	36.9 (18.9)	53.3 (19.0)	38.8 (17.9)	45.7 (19.8)
건강상태(질병)	78.0 (13.5)	70.9 (15.9)	63.7 (16.8)	57.7 (17.3)	76.4 (14.2)	64.0 (17.2)	69.9 (17.0)
사회참여(무위)	41.1 (18.4)	31.9 (16.0)	25.1 (13.9)	18.5 (10.7)	38.9 (17.9)	25.0 (14.3)	31.6 (17.6)
총점	63.0 (11.7)	55.0 (11.3)	47.3 (10.8)	41.0 (10.7)	61.2 (11.38)	47.5 (11.5)	54.0 (13.5)

주: 영역 총점 평균이며 괄호는 표준편차임.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표 5-2〉 중노년층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구분	연령군별				중년층/노년층		전체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5분위	42.6	16.8	3.9	0.6	36.2	5.3	19.9
4분위	26.8	24.3	12.3	6.3	27.3	13.4	20.0
3분위	16.6	24.6	22.0	11.5	18.7	21.1	19.9
2분위	8.6	21.1	29.6	27.1	11.1	28.1	20.0
1분위	5.2	13.0	32.0	54.4	6.7	32.1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446)	(2,351)	(2,008)	(823)	(3,626)	(4,002)	(7,628)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14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표 5-3〉 중노년층의 유형 분포

구분	연령군별				중년층/노년층		전체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유형 1	67.29	40.88	17.78	8.75	61.5	20.2	39.8
유형 2 (빈곤)	7.48	10.59	9.91	3.04	8.4	8.8	8.6
유형 3 (질병)	8.09	11.65	10.06	4.86	9.0	9.7	9.4
유형 4 (무위)	6.01	8.55	8.86	11.06	6.7	9.4	8.1
유형 5 (중복 문제)	11.12	28.33	53.39	72.30	14.5	51.9	34.2
· 5-1 (빈곤+질병)	2.45	5.19	8.96	4.74	3.2	7.1	5.3
· 5-2 (빈곤+무위)	2.90	6.42	10.41	11.30	3.5	10.0	6.9
· 5-3 (질병+무위)	2.41	6.72	10.26	23.33	3.2	12.4	8.1
· 5-4 (빈곤+질병+무위)	3.35	10.00	23.75	32.93	4.6	22.4	14.0
계 (명)	100.0 (2,446)	100.0 (2,351)	100.0 (2,008)	100.0 (823)	100.0 (3,626)	100.0 (4,002)	100.0 (7,628)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표 5-4〉 중노년층 정책적 관심집단의 종합점수와 유형의 구성

구분	연령군별				중년층/노년층		전체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1) 유형 5-4 이면서 종합점수도 1분위	2.9	7.7	20.2	31.6	3.7	19.6	12.0
(2) 유형 5-4이지만 종합점수 2분위 이상	0.5	2.3	3.6	1.3	0.9	2.9	1.9
(3) 1분위이지만 유형은 5-4가 아님	2.4	5.3	11.9	22.8	3.0	12.5	8.0
(1)+(2)+(3)	5.8	15.3	35.7	55.7	7.6	35.0	21.9
1분위	5.2	13.0	32.0	54.4	6.7	32.1	20.0
유형 5-4	3.4	10.0	23.8	32.9	4.6	22.4	14.0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세 번째로는 문제 영역별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보장제도/현금급여 등의 정책적 개입 필요한 중고령자가 34.7%, 건강관련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45.3%, 무위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성화가 요구되는 유형4가 37.0%이다.

이러한 영역별 정책적 관심대상자를 선정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영역별로 그 수준이 저하되는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가족사회관계』의 경우 80대 이후 그 삶의 질 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80대 이후 고령자의 고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본 영역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 상태』 영역의 경우는 50대와 그 이후 연령군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50대를 대상으로 한 재정적 노후준비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보인다. 세 번째 영역인 『건강상태』의 경우 중노년기에 꾸준한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 영역인 『사회참여』의 경우 『경제 상태』와 유사하게 50대와 그 이후 연령군 간의 차이가 매우 심한데, 『사회참여』의 경우는 절대적인 수준 또한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50대가 여가경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적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영역별 정책 방안

#### 가. 가족사회관계

삶의 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사회관계는 80대 이상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적인 다양성도 크다. 따라서 70대부터 가족

사회관계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와 자녀 등의 일차적 비공식 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친구이웃의 접촉 빈도는 연령과 무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가하는 후기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친구이웃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가족관계에 관한 중요성 제고 및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 간의 대화법,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 퇴직 후 가정 내 역할 정립, 조부 모로서의 역할상 등에 대한 고민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60대의 경우, 생업에서 은퇴한 만큼 가족 및 배우자와의 관계면에서 시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마련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녀와의 왕래, 배우자와 함께 하는 활동 등에서 대폭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불만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인 자녀나 배우자랑 깊은 대화를 나누어 해결하기보다는 혼자서 참거나 포기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관심이 요구된다.

## 나. 경제상태

경제상태의 경우 60대부터 가구소득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소득관련 제도적 기반마련과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행태의 변화나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시급해 보이며, 이러한 개인적 노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노후설계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매월 생계비는 해결되나 주거안정 및 건강 유지를 위한 부대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인 부분에서 교통비나 균형잡힌 식단을 위한 경비 마련 등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노년기의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급여의 상당부분을 주거비용(임대료, 관리비)으로 지출하고 있어 주거의 안정은 여가활동 등 다른 영역의 지출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 다. 건강상태

건강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상태에 비하여 건강행위의 실천 정도가 낮다. 따라서 지속적인 건강행위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건강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검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80대의 노년층은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의 ‘낙상’사고에 대한 대비(예: 집안에 손잡이 설치 등)가 필요하다.

한편 적절한 투약관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일부는 우울증 및 불면증을 갖고 있어 투약을 하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노년기에는 복용하는 약물이 많아지며, 사회적 관계망과 활동의 축소에 따라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투약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 라. 사회참여

사회참여의 경우 그 내용별로 변화추이가 다르다. 따라서 사회참여활동의 내용별 변화추이를 반영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의 경우 60대를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로서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은 특히 60대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60대의 경우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하여 재능을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 중 여행은 특히 80대에서는 매우 낮은데 이는 이들의 기능상의 제한 등이 작동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상의 변화를 반영한 여행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80대의 사회문화여가활동에서 여행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단체화동이나 공연문화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반면 단체활동은 다른 사회참여활동에 비하여 신체적 노화에 따른 참여율의 저하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기 노년기까지도 단체활동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 유형별 외에도 소득계층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공적 인프라의 확충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중년층의 경우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과 더불어 시간적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비용의 여가프로그램 이외에도 시간 맞춤형의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마. 기타

본 연구를 통하여 관심을 두었던 4영역 외에도 중노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종교’가 중노년층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 때 종교는 주중과 주말 등 생활시간을 기획하는 기회이며, 대인관계와 여가활동의 구심점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장이기도 한다. 이렇게 종교가 노년기에 행하는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한 노인복지서비스 발굴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노년기의 ‘이사’라고 하는 물리적 이동은 노년층의 삶의 질과 생활양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신체적 기능의 저하에 따라서 생활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대인관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거주지 변동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남아 있는 생애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 설계 교육 및 퇴직 전 준비 교육 등에 대한 홍보와 실천을 높일 필요가 있다. 60대는 노년기에 진입하는 시기로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측면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노년기에 들어서기 이전에 준비를 많이 한 이들은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으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노년기에 들어선 이들은 여전히 삶의 질이 높지 않다. 따라서 좀 더 이른 연령대부터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후설계는 현재 중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년층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미래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예민하게 하며, 이는 현재 경제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향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진다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고 영역별 양상과 그로 인한 중노년층 내부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하여 삶의 질을 규정하고 계량화하였다.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는 작업이 초기단계이며 자료의 구득 가능성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포괄적인 삶의 질의 개념을 도입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삶의 질의 주관적인 측면을 통합하려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제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포괄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객관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의 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둘째, 동일한 개념이라도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갖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의 개념이다. 건강의 경우 연령대별로 그 의미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르다. 80대만 보더라도 이들은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고, 자연적인 노화과정의 상당부분 진행된 특성이 있다. 즉 ‘건강’이라는 변수를 해당영역 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년기의 건강취약성을 만성질환과 같은 객관적 사실로만 볼 것인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 혹은 인지로 볼 것인지, 치매 등과 같은 정신질환 유무로 판단할 것인지, 활동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의 신체적 역량 정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 내지는 조작적 정

의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에서 노년층까지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개인적 지향성의 차이와 그것이 삶의 질에 갖는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내면 지향형으로 의미를 찾는 삶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중노년층과 생산적 노화에 더 관심을 갖는 중노년층이 있을 수 있다<sup>23)</sup>.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 지향성의 차이에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실제 사회참여활동에서도 개인적인 문화여가활동을 선호하는 사람과 집단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선호가 실제 삶의 질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특정한 사건의 영향력이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중요한 생애 사건이 삶의 후반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건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충분히 장기적으로 노년기의 사회참여 및 관계적 영역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3) 담론의 수준에서는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문제제기로 '의식적 노화(conscious aging)'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음. 나머지 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노년의 내재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별고, 쓰기 바빴던' 생에서 '의미를 찾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정경희 외, 2006).



## 참고문헌 <<

- 강소랑·문상호(2011).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관한 증험적 정책설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2), pp.353~381.
- 권중돈(2012).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pp.91~104.
- 김민경·정우진·임승지·윤수진·이자경·김은경·고난주(2010).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와 기여요인 분석,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3(1), pp.50~61.
- 김익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화·이연숙·조성남(1997). 한국노인의 삶의 미래 인력연구총서, 생각의 나무.
- 김정석·김혜영·송유진·은기수·현안나·황선재(2012). 출산환경 및 형태지표체계 개발,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연구소.
- 김형주(2011). 청소년수련관 평가자료 가중치 분석방법의 비교, 청소년연구, 18(12), pp.181~202.
- 심준섭(2006). 판단분석(Judgment Analysis)을 이용한 평가지표의 가중치 부여,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년 통계학술대회, pp.59~80.
- 백학영(2010).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 30(3), pp.911~931.
- 보건복지부(20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보도자료(2013.1.25.).
- 석재은·오영희·박수천·김수봉·김미혜·윤동성·김은혜·이윤경·송민경(2005). 노인생활지원 종합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석재은·권중돈·김정석·박영란·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병식·정우진·이현송·연하정·한성덕·박주현(1996). 한국인의 삶의 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가옥·이현송·김정석(2000). 노년기 삶의 질: 지표개발과 평가,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성공회대학교.
- 이소정·정경희·오영희·정홍원·박지승·박보미·이금룡(2011). 노후준비 종합진단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일본 내각부 국민생활심의회(2005). 일본의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
- 정경희(2013).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2013년 제4차 고령사회포럼 자료집(2013.11.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오영희·이윤경·박보미(2011).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영숙(2000). 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복지정책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1(1), pp.59~74.
- 정진경·김고은(2012). 노년기 부모-성인 간 지원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2(3), pp.895~912.
- 최성재·장인협(2010).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수정(2001).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옥금(2009).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 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51, pp.277~296.

- 한준·강석훈·김석호·서은국·홍종호·이희길·박주연(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
- 황명진·심수진(2007). 행복지수의 개발, 통계개발원.
- Bunge, M.(1975). What is a quality of life indica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2. 65~79.
- Cantor, M. H. and Little V..(1985). "Aging and Social Care", in Binstock, R. J.and Shanna, E.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2nd Edition). NY, pp.745~780.
- Diaz-Ponce, A. and Cahill. S.(2013). *Dementia and quality of life issues in older people*. pp. 97~115. in Phellas C. (Ed.) *Aging in European societies*. Springer.
- Diener, E. and Suh, E.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 189~216.
- France, I.(2010). *Objective indicators of quality of life*. 1~17.
- Institute of Wellbeing(2009).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the First Report of the Institute of Wellbeing*(www.ciw.ca).
- Land, K. C.(1975). *Social indicators models*. Russell Sage Foudnation.
- Pigou. A. C. (1929). The monetary theory of the trade cycle. *Economic Journal*. 30 (154): 83~194.
- Rowe, J. W.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Witkin(1984). *Assessing needs in educational and social programs*. Josse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

## 부 록 <<

부록 1. 부표

부록 2. 사례별 제특성

부록 3. 사례연구 관련 자료(양식)

## 〈부록 1〉 부표

〈부표 1〉 영역별 삶의 질 지표체계 선정과 지수화 과정

### 0. 인구사회적 배경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KLose상의 data availability	
인구 동향	인구고령화	노인인구비			
		노인가구비			
		노인부양비			
수명 및 사망		노령화지수			
		평균수명			
		건강수명			
		연령별 사망률 및 사망원인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규모			
제정	정부	공공사회복지지출 대비 노인복지지출 규모			
		노인복지지출의 구성			
		노인의료비 비율			
시설 기반	민간	공동모금액 대비 노인복지예산액 규모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시설 증축률		
			이용시설	노인 만명당 노인복지관 수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KLosa상의 data availability	
인식	기타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노인 만명당 경로당 수			
		노인 만명당 노인교실 수			
		독거노인의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			
		노인 만명당 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노인 만명당 치매상담센터 수			
		노인 만명당 시니어클럽 수			
	노인의 태도		노년기 희망 거주형태		
			노인복지정책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부모 노후부양에 대한 견해		
			노인에 대한 차별인식		
		노인연령기준			

1.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증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상의 data availability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사회심리적 안정의 수준	노인의 행복감	노인의 행복감		
		노인의 자아존중감	노인의 자아존중감		
		노인의 계층의식	노인의 계층의식		
	사회심리적 안정의 침해	노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	노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	노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	
		노인자살률			
		노인의 학대경험률		(학대경험 여부)	
		노인의 범죄피해율		(범죄피해 여부)	
		노인의 범죄율			
		8	0	0	

## 2. 노인의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 『가족사회관계』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상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개인 자원	개인역량	노인의 교육수준	노인의 교육수준		
		노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노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관심사	노인의 주요 관심사	노인의 주요 관심사		
		노인의 결혼상태	결혼상태	○*	
		노인의 생존자녀수	생존자녀수	○*	
가족 관계	가족구성	노인의 생존형제자매수	생존형제자매수	○*	가구형태와 생존자녀수 등을 종합하여 '자녀와의 물 리적 근접성'으로 조작화
		노인의 가구형태	가구형태	○*	
		노인의 배우자와의 활동 공유 정도	배우자와의 활동 공유 정도	x	
	가족관계의 긴밀성	노인의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	△(만족도)	
		노인의 별거자녀와의 접촉 빈도	별거자녀와의 접촉 빈도	○	
		노인의 자녀와의 자원의 교환	노인의 자녀와의 자원의 교환		
	가족관계 만족도	노인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노인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상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사회 관계	사회관계	노인의 친한 친구이웃 수	친한 친구이웃 수	○*	친한 지인 여부와 접촉빈 도를 통합하여 조사되었음.	
		노인의 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		
		노인의 외출빈수	외출빈수	x		
	지역사회만족도	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에 대한 만족도	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에 대한 만족도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도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도			
		노인의 이웃에 대한 만족도	노인의 이웃에 대한 만족도			
		20	20(10)	6	4	

3. 노인의 물리적 안전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상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거주환경	주거현황	노인의 주택소유율	주택소유 여부	○	경제상태에 반영될 수 있음
		노인의 주택유형	거주 주택유형	○	삶의 질과의 관련성의 방향성이 모호함
		임대주택분양가구중 노인가구의 비율			
	주거의 질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 거주 여부		
		노인의 가정안전장치 설치율	안전장치가 설치된 가정에 거주 여부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 여부		
거주 안정성	노인의 가정 내 불편한 환경 존재율	노인의 가정 내 불편한 환경 존재 여부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	주거만족도			
	노인가구의 비자발적 주거이동률	비자발적 주거이동경험 여부			
		노인가구의 슈바베 계수 (총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총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상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교통환경	교통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노인의 교통사고 부상률	교통사고 부상 여부	x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				
		노인의 자가운전율	자가운전 여부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경험률	(대중)교통 이용 불편 경험 여부			
	교통환경 정책	실버존 설치수				
		노인의 안전교육 이수자수				
		저상버스 도입 달성률				
		지하철 E/S 및 E/V 설치달성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19	12(3)	2	0	

4. 노인의 경제상태 → 『경제』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상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소득	소득수준	노인의 월평균 가구공동회소득	노인의 월평균 가구공동회소득	○*	-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 보정 - 빈곤은 소득의 규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통합
		가구소득중 노인개인소득의 비중	가구소득중 노인개인소득의 비중	○	
		노인의 개인소득의 구성	노인의 개인소득의 구성	△*	
	노인빈곤	노인의 절대빈곤율	절대 빈곤 경험 여부	△*	
		노인의 상대빈곤율	상대 빈곤 경험 여부	△*	
		노인의 비소득 빈곤율	비소득 빈곤 경험 여부	×	
소득의 형평성	노년기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자산	노인의 자산소유액 및 구성	자산소유액 및 구성	○*	자산규모 파악과 자 산의 유용성 정도 파악 으로 구별하여 정리
부채		노인의 소득·자산 소유 유형	소득·자산 소유 유형	○*	
	노인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	자산 대비 부채규모 [통계적인 유의미성 낮음 부채의 의미 불분명]			
	노인의 주 부채사유	주 부채사유	×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r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지출	지출 실적	노인의 가구지출액				
	주관적 경제 상태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노인의 경제상태 만족도	노인의 경제상태 만족도			
소득 안전망	경제소득 안전망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	공적연금 가입 여부	○*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65세 이상에게만 해당됨]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비율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여부	○*		
	민간소득 안전망	절대빈곤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호비율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이라는 관점에서 공 적/개인연금 가입 여 부를 통합하여 지표 설정
		노인의 개인연금 수급률	개인연금 가입 여부	○*		
		노인의 퇴직급여 수급률	퇴직급여 수급 가능성	○		사례가 매우 적음
		노인의 주택연금 수급자수				
		21	15(12)	8	4	

5. 노인의 건강 → 『건강』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상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건강 수준	기능 제한 상태	노인의 ADL 제한율	ADL 제한여부	○*	- ADL과 IADL이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 측정방법이며, - 측정의 목적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하는가 여부이므로
		노인의 IADL 제한율	IADL 제한여부	○*	- 본 연구에서는 건강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가를 통하여 파악
	노인의 만성복합질환 유병률	만성질환 수	○*	신체적 건강	
	노인의 낙상경험률	낙상 경험여부			
	노인의 영구치우식 유병률	영구치우식 경험여부	×		
	노인의 시력 보조기(안경) 사용률	시력 보조기(안경) 사용여부			
	노인의 청력 보조기(보청기) 사용률	청력 보조기(보청기) 사용여부	×		
	노인의 등록장애인 비율	등록장애인 여부	×		
	노인의 외병 경험률	외병 경험 여부	×		
	노인의 치매유병률	치매여부			
정신적 건강상태	노인의 우울증 비율	우울증 경험 여부	○*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별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노인의 주관적 구강상태별 비율	주관적 구강상태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r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건강 관리	건강행태	노인의 흡연율	흡연 여부	○	정기적인 예방적인 건강행위인 운동과 건강검진 실천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
		노인의 과음주율	과음주 여부	○	
		노인의 운동실천율	운동실천 여부	○*	
		노인의 영양관리 필요율	영양관리 필요 여부	○	
	건강검진	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일반건강검진 수검 여부	○*	
		노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구강검진 수검 여부	△	
		노인의 치매 조기검진율	치매 조기검진 여부		
	예방접종	노인의 암검진율	암검진 여부	△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폐렴구균 예방접종 여부	×	
건강 정책	노인생활 서비스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공적 장기요양보호 여부		
		노인의 치매 진료율	치매 진료 여부		
		만성질환관리제 등록노인수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	
		노인의 병의원 외래이용률(최근 2주간)	병의원 외래이용여부(최근 2주간)[방향성 모호]		
		노인의 병의원 입원이용률(최근 1년간)	병의원 입원이용여부(최근 1년간)[방향성 모호]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	월평균 진료비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노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노인의 미치료를	미치료 여부		
				32	32(18)

## 6. 노인의 사회참여 → '사회참여'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상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경제 활동	경제활동현황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여부	○*	경제활동 여부와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창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 도록 조차적 정의	
		노인의 경제활동이유	경제활동이유			
		노인의 종사 직종	종사 직종	○*		
		노인의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		
		노인의 시간당 평균 근로임금	시간당 평균 근로임금	△*		
		공공 노인 일자리수				
	주관적 경제활동 만족도	노인의 경제활동만족도	경제활동만족도			
	사회 참여	자원봉사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여부	○*	
			노인의 자원봉사유구 총족률	자원봉사유구 총족률		
		투표 및 기부현황	노인자원봉사단체수			
노인의 투표 참여율			투표참여 여부	×		
주관적 사회참여 만족도	노인의 사회기부율	사회기부 여부	×			
	노인의 사회참여 만족도	사회참여만족도				

중영역	하위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 (개인단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개별지표) <sup>1)2)</sup>	KLosas의 data availability		
				3단계	4단계	
여가 문화	평생교육	노인의 평생교육참여율	평생교육 참여여부	○	참여자가 수가 매우 적어 생략	
		노인의 평생교육욕구 충족률	평생교육욕구 충족률			
	여가문화활동	노인의 단체활동 참여율	단체활동 참여여부	○*		
		노인의 공연문화 향유율	공연문화 향유여부	○*		
		노인의 여행 경험률	여행경험여부	○*		
		노인의 평균여가시간	평균여가시간	×		
	주관적 여가문화활동 만족도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율	종교활동 참여여부	○*	종교모임 참여를 통 하여 단체활동 참여 율에 반영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만족도	여가문화활동 만족도			
			21	19(13)	9	4

주: 1) 지표수치는 개인단위에서 의미있는 개별지표의 수임(1단계)  
 2) 괄호안의 지표 수치는 개별지표 중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방향일 충족시키는 개별지표의 숫자임(2단계)  
 \*: 직간접적으로 종합지수 산정에 반영된 개별지표

(부표 2) 50대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위별 특성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	5.3	8.6	16.7	26.8	42.6	100.0(2.446)
지역						
도시	79.8	79.6	78.4	81.1	85.1	82.2
농어촌	20.2	20.4	21.6	18.9	14.9	17.8
성						
남성	42.6	32.7	31.6	38.7	53.8	43.7
여성	57.4	67.3	68.4	61.3	46.2	5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73.6	68.7	58.3	43.1	21.8	40.4
고졸	20.2	28.9	36.5	48.2	53.1	45.2
대졸 이상	6.2	2.4	5.2	8.7	25.1	14.4
주택집유 유형						
자기	40.3	58.8	71.3	82.5	90.7	79.8
전월세 등	59.7	41.2	28.7	17.5	9.3	20.2
종교 <sup>1)</sup>						
없음	65.1	56.7	55.2	53.5	51.0	53.6
있음	34.9	43.3	44.8	46.5	49.0	46.4
배우자 만족도 <sup>2)</sup>	57.1(24.5)	62.1(19.1)	65.9(16.0)	69.8(14.6)	73.9(14.0)	70.2(15.8)
자녀관계 만족도 <sup>3)</sup>	58.2(24.1)	68.4(18.5)	72.6(14.5)	74.5(14.3)	76.5(13.0)	73.7(15.4)
건강상태 만족도 <sup>4)</sup>	36.1(22.3)	51.8(19.1)	58.3(17.7)	63.7(16.5)	69.3(15.2)	62.7(18.7)
경제상태 만족도 <sup>4)</sup>	31.9(21.6)	41.3(20.1)	49.6(18.7)	57.3(18.0)	66.2(16.0)	57.1(20.3)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sup>4)</sup>	42.7(21.7)	52.8(18.0)	60.2(15.7)	65.1(14.0)	71.0(13.3)	64.6(16.7)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4)</sup>	48.4(25.4)	50.4(19.4)	51.1(19.2)	49.9(18.1)	48.1(21.2)	49.3(20.2)
계(명)	100.0(129)	100.0(211)	100.0(408)	100.0(656)	100.0(1,042)	100.0(2,446)

주. 1) 종교의 경우 결측치 16인을 제외한 수치임(2분위 1인, 3분위 6인, 4분위 5인, 5분위 4인). a) ( )는 표준편차  
 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3)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4)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의 경우 결측치 1인을 제외한 수치임(5분위 응답자).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ILosa.

〈부표 3〉 60대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부문별 제특성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	13.0	21.1	24.6	24.3	16.9	100.0(2,351)
지역						
도시	74.8	70.4	70.6	75.9	81.9	74.3
농어촌	25.2	29.6	29.4	24.1	18.1	25.7
성						
남성	27.5	33.2	44.9	52.1	66.0	45.5
여성	72.5	66.8	55.1	47.9	34.0	54.5
교육수준 <sup>1)</sup>						
중졸 이하	90.5	82.3	74.4	64.2	34.8	69.0
고졸	7.8	13.5	20.9	29.6	38.3	22.7
대졸 이상	1.6	4.2	4.7	6.3	27.0	8.3
주택점유 유형						
자가	56.2	80.9	87.9	92.7	96.5	84.9
전월세 등	43.8	19.1	12.1	7.3	3.5	15.1
종교 <sup>2)</sup>						
없음	53.6	52.9	51.3	49.6	41.1	49.8
있음	46.4	47.1	48.7	50.4	58.9	50.2
배우자 만족도 <sup>3)</sup>	58.3(19.1)	62.7(17.8)	67.1(16.9)	69.1(15.2)	74.6(13.4)	67.5(16.9)
지나치게 만족도 <sup>3)</sup>	58.3(22.9)	67.1(18.1)	71.0(15.4)	72.8(13.9)	76.6(13.3)	69.8(17.4)
건강상태 만족도 <sup>4)</sup>	34.9(20.9)	47.9(18.8)	57.8(16.9)	61.7(16.8)	69.4(13.5)	55.6(20.3)
경제상태 만족도 <sup>4)</sup>	32.6(19.0)	46.6(18.4)	54.4(16.6)	59.2(16.4)	67.7(15.6)	53.3(20.0)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sup>4)</sup>	44.5(20.4)	55.7(16.3)	63.0(15.3)	65.8(13.7)	71.9(12.8)	61.2(17.6)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5)</sup>	49.0(25.4)	49.1(19.4)	49.5(19.1)	50.1(19.3)	46.0(19.8)	48.9(20.3)
계(연)	100.0(306)	100.0(497)	100.0(579)	100.0(572)	100.0(397)	100.0(2,351)

주: 1) 교육수준의 경우 '고르갯음' 응답자 1인을 제외한 수치임(2분위 응답자).  
 2) 종교의 경우 '결측치 16인'을 제외한 수치임(1분위 2인, 2분위 2인, 3분위 4인, 4분위 5인, 5분위 3인). a) ( )는 표준편차  
 3)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4)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s.

〈부표 4〉 70대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위별 제특성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	32.0	29.6	22.1	12.3	4.0	100.0(2.008)
지역						
도시	66.4	65.6	69.1	70.9	72.5	67.5
농어촌	33.6	34.4	30.9	29.1	27.5	32.5
성						
남성	31.1	39.8	50.6	65.6	80.0	44.2
여성	68.9	60.2	49.4	34.4	20.0	55.8
교육수준						
중졸 이하	91.0	84.9	77.9	60.3	42.5	80.6
고졸	7.0	11.4	15.6	23.9	32.5	13.3
대졸 이상	2.0	3.7	6.5	15.8	25.0	6.1
주택영유 유형						
자가	66.6	84.0	92.8	95.6	98.8	82.4
전월세 등	33.4	16.0	7.2	4.4	1.2	17.6
종교 <sup>1)</sup>						
없음	52.2	50.6	47.1	45.3	41.8	49.3
있음	47.8	49.4	53.0	54.7	58.2	50.7
배우자 민족도 <sup>2)</sup>	56.2(20.8)	64.3(17.1)	66.4(17.1)	69.2(16.5)	73.7(14.3)	64.4(18.4)
자녀관계 민족도 <sup>3)</sup>	59.8(20.4)	67.1(17.2)	69.1(17.0)	74.2(13.8)	75.4(12.7)	66.3(18.5)
건강상태 민족도 <sup>4)</sup>	34.8(20.4)	48.5(19.5)	54.9(17.8)	63.1(15.1)	67.3(14.2)	48.1(21.5)
경제상태 민족도 <sup>5)</sup>	34.0(20.0)	47.3(19.9)	52.8(19.1)	62.9(16.7)	69.5(13.1)	47.1(21.9)
전반적인 생활민족도 <sup>6)</sup>	44.6(19.7)	58.1(17.1)	62.2(15.7)	68.7(12.9)	72.8(12.5)	56.6(19.3)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7)</sup>	44.4(27.3)	47.7(21.5)	47.9(19.5)	44.1(21.5)	45.3(19.4)	46.1(23.1)
계(명)	100.0(643)	100.0(595)	100.0(443)	100.0(247)	100.0(80)	100.0(2,008)

주: 1) 종교의 경우 결측치 11인을 제외한 수치임(1분위 3인, 2분위 2인, 3분위 3인, 4분위 2인, 5분위 1인).

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3)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a) ( )는 표준편차

〈부표 5〉 80대 이상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위별 제특성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	54.4	27.1	11.5	6.3	0.6	100.0(823)
지역						
도시	66.5	67.7	81.1	73.1	100.0	69.1
농어촌	33.5	32.3	18.9	26.9	0.0	30.9
성						
남성	24.8	36.3	46.3	61.5	100.0	33.2
여성	75.2	63.7	53.7	38.5		66.8
교육수준						
중졸 이하	93.8	91.0	82.1	75.0	40.0	90.2
고졸	4.5	7.6	14.7	5.8	40.0	6.8
대졸 이상	1.8	1.4	3.2	19.2	20.0	3.0
주택장유 유형						
자가	72.3	91.0	93.7	98.1	100.0	81.7
전월세 등	27.7	9.0	6.3	1.9	0.0	18.4
종교 <sup>1)</sup>						
없음	54.9	50.9	53.2	34.6	20.0	52.1
있음	45.1	49.1	46.8	65.4	80.0	47.9
배우자 만족도 <sup>2)a)</sup>	60.0(22.7)	64.7(17.9)	66.8(17.8)	72.0(19.1)	70.0(27.1)	64.3(20.3)
자녀관계 만족도 <sup>3)a)</sup>	61.4(21.0)	65.4(17.8)	68.9(13.2)	75.2(14.9)	76.7(15.3)	64.3(19.4)
건강상태 만족도 <sup>a)</sup>	36.0(21.5)	49.7(18.4)	57.3(16.9)	65.0(17.2)	68.0(17.9)	44.2(22.2)
경제상태 만족도 <sup>a)</sup>	35.4(20.2)	50.8(18.7)	56.4(16.6)	63.5(19.8)	64.0(13.4)	44.0(21.7)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sup>a)</sup>	47.1(19.3)	59.0(15.5)	63.4(12.6)	69.6(13.9)	68.0(16.4)	53.8(19.0)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a)</sup>	43.1(27.3)	43.2(21.5)	43.8(22.7)	48.1(20.8)	46.0(21.9)	43.5(24.9)
계(명)	100.0(448)	100.0(223)	100.0(95)	100.0(52)	100.0(6)	100.0(823)

주 1) 종교의 경우 결측치 4인을 제외한 수치임(1분위 2인, 2분위 1인, 3분위 1인).  
 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3)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a) ( ) 는 표준편차.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부표 6〉 50대의 세부유형별 제특성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5				전체
						5-1	5-2	5-3	5-4	
전체	67.3	7.5	8.1	6.0	11.1	2.5	2.9	2.4	3.4	100.0(2,446)
지역										
도시	83.3	78.1	76.3	85.7	80.5	70.0	80.3	86.4	84.2	82.2
농어촌	16.7	21.9	23.7	14.3	19.5	30.0	19.7	13.6	15.9	17.8
성										
남성	49.0	43.2	35.4	17.7	31.6	38.3	21.1	30.5	36.6	43.7
여성	51.0	56.8	64.7	82.3	68.4	61.7	78.9	69.5	63.4	5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31.0	54.1	54.0	55.1	70.2	63.3	73.2	62.7	78.1	40.4
고졸	50.5	37.2	38.9	38.1	26.8	33.3	26.8	33.9	17.1	45.2
대졸 이상	18.5	8.7	7.1	6.8	2.9	3.3	0.0	3.4	4.9	14.4
주택집유 유형										
자가	87.7	42.1	86.4	85.0	54.4	50.0	53.5	79.7	40.2	79.8
전월세 등	13.0	57.9	13.6	15.0	45.6	50.0	46.5	20.3	59.8	20.2
종교 <sup>1)</sup>										
없음	53.5	45.1	52.6	59.7	57.2	51.7	55.7	55.9	63.4	53.6
있음	46.5	54.9	47.4	40.3	42.8	48.3	44.3	44.1	36.6	46.4
배우자 만족도 <sup>2)a)</sup>	72.3(14.3)	64.9(17.5)	68.9(15.4)	65.8(15.8)	62.2(21.1)	62.7(21.0)	64.1(20.3)	65.1(16.9)	55.4(26.0)	70.2(15.8)
자녀관계 만족도 <sup>3)a)</sup>	75.5(13.5)	73.4(16.5)	71.6(13.5)	72.0(14.6)	65.5(22.6)	64.4(24.6)	69.3(18.8)	66.1(23.3)	62.3(23.8)	73.7(15.4)
건강상태 만족도 <sup>4)</sup>	67.1(15.9)	59.7(17.3)	55.3(18.6)	63.3(17.0)	43.1(21.9)	49.3(18.7)	52.4(19.0)	42.5(22.9)	31.0(20.3)	62.7(18.7)
경제상태 만족도 <sup>4)</sup>	62.2(17.7)	42.3(20.1)	57.3(18.8)	53.9(18.0)	38.1(21.7)	38.5(20.1)	38.0(21.8)	46.4(20.4)	31.8(21.8)	57.1(20.3)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sup>4)</sup>	68.1(14.1)	58.8(17.3)	63.4(15.7)	61.3(17.0)	49.8(21.2)	54.2(19.0)	53.0(19.7)	55.3(19.6)	39.9(21.9)	64.6(16.7)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4)b)</sup>	48.9(20.1)	50.3(20.0)	48.7(18.6)	50.6(20.5)	50.8(22.1)	52.7(20.9)	53.0(22.5)	47.8(18.9)	49.8(24.8)	49.3(20.2)
계(명)	100.0(1,646)	100.0(183)	100.0(198)	100.0(147)	100.0(272)	100.0(660)	100.0(71)	100.0(59)	100.0(82)	100.0(2,446)

주: 1) 종교의 경우 결측치 16인을 제외한 수치임(유형1 9인, 유형2 1인, 유형3 2인, 유형4 3인, 유형5 1인(유형 5-4)).

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3)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4)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기대감의 경우 결측치 1인을 제외한 수치임(유형 1 응답자).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s.

<부표 7> 60대의 세부유형별 제특성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전체				
						5-1	5-2	5-3	5-4	전체
전체	40.9	10.6	11.7	8.6	28.3	5.2	6.4	6.7	10.0	100.0(2,351)
지역										
도시	77.9	61.9	65.7	87.1	73.4	57.4	68.2	78.5	81.7	74.3
농어촌	22.1	38.2	34.3	12.9	26.6	42.6	31.8	21.5	18.3	25.7
성										
남성	56.6	49.0	47.1	36.3	30.2	26.2	35.1	33.5	26.8	45.5
여성	43.4	51.0	52.9	63.7	69.8	73.8	64.9	66.5	73.2	54.5
교육수준 <sup>1)</sup>										
중졸 이하	53.3	70.3	76.6	76.6	85.6	91.0	81.5	77.9	90.6	69.0
고졸	31.6	23.3	19.3	17.9	12.3	6.6	15.2	20.9	7.7	22.7
대졸 이상	15.1	6.0	4.0	5.5	2.1	2.5	3.3	1.3	1.7	8.3
주택점유 유형										
자가	93.4	75.1	90.9	90.1	72.2	75.4	74.2	88.6	58.3	84.9
전월세 등	6.6	24.9	9.1	10.0	27.8	24.6	25.8	11.4	41.7	15.1
종교 <sup>2)</sup>										
없음	48.1	49.2	47.4	51.0	53.2	32.0	56.7	63.7	54.9	49.8
있음	51.9	50.8	52.6	49.0	46.8	68.0	43.3	36.3	45.1	50.2
배우자 만족도 <sup>3)a)</sup>	70.9(14.9)	67.6(17.2)	67.0(16.8)	67.0(16.2)	62.0(18.6)	62.1(18.0)	65.6(17.2)	62.0(18.8)	60.1(19.8)	67.5(16.9)
자녀관계 만족도 <sup>3)b)</sup>	73.7(14.2)	68.9(18.6)	68.4(15.7)	72.7(14.7)	64.2(20.6)	62.0(21.4)	70.8(17.3)	65.7(16.5)	60.0(23.5)	69.8(17.4)
건강상태 만족도 <sup>3)</sup>	64.5(16.1)	59.3(16.8)	52.3(17.5)	58.7(17.9)	41.85(20.9)	43.7(19.0)	53.2(19.1)	40.6(20.5)	34.4(20.0)	55.6(20.3)
경제상태 만족도 <sup>3)</sup>	62.2(16.8)	48.7(18.3)	56.0(16.4)	57.1(16.9)	40.08(19.7)	43.1(19.5)	42.3(19.0)	47.8(18.0)	31.9(18.5)	53.3(20.0)
주변적인 생활만족도 <sup>3)</sup>	67.7(14.0)	61.2(16.2)	61.8(15.8)	64.2(15.9)	50.78(19.0)	53.4(18.5)	56.2(17.1)	52.0(17.8)	45.2(20.1)	61.2(17.6)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3)</sup>	47.8(19.7)	51.2(19.3)	49.7(19.3)	50.4(16.9)	48.78(22.7)	48.4(20.3)	51.6(23.2)	47.8(19.9)	47.8(25.3)	48.9(20.3)
계(명)	100.0(961)	100.0(249)	100.0(274)	100.0(201)	100.0(666)	100.0(122)	100.0(151)	100.0(158)	100.0(235)	100.0(2,351)

주: 1) 교육수준의 경우 '모르겠음' 응답자 1인을 제외한 수치임(유형2 응답자)  
 2) 종교의 경우 절충치 10인을 제외한 수치임(유형1 4인, 유형2 3인, 유형3 2인, 유형4 3인, 유형5 4인(유형 5-2 1인, 유형 5-3 1인, 유형 5-4 2인)).  
 3)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4)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a) ( ) 는 표준편차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부표 8〉 70대의 세부유형별 특성상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5				전체
						5-1	5-2	5-3	5-4	
전체	17.8	9.9	10.1	8.9	53.4	9.0	10.4	10.3	23.8	100.0(2,008)
지역										
도시	67.2	61.8	65.8	88.8	65.5	50.0	67.5	74.8	66.5	67.5
농어촌	32.8	38.2	34.2	11.2	34.5	50.0	32.5	25.2	33.5	32.5
성										
남성	60.8	59.3	38.6	46.1	36.6	35.6	45.5	35.0	33.8	44.2
여성	39.2	40.7	61.4	53.9	63.4	64.4	54.6	65.1	66.3	55.8
교육수준										
중졸 이하	66.7	78.9	77.7	67.4	88.3	87.2	86.1	85.4	90.8	80.6
고졸	20.2	13.1	18.3	19.1	9.1	11.7	12.0	9.2	6.9	13.3
대졸 이상	13.2	8.0	4.0	13.5	2.6	1.1	1.9	5.3	2.3	6.1
주택영유 유형										
자기	95.2	84.9	94.1	95.5	73.2	85.0	65.6	88.4	65.6	82.4
전월세 등	4.8	15.1	5.9	4.5	26.8	15.0	34.5	11.7	34.4	17.6
종교 <sup>1)</sup>										
없음	45.8	53.5	41.3	51.1	50.9	38.9	61.4	44.9	53.6	49.3
있음	54.2	46.5	58.7	48.9	49.1	61.1	38.6	55.1	46.4	50.7
배우자 민족도 <sup>2)</sup>	70.3(14.9)	67.5(16.2)	64.2(18.5)	67.2(15.9)	60.8(19.7)	63.6(16.2)	63.3(20.7)	61.6(19.8)	57.8(20.2)	64.4(18.4)
자녀랑계 민족도 <sup>3)</sup>	72.3(14.9)	69.6(16.7)	68.2(16.5)	69.3(14.9)	62.8(20.0)	67.5(17.6)	65.7(19.7)	65.5(17.1)	58.6(21.5)	66.3(18.5)
건강상태 민족도 <sup>4)</sup>	61.7(16.4)	57.6(17.5)	50.1(18.5)	58.0(17.1)	39.7(21.0)	44.9(19.2)	49.9(18.6)	39.4(22.0)	33.6(19.9)	48.1(21.5)
경제상태 민족도 <sup>5)</sup>	61.8(17.1)	47.0(21.0)	56.5(17.7)	55.4(16.3)	39.0(21.2)	43.7(20.4)	41.1(20.4)	48.5(19.7)	32.1(20.3)	47.1(21.9)
전반적인 생활민족도 <sup>6)</sup>	67.8(14.2)	61.1(16.4)	63.5(15.9)	62.5(14.6)	49.7(19.8)	55.7(17.8)	55.0(16.8)	52.8(20.5)	43.7(19.8)	56.6(19.3)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7)</sup>	45.2(21.1)	47.9(21.6)	47.4(18.3)	48.7(19.8)	45.5(25.2)	49.8(22.2)	43.3(23.9)	45.2(20.4)	44.9(28.3)	46.1(23.1)
계(명)	100.0(657)	100.0(199)	100.0(202)	100.0(178)	100.0(1,072)	100.0(180)	100.0(209)	100.0(206)	100.0(477)	100.0(2,008)

주: 1) 종교의 경우 결측치 11인을 제외한 수치임(유형1 3인, 유형2 1인, 유형3 1인, 유형5 6인(유형 5-2 2인, 유형 5-3 1인, 유형 5-4 3인)).

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3)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fI.osa.

a) ( )는 표준편차

<부표 9> 80대 이상의 세부유형별 제특성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전체				
						5-1	5-2	5-3	5-4	전체
전체	8.8	3.0	4.9	11.1	72.3	4.7	11.3	23.3	32.9	100.0(82.3)
지역										
도시	79.2	64.0	72.5	71.4	67.6	56.4	59.1	78.7	64.2	69.1
농어촌	20.8	36.0	27.5	28.6	32.4	43.6	40.9	21.4	35.8	30.9
성										
남성	47.2	68.0	22.5	40.7	29.6	28.2	45.2	24.5	28.0	33.2
여성	52.8	32.0	77.5	59.3	70.4	71.8	54.8	75.5	72.0	66.8
교육수준										
중졸 이하	79.2	88.0	90.0	85.7	92.3	89.7	94.6	90.1	93.4	90.2
고졸	9.7	12.0	7.5	8.8	5.9	7.7	5.4	7.8	4.4	6.8
대졸 이상	11.1	0.0	2.5	5.5	1.9	2.6	0.0	2.1	2.2	3.0
주택점유 유형										
자가	95.8	84.0	97.5	95.6	76.6	69.2	80.7	91.2	66.1	81.7
전월세 등	4.2	16.0	2.5	4.4	23.4	30.8	19.4	8.9	34.0	18.4
중고 <sup>1)</sup>										
없음	36.1	40.0	27.5	64.8	54.3	33.3	54.8	60.0	53.2	52.1
있음	63.9	60.0	72.5	35.2	45.7	66.7	45.2	40.0	46.8	47.9
배우자 민족도 <sup>2)a)</sup>	72.4(14.4)	69.5(13.1)	57.1(19.6)	67.9(20.7)	62.2(21.3)	57.3(17.9)	63.4(20.5)	63.2(19.4)	61.6(23.3)	64.3(20.3)
지나관계 민족도 <sup>2)b)</sup>	72.0(13.9)	66.1(15.0)	63.6(19.3)	68.4(13.5)	62.7(20.6)	62.6(18.0)	61.9(21.0)	65.7(19.4)	60.7(21.5)	64.3(19.4)
건강상태 민족도 <sup>2)</sup>	61.3(14.0)	58.8(15.4)	50.3(19.0)	55.8(20.4)	39.3(21.7)	40.5(22.2)	48.4(19.0)	43.5(22.6)	33.0(19.9)	44.2(22.2)
경제상태 민족도 <sup>2)</sup>	62.5(14.7)	44.0(18.0)	54.3(19.2)	54.1(19.9)	39.5(21.0)	37.4(17.7)	41.1(18.2)	49.5(21.1)	32.1(19.3)	44.0(21.7)
정신적인 생활만족도 <sup>2)</sup>	66.8(12.1)	61.6(13.4)	62.3(14.4)	62.8(13.2)	49.9(19.4)	54.1(19.4)	50.0(17.3)	56.3(18.8)	44.7(19.1)	53.8(19.0)
주관적 기대감: 생활수준 <sup>a)</sup>	47.1(19.5)	40.8(21.4)	43.5(22.7)	43.4(23.5)	43.2(25.9)	42.6(22.9)	38.2(26.5)	42.6(22.1)	45.5(28.4)	43.5(24.9)
계(명)	100.0(72)	100.0(25)	100.0(40)	100.0(91)	100.0(595)	100.0(39)	100.0(93)	100.0(192)	100.0(271)	100.0(823)

주: 1) 종교의 경우 결측치 4인을 제외한 수치임(유형5-3 2인, 유형 5-4 2인).

2)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3)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음.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s.

a) ( )는 표준편차

〈부표 10〉 연령군·성별·경제활동참여여부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코드	50대				60대				70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행위자 비율	시간량 (분)										
경제활동 참여자												
개인유지	100.0	638.4	100.0	632.7	100.0	650.2	100.0	648.5	100.0	671.6	100.0	660.4
식사 및 간식	100.0	111.2	100.0	102.9	100.0	110.9	100.0	102.5	100.0	106.7	100.0	94.2
건강관리	6.4	40.2	8.5	52.3	9.0	44.2	17.0	71.8	20.1	59.2	28.9	77.4
일	89.6	418.1	86.1	368.1	90.5	367.8	84.8	347.5	88.6	307.5	86.0	289.3
고용된 일/자영업	87.8	417.9	66.1	377.6	86.6	373.7	60.8	342.0	83.0	305.7	57.7	302.7
학습	0.3	283.3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정관리	45.2	54.2	97.3	158.9	55.3	61.9	98.3	164.9	57.4	77.8	99.5	165.7
가족보살피기	8.9	41.9	23.4	43.1	10.8	48.9	17.4	51.4	12.1	62.1	12.0	83.6
참여 및 봉사활동	7.2	112.3	15.4	124.4	8.5	118.0	13.1	123.9	8.1	94.6	16.3	116.5
교제 및 여가활동	99.5	253.8	97.7	192.3	99.2	278.8	98.4	198.9	100.0	319.1	98.3	235.1
교제활동	69.9	61.6	71.8	56.6	66.6	66.7	66.4	58.6	68.2	63.0	67.3	66.7
일반인의 학습	2.2	105.9	1.3	90.3	1.6	90.6	2.0	180.0	1.4	96.7	1.8	93.3
미디어 이용	93.4	140.4	85.8	116.3	91.6	166.7	89.7	127.2	96.9	199.2	91.2	147.1
스푸츠와 집밖 레저	39.3	87.0	25.7	83.0	42.6	84.8	26.3	65.2	43.2	82.5	24.2	66.3
취미 및 기타여가	68.3	59.1	51.3	46.2	66.3	60.0	53.0	41.5	72.7	61.2	59.5	57.4
이동	99.5	137.2	99.2	117.3	99.0	131.1	99.1	112.4	98.6	117.6	97.6	106.2
경제활동 비참여자												
개인유지	100.0	695.6	100.0	632.7	100.0	707.7	100.0	648.5	100.0	706.7	100.0	660.4
식사 및 간식	100.0	108.2	100.0	102.9	100.0	113.4	100.0	102.5	100.0	108.1	100.0	94.2
건강관리	23.5	141.4	19.7	52.3	25.6	67.1	29.0	71.8	30.6	73.4	41.3	77.4
일	22.5	218.7	7.2	368.1	8.5	118.2	11.6	347.5	10.5	159.2	14.4	289.3
고용된 일/자영업	6.5	431.3	0.2	377.6	1.4	175.3	0.4	342.0	0.4	0.0	0.8	302.7
학습	0.0	0.0	0.2	0.0	0.0	0.0	0.2	0.0	0.0	0.0	0.2	0.0
가정관리	68.7	120.4	98.9	158.9	80.1	82.1	97.9	164.9	70.5	90.6	93.5	165.7
가족보살피기	13.1	50.4	47.1	43.1	17.9	91.1	33.3	51.4	10.7	87.5	16.5	83.6
참여 및 봉사활동	7.5	115.9	26.8	124.4	11.9	150.3	26.4	123.9	13.0	141.5	27.6	116.5
교제 및 여가활동	100.0	495.2	99.9	192.3	100.0	517.6	100.0	198.9	100.0	525.9	100.0	235.1
교제활동	63.5	65.6	77.9	56.6	72.3	72.9	76.1	58.6	70.7	77.6	81.2	66.7
일반인의 학습	5.7	244.6	7.4	90.3	4.5	152.1	5.8	180.0	2.3	119.0	3.2	93.3
미디어 이용	99.2	284.7	96.7	116.3	99.7	274.4	96.9	127.2	98.1	296.0	97.7	147.1
스푸츠와 집밖 레저	74.2	99.8	56.7	83.0	80.4	127.2	51.6	65.2	74.2	119.5	47.8	66.3
취미 및 기타여가	74.2	99.8	56.7	46.2	77.4	102.7	61.3	41.5	76.9	110.6	68.9	57.4
이동	95.6	105.1	97.3	117.3	97.2	106.7	98.3	112.4	93.0	104.9	92.1	106.2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은 행위자는 있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는 사례수 부재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부표 11> 50대 성별 및 지역에 따른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 코드	남자				여자			
	도시		읍면부		도시		읍면부	
	행위자 비율	시간량(분)						
개인유지	100.0	644.2	100.0	654.5	100.0	648.2	100.0	638.9
식사 및 간식	100.0	111.7	100.0	104.3	100.0	106.4	100.0	100.0
간강관리	8.1	75.5	11.7	69.1	13.3	61.5	12.7	59.0
일	80.7	418.3	86.6	361.6	48.9	358.3	76.4	329.4
고용된 일/자영업	77.8	424.2	78.2	372.0	37.9	381.6	40.0	355.7
학습	0.3	283.3	0.0	---	0.2	269.1	0.0	---
가정관리	47.2	64.7	54.4	73.3	97.9	198.1	98.6	187.1
가족보살피기	9.6	42.7	8.1	48.9	35.3	54.4	22.0	78.8
참여 및 봉사활동	6.9	111.7	9.8	118.2	20.8	143.4	16.4	134.9
교제 및 여가활동	99.6	280.8	99.1	305.2	98.8	259.9	97.4	219.1
교제활동	68.6	60.5	72.4	73.4	75.0	64.2	70.6	68.3
일반인의 학습	2.8	143.8	0.9	0.0	4.2	122.4	1.6	94.2
미디어 이용	93.7	156.6	96.7	177.8	90.7	151.0	88.9	125.4
스포츠와 집 밖 레저	44.7	91.8	32.2	96.4	38.6	93.1	31.3	89.9
취미 및 기타여가	68.7	64.8	71.4	62.2	54.8	50.9	45.9	51.3
이동	99.0	135.8	98.8	115.5	98.5	116.0	97.4	113.2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은 행위자는 있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는 사례수 부재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부표 12〉 60대 성별 및 지역에 따른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 코드	남자				여자			
	도시		읍면부		도시		읍면부	
	행위자 비율	시간량(분)						
개인유지	100.0	672.1	100.0	663.2	100.0	670.4	100.0	667.1
식사 및 간식	100.0	112.2	100.0	110.0	100.0	107.4	100.0	95.5
건강관리	15.6	61.4	11.5	35.6	22.7	64.7	30.7	72.4
일	57.1	359.9	82.7	339.0	33.7	288.6	69.5	339.4
고용된 일/자영업	52.1	380.1	77.3	342.8	20.9	346.3	39.1	329.5
학습	0.0	---	0.0	---	0.2	0.0	0.0	---
가정관리	64.2	71.0	64.0	70.1	98.4	208.8	96.7	178.6
가족보살피기	14.0	70.5	10.1	59.1	29.7	80.1	15.5	76.5
참여 및 봉사활동	9.7	132.8	9.9	128.7	23.6	155.6	11.0	128.4
교제 및 여가활동	99.5	373.7	99.3	316.1	99.7	296.4	98.1	239.1
교제활동	69.9	68.2	62.0	74.2	73.7	74.4	65.8	59.4
일반인의 학습	2.8	131.2	1.6	103.3	4.8	131.1	2.0	96.7
미디어 이용	94.2	211.5	95.9	185.2	94.8	170.7	90.7	154.7
스포츠와 집 밖 레저	59.3	107.1	39.1	101.2	45.2	83.6	26.6	71.6
취미 및 기타여가	70.8	78.1	67.6	69.7	57.9	56.3	58.6	57.2
이동	98.1	123.2	99.6	118.6	98.7	110.0	98.4	103.1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은 행위가 없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는 사례수 부제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부표 13> 70대 성별 및 지역에 따른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 코드	남자				여자			
	도시		읍면부		도시		읍면부	
	행위자 비율	시간량(분)						
개인유지	100.0	696.2	100.0	681.6	100.0	690.7	100.0	701.4
식사 및 간식	100.0	110.2	100.0	99.2	100.0	100.6	100.0	94.3
건강관리	26.0	70.2	27.6	65.6	35.7	77.9	43.1	88.0
일	32.7	292.6	70.0	274.6	26.8	223.1	58.8	252.6
고용된 일/자영업	24.9	330.2	60.0	277.5	13.1	286.6	29.7	309.0
학습	0.0	---	0.0	---	0.2	0.0	0.0	---
가정관리	66.8	84.4	60.6	91.8	94.7	185.7	96.7	176.1
가족보살피기	12.1	76.3	8.6	77.5	17.4	80.5	9.0	35.8
참여 및 봉사활동	10.5	129.0	12.7	124.2	26.5	133.7	18.5	138.1
교제 및 여가활동	100.0	461.5	100.0	386.0	99.8	365.4	98.8	297.1
교제활동	70.4	70.8	67.6	75.5	79.2	80.0	71.5	75.2
일반인의 학습	2.6	112.4	0.0	-	3.3	111.6	1.6	95.0
미디어 이용	97.3	262.9	98.6	241.2	96.6	218.0	93.7	177.7
스포츠험비 및 집 밖 레저	66.1	115.6	48.6	81.8	42.8	80.9	35.6	73.4
취미 및 기타여가	75.8	96.5	73.3	75.4	68.6	74.7	59.6	76.1
이동	94.9	111.8	96.5	105.1	94.1	102.7	92.8	103.1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은 행위자는 있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는 사례수 부재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부표 14〉 50대 남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 코드	도시(n=633)												읍·면부(n=83)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행위자 행위 비율		행위자 행위 시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행위자 행위 비율		행위자 행위 시간	
식사 및 간식	100.0	96.3	100.0	111.6	100.0	112.9	100.0	112.0	100.0	109.7	100.0	89.8	100.0	99.2	100.0	112.0	100.0	105.3	100.0	98.4	100.0	105.3	100.0	98.4
가족과의 식사	3.4	35.0	78.0	50.6	78.5	48.1	74.7	47.0	71.7	61.7	28.8	42.9	86.3	53.7	90.2	55.9	83.9	54.7	72.5	52.8	83.9	54.7	72.5	52.8
혼자 식사	96.2	52.1	47.6	37.0	50.8	35.1	51.3	35.8	61.1	45.5	83.1	43.1	41.5	34.5	35.5	44.0	40.6	38.0	57.5	48.0	40.6	38.0	57.5	48.0
가족이외 사람과 식사	47.9	44.4	60.2	40.7	60.5	43.6	64.1	43.1	28.3	40.6	52.5	46.5	38.7	43.6	42.8	40.2	43.1	41.8	35.0	46.4	43.1	41.8	35.0	46.4
경제활동	70.6	61.5	68.6	57.5	68.5	61.4	69.2	59.8	64.4	65.4	79.7	88.9	81.0	66.5	63.0	77.2	74.8	74.2	57.5	67.0	74.8	74.2	57.5	67.0
가족친척과의 교제	6.3	80.7	19.5	42.7	17.8	44.0	16.9	44.9	23.1	41.5	3.4	0.0	22.2	51.6	17.8	45.1	18.1	48.6	18.7	55.3	18.1	48.6	18.7	55.3
그 외 사람들과 교제	54.2	50.8	48.1	49.5	47.0	50.9	48.4	49.9	42.1	56.0	55.9	87.0	58.5	55.5	50.7	56.6	55.9	60.1	46.2	52.4	55.9	60.1	46.2	52.4
전화 혹은 인터넷 교제	31.5	23.5	32.3	20.2	34.0	23.2	34.2	22.7	28.1	20.9	57.6	23.2	36.7	15.4	23.2	26.3	33.8	20.9	23.8	16.3	33.8	20.9	23.8	16.3
건강관리	15.1	128.3	10.7	74.7	6.7	66.7	5.8	40.1	24.8	135.9	0.0	--	18.5	81.1	8.0	44.1	11.1	40.7	15.0	20.7	11.1	40.7	15.0	20.7
자기치료	8.0	28.9	5.9	20.0	4.0	28.0	3.0	21.9	16.8	30.3	0.0	--	13.7	45.3	4.3	22.5	6.8	18.8	15.0	97.5	6.8	18.8	15.0	97.5
의료서비스 받기	9.2	172.3	6.3	82.6	3.2	65.6	3.0	53.1	13.6	134.1	0.0	--	4.8	78.3	5.4	46.7	5.4	60.7	0.0	--	5.4	60.7	0.0	--
아파서 쉼	0.8	0.0	0.6	0.0	1.1	112.9	0.3	30.0	6.1	168.5	0.0	--	2.0	0.0	0.0	--	0.0	--	6.3	0.0	0.0	--	6.3	0.0
스포츠와 잔방 레저활동	41.6	98.8	46.4	93.5	44.4	90.7	40.6	86.8	74.3	111.9	35.6	79.5	37.1	85.4	27.2	114.5	29.2	89.7	51.2	120.2	29.2	89.7	51.2	120.2
걷기산책	30.7	80.8	29.1	77.4	23.5	73.4	21.0	65.8	56.2	100.1	27.1	63.1	18.5	82.6	21.0	82.2	19.3	77.3	28.7	90.4	19.3	77.3	28.7	90.4
체력단련 개인운동	15.1	50.3	15.6	38.8	17.0	53.0	16.1	48.7	20.1	54.4	11.9	0.0	10.5	35.8	6.9	32.6	8.5	31.2	11.2	37.8	8.5	31.2	11.2	37.8
일	72.3	404.5	80.2	420.3	81.5	418.6	89.2	424.1	19.2	222.4	76.3	263.8	85.1	375.2	90.2	367.8	93.2	373.4	45.0	208.1	93.2	373.4	45.0	208.1
고용된 일/자영업	68.5	415.7	76.1	428.7	79.1	423.2	87.7	423.6	5.6	485.0	67.8	236.8	79.4	376.4	79.3	392.6	88.7	374.2	12.5	270.0	88.7	374.2	12.5	270.0
참여 및 봉사활동	2.1	100.0	7.4	134.5	6.3	102.3	6.2	110.9	7.6	115.9	8.5	0.0	6.9	93.8	7.6	150.9	8.5	118.2	0.0	--	8.5	118.2	0.0	--

행위 분류 코드	도시(n=633)						읍·면부(n=83)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무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용	행위 시간			
관람 및 문화행사	2.9	0.0	0.2	0.0	0.3	118.0	0.4	111.2	0.4	0.0	0.0	--	0.0	--	0.0	--
영화관람	2.1	0.0	0.0	--	0.1	--	0.2	--	0.0	--	0.0	--	0.0	--	0.0	--
연극·콘서트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전시·화·박물관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스포츠허브·경기관람	0.8	--	0.0	--	0.1	--	0.2	--	0.0	--	0.0	--	0.0	--	0.0	--
그 외 관람	0.0	--	0.2	--	0.1	--	0.1	--	0.4	--	0.0	--	0.0	--	0.0	--
취미 및 기타여가	67.2	71.7	69.8	71.1	68.5	61.9	68.1	59.3	73.2	101.8	74.6	68.2	66.9	62.2	74.6	60.8
독서	4.6	42.7	9.0	54.1	7.4	67.5	6.7	62.3	14.9	64.4	16.9	35.0	2.8	--	1.8	--
컴퓨터 게임	3.8	113.3	9.4	88.4	6.7	77.1	6.4	73.1	12.7	114.0	3.4	--	0.0	--	4.3	76.7
놀이 (바둑, 카드 등)	8.4	102.5	4.6	106.9	3.5	77.9	2.9	74.3	12.7	112.6	8.5	--	2.8	--	9.4	65.0
아무것도 안하고 쉬	43.3	48.1	47.8	39.2	44.7	34.2	44.6	34.6	51.6	46.3	33.9	24.0	44.8	37.8	50.0	39.3
일반인의 학습	2.1	0.0	3.2	138.6	2.8	152.0	2.3	104.6	6.5	244.6	0.0	--	0.0	--	1.8	0.0
미디어 이용	86.6	182.3	95.7	159.3	93.6	153.8	93.0	137.7	99.1	285.3	100.0	215.3	96.4	191.7	96.4	157.0
신문 읽기	22.3	32.3	36.4	39.9	33.8	37.1	32.4	36.3	43.9	44.8	42.4	26.0	14.5	35.6	13.0	37.2
TV 시청	80.3	178.3	94.1	137.1	89.9	135.8	89.3	121.4	99.1	247.7	100.0	199.8	94.4	184.7	94.6	146.7
인터넷 정보검색/기타	8.0	72.1	11.7	68.6	14.2	58.0	12.6	57.3	18.1	78.2	11.9	0.0	5.6	84.3	7.6	72.9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은 행위자는 있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는 사례수 부제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부표 15〉 50대 여성의 체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 코드	도시(n=688)						읍·면부(n=106)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식사 및 간식	행위자 비율 1000	행위 시간 93.1	행위 비율 100.0	행위 시간 105.1	행위 비율 100.0	행위 시간 108.5	행위 비율 100.0	행위 시간 104.2	행위 비율 100.0	행위 시간 109.0	행위 비율 100.0	행위 시간 102.0	행위 비율 100.0	행위 시간 97.3	행위 비율 100.0	행위 시간 110.8					
가족과의 식사	17.3	38.6	78.9	55.9	84.3	56.7	71.8	51.0	85.9	61.2	2.3	0.0	84.6	57.7	88.6	63.3	74.3	60.0	85.0	61.0	
혼자 식사	89.4	47.5	52.0	35.4	47.0	32.5	50.3	34.0	52.6	36.5	92.0	46.4	39.9	37.6	32.1	29.1	42.3	36.8	45.6	39.1	
가족이외 사람과 식사	54.1	37.1	41.6	39.6	42.7	41.3	54.8	40.1	29.0	41.1	52.3	38.9	33.3	41.5	29.4	35.1	35.7	37.3	27.2	46.7	
교제활동	70.0	61.1	75.2	65.2	75.4	63.9	72.4	55.4	78.0	73.9	69.3	71.1	71.5	63.7	69.9	72.9	69.4	61.6	75.5	92.8	
가족친척과의 교제	13.4	46.3	25.2	45.1	26.3	42.6	24.3	39.8	26.1	47.8	2.3	0.0	27.9	36.6	28.4	44.6	22.8	37.9	34.0	47.0	
그 외 사람들과 교제	40.3	60.8	41.5	59.0	46.1	54.2	43.6	45.4	44.8	68.4	55.7	70.6	42.5	60.7	48.2	62.4	44.3	56.4	54.4	84.0	
전화 혹은 인터넷 교제	41.7	28.8	44.4	28.7	39.7	27.4	40.4	25.5	42.9	30.8	38.6	17.1	28.2	26.8	28.1	19.9	31.5	21.1	21.1	31.3	
건강관리	25.1	41.3	14.1	65.7	11.7	63.1	8.6	53.2	18.9	66.0	25.0	57.3	15.7	52.2	5.7	83.5	8.1	48.3	31.3	70.2	
자가치료	14.8	17.1	7.8	36.7	4.8	29.9	3.9	24.8	9.5	34.0	2.3	0.0	8.8	20.6	1.7	0.0	3.2	22.6	12.9	24.7	
의료서비스 받기	15.5	50.2	8.4	67.7	7.8	60.7	5.7	54.2	11.7	66.5	22.7	60.0	9.7	50.6	5.7	71.8	5.8	55.6	25.2	60.8	
아파서 쉬	0.0	-	1.2	60.5	1.3	94.1	0.8	66.3	1.6	90.9	0.0	--	2.0	0.0	0.0	--	0.0	-	-	4.8	0.0
스파초와 집 밖 레저활동	32.5	74.5	39.9	100.3	38.4	90.2	25.6	80.7	53.9	100.0	47.7	100.7	29.9	86.1	28.1	89.2	26.6	92.4	50.3	84.5	
걷기산책	28.3	69.4	24.5	76.5	24.3	81.3	15.5	72.3	35.4	82.1	36.4	63.4	22.8	78.1	23.4	83.6	20.6	76.8	40.8	79.3	
체력단련 개인운동	7.8	54.5	13.4	60.0	13.3	61.0	8.8	45.8	18.0	68.8	5.7	0.0	4.0	35.0	3.3	60.0	4.1	53.8	3.4	0.0	
일	62.9	376.4	47.0	342.0	48.6	365.3	85.0	374.9	6.3	95.7	78.4	321.4	78.9	325.5	72.9	336.8	90.5	341.2	19.7	111.4	
고용된 일/자영업	58.3	395.2	33.5	382.2	38.5	379.2	70.1	381.6	0.0	--	72.7	313.0	41.3	352.6	28.8	392.9	49.1	353.6	3.4	0.0	
참여 및 봉사활동	17.7	133.1	22.2	150.9	16.9	138.7	14.5	126.0	24.0	155.6	2.3	0.0	12.0	156.1	22.1	119.6	11.2	116.2	29.9	167.5	

행위 분류 코드	도시(n=668)						읍·면부(n=105)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행위 비율	행위 시간	행위 비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행위 비율	행위 시간	행위 비용								
관광 및 문화행사	0.7	0.0	0.6	96.7	1.2	99.4	0.5	83.8	1.4	104.7	0.0	--	0.0	--	0.0	--	1.4	0.0		
영화관람	0.7	0.0	0.0	--	0.9	114.2	0.3	0.0	0.9	117.4	0.0	--	0.0	--	0.0	--	0.0	--	0.0	
연극콘서트 관람	0.0	--	0.3	0.0	0.0	--	0.0	--	0.2	0.0	0.0	--	0.0	--	0.0	--	0.0	--	0.0	
전시회박물관 관람	0.0	--	0.1	0.0	0.1	0.0	0.0	--	0.1	0.0	0.0	--	0.0	--	0.0	--	0.0	--	0.0	
스포츠 경기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7	--	0.0	--	1.4	
그 외 관람	0.0	--	0.1	0.0	0.2	0.0	0.2	0.0	0.2	0.0	0.0	--	0.0	--	0.0	--	0.0	--	0.0	
취미 및 기타여가	66.4	58.9	54.2	53.3	53.9	48.4	52.3	45.8	57.8	56.3	59.1	82.3	47.9	48.9	39.8	41.1	47.0	48.2	41.5	65.1
독서	18.4	70.4	7.0	64.6	6.6	68.7	5.2	53.4	10.3	76.0	13.6	60.8	0.6	0.0	0.0	--	1.7	65.0	2.7	0.0
컴퓨터 게임	3.5	50.0	2.7	68.6	2.8	57.7	1.9	64.8	3.9	58.4	0.0	--	0.0	--	6.4	46.8	2.0	41.7	4.8	0.0
놀이(바둑, 카드 등)	3.2	75.6	3.0	58.5	2.1	59.3	1.5	68.4	3.5	56.1	11.4	90.0	2.0	0.0	1.7	0.0	1.2	0.0	10.2	66.7
아무것도 안하고 쉼	49.8	39.7	45.8	37.6	45.1	35.7	45.3	35.0	46.0	38.5	39.8	34.3	42.5	43.0	29.4	36.1	37.6	39.7	34.0	39.6
일반인의 학습	3.5	105.0	4.8	112.6	3.9	131.3	1.4	94.7	7.6	128.3	5.7	--	2.0	--	0.0	--	0.8	--	4.8	--
미디어 이용	88.0	146.6	92.4	150.8	89.9	151.6	85.5	117.4	96.8	186.0	97.7	145.3	87.2	128.0	88.3	115.9	87.1	111.7	95.9	175.3
신문 읽기	1.8	--	9.1	35.7	11.2	32.6	5.8	30.6	14.7	34.9	0.0	--	4.3	40.0	2.3	--	2.0	40.8	6.8	45.0
TV 시청	84.5	148.1	92.3	143.0	88.4	143.9	84.3	113.6	95.7	175.1	92.0	140.1	87.2	124.6	88.3	112.2	86.3	108.0	95.9	170.6
인터넷 정보검색/기타	4.6	55.4	2.8	76.7	7.4	55.6	2.8	52.7	8.9	61.9	5.7	--	0.6	--	0.7	--	1.2	--	1.4	--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 :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 : 사례수 부제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부표 16〉 60대 남자의 체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 코드	도시(n=418)						읍·면부(n=79)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무								
식사 및 간식	행위 시간 100.0	행위 시간 95.7	행위 시간 100.0	행위 시간 108.9	행위 시간 100.0	행위 시간 118.3	행위 시간 100.0	행위 시간 111.5	행위 시간 100.0	행위 시간 109.2	행위 시간 100.0	행위 시간 108.6	행위 시간 100.0	행위 시간 116.7						
가족과의 식사	10.2	46.3	87.8	61.3	85.3	61.0	79.8	56.0	84.8	68.4	9.8	0.0	91.9	65.8	90.8	59.1	83.7	63.9	94.8	64.2
혼자 식사	100.0	64.6	40.5	37.2	42.2	39.1	46.2	40.4	43.2	44.1	100.0	55.6	31.9	38.9	40.5	37.9	38.1	41.7	42.7	42.7
가족이외 사람과 식사	21.9	39.0	35.2	40.5	42.4	45.5	47.4	42.0	22.1	45.9	29.3	42.5	27.7	44.2	27.5	44.7	27.5	44.2	29.2	44.3
교제활동	66.8	82.4	70.9	67.9	69.2	66.4	67.8	64.9	73.2	72.9	58.5	90.0	62.1	67.7	62.6	88.4	61.9	74.3	62.5	73.8
가족친척과의 교제	10.2	28.4	23.6	44.2	21.1	41.1	18.3	42.4	26.8	42.5	9.8	0.0	22.7	42.9	26.7	42.6	21.4	41.9	29.2	56.1
그 외 사람들과 교제	51.3	83.6	43.3	57.9	48.8	56.5	43.4	61.0	50.7	56.5	53.7	66.4	43.9	52.7	37.4	100.0	44.2	63.5	37.5	64.7
전화 혹은 인터넷 교제	42.2	21.9	36.5	23.9	27.1	19.2	31.9	21.5	34.1	22.8	4.9	0.0	20.9	19.1	28.2	14.6	20.7	16.6	25.0	22.1
건강관리	18.2	38.8	15.8	53.3	15.0	75.0	9.0	44.8	25.8	70.4	24.4	25.0	11.5	41.6	7.6	20.0	8.9	41.5	24.0	25.2
저가치료	8.0	23.3	10.4	36.0	7.8	32.7	4.9	24.8	15.6	38.5	12.2	0.0	7.0	28.1	7.6	20.0	5.2	26.3	18.7	21.1
의료서비스 받기	10.2	39.5	6.7	66.5	9.5	74.3	4.8	57.7	13.3	74.3	12.2	0.0	4.4	62.9	0.0	--	3.7	62.9	5.2	0.0
아파트 심	1.1	0.0	0.7	30.0	1.7	97.7	0.3	0.0	2.5	88.6	0.0	--	0.0	--	0.0	--	0.0	--	0.0	--
스포츠와 짐 부 리저활동	70.6	104.5	61.6	103.2	55.1	112.5	45.2	83.4	81.3	127.6	29.3	105.0	41.8	102.1	34.4	96.9	32.7	92.2	69.8	121.3
걷기산책	55.6	95.3	41.8	82.9	37.7	92.2	28.4	68.4	60.2	101.9	17.1	0.0	37.9	81.7	32.8	87.7	28.8	73.4	65.6	105.4
체력관련 개인운동	15.5	41.0	24.1	45.8	17.0	51.0	14.4	37.6	29.7	54.8	12.2	0.0	5.7	40.9	3.8	0.0	5.4	57.2	7.3	0.0
일	35.8	391.2	59.2	340.5	57.9	379.5	89.0	374.2	7.7	102.5	87.8	305.3	83.6	335.8	78.6	360.6	96.1	344.9	18.7	195.0
고용된 일/자영업	33.7	409.8	53.0	362.8	53.8	398.8	85.2	381.4	0.9	190.0	87.8	289.4	79.4	340.0	67.9	373.9	91.9	345.9	7.3	0.0
참여 및 봉사활동	13.9	129.3	11.1	145.9	6.1	106.9	8.0	114.4	10.8	154.2	0.0	--	7.8	132.7	15.3	124.0	7.2	132.4	17.7	120.6

행위 분류 코드	도시(n=418)						읍·면부(n=79)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무								
	행위자 비용	행위 시간	행위자 비용	행위 시간	행위자 비용	행위 시간	행위자 비용	행위 시간	행위자 비용	행위 시간	행위자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용	행위 시간						
관람 및 문화행사	1.1	0.0	1.2	120.0	0.2	0.0	0.8	98.6	0.6	0.0	0.0	--	0.0	0.0	--					
영화관람	0.0	--	0.7	130.0	0.2	0.0	0.4	0.0	0.4	0.0	--	0.0	--	0.0	--					
연극콘서트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전시회박물관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스포츠 경기관람	1.1	0.0	0.0	--	0.0	--	0.1	0.0	0.0	--	0.0	--	0.0	--	0.0	--				
그 외 관람	0.0	--	0.5	0.0	0.0	--	0.3	0.0	0.2	0.0	--	0.0	--	0.0	--	0.0	--			
취미 및 기타여가	76.5	79.5	73.8	76.7	66.6	79.6	66.5	60.4	77.5	101.6	70.7	56.6	68.9	68.1	62.6	79.1	65.8	58.6	76.0	115.2
독서	11.8	112.7	9.8	81.0	9.1	60.5	5.4	52.5	16.0	86.8	0.0	--	2.3	60.0	3.8	0.0	2.0	60.0	5.2	0.0
컴퓨터 게임	5.3	80.0	4.6	101.5	4.8	73.4	3.3	72.4	7.1	98.1	0.0	--	3.7	197.1	3.8	0.0	1.5	0.0	12.5	200.0
놀이(바둑, 카드 등)	10.2	108.9	10.4	97.9	11.6	97.9	5.7	83.8	19.0	105.5	0.0	--	11.2	112.3	14.5	108.4	10.9	92.6	12.5	188.3
아무것도 안하고 쉬	63.1	41.4	55.6	38.9	50.0	41.6	51.7	36.7	56.5	45.1	34.1	74.3	49.6	38.4	37.4	46.1	46.0	41.9	43.7	41.4
일반인의 학습	3.7	0.0	2.3	132.4	3.2	104.1	1.6	84.3	4.7	155.6	4.9	0.0	0.5	0.0	3.8	0.0	1.5	0.0	2.1	0.0
미디어 이용	97.3	193.1	93.9	218.4	94.1	206.5	90.7	167.7	99.7	273.4	100.0	158.0	97.7	188.1	89.3	185.4	95.0	163.0	100.0	285.9
신문 읽기	25.1	35.7	31.0	46.0	34.7	47.9	26.7	44.2	40.8	48.5	12.2	0.0	14.9	37.0	19.8	54.6	15.7	41.9	16.7	47.5
TV 시청	93.6	177.5	93.2	196.5	91.4	187.3	88.6	152.6	98.3	245.2	100.0	152.0	97.7	182.2	89.3	169.0	95.0	154.7	100.0	278.0
인터넷 정보검색/기타	1.1	0.0	0.9	54.5	6.2	54.1	7.2	48.0	8.5	63.2	0.0	--	0.5	0.0	0.0	--	0.4	0.0	0.0	--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 :은 행위자는 있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 :는 사례수 부제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부표 17〉 60대 여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 코드	도시(n=434)						읍·면부(n=106)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행위 시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행위자 행위 시간	행위자 행위 비율	행위자 행위 시간				
식사 및 간식	100.0	99.3	100.0	108.3	100.0	109.5	100.0	106.0	100.0	108.1	100.0	100.0	99.4	100.0	92.1	100.0	95.1	100.0	96.1	
가족과의 식사	17.9	50.8	89.0	64.5	92.0	64.6	74.9	58.8	82.9	66.5	4.2	0.0	90.5	63.4	92.0	65.2	79.3	59.1	63.7	74.7
혼자 식사	95.7	50.5	43.0	38.0	43.7	35.9	52.4	39.6	49.6	41.2	97.2	49.9	33.6	34.4	22.0	27.9	37.1	37.3	56.2	44.5
가족이외 사람과 식사	49.4	36.2	26.0	38.5	30.8	37.8	41.4	35.3	25.5	39.7	49.7	29.6	24.9	38.5	30.7	27.8	34.4	33.0	24.3	35.1
교제활동	80.7	71.8	73.5	77.1	71.4	71.3	70.0	60.0	75.7	81.1	86.7	66.2	61.7	57.4	58.0	56.2	58.8	55.1	79.3	65.6
가족·친척과의 교제	19.3	49.4	25.1	51.6	28.1	39.5	19.2	46.4	28.4	46.9	12.6	57.2	18.1	42.6	13.3	39.5	14.5	41.0	19.1	49.2
그 외 사람들과 교제	59.4	60.5	48.1	65.1	43.3	68.9	46.1	53.5	49.0	71.1	68.5	60.7	45.6	51.8	48.7	52.1	47.6	48.2	56.6	63.9
전화 혹은 인터넷 교제	45.3	23.8	42.2	24.6	32.3	25.2	38.7	20.4	39.6	26.7	34.3	25.1	19.3	18.5	12.7	15.8	17.8	17.3	26.7	24.0
간접관리	27.2	72.1	24.1	63.8	18.8	62.3	17.0	65.5	25.6	64.4	39.9	75.6	25.6	75.4	36.7	62.9	17.0	85.1	57.0	65.1
자기치료	16.2	26.0	12.7	39.6	9.3	33.4	6.2	29.7	15.0	36.6	24.5	45.7	12.7	25.4	19.3	45.2	5.6	44.1	37.1	33.8
의료서비스 받기	16.0	60.0	13.6	65.1	11.6	48.0	11.3	57.3	14.2	60.0	22.4	81.6	11.3	80.0	24.0	59.7	11.4	76.9	25.1	71.9
아파서 쉬	2.1	270.0	2.0	74.4	1.0	310.0	1.3	221.5	1.9	132.4	3.5	0.0	4.3	163.2	0.0	--	1.4	0.0	6.8	96.5
스포츠와 집 밖 레저활동	54.7	90.0	43.4	76.4	44.2	91.5	30.4	64.9	52.6	89.1	41.3	69.5	20.2	79.8	31.3	58.7	17.6	66.2	43.8	75.7
걷기산책	42.2	83.9	33.2	72.4	28.8	80.1	22.9	60.6	38.1	81.5	29.4	58.6	12.9	80.5	31.3	58.7	12.4	61.0	34.3	71.5
채널관련 개인운동	17.4	50.8	9.0	50.0	13.6	64.5	8.3	44.2	13.5	59.5	3.5	0.0	7.7	73.8	0.0	--	5.6	73.0	4.8	65.8
일	36.5	315.3	33.0	283.3	33.6	284.8	81.1	336.3	9.9	93.4	50.3	329.4	77.8	343.6	63.3	331.6	92.8	368.2	24.7	131.1
고용된 일/자영업	28.4	387.0	20.1	330.7	19.0	347.0	62.5	346.3	0.0	0.0	37.8	420.4	42.4	289.5	30.7	385.7	57.3	332.2	4.0	255.0
잠여 및 봉사활동	30.5	161.2	21.5	152.0	18.8	159.0	15.3	128.1	25.1	164.3	13.3	192.1	10.2	116.0	8.0	79.2	5.0	93.7	20.7	143.0

행위 분류 코드	도시(n=434)						읍·면부(n=105)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용	행위 시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용	행위 시간	
관람 및 문화행사	0.0	--	0.9	108.6	0.4	0.0	0.0	--	0.9	131.1	0.0	--	0.0	--	0.0	--	0.0
영화관람	0.0	--	0.4	0.0	0.2	0.0	0.0	--	0.4	124.4	0.0	--	0.0	--	0.0	--	0.0
연극콘서트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전시회박물관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스포츠 경기 관람	0.0	--	0.0	--	0.2	0.0	0.0	--	0.1	0.0	0.0	--	0.0	--	0.0	--	0.0
그 외 관람	0.0	--	0.4	0.0	0.0	--	0.0	--	0.3	0.0	0.0	--	0.0	--	0.0	--	0.0
취미 및 기타 여가	64.7	70.6	56.6	57.5	57.1	47.8	52.6	37.9	60.5	64.2	62.9	74.9	56.0	54.3	62.0	47.8	53.8
독서	2.1	50.0	2.4	38.2	2.0	58.6	1.2	32.5	2.8	48.8	0.0	--	0.9	0.0	0.0	--	0.8
컴퓨터 게임	0.0	--	1.3	100.0	0.9	96.7	0.2	0.0	1.4	108.9	0.0	--	0.0	--	0.0	--	0.0
놀이(바둑, 카드 등)	14.6	110.7	5.3	78.2	5.1	79.0	2.5	63.6	8.5	92.1	17.5	140.4	5.9	107.3	7.3	51.8	5.0
이웃것도 안하고 읽	54.4	47.8	52.1	44.7	51.5	38.1	49.7	34.6	53.5	46.8	46.9	43.1	51.0	46.3	56.0	41.4	50.1
일반인의 학습	7.2	131.7	5.1	139.3	3.5	112.2	3.0	180.0	5.8	118.5	3.5	0.0	1.1	0.0	3.3	0.0	0.0
미디어 이용	98.3	163.7	93.2	167.6	95.8	178.4	91.4	127.7	96.5	191.2	96.5	184.5	87.3	134.5	95.3	180.6	85.9
신문 읽기	1.7	0.0	5.8	47.1	4.6	40.6	1.9	35.3	6.3	45.7	0.0	--	3.9	31.8	0.0	--	1.4
TV 시청	98.3	162.0	92.5	163.2	95.6	174.3	91.2	126.6	95.9	186.0	96.5	180.9	87.3	131.8	95.3	178.8	85.9
인터넷 정보검색/기타	0.0	--	1.8	79.7	1.4	90.7	0.4	0.0	1.9	85.1	3.5	0.0	1.1	0.0	0.0	--	0.0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은 행위자는 있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는 사례수 부제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부표 18〉 70대 남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 코드	도시(n=225)						읍·면부(n=73)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유		무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유		무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식사 및 간식	1000	90.9	1000	110.4	1000	112.7	1000	109.1	1000	57.4	1000	100.5	1000	105.5	1000	98.1	1000	101.4		
가족과의 식사	1.7	0.0	92.0	68.1	90.0	70.0	87.4	69.8	83.5	68.1	0.0	--	93.1	64.6	91.5	74.5	88.4	62.7	84.2	77.3
혼자 식사	1000	63.6	34.9	35.0	35.6	41.3	37.7	43.7	40.9	41.3	83.9	42.7	31.8	40.3	32.3	40.5	38.6	41.1	27.9	39.6
가족이외 사람과 식사	27.6	37.2	22.9	43.6	26.1	44.3	18.7	35.1	26.7	45.9	38.7	47.5	18.6	39.1	1.5	0.0	13.0	43.3	20.6	37.6
교제활동	77.6	84.1	71.6	71.1	66.2	66.3	63.5	53.5	73.5	77.5	71.0	130.0	70.2	74.1	60.0	64.4	74.8	74.5	52.7	78.4
가족·친척과의 교제	1.7	0.0	19.5	52.1	17.7	44.6	17.9	37.8	17.5	54.8	16.1	0.0	18.9	53.6	29.2	33.9	22.6	48.5	18.8	50.0
그 외 사람들과 교제	56.9	93.8	44.8	72.0	43.4	69.1	38.3	54.5	48.4	79.8	54.8	90.6	53.3	66.0	41.5	64.6	54.8	67.5	41.2	66.8
전화 혹은 인터넷 교제	44.8	24.2	31.9	18.3	28.3	18.8	25.1	17.2	34.7	19.6	38.7	18.3	23.5	18.9	9.2	20.0	18.8	19.7	24.8	17.8
건강관리	27.6	83.1	26.4	62.5	24.6	83.2	17.9	59.7	29.6	73.1	45.2	43.6	23.2	47.3	35.4	104.6	23.2	58.6	37.0	74.8
자기치료	10.3	38.3	17.1	43.4	15.1	25.9	11.0	33.0	18.2	39.4	29.0	23.3	18.6	29.4	26.2	27.4	18.3	30.3	27.3	25.3
의료서비스 받기	21.6	82.0	9.7	67.6	12.0	63.2	8.8	73.7	12.4	66.4	16.1	0.0	4.9	61.2	16.9	90.0	8.7	78.3	8.5	76.4
아파서 힘	4.3	0.0	2.7	93.5	3.5	260.0	1.0	0.0	4.0	155.8	0.0	--	3.2	80.0	7.7	190.0	2.0	0.0	8.5	167.9
스포츠와 집 밖 레저활동	77.6	95.8	66.5	120.6	62.5	111.0	43.0	89.4	76.5	122.3	29.0	67.8	44.7	75.6	63.8	94.9	43.5	72.9	59.4	95.5
걷기산책	64.7	81.6	55.8	102.3	52.7	86.7	35.2	76.3	64.7	100.7	12.9	0.0	34.7	66.2	55.4	75.4	35.7	69.1	44.8	73.0
체력단련 개인운동	12.9	60.0	18.2	49.4	13.8	49.3	9.2	56.4	19.7	48.6	16.1	0.0	13.5	42.3	1.5	0.0	9.9	48.5	12.1	37.5
일	16.4	137.4	27.9	278.9	46.0	322.0	86.4	326.7	8.4	133.8	77.4	272.5	71.3	305.3	64.6	184.4	91.9	281.9	24.2	217.0
고용된 일/자영업	6.0	0.0	22.2	321.6	34.8	352.0	79.0	327.9	0.5	0.0	54.8	241.8	64.8	310.4	48.5	169.4	88.7	277.5	0.0	--
참여 및 봉사활동	7.8	78.9	10.5	113.1	8.6	179.8	5.5	76.3	11.6	139.3	22.6	0.0	11.2	135.5	3.8	0.0	9.3	106.6	11.5	154.2

행위 분류 코드	도시(n=225)						읍·면부(n=73)													
	기구형태			경제활동			기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가구	유	무	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가구	유	무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율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율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율	행위 비용	행위 시간	행위 비율								
관람 및 문화행사	0.0	--	1.8	142.4	1.4	0.0	1.0	0.0	1.8	153.7	0.0	--	0.0	--	3.8	0.0	1.4	0.0	0.0	--
영화관람	0.0	--	0.2	0.0	0.0	--	0.0	--	0.2	0.0	0.0	--	0.0	--	0.0	--	0.0	--	0.0	--
연극콘서트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전시화박물관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스포츠 경기관람	0.0	--	0.5	0.0	0.4	0.0	0.0	--	0.6	0.0	0.0	--	0.0	--	0.0	--	0.0	--	0.0	--
그 외 관람	0.0	--	1.0	165.0	1.0	0.0	1.0	0.0	0.9	165.0	0.0	--	0.0	--	3.8	--	1.4	0.0	0.0	--
취미 및 기타여가	84.5	110.0	74.8	100.4	75.8	85.2	71.9	63.0	77.6	110.5	100.0	52.3	70.8	88.3	73.8	49.5	73.9	58.5	72.1	111.4
독서	13.8	133.8	10.1	79.9	8.4	83.9	5.1	81.6	12.0	87.5	6.5	0.0	2.6	40.0	1.5	0.0	0.6	0.0	6.7	63.6
컴퓨터 게임	0.0	--	2.4	97.8	1.0	0.0	2.2	62.7	1.6	106.5	0.0	--	1.4	0.0	0.0	--	0.0	--	3.0	0.0
놀이(바둑, 카드 등)	46.6	90.7	15.8	120.3	15.5	99.2	6.3	63.5	23.2	114.6	0.0	--	20.3	127.5	12.3	51.9	11.0	124.5	29.7	105.1
아무것도 안하고 쉬	55.2	43.8	61.5	56.4	59.7	51.5	57.6	50.2	61.8	55.6	77.4	46.7	58.5	50.0	60.0	43.2	61.4	38.5	57.0	69.5
일반인의 학습	0.0	--	3.0	118.3	2.4	98.3	2.4	96.7	2.7	119.0	0.0	--	0.0	--	0.0	--	0.0	--	0.0	--
미디어 이용	95.7	276.9	98.0	273.7	96.1	237.8	96.1	194.0	97.8	293.5	100.0	236.8	98.0	222.8	100.0	290.7	98.0	206.5	100.0	312.3
신문 읽기	14.7	71.2	24.4	57.3	32.6	46.9	21.8	48.2	28.2	55.8	0.0	--	11.5	54.5	9.2	50.8	8.1	61.4	14.5	44.6
TV 시청	95.7	257.7	97.8	254.4	95.1	217.0	94.7	183.0	97.8	269.6	100.0	232.3	98.0	215.6	100.0	285.2	98.0	200.3	100.0	305.0
인터넷 정보검색/기타	1.7	0.0	2.7	83.1	1.8	154.4	2.2	47.3	2.4	124.2	0.0	--	0.0	--	0.0	--	0.0	--	0.0	--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 :은 행위자는 있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 :은 사례수 부재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부표 19> 70대 여자의 제특성별 행위자 비율과 행위 시간량

행위 분류 코드	도시(n=296)						읍·면부(n=109)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 시간								
식사 및 간식	1000	91.3	1000	101.5	1000	108.4	1000	96.1	1000	102.0	1000	80.8	1000	100.3	1000	110.3	1000	91.7	1000	96.6
가족과의 식사	18.3	48.2	92.0	64.0	88.8	65.1	69.2	61.3	70.3	63.8	6.3	63.2	95.5	65.3	94.7	62.9	59.0	56.2	61.0	71.5
혼자 식사	96.8	55.9	37.5	38.0	50.2	41.4	55.4	42.8	58.9	48.6	98.3	55.1	31.4	34.7	47.3	29.0	62.6	45.0	58.8	48.9
가족이외 사람과 식사	30.5	35.6	23.5	38.5	25.0	37.4	25.5	37.0	26.0	37.3	21.2	33.0	25.4	32.7	24.4	32.8	26.1	34.7	21.3	30.8
교제활동	82.4	87.9	77.1	76.6	79.2	76.9	69.5	67.1	82.2	83.3	77.5	78.2	68.3	73.1	65.6	72.8	64.3	66.2	77.7	81.7
가족친척과의 교제	17.8	63.8	22.9	44.0	25.4	41.6	16.5	41.1	23.9	49.1	12.3	58.1	19.0	43.3	21.4	45.4	15.7	42.3	17.6	52.5
그 외 사람들과 교제	62.8	76.4	55.5	69.0	51.6	80.8	51.0	63.2	58.0	77.5	65.2	74.0	49.2	73.5	53.4	65.3	48.6	61.0	63.0	80.0
전화 혹은 인터넷 교제	44.2	27.2	35.8	24.9	32.9	26.2	28.5	21.8	40.0	26.9	19.9	23.7	20.2	20.0	14.5	14.7	23.6	20.6	15.2	21.1
건강관리	40.9	74.8	33.6	79.2	33.4	79.7	23.8	76.8	39.2	78.1	39.7	92.6	48.6	74.5	36.6	121.7	35.7	77.9	49.5	94.4
자기치료	24.9	35.5	17.0	36.6	24.7	36.6	10.7	27.5	24.7	37.4	17.5	25.5	36.9	30.4	23.7	41.0	24.2	31.3	29.4	30.3
의료서비스 받기	23.0	59.2	16.5	73.7	16.1	60.9	16.1	83.4	18.9	60.5	22.5	73.5	18.1	69.2	6.9	113.3	14.3	72.4	21.1	75.3
아파서 힘	6.6	123.8	6.0	136.0	5.9	131.1	3.3	58.7	7.0	141.3	13.2	119.0	8.5	147.9	7.6	355.0	7.3	135.0	12.7	171.9
스포츠와 짐 밖 레저활동	42.1	79.0	43.8	82.2	42.0	80.5	22.8	66.3	48.8	82.9	43.0	67.2	32.3	74.9	26.7	91.7	26.1	66.2	43.9	77.1
검기산책	38.6	70.1	36.6	77.0	37.6	72.0	19.2	63.3	42.9	74.9	35.8	55.1	29.3	67.1	22.9	85.0	21.9	58.5	38.5	66.6
체력단련 개인운동	4.6	41.5	10.9	48.8	7.2	47.5	4.0	33.2	9.3	49.1	1.7	0.0	6.0	40.0	1.5	0.0	1.4	0.0	5.4	39.1
일	34.3	233.1	29.3	227.4	16.0	190.5	82.4	272.5	10.2	103.6	67.5	225.3	56.8	257.2	43.5	334.9	90.7	309.8	30.9	105.9
고용된 일/자영업	21.0	290.1	13.8	287.5	4.3	265.8	54.6	294.9	0.6	70.0	44.0	281.0	21.5	342.3	17.6	368.7	61.8	312.0	1.7	0.0
참여 및 봉사활동	28.8	150.1	19.8	119.4	31.0	133.0	15.1	119.0	28.8	136.2	15.9	187.0	19.6	109.7	10.7	64.3	12.6	112.6	20.1	153.9

행위 분류 코드	도시(n=296)						읍·면부(n=109)								
	가구형태			경제활동			가구형태			경제활동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유	무	무			
관람 및 문화행사	0.0	--	0.8	0.0	0.0	--	0.0	--	0.0	0.0	--	0.0	--	0.0	--
영화관람	0.0	--	0.6	0.0	0.0	--	0.0	--	0.3	0.0	--	0.0	--	0.0	--
연극·콘서트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전시·화박물관 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스포츠 경기관람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그 외 관람	0.0	--	0.2	0.0	0.0	--	0.0	--	0.1	--	--	0.0	--	0.0	--
취미 및 기타여가	64.3	77.3	74.1	74.7	64.7	72.0	65.9	57.3	69.4	79.6	54.3	81.0	65.3	65.9	57.3
독서	5.2	54.2	3.0	79.2	2.0	70.8	3.3	64.4	3.3	67.2	3.3	110.0	2.1	0.0	0.0
컴퓨터 게임	0.0	--	0.2	0.0	0.0	--	0.0	--	0.1	0.0	0.0	--	0.0	--	0.0
놀이(바둑, 카드 등)	13.0	94.0	16.6	81.4	14.5	100.9	9.4	79.6	16.7	91.8	12.6	101.1	18.7	92.4	16.0
아무것도 안하고 쉬	57.9	58.8	66.5	53.7	56.8	53.9	62.1	44.1	60.9	58.5	47.7	51.9	52.6	44.1	48.1
일반인의 학습	0.3	0.0	5.0	105.9	3.6	122.3	2.1	90.0	3.6	115.3	2.3	0.0	1.5	0.0	0.0
미디어 이용	97.6	197.5	94.3	204.6	98.8	256.1	92.7	157.1	97.7	235.2	89.7	156.4	98.5	171.5	90.8
신문 읽기	3.2	39.5	4.8	33.6	7.9	37.9	0.0	0.0	6.8	36.5	0.0	0.0	0.0	0.0	0.0
TV 시청	97.6	194.3	94.3	199.6	98.8	251.2	92.7	157.1	97.7	229.6	89.7	156.0	98.5	171.5	90.8
인터넷 정보검색/기타	0.0	--	0.0	--	0.3	0.0	0.0	--	0.1	0.0	0.0	--	0.0	--	0.0

주: 1) 참여 및 봉사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포함.  
 2) 교제 및 여가활동은 a741-a749(종교활동)를 배제.  
 3) ‘-’은 행위자는 있으나 행위자 평균 시간에서 결측치, ‘--’는 사례수 부재로 계산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 〈부록 2〉 사례별 제특성

### 제1절 50대 유형별 제특성

#### 1. 유형 ①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1은 만 50세로 현재 서울 소재 대학교 직원으로 14년 8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다.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14년 6개월간 군대생활을 하였고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가족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아들 2명이 있으며, 큰 아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현재 배우자와 아들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용인시에 자기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어릴 때 꿈꾸었던 군대에서 장교생활을 하였으나, 진급의 한계를 실감하고 오랜 기간의 군대생활을 접었으나, 본인이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생처(사회봉사활동 및 예비군관련 업무)의 업무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생활시간 구성에 있어서 주중과 주말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중에는 직장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우와 동창이나 동호인, 업무상 만남 등 외부인들과의 시간을 적절하고 균형있게 보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시 40분에 기상한 후에 커피와 계란후라이 등 간단한 아침식사를 6시30분경에 배우자와 함께 하고, 6시 45분에 출근을 한다. 용인과 서울 간의 거리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거의 2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이때 독서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디어 시청을 주로 하고 있

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혹은 7시)까지는 직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직장의 부서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약속을 만들어서라도 함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저녁식사는 집에서 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배우자와 함께 하지만, 주중 2일 혹은 3일은 동창이나 동호인, 업무상의 만남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편이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사 후에 산책이나 조깅, 골프연습을 1시간 정도 한 후에 TV시청을 하고 새벽 1시경에 취침을 하며, 배우자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많은 편이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에는 다시 야외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와 쉬는 경우로 구분하는데, 야외 여가활동은 주로 동호인들과 함께 산행을 매주 1회씩 하고 있으며, 가끔씩 골프나 산악자전거를 타기도 한다.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6시에 기상하여 8시에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고,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10시부터 산행을 시작한다. 장거리 산행이기 때문에 오후 4시 정도에 하산을 하고 동호인들과 저녁식사 겸 뒤풀이를 7시까지 한다. 집에 도착한 이후부터 취침시간까지는 주로 TV시청을 한다. 취침은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하는 편이다. 한편, 쉬는 주말에는 10시쯤 기상하여 아침 겸 점심식사를 11시에 배우자와 함께 하고, TV시청을 하고 오후시간에 배우자와 함께 장보기와 영화관람을 주로 하는 편이다. 또한 저녁식사를 주로 외식을 하는데, 맛집탐험 형식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음식점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이를 활용한다. 이후 취침시간(11시~새벽1시)까지는 주로 TV시청을 한다.

## 나. 경제적 특성

본인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상태(혹은 수입)에 비해 주관적으로 경제적 여건을 훨씬 더 만족해하고 있었다. 즉,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상태에서 대학교 직원(과장 직급)으로 받는 연봉수준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중간정도라고 판단하지만, 주관적 입장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90%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상태는) 객관적이라고 보면, 중간으로 보면 되겠죠.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만족하는 상태이니까...굳이 %까지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역시 90%까지는 만족한다고 봐야죠.

특히 여가를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매우 융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골프와 산악자전거, 그리고 등산 등 비교적 고비용이 소요되는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가활동을 즐기느냐에 따라 비용적인 측면은 충분히 조절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여가에 따라서 그 여가에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본인이 준비하는 차이에 있지 않겠느냐. 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많이 낼 거냐, 덜 낼 거냐. 또 사회의 시설 또는 내 조건에 맞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어떻게 머리를 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 다. 건강상태 특성

5년 전에 업무상의 스트레스, 흡연과 폭음, 규칙적이지 못한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위를 거의 절반 이상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까지 갔지만 2년 정도의 투병생활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이다. 현재의 건강상태는 고혈압 증세가 조금 있으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전에도 건강상태는 굉장히 좋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과신했죠. 건강에 대해서 과신을 해서 음주도 많이 해서 폭음도 하고, 흡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규칙적이지 못한 잦은 음주문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게 어느 한순간에 업무적 스트레스와 결합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죠. 건강상에 문제가 됐죠. 위에 문제가 되어서 위를 절제 수술했어요....지금은 잘 치료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혈압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생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건강관리를 위해 우선 담배를 끊고, 매해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수영이나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꾸준히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건강보조식품도 복용할 정도로 건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당장은 금연부터 시작해서 패턴을 갖고 있는 운동을 하죠.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수영을 한다거나...조깅을 한다거나 이러한 유산소 운동 위주로 많이 하고. 요즘엔 일부 필요하다고 하면 건강약품, 비타민제라든가, 그런 정도는 50 넘어서부터는 시작을 했어요. 네, (건강검진은) 매해마다 (해요).

## 라. 사회참여 특성

연구참여자1은 군대와 직장과 같이 기존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여가활동으로 이어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군대생활이나 대학교 직장 생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취미여가 동호회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이건 약간 복합적인 게 있어요. 동호회가 그 동안에 쪽 생활해 온 것을 보면, 군대생활도 했었고, 직장생활도 했고, 일반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자생되는 동호회. 그러니까 취미 모임이죠. 이렇게 한 그룹이 있고, 또 직장 업무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이니까 대학에서 그 협의 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미를 같이 하고 있는 그룹... 그렇게 해서 얽혀져 있는 모임들이 간헐적으로 하면서 거의 쉬는 시간은 없죠.

자신이 여가활동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실제로 동호회에 가입하여 여가 활동을 경험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가 동호회)가입이죠. 기존 모임 자체에서 취미가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쪽에 가입을 해서 그쪽과의 그룹 형성을 하는 거죠.

또한, 건강을 한 번 잃었던 경험으로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건강관리 및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은 건강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레저활동이라든지 그런. 꼭 레저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 마. 관계적 특성

연구참여자1은 일상에서 배우자와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부부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비록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대화 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주말에 장보기나 여가 동호회도 배우자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다.

(대화) 많이 하죠. 거의 각자가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저희 집사람이 많이 하죠. 제가 주로 듣고...

(장보기) 같이 가죠. (배우자가) 좋아해요. 그렇죠. 가능한 한 같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대화도 많아지니까요. 프로그램을 보고서 서로 품평회를 하죠. 통산적인 일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대화들.

연구참여자1은 친구관계도 매우 소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5~6명의 초등학교 동기들과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이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는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친구들과는) 속내가 다 오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믿음도 가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거나 힘들거나 할 때 진짜 편하게 얘기하고.... 좋은 표현을 한다면, 서로 상대방의 관점을 짚어준다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1은 일상에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본인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자신을 평가했을 때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모두를 성공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의 균형은)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다 갖고 싶거든요.  
가족만 좋아한다고 해서 가족에게 몰입한다면, 밖의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렇다고 가족 나 몰라라 하면 가족하고는... 나란 존재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놈이네 하고 비취졌을 때는 가지고 있는 구성 구성의 요소들에 대해  
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갖춰놔야지만.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본인에게 가장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로는 가  
족, 특히 배우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달리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  
식 때문이었다.

딱 지명하긴 그렇지만 우선 가족이겠죠. 가족 구성원을 중에서도 누구를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봤을 때 나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  
람은 배우자가 아니겠나. 그리고 물론 자식들, 부모님들 다 중요한데, 각각의  
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 세대에는 내 동반자 밖에 없  
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 바. 노후준비 특성

연구참여자1은 노후에 대한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었다.  
우선, 제 3기 인생(the third age)을 시작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여력이 있  
는 시기인 55세 정도에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었다.

현 직장,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명퇴까지도 고려가 되고, 그 다음에 명퇴하는 시점도 기본적으로 노후에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기본 베이스를 갖출 때까지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그 시점이 여러 가지로 작용이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노후에 하고 싶은 것도 지나치게 나이가 들면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의 기점을 선택해서 그 시점에 또 한 번의 다른 제 3의 인생을 가지려는 거죠....현재 계획은 이후 빠르게는 4년...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노후생활에 대해 부부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특히 최근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았던 이용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노후 미래상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누가 나서서 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이렇 거다,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늙었을 때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멋지게 늙고 싶다거나 부부가 같이 곱게 늙고, 꿈같은 얘기겠지만 한 날 한시에 병 앓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그런 대화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대화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하고 노인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미래의 내 모습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그분들을 거울삼아서 내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거죠.

본인의 재정적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연금 문제라든가 기타 급여에 대한 퇴직 급여나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정점에 오면 지금 현재 생활보다는 운택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두 부부가 쓰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하는 정도까지가 되었

기 때문에... (현재 소득의 대체율이) 한 70% 되겠죠...아파트 담보로 해서 추가된 연금도 받으면서 상쇄시켜도 되고. 제 3의 인생을 출발하는 기점을 가질 때, 그런 기본적인 게 불안하면 못한다는 거죠.

은퇴 후 제3기 인생으로 봉사활동, 특히 해외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봉사와 해외봉사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가 본인의 노후생활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은퇴 이후에는 봉사. 해외봉사로 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노후에도 하는 것 하고. 물론 이렇게 하는 해외봉사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게 그 나라 여행이잖아요. 그게 플러스로 가능한 거고. 여행이지만 그 문화에 대한 탐방이라고 하면 탐방이고, 이해라고 하면 이해니까.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좋죠.

〈주중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5	6	7	8	9 ~ 11	12	13 ~ 18	19	20	21	22 ~ 1
시간	5:40 ~	6:30	6:45 ~	8:50	9:00 ~ 2:00		13:00 ~ 18:00	18:00 ~ 20:00	20:00 ~ 21:00	21:00 ~ 1:00	
행동	출근 준비 및 TV 시청	아침식사/커피/케이크 후라이	출근	출근시간 약 2시간	오전업무	점심 식사	오후업무	퇴근시간 약 2시간 (대중교통 이용)	저녁 식사	산책/골프 연습	취침
공간	집	집	집	대중교통	직장	식당	직장	대중교통 이용	집	집주변/집	집
사람		배우자			직장 동료	직장 동료	직장 동료		배우자	혼자	배우자
비고	저녁식사는 일주일 2~3회 외부에서 친구들 (동창, 동호인, 업무상)과 식사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배우자가 적극적)</li> <li>- 주중에서 절반은 가족(배우자)과 함께 식사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동창, 동회, 업무상 만남 등으로 외부에서 저녁식사 및 회식을 함</li> <li>- 특히, 초등학교 동창생(5~6명)들과는 한 달에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남</li> <li>-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시간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함</li> <li>- 인생에 있어서 친구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위절제술 받음) 가족의 소중함으로 느꼈음</li> </ul>										
주요 특성	- 토요일과 일요일의 생활패턴은 주중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임										

〈주말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6	7	8	9 ~ 10	11 ~ 16	17 ~ 19	20 ~ 21	22 ~ 1	
시간	6:00 ~		8:00	9:00~10:00	10:00 ~ 16:00	16:00 ~ 19:00	20:00~21:00	21:00 ~ 23:00 / 1:00 23:00 ~ 1:00	
행동	기상	외출 준비/ TV시청	아침 식사	집에서 목적지까지 약 2시간 소요	산행	산행 뒤풀이	귀가 (목적지에서 집까지 2시간 소요)	TV시청 및 휴식	취침
공간		집		대중교통	여가활동 장소(산)	식당	대중교통	집	집
사람				혼자 (혹은 배우자)	산악 동호인	산악 동호인	혼자 (혹은 배우자)	가족	
비고					매주 산행/간혹 골프, 산악자전거 등을 즐김				* 외부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에는 장보기와 영화관람, 저녁 외식을 함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일과 일요일은 야외 여가활동을 하는 날과 쉬는 날로 구분됨</li> <li>- 야외 여가활동은 주로 산행(주 1회)을 하며, 골프나 산악자전거 등을 즐기기도 함</li> <li>- 활동적인 여가활동은 신체적 활동이 많은 근대시절(소령예편) 활동과 연관 있으며, 여가활동을 건강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함</li> <li>- 장거리 산행은 동호인들과 함께 하지만 가끔은 배우자와 함께 하기도 함</li> <li>- 쉬는 주말에는 배우자와 장도 보고, 종종 영화관람도 하며, 저녁식사는 외식을 함</li> <li>- 외식은 맛집탐험을 하는 편이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음식점 리스트를 활용함</li> </ul>								

## 2. 유형 ②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2는 9년 정도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사별한지 2년이 되는 여성가장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둘이서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생활시간 구성을 살펴보면, 아침 7시에 일어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해 주고, 오전 8시에 혼자서 과일과 같은 간단한 아침식사를 한다. 9시30분에 출근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기도와 하루 일과에 대한 정리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 미용실 출근 이후 오후 9시 퇴근 시간까지 미용실에서 근무한다. 점심식사는 주로 도시락으로 혼자 식사하고 있다. 퇴근 후 저녁식사는 혼자서 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새벽 1~2시 경에 취침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주로 TV시청(영화채널 선호)을 하거나, 간혹 월 1회 정도 심야영화를 관람하기도 한다.

미용실 휴무일은 화요일이며, 이때는 등산이나 산책(수원천)을 주로 하거나 미용학원시절 동료들(5명)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 일요일은 11시 교회에 예배를 보러가며, 이후에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2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아들과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넉넉한 편은 아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죠. 경제적인 건 솔직히 힘들죠. 요새 경기도 안 좋을뿐더러. 수급자는 최저 임금을 따지잖아요. (미용실 근무) 지금 000만원짜리예요. (이 수입으로는 많이 힘드신가요?) 예.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수급액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문화여가생활까지 국가에 도움을 받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수급을 받음으로 해서 편한 거는 많죠, 혜택을 이룬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공동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된다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아서 나도 불우한 이웃을 돕고 그런 생각은 하면서 살아요.....지금은 너무 혜택을 많이 입어서 불만 같은 건 없고. (문화여가활동) 그거는 국가에서 도움 받아서 하고 싶진 않죠, 솔직히. 나이 젊어가지고.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2는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심하게 아파본 경험도 없었고, 건강검진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아픈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고 지나갈 뿐이죠.... 병원은 건강검진 줄기차게 잘 받고요. 그리고 글썄, 아픈 건 없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건강하니까.

## 라. 사회참여적 특성

연구참여자2는 1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봉사팀에서 하고 있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요양원에서 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봉사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게 돼 있어요. 미용 봉사. 요양원 같은데. 이거는 좀. 그것도 10년 넘었고요.

교회 봉사팀들과 봉사활동 이외에도 여행과 같은 여가생활도 함께 하고 있었다.

여행은 요번 8월 달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문경새재(에 갔어요), 일요일날 하루 문 닫고 갔다 왔어요. (1박2일인가요?) 아뇨, 아침에 일찍. 첫 예배드리고 바로 갔어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맞으면 혼자서라도 심야영화를 즐겨 보기도 하고, 극장에 가지 못할 경우 집에서 영화채널을 통해 영화를 즐기고 있었다.

영화 종류는 다 좋아해요. 볼 거는 다 봤어요. 요번에는 0000을 못 봤어요. 심야영화 보죠. 처량 맞게....영화관을 못 가면 집에서라도 보죠. 그러니까 2시에 자잖아요.

미용실 휴무일인 화요일에는 등산을 가지만 날씨 때문에 매주 가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요가와 그림인데, 요가는 복지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으며, 학창시절에 했던 그림공부는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나아지면 꼭 하고 싶어 했다.

등산도 화요일은, 노는 날은 갈려고 해요. 지금 더워서 못 가죠. 요가도 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그건 희망 사항이고. 마음잡고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 때부터 취미생활 그림은 꼭 하고 싶어요.

## 마. 관계적 특성

현재 연구참여자2에게 가장 의미있는 관계는 미용학원 출신의 친구들이다. 뽀뽀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미용학원 출신 5명의 친구들과 생일도 챙겨주고 등산도 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저요? 우리 숙내를 털어 놓을 친구는 있죠. 몇 명은. (몇 명 정도?) 다섯 명이에요. 미용하는 사람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생일 챙겨주기로 한 모임...집에서 잘 안 챙겨지잖아요. “얼굴 보자” 하면 식당에서 산에 못 올라갈 사람들은 밑에서 걸쩍거리다가 내려오고, 밥 먹고, 만나고.

이 중에서 한 명과는 각별하게 숙내를 털어놓고 서로 교감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다.

(숙내를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는?) 한명. 통화를 자주 하죠. 서로가 공감어 가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위로가 되죠. 지금 10년이 됐죠. 내가 미용학원 근무할 때 만난, 미용을 배우러 온 학생이었거든요.

반면에, 연구참여자2가 남편 병수발로 고생하고 있을 때 동창회에 임원까지 맡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고향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진정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고향 친구... 지금은 잘 안 만나죠. 옛날에는 있잖아요. 청개구리 심정 같은 게 있나. (남편) 병수발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삶이다 싫어가지고 동창회도 아주 잘 다니고, 동창회에서 놀러가는 것도 다 따라 다녔어요. 내가 임원까지 맡아가지고. 근데 다 쓸데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다 잠수 탔습니다. 모임 잘 안 나갑니다.

우리들이 갱년기다보니까 상처를 많이... 나이대가 싹뻗들인가 봐. 그래서 그런 언재들은 좀 있었어도,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싹뻗이 되가지고.

2남3녀 중 가운데인 연구참여자2는 일산에 사는 언니 이외에 다른 형제자매는 모두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다. 일산 언니는 이전에는 왕래가 있었지만, 아픈 이후로는 교류가 뜸한 상태이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형제·자매들 간의 왕래는 더욱 뜸해졌고, 광주에 있는 여동생이 오빠들 소식을 전해주는 정도이다. 자매들끼리 일상의 문제나 노후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는 아니다.

언니만 지금 일산에 계시고 다 광주에 있어요. (일산 언니와의 왕래는?) 요새는 뜸하죠. 자주 왕래했는데... 언니가 아프니까.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나도 좀 그러니까 못 챙겨주고. 오빠들은 장가가면 그렇잖아요. 제껴두고,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형제간 만나는 건 뜸하고요. 광주에 있는 여동생하고는 통화를 자주 하죠. 멀리 있다 보니까. 광주 동생이 오빠들 소식은 다 전해 주고...(자매들과 미래의 계획에 관한 얘기는 하나요?) 얘기를 안 하죠.

## 바. 노후준비 특성

노후준비 이전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정에 대한 평가를 ‘승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남편의 병수발과 사망, 수급자로서의 사회적 낙인, 하루 12시간의 고된 미용실 근무 등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씩 헤쳐가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승리자’로 그리고 있었다. 이러한 자기통찰은 향후 노후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극복을 해서 그런지. 남들이 봤을 땐 지지리 궁상인데, 괜찮다고 봐요. 승리했다고 봐요, 제가. 어느 누구나 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잖아요. 그걸 현실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게. 이보다 더 나쁘진 않을 것이고...났더라고 전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하기에는 지금의 생활로는 너무 벅차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에도 부담스럽고, 집 한 칸 없이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입한 연금 있나요?)없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수급자다보니까 연금 들으란 소린 안 하대요. 다른 미용언니가 강제로 10만원씩 넣으라고 해서 성질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재테크 할 께덕지도 없어서 그런 건 감히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요, 솔직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니까. 마음은 급하죠.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은 작은 꿈만 꾸는 거지. 경제적으로는 계획을 못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은 2년 후로 잡고 있었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본인은 여행도 다니고, 그림과 같이 하고 싶었던 여가활동을 즐기려고 하고 있다.

(미용실) 차려야죠. 2년 뒤에....나이 들어서 완전히 풀코스로 가는 건 아니고, 직원 관리를 해야죠. (미용실 운영)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싶고... 나 혼자라면 여행 다니고, 그림 그리고.

재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되는 60대에 남자를 적극적으로 만나보려고 한다.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60대 이후의 노후생활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노후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 쪽에서 바라보는 기준이죠. 그리고 내가 흑이 하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누가 쿡 찢어주면 모른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고. 희망은 갖고 있어요.

60 넘으면 하나 찾아보려고요. 그 땐 다 평안할 거 같아요, 그 때는. 내가 맨날 '60만 되라. 60만 되라.' 그랬거든요. 더 낫겠죠. 그 때는 애들도 다 크고,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있나봐요.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7	8	9	10	11	12	13 ~ 21	22	23 ~ 24	1
시간	7:00 ~ 8:00	~ 8:00	~	9:30 ~ 12:00	12:00	13:00 ~ 21:00	21:00 ~ 22:00	22:00 ~ 1:00	1:00~ 2:00	
행동	고 1 아들 기상 아침식사/ 등교준비	아침 식사	기도/ 하루일과 정리	미용실 출근	미용실 업무	점심 식사	미용실 업무	퇴근 및 저녁식사	TV시청 심야영화 관람 (월 1회)	취침
공간	집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	집	집 / 영화관	집
사람		혼자				혼자				
비고		간단한 식사 (과일)			원장 없이 혼자 미용실운영	도사탁	원장 없이 거의 혼자 미용실운영		아들은 10시 이후 귀가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창회나 고향친구들과의 정기모임에 자주 참석하였으나, 남편 사별 후(2년전) 고향친구들과의 만남이 뜸해짐</li> <li>- 형제자매들과는 전화로 인부를 묻는 정도이며 왕래는 거의 없음</li> <li>- 최근 8월에 교회 이미용 봉사팀과 함께 1일 코스로 문경세제 다녀옴.</li> </ul>									
주말(휴무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요일 휴무: 등산이나 산책(수원천)</li> <li>- 화요일 휴무일: 미용학원 동료들(5명)과의 정기모임 한 달 1회</li> <li>- 일요일: 교회(11시 예배)후 근무</li> <li>- 교회에서 한 달에 1회 이미용 봉사활동(요양원)</li> </ul>									

### 3. 유형 ③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3은 8남매 중 셋째로 다른 형제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지만, 본인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찍부터 전자회사와 용접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였다. 24살에 결혼하고 가사와 육아로 5~6년을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였다. 하지만 건강악화로 인해 다시 휴직하게 되었고, 이후 6년 정도 파트타임 형태로 건물청소원으로 일해 오다가 현재는 무직상태이다.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4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넉넉하지 못한 경제 상태에서 두 아들을 키워왔다. 낮은 학력과 건강악화(심한 관절염,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인해 성당 교인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무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나, 큰 아들이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20년 전부터 성당을 다니고 있으며, 신앙생활 이외에는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틀에 박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 구성을 보면, 새벽 5시에 기상하여 1시간 30분 정도를 기도하고 두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한다. 아침식사는 8시30분에서 9시 정도에 혼자 식사한다. 점심식사 시간(오후 1시~2시) 이전까지는 성당 미사참석이나 성경공부를 하고, 자택에서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점심식사도 자택에서 주로 혼자하고, 식사 이후에는 대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1시간 정도 한 후에, 가사일이나 저녁식사 준비를 한다. 저녁식사는 오후 5시~5시30분에 혼자서 하며, 그 후에는 자택에서 성경공부나 기도, 묵상을 하고 아들의 저녁식사를 준비한다. 취침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 경이

며, 그 전까지는 성당의 저녁예배를 매주 화요일에 참석하고, 그 외에는 자택에서 기도와 성경공부를 한다. 매주 월요일은 오후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를 나간다.

연구참여자3은 사교적이지 못한 본인의 성향과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 외부활동을 극히 자제하고 있고, 성당 내에서도 교인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만 전념하고 있다. 또한 여가활동이나 TV시청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생활범주 내에서 매우 단조롭고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다.

## 나. 경제적 특성

현재 수입원으로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택 지하방의 월세가 전부이다.

(남편은) 직장 다녔는데 사고로 갔어요. 만 14년 됐고, 내년 2월 달이면 15년 돼. (유족)연금도 나오고. 한 25만원 나와요. 지하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 두 개에서 나오는 데 한 20만원씩.

지금은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지만,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건물청소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건물청소로 우체국에도 갔었고 여기저기 가봤지....완전히 쉬지는 않았지....구청에서 신청해가지고 그거 가봐라 해 갖고 가보고. 이렇게 조금 다니고 있다가 동네 한 군데를 누가 얘기 해줘갖고 거기 한 10년. 계속 현 건 아니고 한 3개월씩 있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현건 한 6년 정도 됐어.

생활비 중에서 큰 아들의 학비가 가장 부담이 되었는데, 금년에 큰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작은 아들도 전문대에 들어간 후에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했는데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원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현재는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건강식품도 사주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큰아들한테 많이 들어갔지. (큰 아들은)안 별지. 올해 졸업했다니까 우리 큰아들이.  
우리 작은 아들도. 작은 아들도 전문대를 처음에 들어갔는데, 전문대 나와 갖고 안 되니까... 4년제를 편입했지.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학원 다녔지. 괜 미술을 했거든. 돈 많이 들어갔어.

#### 다. 건강상태 특성

젊은 시절 용접기 회사를 다니다가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손가락 관절의 류마티스로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오래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다.

...판 회사 들어가서 3년을 다녔어. 용접기 만드는데. 근데 거기 왜 그만 댔냐면, 눈도 막 아프고. 눈이 건조증이 내가 심해요. 지금도. 눈곱이 많이 끼고, 그래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너무 몸도 아프고...손도 아프고 이러니까 그만 댔어요. 그만 댔다가. 건물 청소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관절염이 있으신가요?) 류마티스겠지. 이봐요, 나는 뜬도 떠 갖고 별 흉터가 다 있어. 말도 못해요. 이렇게 아픈디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제가 당뇨, 혈압이 있는지가 꽤 됐어요.

두 달에 한두 번 동네의 지정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데, 최근에는 당뇨에 호전을 보이고 있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지만 위장이 나빠질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고가의 건강식품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데 당뇨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요즘은 두 달에 한 번씩 가요. 가서 약을 받아오고, 약을 먹고 그러는데. 요즘은 혈당이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암튼 두 달에 한 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정해진 병원이 있으니까, 동에.

이게요, 관절염이라는 건요. 약을 먹으면요 관절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관절 좋아지면 위가 나빠요. 관절염약이 굉장히 독해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을 누가 얘기해주더라고요...사실 돈이 비싸 조금. 1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 사먹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아파갖고 못 일어나니까 ‘그냥 먹어 봐야지’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좋더라고요. 요새는 건강식품 먹으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월급타면 조금씩 사서 주고. 그래 그거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보니까 혈당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 라. 사회참여 특성

연구참여자3은 본래부터 외부 활동에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다 건강악화로 인해 성당 이외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변동이 별로 없어. 변동 있는 걸 별로 싫어해. 그 원인은 내가 저 바깥에를 자주 안 나가고, 몸도 아프고 한 게 나가기도 싫고. 잘 안 나가고 집에서 많이 쉬는 편이고. 성당에만 열심히 다녀요.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성당에서 하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시키지도 않더라고, 이제. 내가 시원찮으니까. 사람 봐서. 가서 일 할 사람을 시켜야지.... 내가 무거운 걸 못 들어요. 무거운 걸 못 들고, 앉았다 서지도 못 해 다리가 아프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못해. 그래서 어디 간다고 해도 못 가.

취미여가활동에는 원래 흥미가 없어서, 유행가나 드라마도 잘 알지 못 한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근처 대공원에 산책을 다니고 있으나, 야외 여가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시장도 토요일에 대형마트에서 간단하게 보는 정도이다.

(문화여가활동)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별 취미가 없고, 그냥 집에서 바깥에를 잘 나가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그래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성당에 나가니까 그런데서 갈 때는 어떻게 가지만, 대공원도 좋은데 어디 멀리까지 가요... 판 데는 안 가고 대공원만 가요. 일요일도 가죠, 저녁때. 요샌 더우니까 저녁때쯤.

노래도 못 혀. 나는 성가는 잘 불러. 근데 유행가는 빵점이야....아예 몰라. 드라마 잘 안 봐요. 어쩌다 하나 보기 시작하면 조금 볼까. 여덟시 반에, 20분 엔가 하는 거. KBS 그거 하나 어쩔 때 보고.

시장은 거의 식구도 별로 없으니까, 애들 나가서 먹으니까. 0000에 가서 조금씩 사다 먹고. 거의 토요일날 가.

성당에서 일 년에 3~4번 정도 단체로 가는 여행을 주로 다녔으며,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 온 적은 없다. 이제까지는 두 아들이 바빠서 가질 못 했지만 함께 여행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행은 잘 안 가고, 성당에서 단체에서 가는 게 있어요, 일 년에 3~4번씩, 세 번 정도 가요. 1박2일 갈 때는 없고 그냥 당일치기로. 당일치기 갔다 오고...

(최근에는) 동해바다 갔다 왔어요. 좋더라고요. 동해 처음 갔는데... 자주 가고 싶죠. 그래서 애들보고 가자고 하니 애들이 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간다니까 따라 가봐야지. 근데 거 가는 것도 여간 쉽지는 않대요. 멀고, 동해바다 가는 데 엄청 멀고. 그래도 동해바다 한번 갔다 왔죠. 일 년에 서너 번 정도 돌아 다녀요. 안 가본 데는 없어. 몇 년 다녔으니까 한 20년 됐으니까 거의 가봤지 뭐.

## 마. 관계적 특성

연구참여자3은 세속적인 관계에서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성당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하느님 안 계셨으면 못 살았지. 세상에서는 못 살어. 세상에서는 지금도 친구 들하고 나가서 얘기하면은 나갔다면은 밥도 딱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 다니고 얘기 소리 듣지만은 나갔다 오면 사실 하나도 안 기쁘거든요. 근데 성당 가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러면은 정말 기뻐요. 가서 먹은 건 없고 그 래도 찬양만 부르고 이렇게 와도 참 기뻐요.

아무 일 없다면 기도해야지, 놀 시간이 어디가 있어, 바빠 죽겠는디.

동네 주민들과는 깊은 교류 없이 인사만 하는 관계로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몇 명의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 람들과 거리를 두고 만나기 시작하였다.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동네도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나는 요 앞집에도 “안녕하세요.” 이것만해.... 왜냐면 친했는데 아휴 안 좋아. 그래서 별로 안 친하고. 금계 적당히 헨다니까.

옛날에는 죽고 살고, 언니가 좋아, 어찌고 좋아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열 가지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나쁘고,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하면 안 좋겠구나. 그래서 난 거리를 좀 두고, 그렇게 막 특별하게 죽고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20년 넘게 다닌 성당에서는 친분을 갖고 있는 교인들은 10명 정도 되지만 속내를 털어놓고 말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 성당 내 그룹 활동에서 간부를 맡아서 활동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학력이 낮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빌미로 무시한 적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성당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많기는 많지. 많지만은... 한 열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나는. 그렇게 심한 사람은 왜 안하냐면은 해보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도 안 좋고.

성당일 허다 보면 그룹으로 일곱, 여덟 명. 레지오라는 게 한 여덟 명에서 아홉 명, 적으면 여섯 명 정도 모여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전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없다보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도 많고.

거기서는 봉사하는 데는 간부라는 게 있어요. 간부를 하면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배운 사람은 더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참여하는 쪽 많이 가는 쪽이거든요. ‘너 이겨해.’ 그러면 해요. 그러면 못마땅한 거야. ‘지가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다보면은 하는 거야. 그러다보면은 무시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래도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박사까지 하니깐 사람들이 무시는 못해. 절대 무시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

8남매 중 셋째로 서울과 수원에 살고 있는 언니 두 명과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정도는 아니다. 어머니가 구심점이 되어 남매들 간에 서로 왕래를 하고 지내고 있다.

우린 형제가 많아요. 8남매. 딸만 짝 있고, 아들 둘이야 밑에. 난 셋째 딸이야. (연락하고 지내나요?) 그렇죠. 언니들이랑. 언니 둘 있지. 서울 사는 사람 있고, 저 수원 사는 애도 있고. 거의 근방에 살아요. (서로 돕고 사는가?) 우리는 그런 건 없고, 형제들끼리 그냥 그냥 얘기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 때문에 왔다갔다. 엄마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다, 동생네 집에도 갔다.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없으면 각자 살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같이 모이고.

두 아들과의 관계를 보면, 큰 아들은 어려워서 대화를 잘 하지 못하지만, 작은 아들은 잔정이 많아 어머니를 잘 챙겨주고 대화도 곧 잘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두 아들과의 친밀한 대화나 표현들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

남자애들은 이렇게 자질한 게 없어요. 우리 큰아들하고는 조금 어려워서... 이상하게 큰 아들이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 작은애가 조금 잔정이 있어. 얘기도 잘 하고,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는 성질내고 이런 건 없고, 대화로 하자. 소리 나고 그런 건 없어.

## 바. 노후준비 특성

현재 남편의 유족연금과 자가 주택의 반지하방에서 월세를 받고 있지만, 곧 결혼할 둘째 아들 부부를 위해 방 하나를 빼 줄 계획이다.

준비해 놓은 건 없고. 이거 하나 있는 거지. 집 하나 있는 거. 여기서 월세 짝 끊 나오고. 좀 나왔었는데, 우리 아들 빼 주느라고. 있었는데 이제 못 받지.

연구참여자3의 경우 노후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로 가장 확실한 것이 자가 주택이다. 주변에서도 노후를 위해 집은 꼭 가지고 있으라고 충고하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둘째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큰 아들은 박사 후 과정을 위해 미국 유학을 떠나지만, 나중에 취업하면 두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 잘 갖고 있으라고 합디다. 내가 혼자 사니까. 당신들도 그랬대..당신 거 가 없다보니까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이 집은 꼭 가지고 있어라. 당부하시더라고. 조금 나오지, 세는. 애들이 조금씩 주겠지. 그래서 난 별로 큰돈은 없지만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밥 먹고 살면 되니까.

원래 성향이 취미여가활동에 흥미가 없는 성향이지만, 노후에는 노인 대학에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어르신 되면 노인대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거 가면 되는 거고. 거 가면 어르신들 많잖아. 가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구참여자3은 신앙생활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노후생활 역시 현실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무서운 것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사는 거.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고 이런 걸 보면은 걱정할 거 별거 없더라고요 인간이. 나 사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다 이런 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5	6	7	8	9	10	11~12	13~14	15~16	17	18	19	20	21	22	23	
시간	5:00 ~ 6:30		~	8:30		10:00 ~ 11:00	11:00 ~ 13:00	13:00 ~ 14:00	14:00 ~ 17:00	17:00 ~ 17:30		17:30 ~ 22:30				22:30 ~ 23:00	
행동	기상 기도	아들 도사탁 준비	아침 식사	기 도	미사 참석	기도	점심 식사	대동원산책 ·가사일 ·저녁준비	저녁식사	저녁식사	·성서공부 및 묵상/기도(2시간 이상) ·성당저녁예배 1시간(매주 화요일) ·친지들 안부전화(매일하지 않음) ·아들 저녁식사 제공 ·출안기도 매주 월요일(오후 10시~새벽4시)						취침
공간		집	집		성당	집	집	·대공원 ·집		집							
사람		혼자			교인	혼자											
비고					매주 금요일은 성경공부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의 매일이 성당과 관련된 종교생활이 추가 되고 있음</li> <li>- 건강을 위한 운동은 매일 1시간 정도 대공원 산책이 전부</li> <li>- 사회적 관계망이 극히 미흡하여 속내를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주변사람들이 거의 없음(성당 교인들과도 개인적 친분이 거의 없음)</li> <li>-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2남 6녀(특히 자매들)들과의 전화안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li> <li>- 성당에서 1년에 3~4회 정도 당일코스 여행(최근에는 동해바다를 다녀옴)아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으나 두 아들이 너무 바빠서 여행할 시간이 없음</li> <li>- 성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월 1회 정기적으로 참여 (식사 봉사, 설거지 봉사 등)</li> <li>- 토요일은 근처 대형마트에서 시장(혼자 혹은 아들과 함께)</li> <li>- 토요일과 일요일의 생활패턴은 주중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음</li> <li>- 관절염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외부와의 관계가 소극적이고 비교적 단절된 삶을 살고 있으나 아들의 성공(서울대 박사)과 신앙생활로 보람을 느낌</li> </ul>																
주말 특성																	
비고																	

#### 4. 유형 ④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4는 2남 3녀의 셋째(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로 오빠는 신부님, 여동생은 수녀, 남동생은 민주투사 출신의 시인이다. 이처럼 남다른 가족배경 속에서 본인은 초급대학을 나와 법원계통의 행정직으로 직장생활을 했다. 20대 초반에 직장 동료와 만나 결혼을 했으나, 2년 정도 후에 이혼하면서 둘 사이에 출생한 딸을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엄격하고 무섭게 대하셨던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두 모녀간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지들의 소개로 부인과 사별하고 딸 하나가 있었던 현재의 남편과 1986년에 재혼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 딸 하나를 출산하였다. 본인 보다 학력이 낮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비교적 평탄하였고,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함께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 재혼 당시 무교였던 남편을 가톨릭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현재는 남편이 성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본인도 봉사직으로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면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25세의 딸 역시 성당의 주일학교 교감으로 봉사하면서 초등학교 등교교사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 4의 가족 구성원 전체는 직업 없이 성당에서 주어진 직책에 전념하며 살고 있다.

일상생활의 구성을 보면, 5시 30분에 기상하여 남편의 새벽등반을 준비해 주고, 아침식사 시간인 7시40분 ~ 8시 이전까지는 주로 신문이나 TV시청을 한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새벽미사를 나간다. 아침식은 남편과 함께 하는 편이며, 아침식사 이후부터 신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상

담을 하는데 이른 경우는 오후 7시까지, 늦은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방문 상담을 한다. 방문상담 중간에 시간이 빌 경우에는 성당에 와 있으며, 방문 가정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 부담스러워 점심식사는 주로 혼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방문상담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는데, 식사 시간은 방문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혼자서 저녁식사를 한다. 취침시간은 새벽 2시 ~ 3시 경이며, 이전까지는 TV시청을 한다. 이때 남편은 방에서 바둑을 두는 등 개별적으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서로가 이를 존중해 준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역시 주중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참여자들은 개별적인 문화여가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상이 성당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나. 경제적 특성

본인과 남편이 성당의 무급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정기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은퇴하기 전에 두 사람이 벌어들인 재산과 월세, 그리고 가끔씩 남편의 이전 직장으로부터의 아르바이트 등이 전체 가구소득원이다. 객관적으로 다소 부족한 생활비이지만, 절약하는 생활습관으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돈이 부족해서 곤란을 경험한 적도 없었다.

남편이 66세니까 호적으로는 64세지만 남편이 젊어서 고생을 해서 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저도 고생을 했어요. 안 놀았어요. 저도 봉사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직장을 다녔죠....그러니까 아까 저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 안 들어요. 빚 안지고 카드 안 쓰고 해서 안 해요. 그게 저는 잘 사는 신조예요.

(급여는) 없어요. 성당의 직원은 다 봉사직이에요. 벌여 놓은 걸 야금야금 쓰진 않고, 돈도 없을 거예요.... 월세 갖고 살 수 있어요... 대자가 품위유지비 하라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20만원씩 커피 값 하라고. 빗 안치고, 짜증 안 나요. 그 20만원이면 충분하죠.

#### 다. 건강상태 특성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본인은 스스로 비만 이외에는 별다른 질병은 없다고 하였다. 젊은 시절 갑상선에 이상이 있었고, 이후 부인병으로 수술한 적이 있지만, 갑상선의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신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했다. 수면장애가 있어서 새벽 2 ~ 3시에 취침하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다. 보건소에서 혈압과 당뇨,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일 년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다.

건강은요? 좋죠. 비만 외에는 건강한 거 같아요. 갑상선도 괜찮아졌고요. 가정이 아이하고 깨끗해요. 그 즈음에 갑상선이 두 달 안에 수술 안하면 암으로 먼저 죽는다는데, 두 달 후에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다른 부인병으로 수술하게 됐는데,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항상 아까도 목이 참 좋았는데, 갑상선 때문에 망가졌거든요. 목으로 항목하고 싶은데 목이 안 돼.... 이게 불균형인 거죠. 수면 장애 있고.

(혈압과 당뇨체크) 두 달에 한 번씩 정확히 해요. 아니 1년에 한번씩. 50 넘고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거 항상 안 지키고. 저는 해야 될 부분은 정말 해요, 정확히. 비만만 많아요. 그리고 보건소 가서 그것도 해요. 대사 증후군.

## 라. 사회참여 및 관계적 특성

연구참여자4에게는 오전 8시 30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성당 교인들의 방문상담은 자원봉사의 개념을 넘어 일종의 천직과도 같은 일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제가 하는 일이 규칙적으로 짜여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걸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나 드리는 거죠.

이 성당에 미션 그룹에 따라서 2인 방문하는 그 단체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예전이고, 지금은 제가 자유로워요. 1인 1단체 하면은 성당의 규칙적인 거는 철저하게 지키고, 혼자서 저한테 제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경험을 하다보니까 부르면. 막 지치고 외로운 분들이 많이 불러요.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방문상담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은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풀기 위한 여가활동은 시간이 없어서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혼자 하는 일이라서) 외롭고 고독하죠. (여가는) 전혀 없어요. (영화나 연극은...) 저는 안 가요. 이제 피서 같은 거는 많이 있어요,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시간이 없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놀러 다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짜도 몇 번이, 일 년에 두세 번 우리 딸 셋하고 만난 게.

그나마 초등학교 동창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연구 참여자 4의 큰 즐거움이지만,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 초등학교 모임에 네 달에 한 번씩 참여하고 있다.

저도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두 달에 한번이면 저는 대개 4개월에 한 번쯤 가서. 초등학교는 진짜 재밌어요. 거의 종친회 하거나. 시골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거 다 해요. 저한테 맞춰주더라고요.

남편과는 일상생활에서는 서로의 (여가)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성당 일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다.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막내딸과도 그다지 살갑게 지내는 관계는 아니다.

우리는 어떤 깊숙한 일들을 하니까. 둘이 같이 본당에서도. 어떤 이슈거리가 있으면 우리 둘이 같이 고민을 해요. 우리 일은 아니라도.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할게.” 서로 그러는 거죠.

(막내 딸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가요?) 아니에요. 대하는 태도가 스किन심은 안하더라고요. 큰애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도 할 때는 하고, 참 좋아요. 아들 키우는 거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본인에게 가장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극과 극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을 지목하였다. 한 사람은 본인이 교리교사를 담당했던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자신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 일종의 측은지심을 느끼면서 그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다른 한 사람은 연구참여자4에게 직언을 하면서 꾸짖기도 해서 정서적으로 호감이 가지 않지만,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해 온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희열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엄격하고 어려웠던 어머니의 잔상을 보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의 노후 모습을 투사하고 성찰하게 하는 대상과 어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직설적이고 강한 성격을 가진 대상

을 통해 본인은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편 또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고 있다.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현재는 60대 후반인 분을 제가 교리 교사일 때 저한테 세례 받은 분이 계세요. 그 분이 굉장히 저를 든든해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친구처럼 그냥 눈높이 맞춰서 그분의 삶에 제가 저하고 가는 거 같은 거. 저를 또 다른 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제 수준이 이렇구나 라는 그런 다지기가 되는, 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기쁨도 느끼고, 그분의 슬픔을 제가 받아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왜 딱 이분인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친구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만 왜 이분하고 가장 현실적인 공감대를 나누고,...미래보다도 그 분이 저를 위로해주고 그걸 보면서 저는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느끼는 거고.

또 가장 인제 제가 아니었던 어르신이 여기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콕콕 찌러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나 수도자나 성직자보다 더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맞는 분이예요. 근데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저를 필요이상으로 사람들이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아닌데, 말을 안할 뿐인데, 근데 지금 만나서 이분은 말을 안 하고 속이고 살았다고 직설, 저한테 직접적으로 칼질을 해대는데,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생활이. 그러면서 저를 꼼짝 못하게도 안 하지만 때론 감시자처럼 만나는데 그거 또한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또 그분을 만나면서 어머니한테 어렵고 무서웠던 게 우리 어머니가 더 대단한 걸로 느껴지면서 묘하게 지금 엮여가는 거예요. 올해 와서. 저를 보면서 당신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후배한테 그런 거예요. 저도 언니한테 그러듯이 그래서.

지금 여태 살아왔고 힘들었던 총결산을 극과극의 두 여성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기뻐요. 기쁜 자체도 아닐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데, 너무 저도, 남편도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진짜 변화됐다고 해요.

연구참여자4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머니이다. 20대

에 딸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온 이혼녀 딸에 대해 엄격하고 칭찬에 인색한 친정어머니는 두려움의 존재이면서 분노의 대상이었다. 다른 남매들과는 달리 어머니와의 갈등과 다툼이 많았으며, 밖에서와는 달리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다. 몇 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머니와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엄마한테 칭찬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는 밖에서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굶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고 어머니한테 대들고. 저 혼자 대들어요. 언니는 장녀다보니까 어머니한테 못 대들고, 그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오빠는 오빠고, 남동생은 가끔 와서 엄마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해주고 가고.

상처라기보다도 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친정에 왔다가 동생은 수배 중이었다가 구속이 되고, 이런 가정에서 제가 어디로 숨지도 못하고. 엄마는 저만 주시하죠. 이혼녀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갈등이 많아요. 딸은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의지하지 않죠. 지금은 그래도 편해졌다고 했잖아요. 감사해요. 그전에는 인정받지 못한 것에 분노가 치밀었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자력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그렇게 많은 수술도 못살아서 돈 못해주네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밖으로 더 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분이고, 당신의 대리만족을 저를 통해서. 왜 비만, 비만 그러냐면 엄마는 제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집에 가서 엄마를 안거나 집에 가서 밥을 안 먹는 게 집에 가서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아예 안 먹는 거죠. 때에 따라. 어떨 땐 안 먹었다가 먹었다가.

## 마. 노후준비 특성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연립주택이 노후의 재정적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후에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생활시설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집에 하나는 끝까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만 연립도 길들여지니까 괜찮더라구요. 그걸 갖고 있어야지 양로원에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에다 넣고 하자. 그리고 싶어요.

어디 한적한 곳에서 남의 손 빌릴 때까지 살지 말고, 그러면 아까 시설이 실버타운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양로원이 됐든 그냥 자식한테 의존 안 하고 싶어요.

노후에는 신앙생활 이외에도 봉사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 했다. 텃밭을 가꾸면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과 하면서, 때가 되면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고자 하였다.

봉사 아니더라도 함께 가서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텃밭이라고 하지만 텃밭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연립에 살면서 상추 조금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것 없이 누군가 도와주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기력이 있어야... 의지할 데 없는 분들, 동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디가도 요새는 죽으면 시신 견여가서 필요한 곳 있으면 쓰고. 남편하고 그랬어요. 한 날 한시에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런 문제로 죽음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게 제 신앙이 아니라면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기증해주고 싶고... 시신기증까지 해놨으니까 장례비용 그건 안 들겠고, 시신기증도 실천을 해야 기증이잖아요. 누구대신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이고 부모이고 상관없이 누구든.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5	6	7	8	9 ~ 11	12	13 ~ 21	22	23 ~ 3
시간	5:30	~	7:40 ~ 8:00	8:10	8:10 ~ 12:00	12:00~ 13:00	13:00 ~ 22:00	22:00~ 23:00	23:00 ~ 새벽 2시/3시
행동	기상	배우자등산준비 ·신문/TV 시청 ·세탁미사 (월/목: 6:30~7:30)	아침 식사	성당 출근	교인가족 방문상담	점심 식사	교인가족 방문상담	저녁 식사	TV시청 취침
공간	집		성당	교인 주거지	성당	성당	교인 주거지	집	집
사람	배우자	혼자	배우자	혼자	교인가족	혼자	교인가족	혼자	혼자
비고						도사탁	방문상담이 비는 시간에는 상담에 와 있음 기름은 오후 7시에 방문상담이 끝날 때도 있음	배우자는 바둑 등 개별 취미생활 있으며, 저녁9시경에 취침	불면증 있음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일 방문상담 봉사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이 거의 없는 것 같다</li> <li>- 가족(배우자와 딸) 간에 일상적인 대화는 많지 않지만, 가족 모두가 상담 내에서 봉사활동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음</li> <li>- 교인들과 특별한 친교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두 사람 정도와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있음</li> <li>- 초등학교 모임이 정기적으로 두 달에 1회 정도 하고 있으나 대상자는 4개월에 한 번 정도 참석함. 초등학교 모임에서 나들이 가기도 함</li> <li>- 외식이나 영화관람과 같은 문화여가생활은 거의 하지 않음</li> <li>- 성당의 행사차원에서 당일코스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함</li> </ul>								
주말 특성	- 주말에도 여가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며, 방문상담과 상담에서 생활하고 있음								

## 5. 유형 ⑤<sup>24)</sup>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5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삼형제의 막내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전기기술자(제조공장이나 빌딩의 변전실)로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한때는 세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을 정도로 직장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으나, 30대 중반부터 발병한 신경불안 증세 때문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5년 전부터는 폐기종과 천식이 발병하면서 직장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었다. 미혼인 상태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3년 넘게 치매로 고생하다 사망한 어머니의 병수발을 혼자 하였다. 재산을 분배받은 후에 연락이 두절되어 어머니 생신이나 아버지 제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형들을 원망하고 있었다.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칸방 빌라는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들의 동의를 없어서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재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외부사람들과의 대화를 꺼려하는 강박증이 있어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들이 없으며,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얼마냐고 묻지 않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킬 정도로 강박증세가 있었다. 최근 들어 동네 할머니들과 몇 마디 나누기 시작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를 큰 변화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5의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구성은 매우 단조롭다. 9시~10시에 기상하여 바로 아침식사를 하는데, 생각이 없어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날도 많다. 점심식사를 오후 1시~2시 정도에 하며, 그

24) 연구참여자5는 인터뷰 내용의 녹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인터뷰 기록과 기억에 의존하여 본 내용을 정리하였음을 밝힘.

전까지는 주로 TV시청을 하고 집 밖 공터에서 햇볕 쬐이기를 30분 정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점심식사도 혼자서 하고, 이후에도 주로 TV시청을 하고 햇볕 쬐이기를 한다. 저녁 식사는 7시경에 혼자 하며, 이후 취침시간인 12시에서 새벽1시 이전까지는 TV시청을 한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5는 외부와의 교류가 철저히 차단된 채로 집안에서 하루 종일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

### 나. 경제적 특성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건강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액 이외의 수입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어머니 생전에는 60여만 원의 수급액을 받았으나, 지금은 40만 원대의 수급액으로 살고 있다. 이 중에서 20여만 원은 어머니 소유 빌라의 대출금으로 지출되고 있고, 나머지 20만 원 정도로 한 달을 살고 있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밥과 멸치젓에 절인 부추, 간장으로 몇 년간 매끼를 식사하고 있다. 전기세나 TV 및 인터넷 사용비용 등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 이외에 다른 지출은 거의 없는 편이다.

건강이 회복되면 일을 하고 싶지만, 스스로가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 다. 건강상태 특성

30대 중반에 발병한 신경불안 증세로 인한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5년 전부터 발병한 폐기종과 천식으로 외부활동에 큰 장애를 겪고 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싶지만 조금만 걸으면

숨이 가빠서 쉬어가야 하기 때문에 산책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한 달에 1회 정신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으며, 두 달에 1회 정도는 동네병원에서 천식과 폐기종에 관해 진찰을 받아 약을 처방받고 있다. 정신건강에 햇볕은 쬐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집 앞 공터의 정자에서 잠깐 동안 햇볕을 쬐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 라. 사회참여 및 관계적 특성

연구참여자5는 수급자로서의 혜택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으며, 이를 보답하기 위해 동네 일부를 자발적으로 청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된 이후부터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자제를 꺼리는 강박증세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동네 할머니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정도의 미약한 관계망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나,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 마. 노후준비 특성

어머니 소유의 빌라가 자신의 명의로 전환되면, 이를 활용하여 주택연금 등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후준비에 관한 정보를 TV를 통해 알게 되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했으며,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매달 19만 5천원을 받기 위해 수급액 40여만 원의 일부를 할애하여 연금에 가입할 예정이다.

젊은 시절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가 있었으나, 여자를 너무 몰라서 그냥 떠나보낸 것이 아직도 많이 후회되고, 앞으로 결혼하고 싶으나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9	10	11 ~ 13	14	15 ~ 18	19	20 ~ 23	24 ~ 1
시간	9시~10시	11시~13시	13시~14시	19사~20시	20시~23시	24사~1시		
행동	기상 및 아침식사	TV시청/집밖 햇빛쬐이기	점심식사	TV시청/집밖 햇빛쬐이기	TV시청/집밖 햇빛쬐이기	저녁식사	TV시청	취침
공간	집	집 / 집 밖 공터	집	집 / 집 밖 공터	집			
사람	혼자							
비고	아침식사를 거를 때 도 많음	사람들이 없을 때 서 햇빛쬐이기	사람들이 없을 때 집 밖 공터 벤치에	사람들이 없을 때 집 밖 공터 벤치에서 햇빛쬐이기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증과 강박증 등 신경불안과 천식 및 폐기종으로 인한 신체적 건강상태로 인해 타인과의 교류는 전혀 없으며, 외부활동(산책 등)도 할 수 없는 상태임</li> <li>-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고, 외출 시 친식과 폐기종으로 인해 숨이 차서 오래 걷지를 못함</li> <li>- 유일한 활동이 TV시청이며, 가끔 사람들이 없을 경우 집밖 공터의 벤치에서 햇빛을 쬐는 정도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음</li> <li>- 인터넷이 가능하지만 일주일에 2~3회 정도하고 한 번 할 때 1시간 이내로 인터넷을 이용함</li> <li>- 젊은 시절 직장생활을 할 당시에도 여가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생활에 대한 기대나 동경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여가활동을 즐긴 것 같지 않음</li> </ul>							
주말 특성	- 주중과 주말 생활이 거의 유사함							

## 제2절 60대 유형별 제특성

### 1. 유형 ①

#### 가. 일반 특성

현재 만 62세인 연구참여자6(여)은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 4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혼자 지내며 매일같이 성실하게 지내려는 자세로 생활하고 있다. 과거 교사로 재직하다가 건강 악화로 직업을 그만 둔 후 요양을 위해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이웃 사람들의 권유로 아이들의 개인 교습을 맡고 있다. 주중에는 운동과 일 등으로 꽉 채워진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인의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고 있으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종교(천주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종교를 가진 것이 현재의 정신적 평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6이 삶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도서관에) 도서관 싸 갖고 가요. 가는 날에는. 아침 여덟시까지 가야 자리 잡아요. 여기가 아마 시에서 하는 도서관일 거예요. \*\*도서관이라고. 거기에 도서관을 싸 갖고 가야. 아침 여덟시 오픈인데 자리 잡으려면 일찍 가야 되요.

(취침시간은)그 다음에는 한 12시. 항상 12시 지나서. 그건 옛날부터 학생 때부터 습관이니까....그러니까 피곤하긴 해요. 근데 이제 원래 아침에 피곤해해요....일어날 때 힘들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건 학교 다닐 때부터 늘상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재주 없었거든요. 숙제하고 공부하고 하려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만족해요, 삶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아져야지, 뭐 해야지. 하여튼 모든 면에서 나아져야지. 생각하고 할 때는 굉장히. 쉬는 시간도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질 않아요. 그 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빴던 거죠. 근데 지금은 마음이 안 바빠요....몸은 오히려 더 바빠요. 오히려가 아니라 그 때만큼이나 바빠요. 일주일 내내 그래야 되니까. 몸은 바쁘는데 마음은 굉장히 안 바빠요. 편해요.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6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다. 건강악화로 쉬기 전까지 교사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하였고, 일찍 배우자와 사별하였기 때문에 재테크 등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생겨난 경우이다. 현재는 월세 수입과 자녀들이 제공하는 용돈, 과외를 가르쳐 버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예산을 잘 짜도 항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현금이 좀 더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인 거는.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저기 \*\*에. 거기에서 월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능한데, 이제 큰 아들이 보태줘요. 보태줘서 ‘고마워.’ 하고 받아요. 작은 아들이 주는 건 적금 들고. 작은 아들도 작년부터 주고 그래 가지고 저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로워요. (과외 수업료)그건 이제 제가 사이트 머니, 사이트 인컴.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긴 하죠. 현금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어느 정도 괜찮을 텐데 그게 월세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근데 그것도 회사에다 기숙사처럼. 회사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건 걱정스러워요.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6은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상태라고 표현하였다. 현재 우울증 약과 간질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다. 매일 새벽에 산책을 하고, 수영을 다니며 건강 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특히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 등 식생활도 규칙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의료진과 상의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CT 촬영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아노, 월, 수, 금은 강습이고 화, 목은 자유 수영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 목도 될 수 있는 한 안 빠지려고 하죠. 자유 수영인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거죠. 그게 앉았다가 쓰러지면 많이 안 다치는데, 아마 일어섰던 상태에서 그랬나 봐요. 머리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죠. 금방 또 차려, 정신은. 그 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119 제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00병원 거기로 데려다 주더라고. CT 촬영 다하고, 혹시나 싶어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새벽처럼 달려오고.

## 라. 사회참여적 특성

연구참여자6은 종교활동, 수영강습 참여, 도서관 이용, 개인 교습 지도,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 활발한 사회참여의 유형을 보인다. 연구참여자6은 누구랑 함께 참여 하는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침묵 도모 및 교제를 하는지 보다는 내용적인 내실을 더 중요시 했다. 일상적인 날들은 빈틈이 없을 만큼 돌아가지만 상황이 허락한다면 비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의의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일을 하다가 중단한 경험을 반추해보며 걱정할 일이 있는 것이 일상생활에 훨씬 도움이 되고 지루함이 덜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 외에 더 하고 싶은 활동 있으신지요?)

일주일 내내 하니까,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그렇게 큰 저기는. 이제는 더 이상 늘리면 힘들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내내 하잖아요. 그것도 힘들기도 할 거고. 또 나한테 너무 힘이 들면 내가 하는 일 하나 하나에 정성을 못 들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늘리는 건 힘들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어디에서 적십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할 일이 있으면 혹시, 그러니까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주기적인 거는 이제 힘들 것 같고

(개인교습을)작년 7월까지 하려고 안 하려고 한 학기 쉬었어요. 개네들로 끝내려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한 학기를 쉬어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오후시간이 너무, 지루하다는 것 보다는 시간이 길어요. 그게 지루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학기에 다시 했어요....지금은 두 명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두 명 하나까 시간 잘 가고 아주 딱 좋아요.... 내가 지치지 않고. 한 학생한테 전부 다 이제. 내 저기를 다 해서 할 수 있고.

## 마. 노후준비 특성

연구참여자6은 자녀를 출가시키면서 재무적인 부분을 조정할 경험이 있었다. 또한 첫째 자녀가 창업할 때 창업 자금을 조달해주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어 현재는 성인 자녀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보해주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인 경험과 부동산을 이용한 재산 증식 방법을 활용해 현재의 재정 상태에 이르렀고, 성장한 자녀들이 물적 심적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게 일찍 돌아가셨어요...마흔 세 살에 갔으니까. 그 뒤부터 내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잘 벌었어요.... 그때 서울에다가 제가 집을 하나, 아파트. 00동에다가 “(아들에게)너 들어가서 살어.” 일단 해줬어요. 그게 이제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서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거기다가 제가 적금 들었던 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에 하나 사 놨는데, 그게 지금 월세 나오고. 그렇게 해서.

큰아들 장가보내면서 이제 여기 외곽,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 아들 장가보내고, 전세 자금 대줘야 되니까 집을 재주 없이 팔아야 되가지고 그랬더니 여기, 이쪽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거든요.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4	5:15	6	6:45	7:10	8	10 ~ 11:30	12	13	14 ~ 17	18 ~ 20	21 ~ 22	23	24
행동		기상	새벽 미사	운동	아침 식사	수영 셔틀 타기	수영	수영복 정리 점심	수영복 정리 점심	책읽기/공부(중국어)/컴퓨터 게임/수업준비	학생들 지도 (하루에 두 명씩 과외 지도)	간단한 저녁	TV 시청	
사람	혼자		혼자	이웃	혼자		혼자 다니지만 같이 수업을 듣는 이들과 친분이 있음	혼자		혼자	주변의 요청에 의해 이웃 학생들을 가르침		혼자	
공간	집		집	동네 공원	집	집	수영장	집	집	집 또는 인근 도서관	집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대에 배우자를 사별하고 혼자 지내왔으며 운동, 일, 자원봉사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음</li> <li>-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감. 여가, 과외, 자원봉사에 관여하며 꾸준히 일하고 있음</li> <li>- 정신적 성숙과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바쁘지만 마음이 바쁘지 않고 편안하여 만족스럽다고 함</li> </ul>													
주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요일 저녁엔 혼자서 맥주를 즐김</li> <li>- 토요일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선생님과 일요일엔 성당 공부방 선생님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함</li> </ul>													
웹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준히 하는 일들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늘리기 원하지 않지만, 적십자 등 비정기적 봉사는 희망하고 있음</li> <li>- 성인 자녀들이 비정기적으로 찾아옴</li> </ul>													
연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 가을에 혼자서 성지순례를 가기로 계획하였음</li> </ul>													

## 2. 유형 ②

### 가. 일반 특성

현재 만 67세인 연구참여자7(남)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주로 공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하며 본인의 생활수준이 최하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 자활의 노력을 해 보았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연결되는 일자리는 생기지 않아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

사실 아시겠지만 수급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한마디로 양육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존심도 상하죠. 수족이 멀쩡하고 있는데 내가 국가에서 그런 혜택 받고 살아야 되나...그래서 내가 자아를 자립하려고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제가 그래서 이걸, 동절기 쫓 되면 00대학교에서 노인심리상담사라고 있어요. 내가 작년에 그걸 신청을 하다가 기한을 넘겼는데, 그것도 해서 내가 아마 그런 거를 내가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 그냥 이렇게 복지관의 어르신들 위해서 자원봉사 하면서 살고 싶어요.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7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는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기거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소득이나 금전적 지원은 없다고 하였다. 구직을 원하지만 ‘문교부가 짧아서(교육수준이 낮아

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였다. 수급비 중에 많은 비중을 책 구입에 사용하고 있고 식사나 그 밖의 생활비로는 지출을 자제하는 편이다. 근로 활동을 희망한다고 표현하고 일이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구직이 불가능하여 경제적인 기대수준을 내려놓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럼 여유가 없어요. 계산해 보세요.... 식사는 여기서 하고, 집에서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수급자들이 대부분 생활이 최하위죠.... 제일 부담되는 건 아무래도 서적 구입, 도서 구입이죠. 이걸 제가 큰 맘 먹고 책정해서 사야죠. 이 돈에서 그 정도 액수면 큰 비중이죠. 퍼센테이지가 크잖아요.... 경제 수준은 최하위죠. 말할 수 없죠.

빨리 내가 모든 것을 익혀가지고 내 스스로 업을 하나 갖고 싶은 거.... 근데 알다시피 우리 세대가 베이비붐 부모세대한테도 밀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말따마나 문교부 혜택도 누구처럼 찬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커리어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죠....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요?) 일이란 생명이죠.... 큰 경제적인 욕심 없어요. 관심 있는 거 복지관 어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7은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표현하였다. 매일 일어나면 단전호흡과 명상을 실천하고 있고 걷기를 실천하며, 시간이 가능할 때 교외로 나가 삼림욕을 즐긴다고 하였다.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인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는 많이 완화된 상태이다.

보통 저는 여섯시에 기상합니다... 한 시간 동안 명상 및 단전을 하곤 합니다.... 단전호흡하고 명상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단전호흡하고 명상한다고 하잖아요....(식사 관리라던가 건강적으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식사에서 신경 쓰면서 건강 관리할 처지는 못 되죠. 제 생활이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생활이 그래서 그런 건 신경 못 쓰고 그냥.

아주 최상은 못 해도 그래도 건강상태는 무난하다, 양호하다 보죠. 아직까지 중병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 적은 없고 하나까요. 잔병들은 있었죠.

(복지관) 안 오는 날은 피톤치드 받으러. 제가 삼림욕을 즐기거든요. 나무 많은 곳에 가서 피톤치드를 제가 받으려고 제가 산보를 하지요... 주로 남산 아니면 저 흥릉 수목원 그런 데가 피톤치드가 좋잖아요. 삼림욕하기 좋고.

## 라. 사회참여적 특성

연구참여자7은 복지관의 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문학 강좌, 여행 프로그램, 평생교육원 교육 과정 등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정을 찾아서 수강하고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한다. 이로 인해서 본인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복지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친분을 쌓는 이들은 대개 경제적 생활수준이 어렵고 이들과 연구참여자7의 지적인 눈높이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가족이나 친척들은 왕래가 없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밖에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 군대 동기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여 교류한다고 하였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노인들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 이 복지관에 나오시는 이 수급자분들이 대부분 아녘니까. 주를 이루잖아요. 대부분 직접 의식주보다는 식에 관심이 많아요. 이분들이. 그런 거죠 뭐. 정보교환하고 어디서 빵 준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사실 그런 차원의 그런 얘기는 싫거든요, 내가 비록 수급자지만.... 나는 죄송하지만 나는 그래도 집이 가난해서 내가 중학교만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지식과 학구열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의식들이 없어요. 대부분 그저 오늘 하루 밥 먹고. 의식구조하고 사고방식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동극장에서 미소 한 번 봤습니다. 이것도 복지관에서 단체로 보내줘서 간 거예요... 저는 모든 (복지관에서) 기획이나 그런 거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다. 강의 있고 그러면 (복지관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옵니다.

## 마. 노후준비 특성

연구참여자7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으며 다른 소득 활동이나 노후 자산은 없다고 하였다. 자녀 및 친지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사적인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 및 사회참여 면에서는 무난한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소득 면에서는 주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무주택 수급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고 앞으로 여가 문화 쪽의 혜택을 좀 더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우선 주거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들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싼 값으로 공급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죠. 또 그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하게 문화 방안이나 여러 방면에서 수혜를 줄 수 있는. 우리도 뭔가 문화를 즐기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남들처럼 우리도 즐기고 싶죠, 모든 방면에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보고 싶은 거 놓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그게 우리들은 여건이 안 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유롭게 여행도 다닐 수가 없고.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5	6	7	8	8:30	9 ~ 11:30	12 ~ 13	14 ~ 17	18 ~ 20	21	22 ~ 23	24
행동		기상	명상 단전호흡	아침 식사	독서	TV 시청	교보문고 또는 복지관 수업	깎기	간단한 저녁	TV 시청		
사람	혼자			혼자			혼자정식은 불규칙적으로 먹게 됨	혼자 / 복지관 지인들	혼자			
공간	집			집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지인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음</li> <li>- 복지관의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li> <li>-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자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나 현실적으로 구직의 어려움이 있기에 봉사 기회를 찾기를 희망함</li> </ul>											
주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엔 사회 선후배나 군대 동기들을 만나 식사를 함</li> </ul>											
월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여행이나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함</li> <li>- 삼림욕을 하러 서울 근교 수목원이나 산에 다니기도 함</li> <li>-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함.</li> <li>- 주로 교제하는 이들은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대화의 주제가 제한적이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함</li> </ul>											

### 3. 유형 ③

#### 가. 일반특성

현재 만 69세인 연구참여자8(남) 은퇴한 전문직 남성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서울과 지방에 있는 집을 오가며 전원생활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건강 악화로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로 현재도 병원의 지속적인 관리 하에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성실하게 하고 있어, 식단 조절, 운동 등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복지관, 인근 대학교 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운동에 매진하고, 그 밖에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지인들을 만나며 교제를 하고 있다. 현재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적, 심리적 정리를 조금씩 구상하고 있다.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8은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 연구참여자는 전문직을 가졌다가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배우자 역시 전문직으로 근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였다. 두 명 다 은퇴한 현재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다. 연구참여자8은 한창 바쁠 때의 생활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은퇴 후에는 전원생활, 여가 생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하였으나, 건강 악화와 또 손주 양육 때문에 계획에 변화를 가지게 된 경우이다. 6년 전 지방에 집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가 손주 양육을 도와주고 있어서 서울을 떠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하였다.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진 않아요....경제적으로는 아직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지출이, 글썄 나는 제가 한 연금이 100만원이 좀 넘어요. 그거가지고  
내 생활이 충분히 돼요. 그 다음 우리 집사람은 생활비지. 생활비는 그 전에  
있는 것 좀 있는 걸로...있는 걸로 쓰니까 지금 제가 볼 땐 부족하지 않은 거  
같아요.

내가 6년 전에는 집을 지어놓고 하는 건 우리 집사람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옛날에 직장생활 했던 걸 커버를 하기 위해서라도 돌아다니고 차타고 다니고  
끌고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  
므로써 내가 접어 버린거야 내 꿈을... 거기에(전원주택) 3~4천 평이 매실이  
있어요. 소일할게 없으니까 매실관리도 혼자서 하고. 심심하니까.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8은 간경변, 폐 절단, 항암치료 등 최근 몇 년 동안 건강악  
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건강상의 변화는 과도한 일상과 업계의 남성적  
인 관행 때문이라고 보고 직업에서 은퇴를 하고 건강 회복에 총력을 기울  
였다. 계속적으로 병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본인이 환자로서 조심해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력관리를 꾸준히 하게 한 결  
과 최근 신체나이를 진단한 결과 실제 나이인 69세보다 더 적은 64세로  
나왔다고 하였다. 또한 혈당 관리 체지방 관리 등을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운동)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깜짝 놀라요, 저보고. 아  
주 좋아지고 있다고. 남 보기에는 좀. 물론 할 일이 없었으니까 운동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한시간 반 동안 평균 애버리지를 하고....주로 근  
력운동. 또 유산소 운동 이런 거죠....런닝머신 기계들 다 갖다 놓고 거기서도  
(전원주택) 해요.

아침에는 뭐가 있냐면 우유에다가 콩가루를, 검정콩 있잖아요. 가구를 갈아 가지고 거기에다 우유를 타서 믹싱을 해가지고 울무하고 콩가루 같이 해서 먹고. 거기에 현미 떡이 있어요. 현미를 떡집에 맡겨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만든 거 있죠. 포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아침에 가위로 잘라가지 콩가루에 찍어서 그게 아침 식사예요....저녁식사나 이런 거는 내가 혼자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육류 이런 건 잘 안 해요. 채소 계통, 비빔밥 종류. 그러니까 큰 부담은 없어요.

## 라. 사회참여적 특성

연구참여자8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모임, 종교(기독교) 생활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자주 왕래를 하며 친목도모를 하였다. 이제 대부분 비슷한 연배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에 만나면 화제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 서로 배우는 점도 많다고 하였다. 지인들과 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답소를 나누는 형태로 점심시간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는 복지관에서 여가 선용을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과 장기 및 바둑을 두기도 한다. 평생교육 면에서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학을 배운 경험이 있었는데, 수술로 중단하고 또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생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강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지적인 자극이 계속 있어야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불안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교회 사람들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며 교류한다고 하였는데, 요즘에는 교회로 연결되지 않는 사회의 친구들을 만나도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끼리 더 잘 통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는 일정정도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배우는 걸 여기 복지회관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일어하고 영어를 좀 했거든요. 근데 내가 작년에 수술을 하는 통에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게 스케줄이 제가 전원주택에를 못 내려 가 버려요....그걸 안 하다보니까 더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지. 뭔가 자꾸 내가 듣고 저걸 이해하고 해야 앞으로 치매현상도 방지가 되고 하는데, 일상 루틴한 일만 계속하다보니까 앞으로 내가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우리 동기들은 교회 다닌 분도 있고, 안 다닌 분도 있어요. 안 다닌 분들을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안 받아 들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친구 중에도 교회 활동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

## 마. 노후준비 특성

연구참여자8은 경제적으로나 대인관계 면에서나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다. 60대에 급속한 건강 악화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했고 현재는 목표한 대로, 희망하는 대로 건강을 챙기며 종교에 집중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응답자에게는 교회에서의 말은 직분에서의 은퇴도 중요한 경험이었으며 현재는 재무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향후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준비를 해 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고 하였다.

나는 미래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어요.... 관심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도 그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혼자서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준비를.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내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으

면 그것도 빨리 정리해서. 내가 가는 길을 갔다가 전부다 정리를 해놔야지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내가 돈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나이가 먹어 가면 주위에 자식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서로가. '야 나 이런 게 문제야.' 이러면 '야 우리 그렇게 하자.' 그게 참 현명한 거 같아. 가족을 위해서 좋은 거 하는구나... 친구들끼리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행복 아니냐. 우리가 자꾸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눴어요.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5	6:30	7 ~ 8:30	9	10 ~ 11:30	12 ~ 13	14 ~ 15	16 ~ 17	18 ~ 20	21 ~ 22	23	24
행동		기상	운동	식사	운동	점심모임	교제	운동 또는 독서	저녁식사	TV 시청	취침	
사람			혼자 또는 배우자와	간단한 간강식을 챙겨 먹음	혼자	지인들	지인들 혹은 복지관 사람들 (장기, 마дук)	복지관	가족들	혼자		
공간		집	동네 운동장	집	복지관	식당	식당 인근 또는 복지관	복지관	집 또는 식당		집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잦은 수술과 부병으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li> <li>- 식단 조절, 운동 조절 등으로 많이 건강해 졌으나 환자로써 제약이 있다고 함</li> <li>- 은퇴 후 배우자와 시골에 내려가 소일하려고 전원주택을 마련했으나 배우자가 손주를 봐주고 있어서 혼자만 시골에 내려가는 생활이 잦아짐</li> <li>- 종교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함</li> </ul>											
주요 특성	- 가족들과 교회에 나가며, 교회 지인들과 많이 교제한다고 함											
결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일하였음</li> <li>- 복지관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배우자와 여행을 다녀옴</li> <li>- 두달에 한번씩 정기 검진 및 재활 방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li> </ul>											
연 특성	- 미국에 있는 자녀를 보러 가끔 출국함											

#### 4. 유형 ④

##### 가. 일반 특성

현재 만 63세인 연구참여자9(남) 퇴직 후 주로 집에 기거하며 운동으로 소일을 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적인 면에서 안정되어 있으며 퇴직 후 생활에서는 과거 직장생활만큼 활기차고 의미있는 생활을 되지 않고 있음을 애석해 한다. 경제적 보상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람을 찾아서 일을 하길 원하지만 실제로 그걸 희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체념하였다. 동호회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산행을 다니며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응답자에게 있어 매일 매일의 일상이 무엇인가 의미있는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이다. 배우자와 지내는 시간이 늘었음에도 활동 반경이나 취미가 달라 함께 하는 일이 별로 없다.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9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 연금과 월세 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매년 30~40일씩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가지고 생활하여 보니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도 중요하다고 느끼며 노후준비의 대책으로 실거주용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집안 살림 전반에 대한 경제 상황은 배우자에게 일임하며, 응답자는 용돈 및 취미와 관련된 지출, 세금 관련된 지출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부족하지는 않지만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어요. 필요한 돈은 평소에 집사람이나 나나 남이 보면 낭비라고 할까 이런 습관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 말년에는 경제적으로 수직상승했다고 할 정도로 봉급이 확 늘었어요. 회사를 옮기고,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적게 벌어들이던 공무원 시절에 벌어들이던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왔고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는 지금도 있다고 봐요.

부부 둘이 사니까 큰 돈 안 들어가잖아. 우환이 없고, 애기한테, 애들한테 받는 것도 없지만 애들이 어렵게 살아서 보태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난 그렇게 하고. 난 또 연금 한 개 정도는 내 용돈으로 쓰고, 다른 데도 약간 생기지. 생길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쓰고...

국민연금은 내가 쓰고 공무원 연금은 집사람이 쓰고.... 나의 지출 순위, 집사람의 지출 순위. 이원화 돼 있거든. 집사람은 그 돈 가지고 용돈 쓰고 가정살림 하고 나는 순수하게 내 돈만 쓰고 하는 편이죠.

여기서 (주택을 다세대로) 바뀌가지고 집세 월세 나온 것이 한 달에 한 150~200정도 나오거든요. 그것 없어도 지금 살아가는 데 지장 없거든. 현재 능력으로도....(예전 주택에)집에 있지 마당에 감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 윤치가 좀 있었죠. 지금은 마당 없어지고 우리가 생활공간이라 할까 반은 실내 공간은 커졌지만 바깥마당이라든지 감나무가 없든지 그런 면에서는 한 쪽으론 피해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괜히 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9는 현재 고혈압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운동은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고 있으며 혈압관리 등을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

다섯 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반포대교를 왕복하죠. 그러면 집에 오면 여덟시 조금 넘어요....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운동하죠.

혈압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염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채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야구르트를 만들어 먹거든요. 그거 채소하고 야구르트 드레싱을 사용해가지고 채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죠.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엔 마누라가 챙겨주면 좋은데, 지금은 챙겨주고 있지만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하나까 마지못해 해주는 경우가. 오래 되니까 습관화가 되긴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 라. 사회참여적 특성

연구참여자9는 현재 지내는 일상이 바쁘고 활기차지 못함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을 타파하고자 먼 여행을 떠나서 매일 걸어야 하는 일과를 만들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 1박2일로 소모임으로 등산을 가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중학교 친구들과는 비정기적으로 2~3인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참여자에게는 비정기적으로 있는 사교모임보다는 일상적인 하루가 바빴으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문화생활, 종교생활, 평생교육적인 면에서 참여는 하고 있지 않았다. 하루 중 TV 시청 및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다른 약속이 없으면 일과는 주로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배우자와 행동반경이 다르고 공통분모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것을 지금에 와서 조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참여 면에서 지금 현재 희망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서 사회생활을 하였으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단 여행에서 큰 의미를 찾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만하다.

집에 있을 때는 별로 의미 없는 생활의 반복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도보 순례)가서는 뭐냐면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모레 걷고 계속 걸어요. 그래서 걷는데 상당히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먼 곳으로 왔다 성취감으로 변해요... 거기서는 뭐냐면 오늘 걷고, 내일 걷고 계속 고생처럼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거지. 내일 어디 간다는 얘기지. 근데 집에 여기 있으면... 평일이면 아까같이 '야 누구 불러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런 거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어야 되는 일. 그런 일이지요.

여행 자체를 좋아하니까 계속 나가는 거고 아까 말했지만 내일의 할 일이 있어. 그게 큰 거죠. 내일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데 오늘은 저기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내일에 할 일이 있냐 이거죠. 딱 정해진 건 없어. 밥 세끼를 집에서 먹겠지. 그게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이랄까 그런 게 아니죠.

(사회복지 법인 이사회)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정기적으로는 요새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단든지 하는데 그건 조금 뜬해져가지고 정리되어 가는 단계니까...주로 사회활동은 사회복지법인 나가고, 주로 그거네요.

(배우자의)생활공간이 여기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다녀도 아는 사람들. 거의 안 붙어 있어요, 집에. 거의 아침밥만 해 먹고 나가면.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집을 지키는 형편이죠. 과거하고 반대가 되 버렸지.

여태까지 내가 직장생활 관두고 놀면서도 간간히 일을 좀 했거든요. 일 할 수 있는 거 학교 수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일 해봤고. 그 때도 연결 되면 했을 것인데, 연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했고... 그래서 내가 가능하다면 사회생

활을 할 수 있으면 내 수준에 맞는 거 하고 싶은데 자리가 안 나타난다 생각 하고 있고, 약간 껍껍하다란 생각도 있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 마. 노후준비 특성

연구참여자9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안정적이고 큰 우려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단, 퇴직 후 일상의 무료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배우자와 공통 분모가 없이 주로 혼자 집에 있으므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보다 거시적이고 의미있는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자 소망하고 있다. 현재에는 취미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노후 준비는 퇴직 이전부터 실행에 옮겨서 어려움이 없다. 단, 배우자와의 관계 면에서 은퇴 후 관계 재정립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다. 사회참여면의 기회 제공이 확대되었으면 희망하고 있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없단 말이지. 어려운 거 없지만 사회생활 꾸준히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몇 년 동안 학교에 나갔었고, 학교 보안관 해보니까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주말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활에도 안정감 내지 정신적으로 낫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할 만큼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제한되어 있고, 현실에 묻혀 버리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면 아까 말한 노년들의 취업이랄까요.

저 사람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내 의견을 나한테 맞춘 거지.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경우는 성질도 내고 짜증도 내가지고 집사람이 더 이상 통제해봐야 되지도 않고 내비두는 게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4	5:30	6 ~ 7:30	8	9 ~ 11	12:30 ~ 13	14 ~ 15	16 ~ 17	18:30	19 ~ 21	22	23	24
행동		기상	운동	이침 식사	인터넷 사용 신문 읽기 여행카페 방문 신상품 검색	점심	인터넷 검색	TV 시청	저녁 식사	TV 시청	취침		
사람			혼자	배우자와	혼자	혼자 차려머슴	혼자	혼자	배우자와	혼자			
공간	집		자전거 타고 반포대교 왕복	집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일하고 싶은 욕구, 의미있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li> <li>- 현재의 삶이 할 일이 없는 상태라고 여기며 남은 시간을 곤혹스러워함</li> <li>- 배우자와 함께하는 일은 없고 혼자서 집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음</li> </ul>												
주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손자녀를 맡기고 일하러 가면 배우자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아줌</li> </ul>												
월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달에 한번 중학교 동문회 소속 신약회 모임</li> <li>- 직장 동료들과 만나 간단히 점심 함께 함</li> <li>- 한 달에 한번 지방으로 1박 2일 산행</li> <li>- 사회복지 법인 이사로 한달에 한번 가량 회의 참석</li> </ul>												
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년에 한번 해외여행 (순례자의 길)</li> </ul>												

## 5. 유형 ⑤

### 가. 일반 특성

현재 만 66세인 연구참여자10(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독거노인이다. 연구참여자는 이혼 후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해 왔는데 과다하게 몸을 쓰는 일을 오래 하였더니 건강에 이상이 와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집세 납부 및 의료기기 이용료 등으로 매달 빠듯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으며, 친구 및 친지들과 관계도 소원해져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기 위해 고생을 한 바 있다. 현재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국가에서 우선권을 주어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최근 복지관에 등록을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복지관까지 가는 대중교통 이용료 및 친목활동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대비용 때문에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10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수급을 받고 있다. 그동안 강도 높은 근로 활동을 주로 하여 몸이 많이 상하였고, 건강 악화로 근로를 중단하게 되니 경제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 지하방은 참여자가 파산신고로 인해 집을 얻을 수 없자, 친구 이름으로 얻어주고 살게 해 주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하여 힘든 점을 토로하였고, 앞으로도 주거비가 계속 나가는 점이 어렵다고 하였다.

수급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데, 정부에 집을 임대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병원도 자주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아픈데 어떻게 해? 혼자 불을 키고 있으면 여기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 서글프고 그래요 사실.

내가 여기서 방세를 내고, 수술 받아 가지고 와 있는데, 한 달만 밀려도 난리가. 수술비는 정부에서 돈을 좀 대줬으면 좋겠는데, 얼마 내라는 거지. 보조기 값도 20만원이에요. 분납을 해서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집세 내야 되지, 집세만 내도 안 되잖아. 관리비, 또

어제는 수급비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집세 넣어주고, 집세, 보조기 값 이것을 분납을 한다 해 가지고 보조기 값을 냈어요. 또 주택공사에서 2만원 씩 주택연금 그거 부으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은행가서 내고, 그거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 때 주사도 외상으로 맞았으니까 오늘 가서 4만원 줘야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어서 3만원 밖에. 3만원 우선이라도 가져다 줘야지. 주사비 가져다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프죠.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10은 최근 척추 관련 수술을 받았고 신경 계통의 약도 지속적으로 복용 중이다. 수술 후 재활을 위해 간단한 운동을 하고 있고 의료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 중이다. 건강이 악화된 계기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 수술 후 퇴원한 후에도 간병을 해줄 지인이 없음을 속상해 하였다. 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양음식을 먹어야 할 형편인데도 간단한 끼니 해결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설명하여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당부분이 경제적 불안에서 오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네, 10년을 남의 집, 빌딩을 청소하고 이려다보니까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신경외과 선생님이 이번에 수술하면서 사진 찍어 보니까.

이거 수술해서 수술하고는 많이 걸으라고 해서...동네 한바퀴. 한 30분? 30분도 못 돌죠. 이리갔다 저리 갔다가 혼자 돌아다니다 들어와요.

여기 와서 누가 정말 곱탕이라도 끓여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나 먹지도 못하고 수급비에서 방세 나가고...

잘 먹지를 못하니까 퇴원해가지고 와서 독소가 남아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남아있는 데다가 좀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는데다가 돈이 어제처럼 남았으면 밥이라도 사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와서 아무것도 없지. 먹을 게 없어서 진짜 라면 하나 사와서 끓여먹었어요.

(수술은) 다 끝나고 지금은 신경정신, 불안증으로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가서 수면유도제를 먹고 자요.

## 라. 사회참여적 특성

연구참여자10은 인적 관계망이 대체로 단절된 상황이다.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은 없다고 하였고 그나마 왕래가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은 이웃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라고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로 집에서 누워있거나 쉬면서 TV 시청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후 8시 반경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모임 안 가죠. 저는. 사회에 나와서 보면 여자들이 좀 다 그런 것 같고... 엄마들이 아들 잘 키워놓은 엄마들은 생활력이 좋아가지고 원래 있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데, 없어가지고 아들 키워서 아들들이 잘 된 분들은 수다를 많이 떨고....(교류를) 안 해요. 배울 게 없고. 옷이나 사 입는 거 자랑이나

하고...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쇼핑하는 사람들 안 따라 다녀요. 몇 번 따라다니다 보면 여자니까 하고 싶어. 그리고 할머니들, 우리 나이 대에서는 홍보관 많이 가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따라 다닐 수가 없어서 안 가고. 외로워도 혼자 침대 드러누웠다가 한 바퀴 돌다가 나는 이렇게 누워서 정부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겠다. 집세라도 내주니까.

그냥. 복지관 갈래도 00까지 마을버스 타고 가야하잖아요. 그러면 1600원이예요. 9백 얼마인가, 1600원이지. 이거는 지하철처럼 공짜로 안 되잖아. 지하철은 안 되고. 근데 나는 진짜 힘들어요. 1800원 내야 되지, 거기 가서 또 보면 여사님들 거기 오는 분들이 계시면, 옷도 옛날 꺼 10년 된 옷을 입어야 하니까 등록은 해놨는데, 집이 여유가 없어서 마음으로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 마. 노후준비 특성

연구참여자10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경제적인 부분은 이혼 후 계속되는 생활고 및 사기당함, 파산신고 등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된 부분이 있고 건강적인 부분은 고된 육체 노동을 오랫동안 지속하여 건강에 무리를 끼친 형태를 보인다. 인적 재정적 자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거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였다. 현재 희망하는 사항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였고, 여가 및 사회 참여 활동의 제약도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 나는 정부에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 집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지. 이거 내고 나니까 수술 받고 나오고 수술 받을 때 혈압에 불안증 있지, 약 먹고 자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 낮에는 혼자 맛있는 거 해먹을 돈도 없지. 진짜 텔레비전에서 맛있는 거 나오면 다른 데 틀어버려요.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5	6	7	8	9 ~ 11	12 ~ 13	14 ~ 16	17	18 ~ 19	20	20:30	10	11	12
행동		기 상	TV 시청 장소	동 네 한 바 퀴	은행 불 일을 봄	점심(국수)	침 청소	동네 한바퀴	저녁식사 (점심때 남은 국수)	씻고 TV 시청	약 복용	취침		
사람	환자													
공간	집	집	동네	차비를 아끼느라 면 거리까지 걸었음	집	집	동네	폐지 줌는 이들과 답소	환자	집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심한 경제적 압박으로 아무런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함</li> <li>- 이전에는 근로를 하였지만 병으로 근로를 중단하니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함</li> <li>- 수술시 보호자란에 사인해 줄 사람이 없어 고생할 정도로 관계 단절을 경험함</li> <li>- 하루중 가장 좋은 시간은 취침 전 약 복용할 때라고 함</li> </ul>													
주말 특성	- 주중 주말 다른 집 없음													
월별 특성	- 수급비 받는 날은 빚 갚는 날이어서 짐세, 의료보조기 대금, 주택연금 등을 내러 은행 방문													

### 제3절 70대 유형별 제특성

#### 1. 유형 ①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11은 만 75세의 남자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한 후 2000년에 정년퇴직을 하였다.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성장기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여 유복하였으나, 6.25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하여 사립 고등학교 영어교사라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 또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거의 술자리에 안 가고, 건강관리를 하고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엄격함에는 유년기의 경험과 더불어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1의 하루 일과는 5시 30분에 기상하여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 운동을 하고 점심 식사 후 노인복지관에서 영어강의를 하는 화목과 그렇지 않은 수요일과 금요일로 나누어진다. 월요일은 군 동기와 보여서 대공원을 돈 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는 모임사무실에서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낸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즉 매우 규칙적이며 치밀하게 짜여진 생활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11은 평생 교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인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내가 돈에 그렇게 구애 받는 건 아니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 객관적으로도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집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받는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불안했던 시기도 있었다. 일시금으로 받은 돈으로 집을 한 채 사서 전세를 받고 있는데 초기에는 ‘선생하는 것 보다 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다. 물론 세입자가 나갈 때마다 새로운 세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 여유의 문제이다.

연금 내가 탔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을 조금 잘못하기를 내가 그 당시에 63세에 나오는 거니까 대개 나오고 2~3년 후에 다 죽터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시불 타가지고 한번 뭐 좀해보자 그런 생각도 있고, 애들 돈 좀 줄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일시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금이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야. 살기가 좀 막막한 거야.

방에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들어오질 않아. 지난번에 한 6개월은 그냥 빈 거야. 한 달에 40만원만 받아도 6개월이면 사육 이십사, 이백사십만원이 그냥 나간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 했죠.....

70대는 노후설계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던 세대라는 점에서 연구참여자11은 본인이 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준비까지 했다는 점에서는 선도적이라 하겠다.

저는 퇴직할 때 벌써 퇴직하면 뭐할 거냐. 제가 운전엔 취미가 있어가지고 운전하려면 회사 택시를 운전하려면....(4번 만에) 합격을 한 거야....

그러나 현재는 설계하고 준비한 것과는 달리 자신의 전직을 살린 일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요청에 따라 영어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영어강의를 하는 것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본인의 노동력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수가 적어서 거절하다가 시작한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강사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 원래 사실 20만원에 세금 떼요. 그건 월급도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안한다고 버텼어요. 하나하나 야나 사실.....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거기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가르친다는 건 사실 쉬우면서 어려운 거거든.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60세 이상 가르치려니까 심리적으로 부담도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적응이 되니까 그게 잘 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이게 칠팔년이 지난거야.  
(일자리 사업에서) 20만원에 세금 떼다는 건 사실...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11은 퇴직 후 관상동맥을 경험했지만 조형술을 실시하였고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 매일 남산을 도는 아침운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전에 탁구, 테니스, 기회 있을 때 마다 실시하는 맨손체조 등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고 흡연을 하고 있지 않고 절도있는 음주행위를 하는 등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주변인들의 죽음은 반면교사로 작용하여 건강행위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신경 쓰고 건강관리도 좀 더 많이 하고, 책도 좀 많이 보고. ..저는 거의 술자리에 안 가거든요.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건강관리 하고

학교생활 할 때 보면 끝나면 술 마시고 말이야. 열시 열한시까지. 몸을 버려 놓은 거지. 이게 벌써 퇴임하면서 암에 걸려 죽고 그러더라고

반면, 7년 전부터 머리의 뇌출혈로 인하여 한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아내의 건강상태는 연구참여자 11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원에 3개월에 한 번씩 함께 가서 진료를 하고 약을 받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은 본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부부동반 모임에의 참여가 축소되었고 운동도 혼자 할 수 밖에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아침운동을 남산에서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이용하여 찬송가를 들을 뿐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 운동은 단지 나의 건강을 위한 건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혼자 다니고 하니깐 가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누구하고 말동무가 있는 게, 사실 나이 들면 더 하잖아요.

자녀와의 관계의 경우 여느 중상층처럼 자녀에게 많은 인적자본에 투자를 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자녀가 중상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생활에 매몰되어 감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에, 무슨 때가 되면 생일이라던가 추석이라던가 그럴 때는 꼭 만나고 그 외엔 잘 못 만나죠. 왜냐면 자식도 품안에 자식이지만 일단 출가 해 놓으면 남이다 그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해요. 처음에는 잘 오다가 자꾸 거리가 멀어져.

## 라. 사회참여 특성

연구참여자11은 비교적 잘 조율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에 영어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가 없는 오후에는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중요한 참여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취미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탁구와 바둑이 그것이다. 탁구의 경우 복식 대회에 나가 1등을 함으로써 삶에 있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바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로 교회의 부속 건물에서 바둑을 두고 있다. 탁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미활동을 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월요일에 군대동기와 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운동과 취미 활동(바둑)을 하고 있다. 이는 군대동기가 공유하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동일 지역에 오래 살고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연대감은 낮은 편이며, 이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기 때문으로 본 사례의 삶의 중심은 교회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녀가 삶에 있어 실제적인 중요성은 많이 낮다. 퇴직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딸의 주택 구매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방문 등은 무슨 때만 이루어지는 등 계속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4	5:30	6	7	8	9	10 ~ 11	12 ~ 13	14 ~ 17	18	19 ~ 11	23	24
행동		기상	운동	운동	아침 식사		월:산책 화:금 탁구	점심	월수금: 바둑 & 나머지 시간은 강의 준비 화목: 강의(영어)	저녁	(특별한 언급 없음. 아마 TV 시청, 책 읽기 등)		
공간	집		남산	남산	집		대공원	월, 화, 목: 외부	월: 군동기 사무실 수금: 교회의 별도 사무실	집			
사람				혼자			교회의 별도사무실	수금: 집	화목: 복지관 강의 준비는 집				
							월: 군동기	월: 군동기	월: 군동기	배우자			
							화:금: 교회의 탁구동호회	수금: 집	수금: 바둑 동호회 (주로 교회 이용자)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 바쁜 생활: '성공적 노화' 담론의 상실한 구현자 - 집-운동-복지관-강의-교회												
주말 특성	- 토/일: 하루 종일 교회 (6시 강론 청취부터 시작)												
연 특성	- 2달에 한번 퇴직교사 모임(부부동반) - 연 1회 육군회관 파티 - 자녀방문은 명절, 생일 등 (월 1회 미만의 방문) - 배우자 진료를 위하여 3개월 1회 병원 방문												
비고	- 저녁시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음												

## 2. 유형 ②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12는 74세의 여성으로 대구의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으나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후 데릴사위로 들어온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약 10년의 결혼생활 후 헤어졌고 그 때 3남매도 남편에게 준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서울에서 사업 등을 하다가 사체를 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약 10년 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었다.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외견상 '우아한 중산층 할머니'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자12의 하루 일과는 4시 30분에 기상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도 후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본 후 귀가하여 식사를 하고 노인복지관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귀가하여 저녁식사 후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주말에는 성당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일정이다.

### 나. 경제적 특성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받는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으로 1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이웃의 이보다 적은 아파트에 비하여 살만한 공간으로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제한되어 있어서 식생활도 간소하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는 임대... 참 도움 많이 됐어요... 15평이고, 내가 살기에는 너무 충분하죠.. 근데 11평 짜리는 나는..숨이 콕 맥히는 거 같아요. 죽을 것 같애. 00은 11평이더라고예.

조금만 더 여유만 있었으면 좋겠고만은... 이거 대출받기 전에는 13만원 돈 월세로 나가잖아요. 공과금 한 10만원 나가거든요. 전기, 경비 월급까지 해 가지고 나가고 이러면 쓸게 없어, 사실. 그리고 정부미 한 2만원 주고 한 포대 20kg짜리 받으면 몇 달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먹고 사는데, 부식이, 병원비 이런 거.

항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름철에는 미숫가루 한 봉다리하고, 미숫가루를 한 봉투 하고, 탄 거 반찬 떨치라든가.

주위에 소소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가끔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비정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로 의존하기 보다는 가끔 삶의 숨통을 틔어주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수준에 비하여 주는 돈이 적기 때문에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다. 사적 이전소득은 실제적인 도움과 그런 사실이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친구들, 동창들 너무나 잘 살아서 나는 안가에. 다 강남, 강00라 하는 개는 강남에 400평, 500평 저택이에요.... 너무 존심 상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00하던 동생은 돈이 제법 있는데도 그렇게 뭐, 한 10만원, 20만원 정도지. 돈 100만원 해 주면 우리 허리가 휩 퍼질건데. 있는 놈이 더 무섭다더니 그렇더라고예.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12는 현재는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치아가 좋지 않아서 집에서 보리밥을 해서 먹고 있다. 그러나 저혈압,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한 경험은 있지만 현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다리 협착증(20년 전부터)과 장 협착증을 경험(약 한 달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난 거지. 막 위경련이 일어나더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갔더니 그래가지고 26일 만에 나왔나?

저는 버스 안에서 사고 나가지고예. 참 고생했어요, 한 3년. 여기 수술했어요. 인대가 나가가지고.

혈압에다가 갑상선.. 내 먹는 것도 혈압약하고 갑상선 저하 신지로이드하고 장 이것도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 그건 전부 독이잖아예. 그래서 저는 육류도 여기서 주는 것만 먹어요. 그거 살 여력도 못 되고, 사먹을 여력도 못 되고.....

즉 70대가 되면 어떤 것이던 간에 건강상의 문제는 갖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가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여부이다.

## 라. 사회참여 특성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자기 계발과 표현에의 욕구가 강한 편이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았을 적에는 숙대

평생교육원에 다닌 적이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활기차고 의미있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군자, 서예, 다양한 외국어 학습, 방송반 활동,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즉 경제적인 지불 능력은 없으나 갖고 있는 욕구 충족에 노인복지관 이라고 하는 공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아이를 좋아하여 '이야기 할머니'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떨어진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크다.

속대 그 때 평생교육원을 한 4년 다녔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 동문들 하고 교수님들 가는 틈바구니에.. (해외여행을 함께 갔어요)...교수님들하고 나이 아가라도 가보고, 미국에서 보면 나이가가라 직선이잖아요. 캐나다에 가면 말굽 그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연극부에 보면 000라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라고 있어요. 안동에서 주최하는 건데 문화관광부에서 저걸 하고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이번에 신청했어요. 신청해가지고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거는 한 5~6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거 있으면 이걸(=기초보장급여) 못 받는 거예요. 나는 무료로 봉사하려고 그걸 한 거예요.....그런데 굉장히 속상해요.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한 복지관을 통한 여가활동이나 복지관 직원이나 이용 노인과의 교류 외에는 다른 관계망은 매우 취약하다. 주말은 성당 미사와 동네 친구들과의 친교를 하고 한 달에 한번 고전무용반 회식을 하며, 연중 비정기적으로 형제자매, 동창과의 모임 있는 것이 유일한 사회적 유대이다. 또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에 간 적이 있었으나 최근 10여년 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행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찍 이혼하고 자녀와도 연락이 두절되어 있으며 고향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있는 상황이다. 그들과의 생활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감대도 협소하다.

복지관 식구들이 제일 좋아요. 여기 000팀장 보면 용기가 나는 거야. 너무 좋아.

또한 이성애에 대한 나쁜 기억은 자연스러운 이성간의 교류자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 때만 해도 저걸(컴퓨터 게임) 했는데, 뒤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뒤에 드가 앉았더니 짝꿍이 남자새끼야. 난 남자라카면 인간으로 안 봐져.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파트 하나 내 이름으로 해 주고, 그 분이 아파트를 몇 개 갖고 있나봐요. “니 앞으로 아파트 하나 해주고, 영감저 하나 있는데 거 들어가가지고 그 집 생활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떠냐?” 그러더니 “형님 너나 가라잉.” 그 소리하면 제일 존심상하는 거야 나는.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2	3	4:30	5	6	7	8 ~ 9	10	11	12	13 ~ 17	18	19 ~ 21	22	23	24
행동				기상	기도	미사	귀가 식사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복 지 관	점심	복지관	저녁 식사	의미없는 시간 보내기 가사일	취침		
공간	집								복지관				집				
사람					혼자				혼자				혼자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자원을 활용한 - 종교생활과 복지관 이용을 통한 자신의 삶의 구조화</li> <li>- 형제, 친구: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한 별/ 이웃과는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가끔씩 지내는 사람 있음</li> </ul>																
주말 특성	- 성당																
연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및 회 형제자매와의 접촉(대구,포항에 사는 형제자매 방문)</li> <li>- 옛날에는 피정, 가끔 여행도 하였으나 현재는 전무</li> <li>- 가끔 친구와 만남</li> </ul>																
비고	- 풍요로웠던 성장기가 자신을 개발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고 있음																

### 3. 유형 ③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13은 진주에서 교직생활 퇴직 후 서울에 올라와 대학원 진학 등으로 지속적인 자기계발에 힘썼으나 골절 및 파킨슨병 발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주간보호시설을 이용 중인 75세의 남자이다. 1남 3녀를 두고 있으며 3녀는 모두 결혼하였고 현재 부인과 미혼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생활은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일정에 연동되어 있다. 송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6시에 기상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9시에 버스를 탑승하여 9시 30분쯤 주간보호시설에 도착하게 된다. 주간보호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식사를 마치고 19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다.

#### 나. 경제적 특성

교직생활을 했기 연금을 받고 있고 배우자가 방과후교실 교사로 일하고 있어 한 달에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유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였고 활발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2채의 집중 거주하던 1채를 팔아서 아들 사업자금에 도움을 주고, 아직 미혼인 아들의 집으로 합류하였다.

경제상태도 양호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돈을 벌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당당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

네. 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돈을 지금이라도 나는 움직이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다만 많은 돈 아니래도 지금은 했으면 하는 게 내 계획인데...(연금 꽤 받으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욕심은 안 그래요....아무것도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왜냐면 제가 보기엔 나이가 들수록 돈 없으면 불쌍해요...

더불어 자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능한 한 소득을 창출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아들한테는 의지를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금도 눈을 비춰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13은 퇴직 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6년 전 발병한 파킨슨병과 기능제한으로 인한 '집과 주간보호시설(5년 전부터 이용)'을 쫓바퀴 돌 듯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즉 신체적 의존성을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화되지 않은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13은 '표준화'되어있다.

월 1회 병원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동시 부인이 함께 하고 있다. 즉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을 절대적이라 하겠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도 배우자를 통해서였다. 연구참여자13의 노년기 삶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고마움을 재발견하게 된 경우이다.

더불어 대화 속에서 의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신체적인 제한이 불러

은 결과일 것이다. 또한 신체적인 의존성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율성 약화를 받아들이는 관조적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파킨슨 병이 생긴지는) 한 6년 쯤 되죠.... 불편보다도 먼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 라. 사회참여적 특성

은퇴 전에는 로터리 클럽 활동, 다양한 해외여행 등 매우 활동적인 사회활동과 여가문화활동을 영위하였고, 은퇴 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지속적인 자기계발에의 의지가 강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행동의 제약 발생하여 계획한대로의 사회참여활동을 하고는 있지 못하다. 그러나 교회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연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긴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인의 삶에 대하여 해외여행을 '다닐 만큼 다녔다'라고 표현하여 여한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여러 시계가 있지만 김영삼 시계만 차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나의 삶이 사회적 인정을 받은 삶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자신의 가족을 다시 둘러볼 기회가 되었고,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엄격한 아버지였음을 반성하고 자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집사람이 잘 해줘요. 그게 고마워요. 딴 사람보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표현하기 어색하지만. 남자들은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현재의 주간보호시설에서의 주중의 생활이 가져오는 단조로움과 동료 노인들과의 유대의 부족을 토요일마다 딸들이 방문함으로써 삶에 활기를 부여하고 있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단조로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하여 즐겁다는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여기(주간보호시설)는 딱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침에는 와서 제조를 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음악 공부, 음악 놀이를 한다, 세 번째는 이 뭐라고 하나. 손으로 하는 .

주로 복지원(=주간보호시설)에 오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 내 같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가봐. 그리고 뭐가 나사가 빠진 사람 같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서 언어가 안 통해 잘....

토요일날은 좀 쉬고, 손녀들도 있으니까 같이 놀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주일 날은 교회에 가고.

더불어 삶의 활기와 의미부여에 있어서 종교생활은 연구참여자13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주말마다 교회에 가서 종교활동과 사교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6	7	8	9 ~ 9:30	10	11	12	13 ~ 17	18	19:30	20:20	21	22:20	23 ~ 24
행동		기상	식사	주간보호시설 버스탑승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주간보호시설 점심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주간보호시설 저녁	출발	집 도착	정리 하고 뉴스 시청	취침		
공간	집	집	집	버스 안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집	집	집	집
사람			배우자 아들			이용노인과는 직원.	이용노인과는 실질적인 교류 없음					배우자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 집과 주간보호시설을 오가는 잦바퀴 생활													
주말 특성	- 그러나 주말생활은 풍요로움: 토요일: 가족 방문/일요일: 교회													
월별 특성	- 월 1회 병원 진료													

#### 4. 유형 ④

##### 가. 일반 특성

본 사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아도 불안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만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79세의 여성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발랄하고 깔끔한 성격으로 판단된다. 현재 자신소유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결혼한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마포지역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유복한 생활을 하였으나 결혼 후 남편의 가정폭력 행사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였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2번이나 큰 부상을 경험한 바 있으며, 남편이 동사무소 근무를 그만두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여 친정 재산까지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남편이 매우 이기적인 성격으로 빨래, 식사 등도 모두 혼자서 하여 한지붕 남남으로 생활하였다.

현재는 2년 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남편과의 감정적 유대가 없어서 불만은 없지만 혼자 생활하는 것이 가져오는 쓸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불행한 결혼생활의 여파로 10년 전부터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아침 7시에 기상하여 아침식사 후 의미없이 TV를 보다가 가끔 경로당에 가는 것이 일상이다. 저녁 식사 후에도 TV를 보다가 12시경 잠자리에 드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이 때 짬 수면제를 먹고 수면을 취하고 있다. 자녀도 행사 때만 만나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의 생활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

## 나. 경제적 특성

남편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본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청소부 생활을 한동안 하였는데 성실한 태도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고 모아둔 돈으로 자녀의 결혼비용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장남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자를 출산한 후에는 살림을 도와주면서 생활비를 받는 생활을 하였다. 지금의 집을 마련할 때도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가능했음을 강조하고 따라서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느낌을 전하고 있다.

(어렸을 때) 고모가 “00이가 남자면은 한가닥 했을 텐데.”..(라고 했는데)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고 자녀로부터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 다. 건강상태 특성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하여 심리적 손상을 받았고 이는 불면증과 이로 인한 수면제 복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 지나간 과거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영감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진짜 말도 못하게 받았어.

(왜 좀 더 일찍 안 주무시고 열두시까지 계세요? 라는 질문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그것도 진짜 수면제 반 알을 먹어야 자.

그러나 누구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남편의 폭력행사에 대하여) 우리 아들도 알지. 저희들 총각 때도 날 때리고 이러는 걸 보고 어렸을 때도 때리고 이러는 걸 봤으니까 알지. 알아도 결혼하고 나서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 자식들한테는 안 되더라고. 딸한테는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왜 그래요? 어째요.” 와서 그래도 그러지만. 며느리는 남이야, 아무리 잘해도 남이야

식사도 세 끼를 먹지 않고 아침 9시경에 반공기만 먹고 저녁 6시쯤 점심 겸 저녁을 먹는 등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건강을 위한 특별한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걷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저 남보다 좀 걷는 편이지 내가. 그냥 계속 이렇게 죽치고 앉았어도 안 되니까 왔다갔다 걷는 편이지. 딱 건 없어.

큰 건강상에 문제는 없지만 약을 잘못 복용하여 응급실에 간 적이 있으며 회복하는데 시일이 걸렸고 그 이후 자녀들이 약복용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약물 소변, 대변 다 보고 인사불성이 됐더라는 거야... 그게 혈압약, 또 무슨 콜레스테롤 약, 무슨 약, 무슨 약 그게 합쳐졌다는 거야. 난 그대로 먹고 그랬는데, 약에 지쳤다는 거예요,

## 라. 사회참여 특성

연구참여자14의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루하다는 것이다.

아주 제일 괴로운 게 저녁에 잘 시간까지 아주 너무 지루해. 저녁에 식사하시고서 아까 한 여섯시쯤 식사 하시면, 하고서는 그냥 드러누웠다. 앉았다. 텔레비하고 씨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두시를 채우려면 환장하겠어.

이는 연구참여자14가 특별히 즐기는 취미생활이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복지관에 간 적이 있지만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노인정도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의 가지 않는 등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

복지관에도 그 때 갔었어. 갔었는데 버스 기다리려면 이것도 힘들고. 간들 노인대학이라고 가니까 노래, 처음에 나 갈 때만해도 강의 선생이 재미가 없어.

지금 나갈 생각도 안 해요. 앉아 텔레비 봐. 드러누웠다 이래가지고. 한시 가까이 되면 슬슬 노인정도 갔다. 그렇지 않으면 딱 친구네도 갔다가. 그리고 저녁 때 여섯시쯤 와 가지고 저녁 먹고.

노인정은 갈 데가 못 되더라고 내가 봐도. 다들 그냥 이해력이 없어.

또한 가족과도 소원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의 무료함을 덜어줄 수 있는 정도의 방문과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 작은 아들이 바쁘니까.... 꼭 무슨 때면 만나지.

##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6	7	8	9	10 ~ 11	12	13 ~ 17	18	19 ~ 24
행동		기상		아침 반공기	무의미한 TV시청	잠심 (가꿈 경로당)		저녁식사	무의미한 TV시청: 잠이 안 오므로 후 12시경 수면제 복용후 수면
공간	집								
사람	혼자		혼자				가꿈 동네 친구		혼자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의 집에서 생활, 아파트 주병과 경로당 이용 간헐적: 길지만 무표한 하루</li> <li>- 가꿈 친구와 집/경로당을 방문하여 대화</li> </ul>								
주말 특성	- 자녀와는 무슨 때 접촉(비상시는 항상 연결 가능)								
월별 특성	- 월 1회 병원 진료								
연 특성	- 복지관, 독거생활지도사 방문: 그러나 적극적인 활용 의사 없음								
비고	- 긍정적, 자립적 성격이나,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수면제 복용								

## 5. 유형 ⑤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15는 78세의 여성으로 서울의 유복한 집안(양조집)의 딸로 태어났으나 결혼의 실패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였고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혼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핸드폰도 없이 집전화만으로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전화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는 정확한 정보 제공 능력이 떨어지며, 이는 지적 능력보다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생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면으로는 대화가 가능하였다. 일상생활을 구분하게 하는 사건이나 활동도 없고, 연구참여자15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어 하루의 일과나 주간, 월간, 연간의 일과라는 개념자체가 없는 단지 파편화된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엄마같이 잘한다는 봉사자, 명함을 두고간 보건소나 독거노인돌보미 등이 있지만 이들의 관심이 연구참여자15의 삶에 활력으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빨래 같은 건) 저 복지회관에 있는 사람이.... 엄마 같이 잘해. 엄마 같이 얹전한 사람 없대. 이름은 000.

### 나. 경제적 특성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받는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으로 매우 환경이 열악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아주 오래된 TV와 깨끗

하기는 하지만 재래식인 화장실이 방 옆에 붙어 있고 지상이기는 하지만 집에는 햇볕이 많이 들지는 않는 구조이다.

자녀와 단절되어 있어 사적 부양은 전혀 없으며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않으며, 반찬배달서비스 등의 민간으로부터의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옷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옷은 옛날에 사둔 걸 그냥 입어.

#### 다. 건강상태 특성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활기는 없는 편인데 이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고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가 많아 아픈데도 하도 많으니까....우유에다 밥 한 끼 먹어.

평생 동안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남아 있고, 이는 수면제 복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우울하다는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아침에 몰라. 수면제 먹으니까....오래 됐어. 병원에서도 “많이 잡수지마세요.” 그래. 알았다고. (속상한 일 있으셨어요? 수면제 드시고) 마음이 우울해요.

## 라. 사회참여 특성

현 거주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유대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은 소수이다. 연구참여자15의 집을 찾아준 90대의 할머니만이 가끔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인데 이도 그 할머니가 연구참여자15를 찾아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동네에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안 다녀요.... 이 형님(연구참여자15를 안 내해준 90대 할머니) 밖에.

이는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이 마음 깊이 남아있기 때문 일 것이다. 또한 두 아들도 키웠지만 전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는 허무함도 작동을 하고 있고, 모았던 돈을 계를 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경험도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난 아무 이름도 모르고, 몰라요.

이 얼굴 다 맞아서 이래요. 구르마 한번 못 발라 봤어. 서른여섯에 순경이, 동네 사람이 저 얘기 엄마 죽겠다고. 순경님한테 따라 나와서 도망 나왔어요.

두고 나와도 나를 찾아왔어, 지들이. 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키워가지고 장가보내고 낫더니 소용없어.

아파트 34평짜리. 그 때 계 했잖아요. 계 해가지고 돈 다 뺏겼잖아요.

또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배만 보고 식사도 하지 않은 채로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외부자원과 연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 못하다.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6	7	8 ~ 21	22	23 ~ 24
행동		기상		취침	
공간	집				
사람	혼자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날이 그날 같은' 생활</li> <li>- 식사도 한 끼만 하기 때문에 생활에 event가 거의 없음.</li> </ul>				
주요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요일 교회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보고 돌아옴</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의 집에서 생활</li> <li>- 공적 서비스 제공자의 방문 외에는 거의 방문 없음</li> <li>- 수면제 복용</li> </ul>				

## 제4절 80대 유형별 제특성

### 1. 유형 ①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16은 만 80세(1933년생)의 여성으로 자가소유의 집에서 배우자(만 83세)와 함께 지내고 있으며, 00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00 토박이이다. 배우자는 공무원 출신으로 정년퇴직한 상태이며, 연구참여자16은 약 40년 간 교직(초등학교)생활을 하였다(학력은 고졸).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모두 00시에 거주하고 있으며(연구참여자16가 거주지역이 같음), 두 아들은 제약회사, 공무원(00시청)에 다니고, 딸은 전업주부이고, 손자녀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등 전반적으로 평범하지만 어려움 없는 이 시대의 중산층의 삶의 모습을 보인다.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5시 정도에 기상을 한 후 신문을 찬찬히 읽은 후(사설, 정치, 스포츠 등) 배우자가 등산을 마치고 돌아온 7시~7시 30분에 함께 아침식사를 한다. 오전 10시 경에 물리치료를 받고 복지관에 가거나 복지관에 왔다가 오후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등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물리치료와 복지관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물리치료는 매일 받고 있으며,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은 교회활동(노인대학, 구역예배)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오지 않는다. 복지관이건 교회이건 활동 시 점심식사는 활동지역에서 12시에서 13시 사이에 하고 있다. 오후의 시간활용은 복지관에 오는 경우 14시 넘어서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15시 정도에 귀가를 한다. 복지관에서는 주로 한문반에서 명심보감, 시사문제풀이 등 배움활동을 하는데, 최근에(8월말) 갈비뼈를 다치기 전

에는 요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관에 가지 않는 화요일과 금요일의 경우 오후시간 대에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 있는데, 노래, 서예, 에어로빅, 공작, 성경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현재는 성경공부반에 참여하고 있다. 집으로의 귀가시간은 복지관과 동일하게 15시 정도이다. 귀가 후 집에서는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오전에 보지 못한 신문을 마저 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18시 정도에 배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저녁식사 후 배우자는 21시 정도에 잠에 들고 연구 참여자16은 연속극을 다 본 후 23시 넘어서 잠에 든다. 잠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TV를 켜고 보다가 잠에 든다.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13~14시에 귀가하고 나머지 시간은 TV를 주로 시청한다. 토요일에는 노인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한다. 본인의 삶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면, 남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무난하게 생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나. 경제적 특성

경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배우자는 공무원 출신으로 정년퇴직 한 후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16은 일시금으로 사학연금을 수령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상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저희들이 나한테 도와주는 건 뭐 큰 거는 없어요. 아픈 면 약 같은 거 삼 같은 것 사서 갖다 주고 그래요. 엄마(돈) 있다고 안줘. 명절 때 나 뭐 사오고... 중략... 아직까지는 생활은 내가 하고 애들은 조금씩 주는 거지.

또한 연구참여자16은 사학연금 일시금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사서 세를 주고 있으며, 나머지 일시금은 교원공제회, 은행에 넣고 이를 가지고 생활비 및 용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 타가지고 조그만 거 아파트 사 놓은 거 세 받고, 나머지는 교원공제회에 넣고 은행에 조금 넣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쓰는 거예요. 용돈 쓰고, 생활하고.

#### 다. 건강상태 특성

최근 8월말에 침대에서 낙상하여 갈비뼈 3개가 금이 간 상태이다.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그 밖에도 골다공증, 고지혈증, 관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낙상 사고 전에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운동을 했었으며,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걷기운동을 하려고 한다.

아침운동 00공원에 아침마다 나갔었어요. 평균 한 시간씩 걷기운동을 했었죠. 그 전에는 나도 00산까지 올라갔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00공원만 돌아요. 평지만 돌아.

(걷기운동) 그럼 해야지. 그건 꾸준히 하는 거야. 그건 해야 돼.

고지혈증, 골다공증과 관련해서는 00시(비거주지역)에 소재한 여성전문병원에 2~3개월에 1번씩 가고 있으며, 관절과 관련해서는 00시(거주지역)에 위치한 병원에 2~3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는데 모두 평일에 이용한다. 보통의 동 연령대와의 차이는 질병에 대하여 특정 병원을 찾아서 다닌다는 것이다. 또한 00병원(비거주지역)에서 약 1년 전에 어깨 수술을

하였는데, 종종 병원을 가고 있고, 치과는 과거 수년 간 다녔지만 현재는 가지 않고 있으며,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지만 병원에서 못 하게 하는 상황이다. 과거부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였지만,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건강)관리를 젊어서부터 히느라고 내 맘에는 굉장히 했는데, 그렇게 몸이 그냥 노화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안 좋은 데가 없어. 다 나빠.

## 라. 사회참여 및 관계적 특성

연구참여자16은 교사출신으로 많은 사적인 모임이 있다. 이들과는 영화를 보거나 음악회에 가고, 수영장을 가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대부분 교사 재직 시 같이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며, 모임 수는 5~6개 정도로 각 모임 당 한 달에 한번은 모이고 있다. 특히 수영장은 젊었을 때부터 해 왔기 때문에 혼자 가서 수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영장에 오는 일반인들과 어울리기도 한다. 또한 00여고 동창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글쎄 특별한 건 뭐 친구들이나 만나고, 같이 모임에서 가끔 영화도 보러 멍기고, 음악회 같은 거 하면 같이 그이들이 끊어오면 같이 가고. 수영장에는 여태 멍겼는데, 요새 내가 몸이 아파서 안 멍겼어요...중략... 거의 가 전부 선생님들이지. 반 이상이. 퇴직선생님들하고. 같이 직장에 있던 선생님들 많고. 주로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요러고 내가 있으니깐 그게 또 많아. 많은데 많이 즐겼어도. 한 달에 한번인데 그게 모임 하는 게 여러 군데니까...중략... 많이 전근 멍기고 그러잖아. 그럼 학교마다 모임이 있고. 또 동학년끼리 같이 모이자고 해서 모임 있고 그 다음에 퇴직한 선생님들끼리 맨들어 가지고 다달이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은 그래도 하면 한 여섯, 대여섯 군데는 넘을 거 같으네.

수영은 아쿠아를 주로 했었는데, 아쿠아를 안 하는 날은 자유 수영 때는 내가 혼자 가서 해. 수영도 젊어서 했던 거니까 하지. 수영장 가면 수영 일반인들하고 많이 하고 있지.

동창들 친구들 만나고 한 달에 한번씩. 같이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00여고.

반면, 복지관에 있는 지인 역시 교사 재직 시절 선생님이었던 사람들로 주변의 친구는 가히 교사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복지관 일반인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음). 동네 주민들과도 많이 어울리지는 않는다. 물론 고등학교(00여고) 동창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밖에는 교사시절 모임이 전부이다. 이러한 모임 역시 주로 평일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에는 여행을 자주 다녔지만, 나이를 들에 따라 현재는 가지 않고 있다.

(동네 주민 분들은 같이 많이 어울리세요?) 많이 어울리지는 못해.

여행은 지금 안 땡겨요. 70 넘고 나서는 안 땡겨. 60 전에 많이 땡겼죠. 여행을. 다른 친구들도. 대개 70대 넘고 그러니까 덜 땡겨. 그 전에는 많이 다녔어요.

자녀들은 모두 00시(연구참여자16과 거주지역이 같음)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끔씩 집에 온다(명절을 제외하면 따로 방문하고 있음).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회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 00시에 사는데 자주는 못 와요. 직장 다니느라고. 가끔씩은 오죠.

글쎄 뭐. 나는 다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애들은 나라가 경제가 나아지고, 복지제도 자꾸 좋아지니까 기냥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렵게 살았지만은.

## 마. 노후준비

노후생활에 있어서는 이미 과거의 직업적 영향, 거주지 외에 미리 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구입해 놓은 것 등 전반적으로 준비상태는 좋다고 사료된다. 놀라운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하여 자필로 유언장을 써 놓았고 이미 변호사와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 및 상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딸만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조그만 거 아파트 있는 거 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고 여윌돈 있는 거 세 애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자필증서 유언장에 썼어... 중략... 그 다음에 왔더니 여자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그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 서 효력이 있는 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라고 자세하게 그 여자 변호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4	5	6	7 ~ 7:30	8 ~ 9	10 ~ 11	12	13 ~ 14	15 ~ 17	18	19 ~ 22	23 ~ 24
행동	취침	기상	신문 읽기	식사		물리치료, 프로그램	식사	프로그램 예배 등	TV시청, 신문, 집안일	식사	TV시청	취침
공간	집					병원, 복지관(월, 수, 목) or 교회(화, 금)			집			
사람			혼자	남편		프로그램 참여자들			혼자	남편		혼자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80세의 여성, 수원토박이, 교직생활 40년, 경제적 여유(공무원연금, 세 주는 아파트)</li> <li>- 낙상으로 갈비뼈 3개가 금이 간 상태. 다지기 전에는 평균 1시간씩 걷기운동 했었음. 이 외에도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 질환 있음</li> <li>- 많은 사교모임이 있는데 주로 교직생활 때 같이 알고 지낸 지인들임. 과거에는 여행을 많이 다녔으나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음(연령효과)</li> </ul>											
주말 특성	- 토요일에는 노인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귀가, 일요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1~2시 귀가.											
월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달에 한 번 정도 여성진문병원과 관절관련 병원을 다님(모두 평일이며, 특정한 병원을 택하여 다님, 서울과 수원)</li> <li>- 교직생활 당시 선생님들과의 모임이 5~6개로 각 모임 당 1달에 1번 정도 만나고 있으며, 영화, 음악회, 수영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체로 평일에 함</li> </ul>											
비고	- 미리 재산분배 등에 관한 유언장을 쓰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 상태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미매를 준비하고 있음											

## 2. 유형 ②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17은 만 81세(1932년생)의 여성으로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며,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였다.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는데, 아들은 17~18년 전에 사망하였다. 아들에게서 난 손자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오다가 현재는 손자가 대학교 입학 후 가끔 방문을 하고 있다. 손자와 함께 산 것은 아들 사망 후 며느리가 손자를 맡기고 떠나버린 후부터이며, 학력은 무학(글씨를 쓸 줄 모름)이고, 과거에는 사무실 청소 등 단순노무업종에서 주로 일하였다.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6~7시에 기상을 한 후 아침식사를 하고 빨래 등 집안일을 하거나 집 근처에서 간단한 운동 내지는 산책을 한다. 보통은 그 후 복지관 개관시간에 맞춰 복지관에 나와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복지관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주로 운동과 관련된 활동(자전거, 런닝머신, 다리.팔운동기기, 건강체조, 단전호흡 등)들을 하다가(결혼식, 장례식, 물리치료 등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복지관에 오지 않음) 늦어도 15시 30분이면 집으로 간다. 이후 귀가하여 취침 전까지 TV시청을 하거나 종종 가정예배를 혼자 드리곤 한다. 보통 22시경에 누워 자려고 하나 잠이 잘 오지 않아 새벽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적도 제법 있었으나 최근에는 먹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낮에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4시간 자면 잘 잤다고 생각하고 있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요일에는 예배, 성경공부 등 교회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귀가를 한다. 교회는 사망한 아들이 군대를 간 후부터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 토요일에는 오전에 복지관에

갔다 점심식사 후 집으로 귀가를 한다. 과거에는 수요일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자주 드렸으나, 1~2년 전 무릎 수술 후 자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주일에 1~2번 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으며,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종종 안과를 방문하고 있고, 한 달에 한번 단지 내 노인정에서 진행되는 월례회에 참석한다(점심식사 포함). 한편 복지관 근처로 이사를 온 후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교회에서의 활동은 축소되었다. 그 밖에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일정이 생길 경우 참석한다. 연구참여자17은 본인의 죽음에 대해 아프거나 병원신세지지 말고 편안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손자가 잘 살게 되고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17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과거에 신청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손자가 초등학교에 전학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 및 학교 선생님을 통해 전학서류를 준비하다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수급자로 생활을 하다가 손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규정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이 2종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내가 한번 병원에 가면 수급자 될 땐 돈을 안 받잖아요. 근데 돈을 받더라고.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2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어요. 어찌가지고 2급이 됐지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도 더 없는데.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만일 간 대학교를 가도 2급이 된다고. 대학교를 가도 2급이 되고, 안 가도 2급이 되고. 딱 2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중략... 그렇지만 어떻게요. 아파서 갔으면 할 수 없지요.

또한 손자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빚을 내서 입학금을 마련하였고, 아직 갚아가는 중이며, 결국 재정적인 문제로 1학기를 다니고 휴학을 한 상태로 군 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1학기 다니고 애가 지가 도저히 못 땡기고. 그것도 등록금 들어가는 거 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땡기는 것도 그만치 드가야 되요. 도저히 지도 못 땡기고 나도 못 땡기니까 1학기를 겨우겨우 하다가 휴학계를 냈더라고요, 방학 때 '할머니 휴학계 냈어요. 도저히 나중에 내가 벌어가지고 배우던 지 못 배우던지 할 수 없다고. 나도 잘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못해대니까... 중략... 영장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나오면 바로 가겠네). 그렇지요. 생활하는 게 내가 얼른 군대나 그라 니 없으면 그래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니 없으면 밥만 해 먹고도 아무것도 안 사먹어도 된다. 이랬는데.

연구참여자17은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이것이 다른 부분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생계유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아파트 임대료 절감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용자를 받았고, 현재 월 75,000원의 이자와 임대료 약 10만원, 관리비 약 7~8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약 50만원 정도의 생활비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수급자 자격과 관련하여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본인보다 잘 사는 사람이 의료급여가 1종인 것에 대한 불만, 급여대상조사의 미흡성 등 정부의 정책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구참여자17은 별도의 노후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내가 그러면서 딴 사람들 누가 내가 이런 소리해서도 안 되지만 문 앞에 아들 손자들이 자가용 갖다 대 놓고, 명절 때 데려가고 데려다 주는 이들도 다 1급으로 되어 있고, 아무리 국가에서 지금 뉴스에 들어보면 다 잘한다고 다 세세히 조사한다고 그래도 아직 내 보기는 조사가 옳게 안 된 것 같다고. 아무래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17은 1~2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으며, 한쪽 다리를 뺀고 있어야 하는 상태이다. 수술한 다리와 관련하여 1년에 2번 정도 병원에 방문하고 있으며, 아침에 산책을 비롯하여 주로 운동과 관련된 복지관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 아프던 건 덜한데 아무래도 뻣뻣한 게. 앉으면 이렇게 바닥에 앉으면 다리를 뺀고 앉아야 하고...중략... 병원에서는 운동을 하라고. 자꾸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지요. 여기 와서도 4층에 가면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자건거도 조금, 앉은 자전거 그것도 조금 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조만큼 조만큼 해서.

다리 이외에도 일주일에 1번 정도 병원을 가고 있으며(증상이 심하면 3~4번), 물리치료, 안구건조증 등으로 인해 정형외과와 안과를 가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관에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혈압약, 골다공증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며,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 중 3점인 '보통' 수준으로 느끼고 있으며, 신망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랑 해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래도 아픈 데가 있지만 그래도 여 더 아프다고 찢룩찢룩하고 힘들어 하는 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난 그래도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죠. 만날 감사해요...중략... 그렇지. 내일 것까지 달라고 하지도 않고.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하루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 라. 사회참여 및 관계적 특성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는 장소가 복지관과 교회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있는 지인들과 교회 성도가 연구참여자17의 인간관계 및 사회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복지관에서의 인간관계는 두루두루 친하며, 그 중에 7~8명의 아주 친한 지인들이 있다. 이사를 하기 전에는 교회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활동이 많았으나, 복지관 근처로 이사 후 복지관에 자주 오고 있다. 한편, 본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는 하지만 다른 수급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등록해 놓고 먼데 있을 때는 잘 안 왔어요. 처음에는 운동한다고 열심히 왔었는데...중략... 여 가깝게 와서 이제는 늦어도 올 수 있으면 오고.

내 성격이 그 누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안 하고. 또 미운 사람도 없고 그냥 두루두루 그렇게 해요. 죽기 살기로 친한 사람은 없어도 그래도 친한 친구는 많아요. 우리 먼저 동갑네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중략... 그러는데 난 신경 안 쓰고, 수급자들 모여 있으면 자기네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난 그런 거 떠들기 싫어가지고, 그런데는 잘, 그런 이야기는 여기 와서 잘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하지도 않아. 내가 그리 사는 건 다 알지만 그런데 대해서는 나도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자기네도 그런 이야기 안 하고.

한편, 지인들이 표를 구해줘 몇 번 영화를 보러간 경험은 있으나 스스로 표를 구하는 등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며, 주변의 지인들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하고 싶은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여유롭기를 바라고 있다.

하고 싶은 것도 이제는 없어 별로. 언제 적에 누가 저거 해가지고 내가 극장은 한 두어 번 가 봤어요. 누가 표를 쥐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친구들은 그런데도 안 가요. 아무데도 안 가고 여기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인제 하고 싶은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생활이나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남들 하고 좀 같이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놀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맘대로 되나요.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5	6 ~ 7	8	9 ~ 11	12	13 ~ 15:30	16 ~ 18	19 ~ 21	22 ~ 24
행동	취침	기상	식사, 산책, 운동, 빨래	운동, 담소, 프로그램 (주로운동)	식사	운동, 담소 프로그램 (주로운동)		TV 시청 (뉴스, 드라마, 기독교 방송) 가정예배(중중)	취침
공간	집	집	집 근처 or 집		복지관			집	
사람		혼자			복지관 친구, 혼자			혼자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81세 여성으로 남편과는 이혼하였으며, 과거에 사무실 청소 등 저임금 노동을 하였고, 전형적인 유형 2에 해당함</li> <li>- 1남 3녀 중 아들(오래 전 사망)의 손자와 함께 오랜 기간 지낸 경험이 있음(아들 사망 후 며느리가 맡았음). 손자가 대학교 입학 후 수급자 자격이 하향되었음</li> <li>- 의료비, 손자학비(빚, 갚고 있는 중), 식비, 주거를 위한 용자비(이자포함), 아파트 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특히 관리비)</li> <li>-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영위하고 있음</li> <li>- 교회사람, 복지관 친구 등 두루두루 사이가 좋음</li> </ul>								
주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요일에만 교회에 감(교회에서 꽤 오랜 시간 보냄)</li> <li>- 토요일에는 오전에 복지관 갔다가 점심식사 후 귀가</li> </ul>								
월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주일에 1~2번 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려 감</li> <li>- 그 밖에 종종 안과 방문(안구건조증)</li> <li>- 1달에 1번 추가단지 내 월례회 참석(노인정)</li> </ul>								
연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에 2번 병원(2년 전 무릎수술, 인공관절)</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인 일(결혼, 장례 등)이 있을 때에는 유용적으로 시간활용(예: 복지관에 있는 시간)</li> <li>- 잠을 잘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잘 못지 않음(마다 안 마다 반박), 10시쯤에 자리에 누움. 잠을 잘 자지 못해 낮에 피곤함</li> <li>- 금요일에 구역예배 있을 시 종종 참석하고 가끔 수요예배 참석(다리수술 후 잘 가지 못함)</li> <li>- 복지관 근처로 이사 후 복지관 이용횟수 증대</li> <li>- 혈압약, 골다공증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등 여러 약 복용 중</li> </ul>								

### 3. 유형 ③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18은 만 83세(1930년생)의 남성으로 이북이 고향이나 6.25 전쟁 때 월남을 하였다. 현재 배우자와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과거 시멘트 업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였고, 배우자는 의류업계에서 일을 하였으며, 현재도 가끔 일손 도우러 의류 쪽 일을 하곤 한다. 슬하에 3형제가 있으며, 종종 집으로 찾아온다. 특히 과거 북한에서 살 때에는 일본에 유학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이었고, 지주들만 배울 수 있는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하였다.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5시~5시 30분에 기상을 한 후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뉴스를 보고 아침식사를 한 후 9시경에 복지관에 나온다. 복지관에 나오기 전에는 가끔 새벽기도를 나가기도 한다. 복지관에 나오면 점심식사를 포함하여 오후 4시정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 언어프로그램(한문, 일어회화, 중국어, 영어)이다. 특이점은 배움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고, 2개의 복지관(0000노인종합복지관, 00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언어프로그램에 참석한다는 것이다(1개 기관 화금 참여, 월수목은 다른 기관 프로그램 참여). 배움에 대한 욕구는 과거 월남을 하면서 학업이 중단되어 고등학교만 졸업한 것에 대한 한이 있고 그 밖에도 과거 근로활동을 할 때 일본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글씨를 쓰지 못했던 기억, 배움 자체를 좋아함과 동시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는 장점 등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연구참여자18은 외국어에 대한 공부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복지관 지인들과 간단히 담소를 나누고 집으로 귀가한다. 집에 도착해서도 복습과 예

습, 글씨 연습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배우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저녁식사 후에는 취침 전까지 TV를 시청하고, 배우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이 넘어서 잠을 잔다.

토요일에는 복지관에 나와 책을 보거나 글씨 연습을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경로당에 간다. 경로당에서는 주로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로당에 가는데, 본인의 일정이 많아 교회에서 활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과가 평상적이라면, 특정한 활동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지관 지인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별도의 사교모임이 여럿 있어 각 모임에서 활동을 한다. 사교모임은 고향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모임, 면민회 등 다채로우며, 일주일에 한번,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등 정기적으로 만나며 주로 주말에 한다.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며, 자녀들에게도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라고 하며 자녀들에게 마음쓰지 않게 하려고 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즐기고 영위하려고 한다. 그 이면에는 연구참여자18의 활동적 성향이 깔려 있다. 한편,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과거에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인식이 없었다는 것에 허무함을 느끼기도 한다. 죽음에 대해서는 남은 여생동안 지금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편하게 맞이하고 싶어 한다.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18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료로 월 1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보증금 3천만원). 6.25참전용사였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월 12만원 정도 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 인터뷰 시 월

30만원 정도 급여(총계)를 받고 있다고 했으나,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또한 비정기적이나 첫째 자녀로부터 10~15만원 정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생활수급자라는게 제가 6·25 참전 용사니까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보훈처에서 나오는 게 12만원인가 그리 될 거고. 구청에서 나오는 게 한 20만 원쯤 나오는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30만원(월) 돈 나올 거예요...중략... 지금 용돈을 안 받는다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애들이 지금 손자, 손녀 애들이 다 대학생입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애들 대학 보내려면 금년에 큰 손녀가 졸업하게 되는데, 학비 대기도 힘들잖아요, 실상. 내가 가능하면 생활이 도움을 안 받고 그냥 힘이 들더라도 억지로 그럴라고 하는데. 조금씩은 보내와요. 둘은 받은 형편이 못 되고 한 놈이 돈 10만원 15만원씩 보내주고 그래요. 첫째가 보내요.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18은 음주 후 낙상으로 인해 뇌졸중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는 약 70%만 기억을 한다고 한다. 당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연구참여자18이 절대적으로 거절하였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약을 타 7년째 복용하고 있다(병원에서는 20년 복용 판정). 보행은 가능하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뇌졸중으로 인해 보행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안과와 정형외과를 다닌다. 안과는 1~2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한 것 때문에 가고 있으며, 정형외과는 손과 팔, 다리가 불편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다(약 수령포함). 단, 일정을 잡아주는 뇌졸중 관련 병원을 제외하면, 복지관 프로그램 시간대에는 절대 병원에 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신장이 좋지 않고, 상해 2급에 청각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특이점은 2007~2009년까지 요양원에서 지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뇌 다쳤어요. 술 먹고 넘어져서 굴러가지고 뇌를 다쳤는데 그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병원에서 한 3개월 입원했는데, 손발을 묶고 있었죠. 나한테 칼 대지 말라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거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10일 동안 안정취하고 안정된 후에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10일 후에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약을 한 20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약을 무슨 20년 동안, 2년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20년이나 했더니 지금 7년 됐습니다. 제가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뇌졸중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가 신경이 좀 뒤틀리게 되면 주저 앉게 되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 앉았다가 일어나서 다시 걷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과는 제가 손을, 팔을 제대로 못 써요. 이걸 X-ray 찍으면 이상이 없다는 건데, 물리치료 주로 하고 약 먹고 하는데.

요양원에 있는 것이 지금 13년이나 2009년. 아니지. 2007년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2009년 정도에 나왔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소식을 주로 하고 있으며, 많은 수술과 신체적 불편함 등 객관적으로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병원에 심장이 나쁘다고 해서 20일 입원했는데 한 병실에 6사람이 입원했는데, 내가 나이 제일 많아요. 70대 한 사람, 60대가 한 사람, 50대가 두 사람. 50대는 우리 애들보다도 젊더라고. 거기서도 그래요. 나보고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냐고 그래요. 70대 입원한 사람도 비리비리해요. 그런데 내가 제일 빠릿빠릿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물도 떠다주고 했어요.

## 라. 사회참여 및 관계적 특성

자녀들은 자주 찾아오는 편이며, 병원을 가거나 할 때에도 함께 움직이는 편이다. 손자들이 군대에 있을 때에는 명절 때 모이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제대하여 올해부터 모일 예정이다.

손자들 군대 가고, 손자들 셋이 군대 가고, 지금은 제대해서 학교에 다니고 하는데, 추석날에는 모이게 될 거예요. 한동안 안 모였어요. 오는 건 자주 와요. 내가 병원을 같이 가면 차를 가지고 오고, 며느리 같이 오고, 손녀도. 나는 삼형제기 때문에 딸이 없기 때문에 손녀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손녀가 지금 둘이 있고, 손자가 셋인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교적이고 매우 활동적이다. 복지관에서는 사람들에게 사탕 선물을 종종 하여 '사탕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복지관 지인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보러 간다. 또한 각종 사교모임과 경로당 활동 등 낮에는 집에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특히 사교모임은 과거 북한에 있을 때의 지인들과의 모임이 많은데, 그 중 '면민회' 모임은 자녀세대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모임을 존속하게 하려고 한다. 그 밖에 사교모임은 주로 고향친구들,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경로당은 주말에 가는데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컴퓨터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이 복지관에서 내 사탕 할아버지로 통하는데, 내가 일부러 싸가지고 사탕을 다섯 개씩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성의껏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라고.

그게 이제 우리 고향에 군민회나 면민회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고향이 군이었는데, 시가 되었답니다. 시민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2세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지금 52살이거든요. 35살에 낳았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환갑된 애들도 있어요. 주로 저는 가죠. 저는 모임에 주로 빠지질 않아요. 제가 선언을 했어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고향 모임에는 무조건 안 빠진다. 선언했어요.

토요일 날은 특히 조용하고 좋아요(복지관).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에서 책보고 글도 좀 쓰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제가 주로 가는 건 집에는 안 가니까. 경로당에 갑니다. 경로당에 가가지고 친구들과하고 또 놀고. 저는 주로 거기 가면 컴퓨터 가지고 장기 안 하고.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1 ~ 4	5 ~ 5:30	6 ~ 8	9 ~ 11	12	13 ~ 15	16 ~ 23	24
행동	취침	기상	산책, 뉴스, 식사 세벌기도(가끔)	프로그램 수강 (주로 외국어)	식사	프로그램 수강 (주로 외국어)	복지관 외국어 수업 복습 및 예습, TV 시청(뉴스, 연속극), 식사, 사모님과 담소	취침
공간	집	집	집	복지관	복지관	복지관	집	
사람	배우자	혼자, 배우자(식사)	혼자, 배우자(식사)	배우자	복지관 지인	배우자	혼자, 배우자(식사, 취침)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83세 남성으로 6.25때 남한으로 넘어왔으며(북한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좋았음), 배우자(79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슬하에 3형제가 있음(첫째가 10~15만원씩 종종 보내줌), 손녀 2명, 손자 3명 있으며, 자녀와의 왕래는 자주 있음</li> <li>- 배우자는 자인의 의류 일을 돕고 있음(용돈 버는 수준)</li> <li>- 과거 시멘트업체에서 오랜 기간 일하였음(지위는 높은 편)</li> <li>- 뇌졸중, 상해2급, 백내장수술, 위장병 수술, 신장이 나쁨, 청각 5급 장애 등 건강상태 미흡(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등 걸음이 불편하나,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2007~2009년까지 요양원에 있었음</li> <li>- 2개 복지관(응산, 상동)을 다니며 프로그램 수강(외국어: 일본어, 영어)하고 있으며, 배우의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큼(6.25로 인해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한')</li> <li>- 매우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복지관에서는 사랑할아버지로 불림), 본인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li> <li>- 토요일에 복지관 가서 취미보고 공부하고 점심식사 후 경로당에서 지인들 만남(마둑, 화투, 컴퓨터 게임 등)</li> <li>- 일요일에 교회에 갔다가(예배만 드림) 주로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냄</li> <li>- 토요일에 1번 만나는 교향친구 있음(주로 남산에 감)</li> <li>- 1달에 한 번 뇌졸중 관련 병원 방문(약 타기, 검진, 약은 7년째 복용)</li> <li>- 1달에 한 번 경로 극장에서 영화를 봄(복지관 일과 후 또는 주말, 복지관 지인들과 함께)</li> <li>- 1년에 1번 정도 면회 모임이 있음(자녀들과 함께)</li> <li>- 2달에 1번 정도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이 있음(주말)</li> <li>- 외과(몰리치료), 안과(백내장) 방문, 특히 병원은 복지관 일정 끝난 후 방문(뇌졸중으로 인해 중양의료원 가는 경우는 별도의 일정을 병원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제외)</li> <li>- 낮에는 집에 거의 없음</li> </ul>							
주말 특성								
월별 특성								
연 특성								
비고								

#### 4. 유형 ④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19의 첫 인상 및 풍기는 이미지는 삶에 대한 만족스러운 모습이었고 실제 삶에 대해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연구참여자19의 신앙적 특성의 영향이 컸다. 연구참여자19는 배우자의 여동생이 과거 결혼한 지 1년 만에 돌아와 자신의 가정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했고, 이를 지켜본 바깥채에 거주하던 다른 가정 여성의 권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19는 만 83세(1930년생)의 여성으로 26살에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한 배우자는 이미 1남 3녀가 있었던 유부남이었다. 당시 연구참여자19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과의 결혼이 싫었지만, 6.25 전쟁 시기와 맞물려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찾지 못하였고, 군인·경찰과의 결혼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중매 자리에 나갔고, 그 만남에서 시작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당시 배우자는 전력회사(00)에서 근무를 하였고, 대우도 좋았지만 식구가 많아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학력은 초졸이며, 연구참여자19 역시 전력회사(00)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 후 퇴사를 하였고, 배우자는 4년 전에 사망하였다. 슬하에는 1남 2녀(기존 배우자의 자녀 포함시 2남 5녀)를 두었으며, 전처의 자녀들은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 낳은 자녀 중 막내딸은 파주에서 지내고 현재 아들네 가정과 첫째 딸과 함께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첫째 딸은 결혼 후 6개월 만에 파혼하고 유학을 갔다가 실패하고 연구참여자19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음).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월~토요일까지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집에서 혼자 가정에배를 드리고,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간다. 7시 10분쯤 귀가하여

7시 30분에 가족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요즘에는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 가서 매일 1시간 정도 침을 맞고 있다(9시~9시 10분 출발). 한의원 방문 후 11시 정도에 귀가를 하여 집에서 뉴스를 보고 점심식사를 하곤 한다. 복지관에는 자주 오는 편은 아니고, 어쩌다가 집에 식사거리가 없는 경우 식사를 하러 나오기는 한다. 물론 그 밖에도 동네 근처의 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점심식사 후 교대 운동장을 비롯하여 동네산책을 자주하고, 집에 14시쯤에 들어와 TV를 보거나 낮잠을 청하기도 한다. 이후 오후 16시 즈음에 동네에 나와 동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19시쯤에 저녁식사를 하고 21시 30분~22시에 취침하기 전까지 산책과 TV시청으로 시간을 보낸다. 최근에는 신경성으로 인한 어지러움증 때문에 동네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은 자주하지는 못했었다.(재산관련 소송 등).

한편 교회규모가 크지 않아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구역예배를 드리기도 하며,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10시 30분 정도에 출발하여 집에 14시 30분쯤에 귀가를 하고, 토요일에는 새벽기도 후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복지관에서의 활동(발마사지, 종이접기, 일어, 화장품 만들기 등)을 제법 하였으나, 현재는 이미용을 할 때나 가끔 점심식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리가 아파 찜질을 받으러 다니고, 자녀들과의 재산관련 소송문제 등 신경을 써야할 일들이 발생하면서 자주는 나가지 않고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참여자19는 정부의 복지는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어야 하지 무조건 나이만 따져서 혜택을 주거나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특이점은 복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맥락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진행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본인이 심하게 아플 때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은 신앙적으로 기쁠 곳도 있고, 돈 나올 곳도 있지만 타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관심을 나타냈다.

## 나. 경제적 특성

연구참여자19와 그의 배우자는 둘 다 전력회사(00)에서 근무를 하였다. 배우자는 정년은퇴를 하였는데, 노후소득으로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5층 규모의 건물로 (지층포함), 지층과 1층은 음식점으로 세를 주고 있고, 2층에서 가족들과 거주, 3층은 전세, 4층은 월세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들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과거에는 동 건물에서 따로따로 살았으나, 배우자 사망 후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세와 벌금 약 2억여 원을 지불하고 자녀들의 가정과 합쳤다(해당금액은 3층에 전세를 주어 보증금으로 지불). 배우자 사망 후 전 부인의 자녀들과 재산에 대한 소송문제가 발생하였고, 많은 비용발생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현재 빚이 있는 상태이다.

사는 그 집에서 아래층이 가게예요, 식당. 그 식당에서 조금 나오는 거야. 임대료 나오는 거 가지고 여섯 식구 애들 가르치면서 근근이 살아요. 머느리도 수입이 없고, 아들도 수입이 없어요. 둘 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 이렇게 네 사람이 따로따로 살았는데, 3층에 살고, 우린 2층에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신고를 세무서에서 안했다고 해서 상속세가 무려 2억 얼마가 나왔더라고. 거기다가 벌금까지 물리는 거야. 그래서 세금까지 물려서 할 수 없이 2억 5천에다 3층을 주고 그거 가지고서 냈어요. 그리고는 합쳤어요.

(빛도 그림 꽤 되시는 거예요?) 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 사람들이 아버지 유류분 달라고 심판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큰 딸들이. 아들하고.

#### 다. 건강상태 특성

연구참여자19는 연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면접 당시 수당지급서류 작성 때 돋보기를 쓰지 않거나 보행 역시 계단을 운동삼아 활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본인 역시 건강상태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상태였다. 허리가 아파 과거에는 찜질을 받으러 다니다가 신경성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으로 찜질을 그만 받고 약 한 달 전부터 매일 침을 맞고 있는데,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움직여야 소화도 되고, 다리도 움직여야 확실히 좋더라고요. 내가 무릎도 수술, 남들 같으면 수술하라 그럴 건데 난 안했잖아요. 아파도 그냥 참고 지금 그래서 약 먹고 그러고서 무릎도 땀길만 하고요. 괜찮아요. 허리도 괜찮고. 자꾸 날 보고 젊었다고 하고 그래요...중략... 내 건강은 내가 생각해도 참 좋다. 좋은 게 내가 재주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믿음을 주시고...

침도 너무 오래 맞으면 안 되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서 일주일에 심심풀이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은 허리가 아파 침을 맞으러 가는 한의원 뿐이며, 혈압, 고지혈증, 당뇨, 콜레스테롤 등과 관련된 약을 타러 2달에 1번 정도 병원을 가곤 한다. 특히 당뇨와 관련된 증상은 나아지고 있어 관련약은 현재 복용하지 않고 있다.

당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당약은 내가 요새 피했어요.

## 라. 사회참여 및 관계적 특성

연구참여자19는 배우자의 전 부인의 자녀들과의 재산관련 소송문제를 겪었고, 자녀들끼리도 왕래가 있거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여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점차적으로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언제 같지 모르는데, 내가 아직 일 할 것이 남았나보다. 그래도 내가 죽을 때 너희들하고 화해하고 보고 싶었다. 한 마디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전화를 했더니 놀래가지고 울더라고. 엄마 고마움을 알았다고. 전화는 왔다갔다해요. 아직 얼굴만 못 봤지. 셋째 딸은 식구들이 다 왔다가고.

한편, 문화여가활동 등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모든 생활이 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향 자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생활의 초점이 신앙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유형1이나 2처럼 별도의 사교모임 내지는 복지관에서의 적극적 활동 등은 보이지 않고, 새벽기도·가정예배 등 본인의 신앙생활과 소속된 교회와 관련된 활동만 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활동 역시 이사를 하고 교회를 옮긴 후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던 이전 교회의 지인들과는 자주 연락을 할 뿐 함께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새로 옮긴 교회사람들과는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왕래를 하기도 한다.

제가 나이도 나이지만, 배운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설득하거나 그런 건 없고. 오직 나는 신앙으로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여가 활동은 이 복지관 이외에는 할 수가 없고, 우선은 나이 먹으니까 나 관리...중략...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사실은 원래 멍기던 오래 영감님하고 다니던 교회는 서대문에 있어요. 집을 열로 짓고. 그래서 이사 오게 돼서 그래도 본 교회니까 멍기다가 나이도 자꾸 먹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나가겠다. 그것도 내가 나가는 교회가 우리 지하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중략...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 교회 사람이 많죠. 많은데 지금도 전화로 가끔 통화해요.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나이가 내 또래 되니까. 눈도 이상 있어서 눈도 수술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더 나빠요. 걸음도 못 걷고.

(현재 다니는 교회사람들과) 그러니까 활동은 어저께도 같이 왔죠. 내가 전도한 이가 와서...중략...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54kg 나가던 사람이 45kg이 되니 몸이 줄었잖아요. 그러는 이가 옷이 커요...중략...그러고는 그냥 큰 옷 다 썼죠. 겨울옷 썼더니 입어보더니, 여름옷도. 딱 맞는다고 좋아서.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3	4	5 ~ 6	7 ~ 8	9 ~ 10	11	12 ~ 13	14 ~ 15	16	17 ~ 18	19	20 ~ 21	22 ~ 24
행동	취침	기상	가정예배, 새벽기도	식사 후 시간보내기	침 맞기	뉴스 시청	점심식사 산책	TV시청 낮잠	산책 담소		식사	TV시청 산책	취침
공간	집		집, 교회	집	한의원	집	집, 복지관, 동네식당	집	동네		집	동네	집
사람	혼자		혼자	가족	혼자	혼자	가족 or 혼자	혼자	혼자 or 주민		가족	혼자 or 가족	혼자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83세의 여성, 남편은 전처와 자녀가 있었음. 4년 전 배우자 사망 후 최근까지 전처의 자녀들과 재산관련 법적 소송을 해 왔음. 과거에는 복지관 활동을 많이 하였으나, 최근의 소송진으로 인하여 잘 다니지 않게 됨(이미용 서비스나 가끔 점심식사만 하는 정도)</li> <li>-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이사 후 교회를 옮겼고 친한 지인들은 이전 교회에 있으나 이사 후 연락만 하고 만나지는 못하는 상태</li> <li>- 매주 수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림(수요예배)</li> <li>- 4층 건물 소유에 음식집, 가정집 등에 세를 주고 살아가는 여유로운 가정</li> <li>- 건강상태는 언평대에 비해 좋은 상태</li> <li>- 문화여가활동 등에 큰 관심은 없으며, 현재 속한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전부</li> </ul>												
주말 특성	-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고 토요일은 새벽기도 후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음												
월별 특성	- 한의원 외에 2달에 1번 정도 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에 관련된 약을 구입하러 병원에 감												
비고	-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5. 유형 ⑤

### 가. 일반 특성

연구참여자20은 만79세(1934년생)<sup>25)</sup> 여성으로 학력은 무학이며 배우자는 60세 이전에 암으로 사망하였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은 폐질환으로 인해 호흡기를 차고 힘겹게 지내고 있다. 과거에는 식당 주방에서 20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으며, 환갑 넘어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가지고 집을 구할 자금을 일정부분 마련했다. 퇴사 후 장사를 했다가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경험도 있다. 현재는 보증금 있는 월세 주택에 애완견 1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20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기초노령연금 수급)과 동시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보통 5~7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일어나면 지팡이를 들고 집 근처를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 아침식사를 한다. 식사는 아침 겸 점심으로 하는데, 복지관에서 배달하여 주는 도시락으로 주로 해결한다. 한 번 배달되는 도시락으로 아침 겸 점심과 저녁을 해결한다. 식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특별한 일정 없이 매일 반복된 패턴을 보이는데, 주로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심심할 때 집 앞의 채소가게에 들려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는 것이 생활의 전부이다. 저녁식사 후 역시 TV를 시청하고, 22시 정도에 누워 잠을 청하기는 하나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한다.

주말의 시간활용도 평일과 다르지 않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

25) 동 사례는 본 연구에서 기준이 되는 만 80세 이상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등의 생애주기적 전환과 같은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변화들이 79세와 80세의 1세 차이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80대의 사례로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를 드리고 오후 1시경에 귀가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일과 같이 주로 TV시청 등 무료한 일상을 보낸다. 그나마 다른 일정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말벗, 글자교육)를 하는 1명이 금요일에 방문하는 것과 돌봄선생님 1명이 종종 집으로 찾아오는 것, 1~2달에 한 번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본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이제는 그만 살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하며, 편안하게 호상으로 갚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장례비 드는 것이 아까워 장기기증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 나. 경제적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노령연금 포함), 장애수당을 합쳐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급여는 40만원 안쪽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약 3년 전부터 자격이 부여되었고, 그 전에는 박스를 줌과 지냈다. 예전에 살던 집은 전세로 살았으나, 기간 완료 후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정부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5~6만원 남는 돈 가지고 힘겹게 생활을 하며, 의식주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그거 한 3년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박스 줌, 그래가지고 조금씩 보태 먹었죠. 저쪽에 있을 때는 용자 내가지고 3,000만원에 전세 썼거든요. 그런데 월세 넣는다고 나가라카더라구요. 그래서 나온거야. 월세요? 여기서 쪼개서 내는 거지요. 한 40만원 돈 되잖아요. 한 6만원이나 5만원 남는 걸로 생활하죠. 고거 쓰는 거여. 쪼개쪼개서. 그래서 도시락 이거 신청했잖아...중략... 먹고 싶은 거 못 사먹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못 사먹고. 만날 그거죠. 돈 없으니까. 돈 있으면 옷도 좀 이쁜 거 사 보고 싶고 그런 것 좀 해 보고 싶고. 나야 누구 옷 주면 입고, 딴 사람 옷 주면 그냥 입고. 여기 2층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거서 옷을 두 벌을 가져왔어요. 병원비는 안 나가지만은 전기세다, 물세다.

그렇다고 자녀들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아들가족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딸 가족은 사위가 일을 하기는 하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지내고 있다.

우리 사위도 건설현장 다니는데, 일거리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고 그러는데. 돈 못 벌어요.

#### 다. 건강상태 특성

집에서 낙상하여 약 7년 전에 골반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수당을 받게 되었다.

여기 쑥 들어갔잖아요. 인공뼈 넣었어요. 겁난다고 병원에서 할머니 연세가 많아서 수술 안한데. 겁난다고 한 개 넣었어요. 인공뼈. 두 개 넣어야 되는데.

또한 수술로 인한 약과 혈압, 증풍, 어깨통증, 감기, 수면제 등 많은 약을 복용중이며, 현재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이미 한 쪽 눈은 실명 상태이다. 눈이 실명된 것은 30대 때 동네 아이가 쓴 새충에 눈을 맞아서이고, 치료비를 받으려 했으나, 배우자가 당시 다른 여성을 만나느라 생활비를 다 써 버리는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술 대신 쌀가마니로 대체하였다.

이거는 한 30대 돼서 시골서 어떤 애가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아지매, 아지매 나 좀 봐.’ 이래카니. 아니 정월 초구나. 정월 초하룻날 ‘아지매, 아지매 나 좀 봐.’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새충. 그걸로 맞아가지고 피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큰 병원에 가라고 00병원에 가서 하니까네 고칠 수 있는데 우리 영감이 바람 피워가지고 돈 다 없애고. 그래서 못 고쳤어요. 치료비를 준다카더

라고. 그래 살 한 열가마니 받아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영감쟁이가. 내가 시방 얼마나 후회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 때 없이 살았거든요.

관절주사를 맞고 있으며, 어깨수술도 해야 하나 돈이 부담되고 약은 무료이기 때문에 약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며 3개월에 1번씩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고 있다. 그 밖에 혈압약 등 각종 약을 처방받으러 1달에 1번 정도 병원에 방문을 한다. 현재 배가 자주 부어오르고 있어 내시경을 하고자 하나 마취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마취없이 진료를 받을 생각도 하고 있다. 한편,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동년배와 비교 시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에 이상하게 입도 타고, 물을 자주 먹어도 그래서 한 번 내시경이나 해볼까 하고. 배도 자주 부어오르니까는...중략... 마취하면 돈 받아요. 나 작년엔, 재작년에 했는데 마취 한 번 맞았는데 돈 4만원 줬어요. 그거 값은 내야 한데요. 돈 아깝잖아, 4만원씩.

(어르신들 연령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그 분들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딴 사람들은 다 건강해가지고 잘 쫓아 멩겨요.

## 라. 사회참여 및 관계적 특성

가족들만 먼저 살펴보면, 슬하에 있는 1남1녀 중 아들은 폐질환이 심각하고 며느리 역시 갑상선 문제로 아픈 상황이다. 딸은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 아들과는 전화통화로 소식을 전하고, 딸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집으로 찾아온다.

폐가 안 좋아가지고, 약 지어다 먹고, 호흡기까지 차고 숨이 찰어. 일도 못해요. 머느리도 아프지.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그건 고치지도 못한데요. 수술도 못 받고...중략... 전화는 가끔 오죠. 아들이. 딸내미도 지가 살기 어려우니까는 자주 못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가 그냥 들여다보고 가버리는 거야.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부족하다. 최근에 이사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집 앞의 채소가게에 가서 잠깐 담소를 나누는 것이 전부이며, 이사하기 전에는 복지관에 나가기도 하였지만,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사로 인해 복지관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복지관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는 매우 협소하다. 연구참여자20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인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말벗, 글자 교육)로 오는 1명과 돌봄선생님 1명 총 2명이 전부이며, 돌봄선생님을 통해 2012년 4월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나 별도의 교회활동은 집으로 찾아오는 구역예배를 제외하고는 없다.

없어요. 채소가게 가서 쪼까 앉았다 오고. 자기네들끼리 뭐. 복지관은 거기 있을 때 자주 갔어요. 걸음을 못 걸어가니까...중략... 금요일날 한 번 오시거든요. 나 말벗해주러. 글씨도 공부도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중략... 그냥 나 머시랄까 치매 올까봐 말벗하고(돌봄선생님). 저한테 잘해요. 그래서 교회 따라 땡기잖아요.

문화생활이나 여가 역시 특별한 것이 없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집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스스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사니께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싫고. 알보는 것 같고. 못사니까는. 제가 친구를 못 사귀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가면 그래도 같이 뭐 사먹고 이래야 하나까.

〈생활시간표 및 사례 특성 요약〉

구분	1 ~ 4	5 ~ 7	8 ~ 11	12 ~ 21	22 ~ 24
행동	취침	기상 (기상시간 대중없음)	동네 산책, TV 시청, 10시에 아침 겸 점심	TV 시청, 집 앞 채소가게 방문(답소)	취침
공간	집				
사람	혼자		혼자, 채소가게 지인		
구분	내용				
사례 특성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세 여성(만79세)으로 배우자는 암으로 사별(60세 이전)하였고, 자녀는 아들 1명(호흡기를 차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머니리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딸 1명임. 아들은 전화통화를 자주 하고 딸은 일주일에 1번 정도 방문하고 있음.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li> <li>- 과거 식당(주방)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20년 정도 했고 60세 넘어서 퇴사), 7년 정도 전에 콜반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하였고 장애수당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음(보행이 어려움), 30대 때부터 한쪽 눈은 실명상태, 혈압약, 관절주사, 어깨문제(돈이 없어 수술은 못함)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낮게 보고 있음</li> <li>-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없음. 그나마 최근에 이사를 한 집 근처 채소가게에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전부임. 이사 오기 전에는 복지관에도 자주 나갔으나 이사 후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음(보행이 어려움).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이진 집에서 진세를 월세로 돌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됨(현재 집도 월세형태). 식사는 대체적으로 하루에 2번만 먹고,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으로 해결(1개를 점심/저녁으로 나눠서 식사)</li> <li>- 기초수급자이며, 수급자가 되기 전에는 버스 줍고 생계를 유지하였음. 현재 약 8만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고 있음</li> <li>- 총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형 5에 적합하다고 판단됨</li> <li>- 삶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빨리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함(장례비가 아끼워 장기기증을 생각하고 있음)</li> </ul>				
주말 특성	-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옴(보행이 불편하여 교회차량시간에 맞추어야 함). 토요일에도 집에만 있음				
월별 특성	- 1~2달에 한 번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림 - 매달 1달치 약을 타러 정형외과에 감				
연 특성	- 3개월에 한 번씩 어깨관련 주사를 맞고 있음(정형외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형태로 가정을 방문하여 글씨를 가르치거나 말벗을 해주는 사람과 돌봄산생님 1명, 총 2명이 방문을 하고 있음(2명 모두 일주일에 1번 정도 방문)</li> <li>- 돌봄산생님으로 인해 작년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음. 강아지 1마리 키우고 있음. 수면제 복용</li> <li>- 내시경을 계획하고 있으나, 돈이 없어 마취를 하지 않고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음</li> </ul>				

### 〈부록 3〉 사례연구 관련 자료(양식)

#### 〈자료 1〉 연구 설명서 (참여자 용)

**연구주제 :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연구자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교수)**

**염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본 연구는 중·노년층이 경험하는 삶의 질에 관해 심층연구하여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1회 개별 심층 면담 (1회당 1.5시간 내외)에 의해 이루어지며, 면담내용은 녹음하여 분석에 사용될 것입니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귀하의 편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주로 귀하의 집이나 대화를 나누기에 적당한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재면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이나 해는 없을 것이며, 참여자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노년학, 사회복지 및 인구 정책 분야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연구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의 이름과 그 밖의 개인적인 정보는 익명처리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자가 분석한 후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할 것입니다. 연구 자료는 연구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진들만이 주의하여 다룰 것입니다. 본 연구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될 것이며 국내외 사회복지 및 정책 분야에 발표 및 게재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심층 면접 참여를 수락하셨더라도 언제든지 면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면접 도중 귀하는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연구에 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연구자 (이름) (전화 번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2〉 연구 참여 동의서 (참여자용)**

**연구주제 :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연구자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교수)**

**염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목적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연구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본 연구참여에 따른 장·단점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자료의 비밀성에 대해 살펴보셨습니까?	네	아니오
연구참여가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누가 자료를 다룰 지에 대해 아십니까?	네	아니오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나는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의 정보가 녹음테이프에 녹음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된 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연구참여자의 성명\_\_\_\_\_ 날짜\_\_\_\_\_ 서명\_\_\_\_\_

=====

나는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구자의 성명\_\_\_\_\_ 날짜\_\_\_\_\_ 서명\_\_\_\_\_

\*연구참여자용은 작성한 후 참여자가 소지합니다.

**〈자료 3〉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진용)**

**연구주제 :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연구자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금룡 (상명대학교 교수)**

**염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목적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연구절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본 연구참여에 따른 장·단점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자료의 비밀성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오
연구참여가 불편할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니오
누가 자료를 다룰 지에 대해 아십니까?	네	아니오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나는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의 정보가 녹음테이프에 녹음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된 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연구참여자의 성명\_\_\_\_\_날짜\_\_\_\_\_서명\_\_\_\_\_

=====

나는 동의서에 서명한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구자의 성명\_\_\_\_\_날짜\_\_\_\_\_서명\_\_\_\_\_

\*연구진용은 작성한 후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보관합니다.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판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의정확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금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원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재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중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노인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C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

